장편소설

청춘송가

남 대 현

문학예술출판사
주체101(2012)

차　　례

제 1 장

푸른 하늘 푸른 꿈

1

누구나 애타게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질 땐 기쁨과 함께 놀라움도 자못 큰 법이다. 바라던 소망이 간절했던것일수록 기쁨보다 놀라움이 크고 그 놀라움으로 하여 모든 사실이 더 의심스럽기만 한것이다.

진호도 바로 그런 심정에 휩싸여있었다.

너무나도 벅찬 환희의 충격으로 하여 그는 지금 자기가 혹시 꿈을 꾸고있거나 지나친 기대로 하여 가지게 된 어떤 착각이 아닌가싶기만 했다. 어떻게 그토록 바라던 소원이 이처럼 쉽사리 풀린단 말인가? 어떻게 그처럼 바라마지않던 숙망이 이렇게 일시에 이루어진단 말인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아니, 믿을수가 없었다.

(현옥이가 그런 결심을 다 하다니?)

그는 옆에 있는 처녀를 감히 쳐다보기조차 어려웠다. 자칫 무슨 말을 잘못하거나 고개를 얼핏 들기만 해도 이제까지의 모든 사실이 허황한 꿈으로 흩어질것 같아서였다. 발밑에 밟히는 뽀드득뽀드득 하는 눈소리조차 저어스럽기만 했다.

《왜 아무 말이 없어요. 혹시 제가 정말 그런 결심을 했을가 하고 의심하는게 아니예요?》

그랬다. 바로 그 결심에 놀라지 않을수 없는 진호였다. 그는 아직도 현옥이가 자기의 처지를 어떻게 리해하고 이런 용단을 내렸겠는가 하는것이 못내 의문스럽기만 했다.

며칠전 현지로 가게 된것이 확정된 그 순간부터 그의 머리속에는 오직 현옥이가 자기를 어떻게 보며 어떤 태도로 나올것인가 하는 이 한가지 생각뿐이였으나 그때마다 (아무렴 현옥이가 무엇때문에 나를, 그것도 사고까지 내고 현장으로 가게 된 나를 따라나선단 말인가!) 하

는 서글픈 심정에 젖어들군 했었다.
워낙 처녀들이란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이런데서는 나약해지기 쉽다고 하지 않는가! 더우기 이제 겨우 눈뜨기 시작한 자기들의 사랑임에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게 무슨 큰일이겠어요. 일을 하느라면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할수도 있는거지요. 저도 제 결심에 대해 곰곰히 따져봤어요. 저의 행동이 어떤 흥분이 아닐가 하고, 그런 행동이 도리여 동무를 괴롭히게 되지나 않을가 하고요. 그렇지만 전 저의 결심이 옳다는걸 또 이런 땔수록 응당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벌써 다 말씀드렸는걸요.》
《어머니한테?》
진호는 저도 모르게 굳어지고말았다.
《첨엔 꼭 가야 하느냐, 여기도 공장이 많은데 왜 그리 먼데로 가느냐 하시더니 마침내는 승낙하시더군요. 아마 저의 집요한 공세에 더는 견디기 어려우셨나봐요. 어머니도 이젠 우리 관계를 비슷이 짐작하시거던요.》
《…》
진호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결심을 태연한 표정으로 말할수 있는지 처녀의 대담성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현옥이의 결심이 혹시 어떤 단순한 호기심과 일시적인 충동의 발현이 아닐가 하는 의혹을 다시금 금할수 없었다.
《제가 떠나면 오빠네 집에 가계시겠다나요. 그편이 뭐 저의 시중을 들기보다 훨씬 편할거라시면서ㅡ》
(오빠?)
그제야 진호는 부의 새 기술심사실장으로 일하는 그의 오빠에 대한 생각에 미쳤다. 한직장에 같이 있으면서도 어째서 여태껏 그에 대한 생각을 못했는지 알수 없었다. 사람이란 이런 엄연한 사실도 때로는 망각할 때가 있는 모양인지.
그는 자기가 망각이 아니라 현옥이에 대한 생각 하나에만 몰두한 나머지 주위에 대해서는 생각할수도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것을 알지 못했다.
부에 배치받은지 얼마 되지 않는데다가 서로 다른 부서여서 상종할

기회는 없었지만 그도 명식에 대해서는, 특히 그의 남다른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들은적이 있었다.

(그렇다—)

지나친 흥분을 느낄 때마다 그런것처럼 한껏 심호흡을 하고난 그는 온몸에 지그시 힘을 주었다.

(그렇단 말이지!)

그는 두손을 외투주머니에 찌른채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걷고있는 현옥이를 새삼스런 눈길로 지켜보았다. 언제나 무슨 생각에 젖어있는듯 한 그윽한 눈매, 웃을 때마다 잔잔한 미소가 살풋이 어리는 자그마한 입술, 그러면서도 이런 모습과 대조되여 더욱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경쾌하면서도 발랄한 몸가짐. 과연 이 처녀가 나를 따라 제철소로 간단 말인가!

모든것이 의심할바없는 사실로 확증된 이제 와선 응당 기뻐하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그만한 고마움이라도 표시해야 하련만 어째선지 그렇게 되지 않았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꿈으로만 여겨지던것이 꿈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라는것이 확증된 이 순간에 와서는 이상하게도 전혀 다른 감정이 지배하는것이였다.

(이거야 뭐 사실 응당한 일이 아닌가! 여기에 무슨 기쁘고 고마와할게 있단 말인가!)

그는 저로서도 이런 감정의 도약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제 와서 기쁨을 나타낸다는것이 현옥이의 진정을 믿지 않았다는것으로, 그의 헌신을 비속화하는것으로 될뿐아니라 나아가서는 그자신을 모욕하는것으로까지 될수 있다는 생각도 생각이였지만 보다는 순정을 기울여 사랑한 사내로서의 자존심이 그런 랭정성을 강요하는것이였다.

(하긴 이만한 담보도 없는 처녀를 내가 사랑했을리 없지! 암, 없고말고.)

《으흠!》

그는 괜히 나오지도 않는 기침을 힘을 주어 했다.

새벽까지 내린 눈으로 하여 거리는 온통 소복단장이였다. 오히려 따뜻한감조차 든다. 유보도는 물론 강기슭에 우쭉삐쭉 어지러이 쌓여있던 성에장들까지도 지금은 한껏 풍만하게 부풀어있었다.

유보도에서 벗어나는 큰길쪽으로 진호가 접어들자 갑자기 걸음을 멈춘 현옥이가 의아스런 눈길로 쳐다보았다.
《또 그리로 가요?》
《그리로라니?》
현옥이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라는것을 짐작한 진호는 곧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왜 싫소?》
《전 차마 못 가겠어요.》
진호는 다시금 빙그레 웃었다.
《그래도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그냥 가서야 되겠소? 이젠 진짜 론문을 완성하러 간다고 말이요.》
그들의 산보길은 언제나 이 유보도였었다.
그들은 마치 그동안 하지 못했던 교제를 이제라도 봉창하려는듯 하루도 빠짐없이 유보도로 나왔던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에 불타는 청춘들이라 해도 또 아무리 아름다운 설경과 자연미의 그윽한 정취가 선경같아보이는 유보도라고 해도 한겨울의 혹한속에서 오래 거니기는 어려운 법이다. 한두번의 왕복쯤이면 몰라라 그 이상이면 벌써 몸이 얼어들고 턱이 떨리기마련이다.
(젠장! 사랑하는 처녀하고 같이 있으면 추운줄 모른다는건 새빨간 거짓말이군! 우선 몸부터 녹이고봐야지 말도 못하겠는걸.)
어느날 추위에 견디다못해 그가 현옥이를 이끌고 들어간것은 유보도 바로 옆에 있는 민속박물관이였다.
접수구에 있던 안내원이 어찌도 반갑게 맞아주는지 이들은 첨 어리둥절해지기까지 했다. 그의 친절이 어디에 기인되는가를 진호는 박물관을 돌아보면서야 깨달을수 있었다.
4층으로 된 커다란 진렬관을 다 돌아볼 때까지 자기들 두사람외 관람자라고는 단 몇명밖에 없었던것이다.
《좋은데, 이제부턴 내내 여기 오기요.》
뜨뜻한 온기가 언몸을 누긋이 풀어주는데 만족을 느낀 진호는 굴지의 피서지라도 발견한 사람마냥 흐뭇한 기분이였다.
정말 다음날부터 그들은 적당한 산보끝엔 서슴없이 박물관으로 뛰여들군 했다.

《보통열성이 아니군요. 흔히 젊은 사람들은 민속에 관심을 돌리지 않기 십상인데.》
진정으로 감탄해마지않는 안내원이였으나 또 그만치 진중한 진호의 대꾸였다.
《그럴수밖에요. 우린 고고학과에 다니는걸요. 지금 졸업론문을 준비하느라고…》
《글쎄 어쩐지…》
그러던 어느날 그날도 진호는 자기의 희망, 강철용해를 위한 우리나라의 새 연료에 대하여, 그 기술안수행에서 나서는 애로에 대해 또 그 타개책에 대해 현옥이에게 열정적으로 토로했다. 언제나 구석기시대의 고인돌이 아니면 원시인들의 토굴집앞에서 벌리는 토론이였지만 내용은 아직 현실에도 없는 미래의것이였다.
《론쟁이 활발한걸 보니 몹시 어려운 문젠가보지요?》
어느새 나타났는지 입가에 여느때없는 미소를 머금고있는 안내원앞에서 현옥이는 속이 한줌만 했으나 진호는 이번도 서슴없이 되받았다.
《아닌게아니라 좀 힘이 들군요. 우리가 론증하려는건 아직 학계가 인정하지 않는것이니까요.》
《그렇겠지요. 강철이니 연료니 하는걸 가지고 고고학을 론증한 실례는 아직 없으니 말이예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그 론증이 성공하길 바래요.》
《?!》
안내원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어렸으나 이들은 고개를 들수가 없었다.
다음날부터는 아무리 추워도 더는 박물관에 들어갈수 없었던 이들이였다.
모란봉을 끼고도는 강변길은 호젓했다.
저녁해빛에 싸인 릉라도일경은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펼쳐져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전 겁이 나요. 앞으로 어떤 일에 부닥칠지, 그 시련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전 그런 체험이 너무도 부족하거던요. 현실을 안대야 고작 대학때 실습을 가본것뿐이니까요.》
걱정말라고,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내 한몸으로 막아서리라고 말

해주고싶고 또 그런 시련도 없이야 무슨 청춘이며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고 말해주고싶었으나 진호는 그런 말이 앞날에 대한 지나친 과신 같아 참을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턴 모든것이 자기한테 달려있다는 생각, 새 연료를 만들어내는가, 못 내는가 하는것은 물론 현옥이의 앞날까지도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에 미치자 그는 흠칫하지 않을수 없었다. 틀림없이 어떤 공포라고 해야 할 감정이 일시에 가슴을 쭉 훑어내리는것이였다.

그는 그것이 한 처녀의 운명을 책임지게 되였다는 의무감에서 오는 불안이나 앞으로 자기들이 직면하게 될 난관에 대한 두려움에서보다도 바로 그것들을 새삼스레 깨닫게 하고 부담을 가증시키는 일,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이미의 쓰라린 실패로 하여 느끼게 되는 일종의 후유증이라는것을 감득하지 않을수 없었다.

(아무렴! 다시야 그런 일이 있을텐가!)

한번 된타격으로 격파당했던 선수는 자기의 부족점을 퇴치하기 위해 빈틈없는 준비를 한 다음에야 새 경기에 들어가지만 그래도 어차피 자신의 쓰라린 체험을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고 아무리 준비를 잘했다고 해도 다시금 그런 일이 없을가 하여 불안해지는 법이다.

기술국에 배치되자마자 그는 대학때부터 연구해오던 자기의 새 연료(중유를 대신할수 있는 우리 나라의 고체연료)를 수도의 한 강철공장에서 시험했는데 그것으로 하여 그만 적지 않은 손실을 입혔던것이다. 대학기간 3년동안을 고심해오던것이여서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달라붙은것이였으나 열부족이라는 치명적인 선고로 하여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는 결과만 초래하고말았었다.

이 일로 하여 그는 번민에 휩싸였고 한마디의 변명조차 할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었다.

《아무래도 저 친구 일이 무사치 못하겠는걸!》

《할수 없지! 응당한 책임을 지는 수밖에!》

사람들이 자길 보며 이렇게 수군거린다는것을 모르지 않은 그였지만 속으로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제철소에라도 보내주었으면 하고 은근히 바랐고 그런 자기의 심정을 당위원회에 찾아가 솔직히 털어놓기도 했었다.

사실 그는 자기의 연구과제로 하여 대학을 졸업하고는 제철소에 가

려는것이 소원이였는데다가 이번 사고를 통해 현장에 가야 되겠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던것이다. 그것은 실패의 원인이 현장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과 그에 근거한 기술적인 료해가 부족한데도 있다는것이 판명되여서였다.

그러나 정작 제철소로 가는것이 결정되자 그는 어떤 불안에 휩싸이지 않을수 없었다. 당초의 희망이고 간절한 소원이긴 했으나 그리로 가게 된것이 애초의 지향때문이라기보다 사고를 낸 책임으로 하여 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였기때문이였다.

그때마다 속으로는 (뭘, 차라리 잘됐지. 되려 바라던 일을 할수 있게 됐으니까.) 하고 위안하군 했으나 그것이 한갖 자기를 기만하는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그자신도 모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흔히 누구나 자기가 기어이 하고야말겠다고 속으로 별렀던 일도 옆에서 누가 그걸 하라고 하면 그 일에 대한 흥미와 의의가 덜해질 때가 있는데 진호의 경우가 바로 그랬다. 자기의 지향을 리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필경 자기의 처지를 다만 무모한 기술안의 실패로 인한 책임으로밖에 치부하지 않으리라는것을 생각하면 저절로 화가 터져오르면서 한숨이 새나오군 했다.

특히 현옥이가 자기를 어떻게 여길가 하는 짐작에 부딪칠 때마다 그는 못내 두려움을 금할수 없었다.

실패로 인한 책임과 애초의 희망! 공교롭게도 기쁨과 치욕이 하나로 얽혀있는 이 사태를 그가 과연 어떻게 리해하고 받아들일것인가! 모르긴 해도 현옥이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이 하나의 결론에 따라 바야흐로 싹이 트기 시작한 자기들의 사랑도 결정되리라고 생각해온 진호였다. 그런데 현옥이는 고맙게도 자기의 진정을 이처럼 깊이 리해하고있는것이 아닌가!

(누가 뭐라든 이제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현옥이가 나를 믿어주는데야.)

발가우리하게 상기된 현옥이의 얼굴을 보느라니 그가 여느때보다 몇곱절이나 더 자기에게는 과만한 존재로 여겨졌고 자기에게 차례진 이 행복을 소중히 여겨야 하리라는 불같은 각오가 솟음치는것이였다.

(한데 내가 과연 그 새 연료를 만들어낼수 있을가?)

이전에는 그처럼 성사할 희망이 있는것이라고 자신을 납득시켜오던

것이 지금에 와선, 현옥이까지도 자진해나서는 이 마당에 와서는 웬 일인지 자기 희망이 혹시 터무니없는 일이나 아닐가 하는 위구가 느껴지기도 했다.

《어떻소 현옥동무, 동무생각엔 우리가 거기 가서 새 연료를 만들어낼것 같소? 한다하는 사람들도 도중에서 포기한걸 우리같은 햇내기가 만들어낼것 같은가 말이요.》

《왜요?》

눈으로만 웃는 현옥이의 미소는 틀림없이 과묵하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열중한 나머지 헤덤비기도 잘하는 다정한 사람의 버릇을 감촉한데서 오는것이였다.

《그럼 저의 계획을 말해볼가요?》

마치 미리 말하기는 아까운것을 털어놓는다는듯 한 못내 아쉬워하는 현옥이의 기색이였다.

《우린 우선 무엇보다 단계별목표부터 세워야 한다고 봐요. 새 연료가 열량을 담보하게 하는 첫 단계에 이어 강질과 로구조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게 하는 두번째 단계 그리고 그 연료를 공정으로 도입하는 마지막취입단계를 말이예요. 여기에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순차별로 책상우에 써놓거던요. 동문 동무대로, 전 저대로.》

《그래서?》

현옥이의 머리속에는 벌써 숱한 계획들이 장만돼있는것 같았다. 그는 그 계획들을 진호가 듣기만 해도 환성을 올릴것이라고 미리부터 확신하고있는것이 틀림없었다.

《그담에야 서로 경쟁이지요 뭐.》

《경쟁?》

《한데 한가지 조건은 수행한 지표를 지울 땐 꼭 파란 색갈로 지워야 한다는거예요.》

《그건 또 왜?》

《푸른 꿈의 실현, 그래서 파란색이지요. 그 지표가 파랗게 물들 땐 우리의 꿈이 실현된 때가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쁨으로 충만된 현옥이의 얼굴에는 그 어떤 자신심까지 너울치고 있었다.

《그렇지만 경쟁은 틀렸소.》

《어째서요?》
《경쟁이야 어디까지나 상대가 되여야 하는게 아니요. 나야 대학때부터 해오던 일이지만 동무야 전혀 생눅이니까.》
《어머— 생눅이라뇨? 제가 야금기계를 전공했다는걸 잊었어요? 무대가 제철소니만치 경쟁조건으로 치면 열공학을 한 동무보다 오히려 제편이 유리할거예요. 지금도 금속편집부에 있고.》
《그래도 그렇지, 아무렴…》
말할 여지 없다는듯이 진호는 손을 내저었다.
흔히 뭔가 기쁘고 즐거울 때면 그는 부러 이런 태도를 취하군 했는데 그것은 그때마다 현옥이를 안타깝게 만들어놓기 위해서였다.
《좋아요. 그럼 어디…》
이리저리 사방을 둘러보던 현옥이는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곧 손을 들어 한곳을 가리켰다.
《저길 봐요. 저기 눈덮인 돌층계가 있지요? 저기에 어느쪽 발이 먼저 닿는지 걸어봐요. 만약 오른발이면 제가 경쟁에서 이기는거예요. 어때요?》
《좋소! 그렇지만 왼발일 땐?》
《동무라고 해두지요.》
《흠! 내가 왼재기라는걸 아직 모르는 모양이군!》
뜻밖에도 매우 심각한 의의를 갖게 된 걸음을 조심스레 한발자국한발자국 내디디며 진호는 《내다, 아니다, 내다, 아니다.》 하고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아이, 안예요.》
눈우에 찍혀지는 발자국을 내려다보며 옆에서 따르던 현옥이가 별안간 진호의 팔을 붙들었다.
《너무 폭을 크게 짚었어요. 봐요.》
《그럼 대신 요다음번은 좁게 내딛지. 이렇게.》
이윽고 이들은 돌층계가까이에 이르렀다.
분명 오른발이 닿아야 할 거리였으나 현옥이를 돌아본 진호는 껑충 몸을 솟구며 두발로 계단에 뛰여올랐다.
이미부터 그러리라는것을 짐작한듯 입을 틀어막고있던 현옥이는 허리를 비틀며 깔깔 웃어댔다.

《좋아요. 그게 더 좋아요.》

현옥이의 맑은 웃음소리에는 앞으로 다가올 생활에 대한 기쁨과 환희가 한껏 어려있었다.

2

흰눈이 주단처럼 폭신하게 깔려있는 층계들을 밟고 옛성터의 자그마한 아치형돌문을 지난 이들은 다시 을밀대쪽으로 향했다.

왕래가 드문 외진 길일뿐더러 언제나 음달져있는 곳이여서 눈은 내린대로 그냥 부풀어있었다. 꾸득꾸득해진 눈껍질이 오히려 숫눈보다 밟는 감촉이 한결 좋았다.

(오늘같은 날은 뭐라고 한마디 하긴 해야 하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응당한 일로 치부했댔으나 눈덮인 모란봉의 한적한 오솔길을 걷느라니 불현듯 자기를 위해 모든걸 바치기로 각오한 현옥이에 대한 고마움이 새삼스레 가슴을 태우는것이였다. 더우기 오늘같은 날을 영원한 기억속에 새겨두기 위해서도 뭔가 꼭 인상에 남는 말을 하고싶었다.

뭐라고 한다?

어떻게든 현옥이에 대한 자기의 진정을 한마디에 담고싶었지만 그때마다 느끼는 감정의 절반도 제대로 옮기지 못하는 자신의 유치한 구변을 생각하고는 곧 자신심을 잃어버렸다.

그는 자기 말이 언제나 요점이 명백치 못할뿐아니라 어떤 땐 왕청같은 비약으로 의미가 외곡되기까지 해서 남들이 알아듣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모르긴 해도 지금이야말로 그는 늘 현옥이를 그릴 때마다 맘속으로 외워보던 말,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던 그 말을 해야 하리라는 생각이 드는것이였으나 그 한마디 말이 이제 와선 어쩐지 엄청난 의미로 부각되는것이여서 좀처럼 입을 벌릴 자신이 없었다. 부끄럽다거나 게면쩍다는것은 혼자 생각할 때 일이고 정작 그것을 털어놓아야 할 이 마당에 와서는 줄곧 떨리기만 했다.

(흠! 별놈의 일이 다 있군!)
이때까지 그는 자기들사이에서 중요한것이 어디까지나 서로의 감정이라고 여겼지 그것을 표현해야 할 고백따위에는 아무런 의의도 부여하지 않고있었다. 그런 고백은 단지 소설이나 영화에 필요할뿐이지 실생활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못하는것이라고 믿어마지않았던것이다.
그가 이렇게 여기는데는 자기들의 생활, 현옥이와의 관계가 그것을 뚜렷이 증명해주기때문이였다.
여태 그런 고백은 없었지만 자기들은 그 의미를 깊이 리해했고 또 그 요구에 서로 충실해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무엇때문에 그걸 새삼스레 밝힐 필요가 있단 말인가! 그것이야말로 같은 목적지를 향해 기차를 타고가던 사람이 갑자기 동행자를 돌아보며 우리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하는것과 같이 우습고 싱겁기 짝이 없는노릇이 아닐텐가.
늘 이렇게만 여겨온 그였으나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
기차를 같이 타고가기는 했지만 목적지가 같을뿐더러 거기에서 생사를 같이하게 된다는것을 알았을 때의 심정이란 류다른것이다.
오늘에 와서야 그는 비로소 그런 고백이 어느 정도 진실한것임을, 단지 필요에 의한 형식이 아니라 고귀한 감정의 산물이며 억제할래야 할수 없는 열렬한 충동의 발로라는것을 깨닫지 않을수 없었다.
확실히 사랑에도 사춘기가 있어서 첨엔 그것을 짐작하는것으로도 만족하지만 그 단계가 지나면 거기서부터 한단계의 새로운 도약을 촉구하는듯싶었다.
(정녕 이 처녀야말로 내가 바라마지않던 그런 처녀가 아닌가!)
처녀에 대해, 특히 자기가 바라는 처녀에 대해서는 지극히 남다른 견해를 가지고있는 그였다.
흔히 한가지 일에만 열중하는 사람들이 그런것처럼 그도 실지에 있어서는 사랑이 어떤것이라는것을 알지 못했고 그것이 생활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따져보지 못했지만 자기의 대상이 될 처녀에 대해서만은 아주 명백한 일가견을 가지고있었다.
그것은 자기의 대상으로 될 처녀는 응당 매력적인 용모와 함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즉 안팎이 하나와 같이 고와야 한다는것인데 이 점에서는 총각이면 누구나가 흔히 품는 생각이여서 별다를바없지만 처

녀의 마음, 다시말해 처녀의 내적인 미에 대해서는 그만이 지니고있는 독특한 주견이 있었다.

그가 말하는 내적인 미란 일반적으로 얌전하다든가 성실하다든가 하는 마음씨뿐만아니라 자기 사업에 대한 참다운 리해와 지향으로부터 출발되는 훌륭한 반려로서의 자질과 성품이였다.

자기의 포부를 진심으로 리해하고 거기에 모든걸 바칠수 있는 처녀, 바쳐도 열렬히 바칠수 있는 처녀, 오직 이런 처녀만이 자기의 대상이 될수 있었다.

그가 이와 같은 요구를 내세우는데는 무엇보다도 필생의 과제로 삼고있는 비상한 목표와 관련되여있었다.

대학 초기부터 그는 야금로에 쓰이고있는 중유를 우리 나라의 연료로 대용하겠다는것이 유일무이한 희망이였고 확고부동한 결심이였다. 그 기술이야말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하며 그래서 또 어느것보다도 가장 가치있는것이라고 확고히 믿어마지않고있었다.

때문에 그는 이 성스러운 포부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자기의 지향을 진정으로 리해해주지 못하는 처녀는 상대가 아무리 아름다운 용모에 비단같은 마음씨를 지녔다 해도 유감스럽지만 자기에게는 인연이 먼 사람으로밖에 될수 없다는것이였다.

물론 그로서도 이 두가지 요소가 다 원만히 구비된 처녀가 실제로는 쉽지 않으리라는것을, 있다 해도 십상 어느 한쪽에 치우쳐있기마련이라는것을 짐작 못하는것은 아니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기준을 낮출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설사 양보하는 한이 있어도 용모에 대한 기준을 양보하면 했지 지향에 대한 요구만은 조금도 타협할수 없다고 여기는것이였다.

《사랑이란 처녀의 외적인 매력과 그가 지니고있는 내적인 지향의 합으로 이루어지는걸세. 알겠나?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지향이 우위라는것만은 명심해두게.》

친구들앞에서 자기가 찾아낸 사랑의 공식을 이렇게 선포하군 했으나 그때마다 실천속에서가 아니라 머리속에서 짜냈다는것으로 하여 빈번히 배격을 받군 했다.

그런데 오늘이야말로 그런 처녀가 현실적으로 확증된것이 아닌가! 대학적으로 소문난 미인이겠다, 최우등생이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열렬한 호응이야말로 그 어떤 처녀에게도 있을수 없는 정신적인 매력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말해야 한다! 이제라도 그 말은 해야 해!)
이런 생각은 그를 점점 긴장시켰다. 마치 어떤 무기의 위력을 뒤늦게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조준을 하고 방아쇠를 당겨야 단번에 목표를 맞힐수 있겠는가를 따져볼 때처럼 그는 자못 초조하고도 불안한 심정에 싸여있었다.
《또 무슨 걱정인가보지요?》
빤히 쳐다보는 현옥이의 눈길에 찔끔했으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벌쭉 웃었다. 그의 이런 실없는 웃음은 언제나 당황할 때마다 드러내군 하는 버릇이였다.
《아닌게아니라 걱정이요. 난 말이요. 솔직히 말하면 뭐라고 할가… 그 우리가 하려는 일 있잖소, 새 연료를 만드는것 말이요. 그걸 혹시 그새 누가 먼저 시작하지나 않을가 하고 걱정하는중이요.》
다급한 처지에 놓일 땔수록 그는 이런 능청스런 대꾸를 곧잘하군 했는데 그때면 별로 생각해두지도 않았던 말이 목구멍에서 슬슬 흘러나오는것이였다. 어떤 정황에서도 우물쭈물하는것이 질색이여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것이였으나 이젠 그것도 습관이 된탓인지 아무때나 스스럼없이 엮어지는것이였다.
이런 거짓에 익숙된 자신이 못마땅하긴 했으나 일단 시작한 거짓은 또 그것대로 진실을 가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이여서 그 못마땅한 곳에 다시 발을 들여밀지 않을수가 없었다.
《생각해보오. 거긴 시험소와 연구소가 있는데다가 대학졸업생들만 해도 얼마나 많이 배치됐소. 그들이 연구과제를 하나씩은 다 잡았을 거란 말이요. 안 그렇소? 참!》
진호는 서둘러 외투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편지봉투를 꺼냈다.
《자, 이걸 한번 읽어보오.》
편지를 받아들긴 하면서도 현옥이는 여전히 의혹을 금치 못하는 눈치였다. 그의 눈길은 이런 하찮은 근심에 시달리는 사람이 어떻게 그처럼 완강한 투지를 자랑하던 대학 호케이팀의 중앙공격수였을가 하고 의심하는것 같았다.
(아무래도 좀 있다 털어놔야겠군!)

진호는 그 무기를 마구 다룰것이 아니라 기회를 봐서 조심히 써야 하리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숨을 몰아쉬였다.

《아이! 태수동무군요.》

겉봉을 훑어보던 현옥이가 반색을 지었다.

박태수는 대학시절 진호와 제일 가깝게 지내던 친구였다. 이들의 각별한 우정을 동창들은 물론 선생들까지도 몹시 부럽게 여겼었다. 서로 자주 다투기는 물론 어떤 땐 성난 황소처럼 씩씩거리며 노려볼 때도 있었지만 언제 그랬냐싶게 다시 화해했고 그것으로 하여 더욱 친밀한 사이로 되군 했다.

호방하지만 뚝한 편인 진호에 비해 잘 다듬어지지 않은 수세미처럼 꺼칠꺼칠한 태수는 어떤 일이나 거들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팔방미인이였다. 대학안에 있는 연구소조라는 소조에는 거의나 한번씩 삐쳐보았고 벽신문을 내는 일도 솔선 맡아했다. 그런 열성에 비해선 너무나도 초라한 평가였으나 그래도 그는 온갖 열성을 다 쏟아부었다.

무슨 미묘한 일이 일어날 때도 친구들은 한결같이 그를 대표로 선출했는데 그것 역시 그는 응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성실히 수행하군 했다.

마치도 그는 자기 몸에 한량없이 충만된 에네르기를 아무데라도 탕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것 같았다. 특히 대학대항전이 있을 때마다 솔선 응원대장이 되군 했는데 호케이경기때면 언제나 출전한 진호보다도 더 많은 땀을 흘리군 했다.

서로 졸업후엔 제철소로 갈것을 철석같이 약속한 이들이였으나 그만 태수만이 소원대로 됐던것이다.

《먼저 가서 자리나 잡아두게, 내 이내 따라갈테니. 글쎄 내가 여기서 뭘한단 말인가!》

이러며 태수를 배웅한 진호였으나 몇달이 지나도록 그 약속을 지킬수 없었다. 그것으로 하여 진호는 태수에 대해 어떤 도덕적의무를 저버린듯 한 난처한 립장에 처해있었다.

《아니! 태수동무 창안품이 기술경연에서 1등을 했군요. 그런데 어째서 무슨 기계라는건 밝히지 않았을가요?》

편지를 읽느라고 뒤졌던 현옥이가 놀라움에 넘쳐 부르짖었다.

《그밑을 마저 읽어보오. 한두마디로는 다 설명할수 없다는거요. 뭐 그렇게 쉽사리 표현한다는건 그 기계의 완성의 경지를 손상시키는것

으로 된다나? 빌어먹을! 자, 이래도 내가 걱정을 안하게 됐소?》
진호는 제법 큰소리로 오금을 박았다.
《우리가 그리로 간다는걸 태수동무도 알아요?》
《아니, 알리지 않았소. 그렇게라도 한번 놀래워주고싶어서 말이요. 동무까지 옆에 있는걸 보면 그 친구가 아마 뒤로 벌렁 넘어질걸…》
두눈에 피여난 현옥이의 미소는 홍조어린 뺨에서 맴돌다가 옴폭 패인 볼우물에 고여 찰랑거렸다.
립춘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살을 찌르는 겨울바람의 독기는 여전했다.
대동강이 한눈에 훤히 내려다보이는 모란봉중턱에 올라서자 더욱 싸늘한 강바람이 몰아쳐왔다. 저도 모르게 한쪽눈을 감싸쥔 진호는 얼른 바람을 피해 모로 돌아섰다.
언제부터인지 한쪽눈의 시력이 약해지면서 약간의 자극에도 자꾸만 시려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병원에서는 당장 눈을 보호해야 한다고, 육안으로 쇠물을 보는건 절대금물이라고 했으나 좀처럼 그 요구에 순응되질 않았다.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저놈의 의자가 있는데 가선 말하자!)
흰눈을 뒤집어쓰고있는 의자를 노려보는 그는 이렇게 다짐했다. 그러자 가슴은 다시금 활랑거리기 시작했다.
한걸음 또 한걸음… 드디여 그 운명의 의자가 있는 좁다란 소로길에 접어들었다.
(덤비지 말고 침착하게!)
치렬한 공방전의 혼탕속에서 순간의 기회를, 더없이 좋은 득점의 기회를 얻었을 때와 같은 그런 전률을 느끼며 진호는 현옥이를 힐끔 훔쳐보았다.
하나 그는 실망하지 않을수 없었다. 한것은 현옥이가 눈앞에 펼쳐진 일망무제한 설경, 눈을 인채 빼곡이 들어차있는 수려한 나무들이며 얼음이 풀린 여울목으로 미끄러지듯이 내려앉는 물오리떼들 그리고 멀리 저녁안개에 휘감겨 한폭의 묵화처럼 안겨오는 아름다운 릉라도의 정경에 도취되여 당장이라도 탄성을 터뜨릴것 같은 기색이기때문이였다. 아니나다를가 현옥이의 입에서는 곧 환희의 경탄이 쏟아져나왔다.

《아이! 저길 봐요. 저 눈! 저 나무! 꼭 그림같지 않아요? 모든게 눈에 덮여있지만 확실히 봄은 봄이예요. 그렇지요?》

(젠장!)

그는 발앞에 있는 솔방울을 힘껏 걷어찼다.

이때까지 고백따위에는 안중에도 두지 않던 그였으나 정작 그것을 털어놓아야 할 이 마당에 와서는 어째선지 분위기는 물론 감정까지도 더없이 숭엄해야 한다고만 믿게 되는것이였다. 이런 때의 현옥의 기색은 적어도 폭풍직전의 바다와 같은 장엄한 고요가 깃들어있어야 하고 정작 폭풍이 들이닥치면, 말하자면 불같은 자기의 사랑의 포화가 터지기만 하면 현옥이는 일진광풍에 휘몰린 파도처럼 자기 가슴에 왈칵 안기든가 하다못해 그 자리에서 흐느끼기라도 해야 한다는것이였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맞지 않아. 아니, 내 주제에 말로 한다는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우선 감정을 잡을수 있어야 말이지. 하긴 뭐 꼭 말로 해야 한다는 법이야 없지 않나. 사실 우리사이엔 말이 어울리지도 않지. 제기랄! 말보다 더 명백한건 없나?)

진호가 어떤 생각을 하고있는지도 모르고 을밀대란간으로 다가선 현옥이는 더욱 기쁨에 넘쳐 부르짖었다.

《봐요! 얼핏 보면 추위에 얼어든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씩은 다 밝은 색갈이 채색돼있어요. 저 나무줄기들을 봐요.》

《…》

아무리 그것들을 여겨봐야 밝은 색갈이라고는 찾아낼수도 없거니와 지금은 도무지 그런 말에 대꾸할 경황이 아니여서 진호는 수긍하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것도 같은 어줍은 미소를 띄울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심장은 더더욱 세차게 두근거리는것이였다.

어느새 거리쪽으로 시선을 옮긴 현옥이는 승용차와 전차들이 줄지어 지나가는 네거리옆에 있는 탑식아빠트를 찾아냈다. 그리고는 여섯번째 층의 베란다를 꼿꼿한 눈길로 지켜보았다. 바로 자기 방이였던것이다.

까맣게 보이는 창문외에는 아무것도 가릴수 없었으나 그에게는 창가에 놓여있는 수선화며 제비꽃화분은 물론 꽃잎같은 어항에서 신선어가 꼬리치는 모습까지도 환히 보이는듯싶었다.

여기서 내려다볼 때마다 늘 느끼는 심정이지만 성냥곽만 한 아니, 그보다 더 작게 바라보이는 바로 거기에 그처럼 알뜰한 자기의 보금

자리가 있다고 믿기에는 너무도 신비스러웠다. 자기 방만 아닌, 무수히 보이는 매 창문들에도 그런 생활이 꽃피고있다는것이 자못 신기하기만 했다.

(생활이란 정말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다와…)

베란다에 놓여있는 모든것, 야경을 관망하기 위해 놓아둔 둥글의자며 어머니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는 선인장들을 그려보던 그는 문득 그 뒤에 놓여있는 물건에 대한 생각이 미쳤다.

분명 자기에게 퍽 소중했던 그리고 드문하게 쓰던것이라는것은 확실했으나 그것이 무엇이였던지 가려낼수가 없었다.

(뭐더라?)

두눈을 깜빡이며 생각을 더듬던 그는 곧 실소를 머금었다.

(아무검 뭐람!)

부질없는 상념을 털어버린 그는 뭔가 보다 즐겁고 유쾌한 얘기를 하리라 생각하며 진호쪽으로 돌아섰다. 순간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

자기를 묵묵히, 그러면서도 집요하게 주시하며 한걸음 다가서는 진호의 눈길은 아직 한번도 본적이 없는 그런 시선이였다. 그 어떤 간절한 빛을 띠고있는가 하면 단호한 각오를 다진 눈빛이였고 그런가 하면 또 밤하늘에 활활 타오르는 화광과도 같이 무섭게 번뜩이기도 했다.

그 눈길이 무엇을 뜻하며 무엇을 바라는가를 륙감으로 느끼자 그는 온몸이 일시에 전기에 닿는듯싶었다. 아니, 숨이 멎는것만 같았다.

《아이! 안예요. 안예요.》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무섭고 또 너무나도 가슴이 떨려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연방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3

다음날 직장에서 돌아온 현옥이는 실내옷으로 갈아입기 바쁘게 환기창을 열어놓고는 전축이 있는 웃방으로 올라갔다. 늘 홀로 있게 되는 이 시간이면 특별히 바쁜 원고작업이 제기되지 않는 한 음악을 듣

는것이 하나의 버릇으로 되여있었다.
얼마나 좋은가! 부드러이 흘러드는 선률에 하루의 기쁨을 실어보기도 하고 상상의 나래를 한껏 펼쳐보기도 하는 벅찬 랑만이란. 그러면 피로는 가뭇없이 사라지고 하루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금 즐거이 되살아오른다.
그는 곡도 그날의 감정에 맞게 고르군 했다.
기쁨으로 하여 혼자서라도 뭔가 속삭이고싶은 충동이 솟구칠 땐 경쾌한 독주곡이나 경음악을 택했지만 깊은 사색을 필요로 할 땐 잘 소화되지는 않았지만 굳이 협주곡이 아니면 교향곡을 고르는것이였다.
오늘의 기분에 따라 어떤 곡을 택할가 하고 망설이던 그는 들었던 교향곡대신 며칠전에 사온 밝고도 힘찬 영화주제곡을 골랐다.
씩씩한 선률이 방안에 흐르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은 한결 명랑해졌다.
그는 오늘 마침내 자기의 결심을 동무들에게 터놓았던것이다.
난생처음 자기 문제에 대해 자기스스로가 옳바른 결심을 내렸다는 긍지로 하여 자랑스럽기까지 한 심정이였다.
물론 그도 자기의 용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 않았다. 흔히 남자를 두고 생각할 때 정직한 처녀들이 그렇듯이 그도 진호를 자신의 장래와 결부시켜 몇번이고 따져보았었다. 성격과 지향 그리고 행복, 온갖 조건들…
점심식사를 한 후 의례히 식탁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기 마련이였으나 오늘처럼 모두가 놀란적은 없었다.
《아니, 네가 현장으로 간단 말이니? 그래 어디루?》
《아무래도 제철소에 가야지 뭐.》
《제철소?》
《넌 늘 편집과젤 제때에 수행하군 해서 평가를 받지 않니. 여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건 아니겠지?》
《물론 싫지는 않아.》
동무들이 자기의 말이며 눈빛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는데 기쁨을 느끼며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렇지만 난 왜 그런지 남의 원고에만 매달리는게 성차지 않아. 능력은 없어도 자기 창조물을 내놓고싶어. 말하자면 남을 위하는데만

습관되지 않은 나쁜 버릇이 있는가봐.》
《음—그래서 네가 요즘… 난 또 웬 애인이라도 생겼는가 했지?》
남의 일에 끼여들기 좋아할뿐아니라 그것을 들고다니기 즐기는 영금이가 이제야 알만 하다는듯이 고개를 까닥거렸다.
《그래도 아직은 결심에 불과하겠지?》
《아니, 어머니도 찬성하셨어!》
《어머니도? 넌 정말 대단한 결심을 했다얘.》
모두들 현옥이를 마치 달나라에 올라갈 우주비행사라도 되는것처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얼마나 좋니?》
잠자코 앉아있던 숙희가 진정에 넘쳐 속삭였다.
《난 네가 부러워! 정말이야! 사실 그만한 포부도 없이야 무슨 청춘이겠니. 나도 그런 생활을 동경은 하지만 정작 결심은 못 내려. 왜 그럴가?》
자기를 둘러싸고 놀라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던 동무들의 모습을 상기할수록 현옥은 자신에 대한 긍지가 더욱 세차게 솟아올랐다.

…
펄펄 날려라 위훈깃든 댕기
용감한 해병들 정의의 싸움길…

선률은 한껏 고조에 이르고있었다.
그 경쾌한 리듬이 가로수아지들을 춤추게 하고 어항안에 있는 금붕어들을 더욱 흥겨이 꼬리치게 하는상싶었다.
(며칠후부터는 새생활이 시작되겠구나! 힘겹고도 아름찬 생활이!)
그도 지금의 자기로서는 앞으로의 생소하면서도 거친 생활을 감수하기가 무척 베찰것이라는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있었다. 듣고싶은 음악도, 살뜰한 보금자리도 없다.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새 연료연구에 바치는것, 바쳐도 열렬하게 바쳐야만 하는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 점으로 하여 그는 미지의 생활에 대한 각별한 매력을 느끼는것이였다. 누구에게나 한번밖에 차례지지 않는 청춘시절, 그 귀중한 시절에 그만한 흔적도 없이야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사람이란 사회에 보탬을 주자고 태여났으며 그렇게 사는것만이 떳떳한 삶인것이다. 그 권리로 하여 자유롭고 행복하며 그것으로 하여 또 누릴수 있는 모든것을 기꺼이 향유할 자격을 가지는것이 아닌가.

강철용해를 위한 우리 나라의 새 연료!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도 진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뚫고나갈것 같은 자신심이 솟구쳐올랐다. 이미 있은 실패보다 더한 곡절이 자기들앞에 막아나설수 있으리라는것도 그는 각오하고있었다. 그것조차 유쾌하게만 여겨졌다.

문득 책꽂이 웃단에 올려놓은 빨간 사진첩에 눈길이 미치자 그는 얼른 그리로 갔다. 원래 사진을 보기 즐겨했지만 오늘따라 별스레 지나온 일들을 더듬어보고싶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사진기앞에 나섰었고 저도 모르게 찍히운 사진들이였으나 이제 와선 매 장들에 어떤 심각한 의미가 깃들어있는것 같았던것이다.

첫장에는 사진대신 이런 글이 적혀있었다.

195×년 8월 20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남조선에 구호물자를 보낼데 대한 문제를 토의.

××공장 복구조업식.

무럭무럭 자라나 부디 우리 조국을 받드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여주기 바란다.

―오빠로부터―

사진첩을 보는 사람마다 태여나는 첫날부터 그의 오빠가 누이동생에게 얼마나 다심했는가를 감탄해마지않았다.

다음장부터는 어릴적부터의 사진이 드문드문 보기 좋게 배렬돼있는데 정말 꽃으로 피여나는 과정이 순서대로 또박또박 새겨져있었다.

어머니의 무릎우에 인형처럼 오도카니 앉아있는 사진이 있는가 하면 대학모자를 쓴 오빠옆에서 우스우리만치 차렷자세를 하고 찍은것도 있었다.

멀리 휴양소의 합각지붕이 바라보이는 호수우에서 어머니와 함께 뽀트를 타고있는 사진밑에는 〈1964년 표창휴가―석암휴양소〉라는 글이 새겨져있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기 전, 말하자면 유년시절의 사진이라고는 몇장 되지 않았다. 전후의 어려운 환경때문이라는것을 모르진 않았지만 현옥이는 자주 이런 투정을 했다.

《어머닌 정말 그때 사진을 좀 찍어두지요.》

그러면 윤씨는 허구픈 웃음을 지었다.

《원 애두, 사진이 다 뭐냐? 그래도 너니 그만치 있는줄 알아라!》

사실 고중시절부터 사진에 남다른 취미가 있은 오빠가 아니였어도 이런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을 현옥이였다. 이땐 벌써 아버지를 대신한 오빠가 집에서는 가장이였던것이다.

잊지 못할 소년단시절의 야영생활과 고등기술학교때의 파외실습 그리고 천리마학급칭호를 수여받은 기념으로 학급전체가 찍은 사진이며 백두산과 홍원사적지를 답사하던 대학때의 추억들… 모든것이 새라새로운 의미로 회고되는것들이였다.

사진첩을 번질 때마다 제일 오래동안 여겨보게 되는 사진에 그는 시선을 모았다. 그것은 눈부실만큼 흰 체조복장을 한 자기가 맵시있는 륜동작을 하고있는 천연색사진인데 머리우로 높이 쳐든 륜과 허리로 쌍원을 재현한 순간을 포착한것이였다.

이 사진을 볼 때면 그는 늘 이 매혹적인 동작을 정말 자기가 창조한것일가 하는 황홀경에 휩싸이는것이였다. 미소지은 자기의 얼굴이 드러나있지 않았더라면 누구든지 이 사진을 어느 화보에서 오려낸것으로 믿기 십상이리라.

《대학생》잡지의 표지에도 실린적이 있는 이 사진을 그는 무척 소중히 여겼다. 경기때마다 숱한 동무들과 기자들이 샤타를 눌러대군 했지만 손에 들어온것도, 마음에 드는것도 별반 없었으나 이 한장이 모든것을 보충해주고도 남았던것이다.

대학예술체조경기에서 개인상을 받던 그때의 일이 눈에 선했다. 《바다의 오솔길》이라는 경쾌한 피아노반주가 들려오는것 같고 그 선률에 따르는 매 순간의 동작까지도 생생하니 되살아났다.

그때부터 온 대학이 자기를 《갈매기》라고 불렀다는것도, 그 별칭이 다만 체조복의 앞가슴에 갈매기를 새겨넣었기때문이 아니라 바다를 날으는 해연과도 같은 기교에 대한 찬사였다는것도 즐겁게 회상했다.

곧게 뻗은 자기의 두다리를 내려다보던 그는 탄력이 넘치는 허리에 두손을 얹어보고는 조용히 미소를 머금었다.

다음장을 넘긴 그는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웃음으로 하여 입을 틀어막지 않을수 없었다. 그 사진은 한손에 꽃다발을 쥔 자기가 얼음판우에 주저앉아있는데 비행사같은 호케이복장한 리진호가 뒤에서 자기를 부둥켜안고있는 모습이였다.

(난 이때 왜 웃기만 했을가? 바보같이!)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우습긴 하면서도 처녀다운 수집음이나 랭담한 기색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자신에 대한 부아가 치솟군 했다.

이때부터랄가? 확실히 그랬다. 바로 이날부터 그는 진호로 하여 야릇한 마음의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던것이다.

그날은 전국대학호케이결승경기가 벌어진 날이였다.

이미 두차례나 결승전까지 올라갔다가 패한적이 있던지라 전교생모두가 미천호반을 둘러싸고 경기 첫시작부터 응원에 열을 올렸다.

경기는 치렬했다.

동점 또 동점으로 오르던 경기는 마감시간을 앞두게 되면서 더욱 맹렬해졌다. 수천명의 학생들이 저마다 손에 땀을 쥐고 환성과 욕설을 퍼부어대며 매 순간을 지켜보고있었다.

심판도 자주 시계를 들여다보던 바로 그때였다.

팍을 몰고 질주하던 한 선수가 그것을 상대방문앞으로 길게 련락한 순간이였다. 마침 그리로 달려들어가던 진호가 날아오른 팍을 채에 붙이기 바쁘게 마주선 방어수 하나를 보기 좋게 물리치고는 더욱 문앞으로 육박해들어갔다. 어느새 그의 몸이 공중에 비호처럼 날았다.

《휙!》 하는 아츠러운 소리와 함께 뽀얀 가루가 허공에 일었다.

《딱!》

일시에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문지기도 몸을 날렸다.

꼴인가?

문지기가 팍을 잡았는지 어쨌는지 멀리서는 얼른 분간할수 없었다. 한 선수가 부리나케 진호에게 달려가 그를 부둥켜안았을 때에야 학생들은 땅을 차고 뛰여올랐다.

《꼴－》

《꼴이다!》

《이겼다!》
당장 호반이 터져나갈듯 한 환호였다.
현옥이도 발을 동동 구르며 기뻐했다.
마감시간을 알리는 호각소리가 울리기 바쁘게 꽃다발을 쥔 현옥이는 얼음판으로 나섰다. 경기때마다 승리자들에게 주는 꽃다발은 언제나 예술체조선수들에게 맡겨지군 했었다. 그는 종종걸음으로 진호에게 다가섰다. 꼭 그에게 안겨주고싶었던것이다.
이전에도 합동강의실에서나 대학체육관에서 더러 만난적이 있긴 했지만 그땐 《바로 저 동무가 강철용해를 위한 새 연료를 연구한다며?》 하는 호기심을 느끼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간혹 무슨 얘기를 나누고싶어도 어쩐지 남들처럼 호락호락 범접하게 되질 않았다.
《축하해요.》
너무 급히 다가선 나머지 현옥은 그와 부딪치지 않으려고 안깐힘을 쓰지 않으면 안되였다. 요행 몸을 피한것까지는 좋았으나 그 바람에 중심을 잃어버린 그는 팔을 허우적거리다가 그만 얼음판우에 미끄러지고말았다.
《흐－하－》
관중들의 폭소로 얼굴에 모닥불을 뒤집어쓴 현옥은 인차 일어설념도 못했다.
이때 자기뒤로 다가선 진호가 《허참, 여기가 뭐 체조훈련장인줄 아우?》 하며 제꺽 두팔로 안아일으켜세웠는데 그 순간을 대학신문편집부에 있는 한 익살꾸러기가 놓치지 않았던것이다.
《아이! 이 동문 정말!》
그담에야 그는 새침한 기색으로 진호의 두손을 뿌리쳤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리에서 일어서긴 했으나 발목이 아파 한발자국도 옮겨디딜수가 없었다. 넘어질 때 발목을 시그러뜨린게 분명했다.
《어떡한다?》
난처한 기색을 짓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진호는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어찌겠소. 할수 없지.》 하고는 놀랍게도 대번에 자기를 냉큼 두팔에 안아드는것이였다.
《어머머－》
기겁을 한 현옥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으나 창황중에도 그게

더 부끄러운 일이라는것을 짐작하고는 다시 그의 어깨를 주먹질했다.
《좋아! 좋아!》
《진호야말로 진짜 꽃다발일세.》
관중들은 마치 멋진 휘거경기의 한 장면을 보기라도 하는것처럼 요란한 박수갈채를 보내기까지 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딘가 과묵하고 엄엄하게 느껴지던 진호였으나 이제 와선 자기의 요구라면 어떤것도 서슴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자 우습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다. 그러나 결코 진호가 친절하지만 않다는것을, 때에 따라서는 거칠고 무자비하기까지 하다는것을 그도 알고있었지만 바로 그런 점으로 하여 그에 대한 사랑을 더욱 뜨거이 느끼게 되는 현옥이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남자들이란 아무리 사랑스러운 애인에게라 해도 절대 고분고분하기만 하면 안되는것은 물론 어떤 경우에도 자기 주장을 고집할줄 알아야 한다는것이였다. 아무리 처녀가 간절히 바래도 사내로서의 억센 담보와 듬직한 무게가 느껴져야 처녀의 가슴도 더욱 사랑에 불타게 된다는것이였다. 다른 남자들에게 없는 바로 이 점이 진호의 매력이며 이것만은 아무나 노력으로써도 감히 획득할수 없는 진정한 사내에게만 한하는 천성이라고 그는 생각하고있었다.
(내가 정말 그의 기술안을 제대로 도울수 있을가? 도리여 부담으로나 되지 않을가?)
문득 이런 걱정이 앞을 막았으나 그는 자기가 바로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는것을, 그래야 먼 후날 누구앞에서라도 자기의 청춘시절을 버젓이 자부할수 있으며 《나도 남 못지 않게 일을 했어!》 하고 자신있게 대답할수 있다는 생각에 미쳤다.
정녕 그때야말로 지나온 생활을 두고 얼마나 크나큰 영예와 자랑을 가지고 행복에 넘쳐 돌이켜보게 될것인가!
언젠가 한 동무의 집에 가서 사진첩을 본적이 있었는데 모든 사진들, 말하자면 그가 지나온 생활들은 하나같이 자기보다 초라한것이였으나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만은 부지중 부러움을 금할수 없게 했다. 확실히 자기에게는 없는 아니, 자기 생활에선 결여된 공간이였던것이다.
그때도 그는 순탄하게만 걸어온 자신의 생활에 대해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고 돌이켜볼수록 어쩐지 죄스럽기까지 했었다. 하지만 이젠

멀지 않아 자기 사진첩의 여백에도 철갑을 두르고 솟아있는 로체앞에서 찍은 사진이며 시험로옆에서 맹렬한 작업을 하고있는 모습 그리고 무수한 점과 선으로 련결된 도면앞에서 피곤에 지쳐있는 자신의 모습이 나붙게 되리라는것을 생각하니 저절로 가슴이 후더워올랐다.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꽃이 아니고 뭐람!)

첨보다 몇배로 확대된 희열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웃방으로 올라가 새 레코드판을 올려놓고는 곧 부엌으로 내려섰다. 오늘따라 음식을 만들어보고싶었고 팔을 걷고 나서면 저절로 맛있는것이 될것만 같았다.

음악에 맞춰 코노래를 부르며 자기가 만든 자그마한 맵시있는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는데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니 웬일이냐, 오늘은?》

윤씨는 언제나 시켜도 잘하지 않던 부엌일을 오늘따라 무슨 바람이 불어 하느냐는듯 한 의아한 눈길이였다.

《이제 두고봐요, 얼마나 맛이 있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볶음밥을 만들게요.》

《아이구, 관둬라! 맛은 무슨 맛, 그저 빛이나 곱겠지.》

동사업을 책임진데 불과하지만 마치 구역위원장이기라도 한것처럼 늘 바삐 사는 윤씨였다. 오늘도 그의 겨드랑이에는 두툼한 책이 두권이나 끼여있었다. 목도리를 풀면서 방안으로 들어서던 그는 무슨 생각이 났던지 다시 부엌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참 낮에 전화가 왔댔다, 네 오래비한테서.》

《왜요?》

《왜라니? 네가 그리로 가는것때문이지 뭐냐. 일요일에 꼭 집에 들리라더구나.》

흔히 어머니들이 그런것처럼 딸의 결심에 승낙을 해놓고도 못내 안심찮아하는 윤씨였다.

《무슨 선물이라도 준비해놓은 모양이지요?》

말끔히 씻어낸 홍당무를 도마우에 올려놓은 현옥은 그것을 썰기 시작했다.

그가 손을 놀릴 때마다 가락맞는 장단소리와 함께 홍당무는 마치 기계속을 거친것처럼 꼭같은 규격으로 보기 좋게 밀려나오는것이였다.

4

태양이 빛나는 한낮이였다.

군데군데 쌓여있는 눈무지들은 쨋쨋한 정오의 해빛을 받아 주변을 흥건히 적시고있었다.

그 주위에서는 한패의 조무래기들이 왁자지껄 떠들어대며 눈싸움을 하고있는데 그것은 막대기끝에 묻힌 눈으로 상대를 향해 자기 발바닥을 두드려대는 귀여운 눈싸움이였다. 그래도 식은 제법이다.

《돌－기－역》

《쟌－쨔쟈－》

눈덩이들이 어깨우에까지 마구 뛰여올랐으나 돌아서기라도 하면 혹 어린것들의 즐거움에 방해를 줄것 같아 현옥은 내처 걷기만 했다.

《달－매－》

《범달이－》

어느새 눈싸움이 칼싸움으로 변했는지 막대기를 휘두르며 마구 내달리는 어린것들이였다.

해방산의 나지막한 둔덕우에 여러채의 독립가옥들과 함께 나란히 자리잡고있는 오빠의 집을 보느라니 오늘따라 별스레 유정하게 느껴졌다.

멀지 않아 오빠와 헤여지게 되리라는 생각은 갖가지 추억을 불러일으켰고 그 추억의 파도는 모든것을 본래보다 더 아름답게 채색하는것이였다.

있겠노라고 한 오빠는 아침부터 직장에 나가고 없었다. 곧 돌아오리라는 형님의 말이였으나 그것도 두고봐야 알 일이여서 아까운 시간을 무료히 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으로 하여 현옥은 은근히 화가 났다.

이런 현옥이의 눈치를 알아차린 영숙은 어떻게든 그를 붙들어두려고 서둘러댔다.

신간잡지들을 응접탁우에 꺼내놓기도 하고 그새 자기가 수놓은 탁상보도 펼쳐보였으나 그것만 가지고는 시누이를 붙들어놓기가 미타하

다고 여겼던지 다시 웃방으로 올라갔다.

경공업위원회산하 어느 연구소의 산업미술가로 일하고있는 영숙은 섬세한 생김새와 딴판으로 무척 푸접이 좋고 활달한 성미를 지닌 녀자였다. 아무리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도 그는 삽시에 간단하게 해결해버리군 했는데 그 해답들은 하나같이 명백한것이였다.

《그런거야 따져보고말고가 있어? 누가 뭐라든 맘내키는대로 해야지 뭐야!》

이러는가 하면

《그렇게 심각해질건 하나도 없어요. 웃고말아요. 그럼 저절로 머리속에서 사라져버릴테니, 자—어서.》 하고 제 먼저 깔깔 웃어보이기도 했다.

한참동안만 그와 마주하고나면 그의 생기가 자기한테 옮겨진듯 했고 마치 경쾌한 음악을 듣고난 뒤처럼 마음이 개운해지는것이였다.

원다반우에 귤을 담아들고 들어온 그는 현옥이옆에 자리를 잡기 바쁘게 한알을 집어들고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그새 왜 한번도 오지 않았어? 무척 바쁜가보지?》

《하는 일도 없이 바쁜걸요.》

《하는일없이 바쁜거야 나지 뭐. 그래서 밤낮 송이 아버지한테 욕만 먹는걸. 어느것 하나도 제대로 못해놓는다고, 자—》

껍질을 벗긴 귤속을 내밀며 그는 방긋 웃었는데 그것은 이제야 현옥이를 붙들어놓게 되였다는 안도감에서 짓는 미소였다.

《언제나 그저 이래라저래라 하는 훈시지. 직장에서도 그러면 부서사람들이 어떻게 견딜가?》

오빠에 대한 형님의 이런 불평이 사실이 그래서가 아니라 반대로 행복에 겨운 녀인들이 하게 되는 심정의 토로라는것쯤은 현옥이도 알고있었다. 어째서 가정을 가진 녀자들이 자기의 속심을 다르게 표현하는지는 알수 없었으나 누구나 의례히 그런다는것만은 그도 모르지 않았다.

집에서는 물론 직장에서도 이래라저래라 하고 훈시할 오빠가 아니였다.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그런것처럼 오빠는 어떤 일도 여유있게 또 정확하게 수행하군 했다.

특히 자기로선 아무리 빈틈없이 준비한 도면이라 해도 거기에서 쉽

사리 미흡한 점을 찾아내는것을 볼 때면 어쩌면 오빠가 이리도 출중한 능력을 소유하고있을가 하는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자기로서는 며칠을 두고 생각해도 결심할수 없는 문제도 오빠는 그 자리에서 명백한 일가견을 피력하는것이였다.
《그 일엔 비치지 말어라. 왜냐하면 아직 내가 그 일에 대한 자신을 못 가지기때문이야. 어떤 일이든지 확신을 느끼지 못할 땐 결과가 좋지 않기마련이니까.》
마치 도면에서 나타난 결함을 지적할 때처럼 이렇게 말할 때면 약간의 론쟁이 오가기 일쑤이지만 오빠는 대번에 반박할 여지없이 명백한 론거를 가지고 자기를 격파해버리는것이였다. 그때마다 현옥이는 어떤 불가사의한 심정에 사로잡히군 했다. 그러나 이상한것은 감정으로는 잘 납득되지 않지만 랭정하게 따져보면 오빠의 분석이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는 그 점이였다.
한마디로 말해 자기를 놀라게 하는 오빠의 기질적특성은 자기의 힘과 정당성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였다. 자기에게 일반적인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표현할수 없는 안타까움과 자기가 믿는것이 혹시 무의미한것이나 아닐가 하는 의심을 오빠는 한번도 체험하는것 같지 않았다.
《참!》
갑자기 영숙은 당장 무슨 기쁜 일이라도 일어날것 같은 그런 눈길로 현옥이를 쳐다보았다.
《그 동무 잘있어? 진호라는 동무.》
눈길을 아래로 떨군 현옥은 곧 응접탁우에 있는 화보를 손에 들었다.
형님을 대하는 순간부터 오빠가 자기의 결심을 이미 말했을것이고 그것으로 하여 형님이 더없이 놀라와하리라고 여겼었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다. 심중한 오빠니까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으나 맘 한구석으로는 어쩐지 서운하기도 했다.
《오빠가 아무 말도 안했는가보지요?》
《무슨 말?》
《그 동무 얘기랑 또…》
《아니!》
머리를 저으며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아— 그래그래!》 하고 반

색을 지었지만 현옥이는 벌써 그의 대답이 자기가 바라는것이 아니라는것을 알아차렸다.

《뭐라더라… 노력과 재능에선 평가하지 않을수 없는 동무라던가. 그런데 또 뭐…》

자기를 돌아보는 형님의 눈길에서 이제 해야 할 말이 그리 유쾌한것이 못된다는것을, 그렇지만 어떤것도 속에 품고있지 못하는 천성으로 하여 털어놓는다는것을 직감했다.

《뭐 너무 열중하기 쉬워서 실수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나? 그렇지만 어때? 바로 그런 사람이 일을 해도 큰일을 하니 말야.》

《실은 말예요.》

현옥은 자기의 결심을 형님에게 터놓으리라 맘먹었다.

《진호동무 있잖아요, 전 그 동무하고…》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떤 상서롭지 못한 일이 생긴것으로 짐작하고 대뜸 심각한 표정을 짓는 형님을 보느라니 현옥은 왈칵 웃음이 솟구쳐올라 까르르 하고 웃었다.

《아니, 아니예요. 아무것도 안예요.》

《?》

영숙이는 더욱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현옥이를 쳐다보았다.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곧 외투차림을 한 명식이가 문앞에 나타났다.

《오래 기다렸니? 일요일인데도 영 사정을 몰라주는 친구들이라니!》

피곤에 지친듯 한 기색을 띄운채 방안으로 들어서는 오빠를 현옥이는 말끄러미 지켜보았다.

《어머니도 같이 오시지 않구!》

《오늘도 동에 나가신걸요, 무슨 큰일이나 하시는것처럼.》

《그래?》

말코지에 건 외투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며 명식은 껄껄 웃었다.

《송이는 왜 보이지 않소?》

《옆집 경식이하고 썰매를 타느라 야단이예요.》

《계집애가 썰매를 타?》

의자를 가득 채우는 둥글둥글한 몸집이며 어느모로 보나 틀에 잡힌 오빠의 거동은 현옥이에게 이전보다 오빠가 한결 살뜰해진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딴 사람처럼 엄엄하게 느껴지게도 했다. 하긴 이젠 대학을 졸업한지도 10년이 넘고 큰 부서를 맡고있으니만치 그럴법도 한 일이지만.

재털이를 응접탁우에 가져다놓은 영숙은 현옥이를 돌아보고는 방금 하던 자기들의 화제를 다시 꺼냈다.

《오늘같은 날 집에 같이 오시면 안돼요? 진호동무하고 말예요.》

《진호?》

무슨 대꾸를 하려던 명식은 쥐고있던 담배대에 불부터 붙였다. 다시 고개를 들려는데 이번에는 눈을 찌르는 담배연기로 하여 미간을 찌프리며 한손으로 부채질을 했다.

현옥이는 물론 영숙이까지도 그의 이런 태도가 그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드문 일, 즉 특별히 난감할 때만 나타내는 습관이라는것을 아직 모르고있었다. 매사를 정확한 판단으로 대하는 명식이에게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결심이 명백치 않거나 거기에 해당한 리유가 석연치 않는적이라고는 한번도 없었으나 때로는 지금처럼 난처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가 난처해하는 경우란 아무리 정당한것을 가지고 론증한다 해도 상대가 리해하지 못하거나 리해하려고 하지 않을 때였다. 누구보다도 그는 엄연한 사실과 그 사실에 따르는 론리를 무시하고 무작정 자기 감정만을 고집하는 사람을 천성적으로 싫어했다. 그때마다 그는 은연중 미간을 찌프리게 되는데 지금도 바로 그것을 예감한것으로 해서였다.

사실 그는 이미부터 현옥이에게 자기가 알고있는 모든것을 털어놓고 얘기해주고싶었으나 지금단계에선 아무리 명백한 사실들을 가지고 말한다 해도 사랑에 들떠있는 현옥이가 그것을 무작정 반박해나서리라는것을 모르지 않았기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어오기만 했던것이다. 그러나 이젠 더는 잠자코 있을수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널 찾은건 진호의 일때문이야.》

워낙 에둘러 말하거나 상대의 비위에 맞춰 표현하기를 싫어하는 그는 꼿꼿한 눈길로 현옥이를 마주보았다.

《그래 넌 그가 어째서 현장으로 가는지 그 리유를 알기나 하니?》

《현장이라니요?》

어리둥절해진 영숙은 그게 무슨 소리냐는듯 현옥이를 돌아보았으나 더 놀란것은 현옥이였다.

분명 오빠가 진호에 대해, 그의 탄원에 대해 어떤 의혹을 품고있는 것 같기때문이였고 그것으로 하여 미상불 자기 결심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으리라는 직감에서였다. 더우기 일단 내린 결심에 대해서는 그를 안받침하는 론거가 남달리 명백하고 확고한 오빠여서 그것을 철회시키기란 좀처럼 불가능하다는것을 알고있기에 불안해지는것이였다.

《무엇때문이예요, 갑자기.》

오누이사이에 심상찮은 감정이 교차되고있다는것을 느낀 영숙이가 이번에는 조심스레 물었다.

《하긴 그로선 어차피 그렇게밖에 처신할수 없기도 했지.》

《?》

현옥은 소름이 끼쳤다. 그러니 오빤 의혹이 아니라 그의 탄원을 정면으로 부정하고있는것이 아닌가!

《어차피라니요? 그건 무슨 말이예요?》

속심을 꿰뚫어볼수가 없어 두려운 생각이 드는 오빠의 눈을 현옥은 공포에 질려 바라보았다.

《물론 나도 너의 결심을 단순하게만 보지는 않아. 너도 이젠 스물네살이니까. 그러나 사람이란 일생에서 분별을 가리지 못하는 때도 있거던. 특히 청춘기엔 말이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일에는 맹목적으로 뛰여들기가 쉽지.》

《맹목적이라구요?》

혼란되는 의사를 수습하기 어려웠으나 현옥은 있는 힘을 다해 침착하려고 애썼다. 이런 땔수록 용의주도한 오빠를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고집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사리정연한 리치, 청춘에 대한 인생과 생활에 대한 뚜렷한 신념이 있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하리라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이였다.

《아니예요. 오빠 뭔가 잘못 리해하고있어요. 하긴 절 그렇게 볼수도 있겠지요. 전 여태 너무나도 응석꾸러기로 자랐으니까요. 그렇지만 오늘에 와선 그렇게 산다는것이 무의미하다는걸 알게 됐고 또 그

렇게 살아온 자신이 부끄러워요.
전 이제라도 보답을 하고싶어요. 나를 키워준 당에, 고마운 우리 제도에, 그래서 그걸 실천으로 옮기려는거지요, 진호동무와 함께. 이게 분별없는 처산가요? 맹목적인건가요?》
《…》
영숙은 너무도 심각한 문제여서 더는 끼여들 생각을 못하는듯 숨을 죽인채 앉아있었다.
《난 너의 결심자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어. 그러나 한가지만은, 즉 리성이 맹목적인 신뢰로 바뀌여 사실을 정당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의 주관만은 깨닫도록 해야겠단 말이다. 알겠니?》
현옥이가 제법 남들을 놀래우는 열정과 두뇌를 가지긴 했지만 순간순간의 인상에 사로잡히기 쉬워서 곧 자가당착에 빠져버리군 하는 그런 소박한 처녀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명식이였으나 지금은 자못 심중한 기색을 띄운채 말했다.
《보건대 넌 확실히 아직 그의 현장탄원이 어떤 사정에 의한것인지도 모르고있어.》
《제가 왜 몰라요?》
《글쎄 모른다니까…》
담배를 재털이우에 걸쳐놓으며 이제부터 할말에 대한 의의를 부여하려는듯 명식은 얼마간 침묵을 지켰다.
《그럼 내 얘기하지.》
그는 또다시 한동안 창밖을 내다보다가 말을 이었다.
《물론 우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나라의 연료를 만들어야 해. 그게 바로 주체야금법을 실현하는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작년에 석달이나 현지에 가있지 않았니. 제철소에 말이다. 구체적으로 따져본 결론이 뭔가? 지금단계에선 도저히 대용연료, 즉 우리 나라의 연료를 쓰기는 어렵다는것이였어. 왜냐하면 열량과 연재때문이였지. 우선 그 연료를 쓰면 1 800도의 용해온도를 보장할수 없는데다가 로구조에 막대한 영향까지 미치게 되거던. 물론 이외에도 사소한 결함들이 많지만…
우린 이 연구결과에 대해 당에 보고올리면서 아직 로에만은 중유를 계속 취입할수밖에 없다는데 대해서도 제기했지. 모름지기 이제 거기

에 대한 해당한 대책이 취해질거다. 그런데 진호 그 친구는 제 고집대로 자기가 연구해오던 연료를 공장에 시험도입까지 했지. 그것도 부에서 반대하리라는것을 알고 아무 토론도 없이 말이다. 결과가 어떻게 됐니? 숱한 자재와 설비가 투하된 다음에야 그게 아무런 의의도 못가진다는걸 알았거던. 나도 그 사고심의에 참가했지만 국가에 적지 않은 손실을 끼쳤단 말이다. 자— 이 책임을 누가 지지? 누구든 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거야 명백한 일이 아니냐.》

《그럼 그 동무가 사고때문에 현장으로 간다는거예요?》

현옥은 경악에 차서 부르짖었다.

《그건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야,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하고있고. 너도 생각해보렴. 그래 지금 누가 이렇다할 담보도 없는 기술안을 위해 현장으로 간단 말이냐? 더우기 이미 불가능한것으로 당에까지 보고된 기술안인데 말이다.》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가 사고는 냈어요. 그렇지만 그는 대학때부터 그걸 연구해왔어요. 그 하나를 위해 모든걸 바쳐왔단 말이예요.》

《대학때부터가 아니라 10년을 하나의 과제에 바친 사람도 많아! 문제는 연구를 해왔다는것이 아니라 사고를 냈다는데 있어! 이걸 봐라!》

명식은 한결 나직한 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회의 매개 성원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맡겨진 특정한 사업을 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있는게 아니냐. 때문에 누구에게나 자기의 궤도가 있고 그 궤도에서만 달려야 하는거야. 바로 그게 사회와 조직의 요구니까. 아무리 다른 길로 가고파도 주어진 궤도를 함부로 벗어나선 안돼!

그건 마치도 하나의 과잉분자가 물질의 규칙적인 운동을 파괴해버리는것처럼 그런 사람은 본의아니게 다른 사람들, 나아가서는 집단까지도 혼란시켜놓기때문이지. 이게 바로 우리 생활방식이고 이것을 어길 땐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것이 또 우리의 생활법칙이야.》

《아니예요, 그런게 안예요. 오빤 아무것도 모르고있어요.》

위급한 정황에 부딪칠 때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일정한 한도내에서 견지하던 자제력을 잃어버린 현옥은 벌써 자기의 감정과 행동을 조

절할 능력도 의지도 다 잃어버리고말았다.

《모르고말고요.》

현옥은 더욱 큰소리로 부르짖었다.

《그가 현장으로 가는걸 누가 지지해준줄 알아요? 당위원회에서 해주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어째서 당위원회에서까지 지지해주었겠어요?》

명식의 입가에는 곧 쓸쓸한 미소가 어렸다.

《거야 지지해주구말구. 그래 앞길이 구만리같은 사람한테 딱지를 붙여 내보낼상싶니? 사람문제를 그렇게 소홀히 취급하지는 않는 법이야. 더우기 그는 자기가 어떻게 되리라는것을 알고 한발 먼저 당위원회에 찾아가 제철소에 보내달라고 했거던. 얼마나 역바른 처사냐. 어떻게 보면 현명하기도 하고. 그러니 당위원회에서야 그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그런데 문제는 그가 당조직의 관대한 처사를 악용하여 사람들을 속이는데 있지. 너한테처럼 말이다. 그래 네가 이걸 알기나 하니? 이런걸 알고 한 결심이냐 말이다.》

《?》

현옥이의 두눈은 갑자기 무엇에 질겁한 사람처럼 대번에 휘둥그래졌다.

(설마? 아니야! 진호동문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그처럼 진실한 그가 사람들을 속이고 나를 속인단 말인가! 어떻게 그처럼 비렬하게 자기를 위장한단 말인가! 그럴수 없어! 절대로 그럴수 없어.)

심장이 당장 흉벽을 헤치고 밖으로 터져나올것만 같아 그는 저도 모르게 가슴을 부둥켜안았다.

사실 명식은 진호를 헐뜯거나 과장하여 비난할 생각은 꼬물만치도 없었다.

그가 진호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것은 어느모로 보나 그의 현장진출을 사고에 대한 책임, 생활공식을 어긴데서 오는 필수불가결의 조치로밖에는 달리 볼래야 볼수 없기때문이였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그에게는 하나같이 다 명백했는데 그것은 그가 세상만사를 대하는 척도가 남달리 명료한데 있었다.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그는 거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수 있는 요소들과 과정들,

특히 그 일에 내포돼있는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선 일체 무시하고 오직 옳으냐 그르냐, 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타산에 기초하여 결론을 도출해내는것이였다. 그 엄밀한 타산이야말로 심사사업을 책임진 자기에게 없어서는 안될 가장 필수적이며 또 제일 중요한 무기라고 여기고있었다.

때문에 일부 사람들한테서는 왕왕 《절대치》라는 비난을 듣는 경우가 있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사소한 결함도 나타낸적이 없은것으로 하여 언제나 남다른 평가를 받아오는 그였다.

《…》

현옥이는 뭐가 뭔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무작정 오빠에 대한 불만이 솟구칠뿐이고 그만치 진호를 옹호하고 싶기만 했다. 당장 눈물이 쏟아질것 같아 그냥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좋아요.》

튕기듯 자리에서 일어난 현옥은 단호한 눈길로 오빠를 쏘아보았다.

《오빠가 그 동물 어떻게 본대두 좋아요. 전 결심대로 하겠어요. 이젠 저도 자기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것쯤은 알고있으니까요.》

《누이!》

총총걸음으로 나서는 현옥이를 따라가며 영숙이가 소리쳤으나 명식이가 만류했다.

《놔두오.》

《그럼 어째요?》

《그만큼 얘기했으니 저도 무슨 생각이 있겠지.》

남들이 엄두도 못낼 일을 곧잘 결심할뿐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하는 현옥이지만 그런 처녀들이 흔히 그런것처럼 인차 또 자기에 대해 뉘우치기도 한다는것을 알고있는 명식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불안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는 현옥이같이 현실을 공식처럼 받아들이는 단순한 초학도들일수록 일시적인 충동에 못이겨 엉뚱한짓을 저지르기 십상이기때문이였다.

제 2 장

나는 증명할것이다

5

《이번 주내로 떠나겠다? 그러니 아무래도 난 동무가 떠나는걸 보지 못하겠군그래.》

기술국장 성문규는 나직이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환갑이 가까왔으나 나이에는 어울리지 않게 반반히 옆으로 빗어넘긴 머리며 빠른 하관에 깊숙이 패인 눈확, 더우기 가냘프리만치 연약한 두어깨는 한눈에도 일생을 과학에만 바쳐온 사람이라는것이 유표했다. 움직임이 없는 몸가짐과 상대방이 무안을 느낄 정도로 뚫어지게 바라보군 하는 눈길은 무식과 허위를 질시해마지않는 사람에게만 특유한 싸늘한 랭기가 풍기고있어 누구도 함부로 접근하기를 주저했다.

오직 실력만을 당자의 인격으로 치부하는 그를 어떤 사람들은 도면밖에 모르는 꾀장꾀장한 도감이라고 했지만 진호는 이 국장이야말로 자기 직무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라고 믿는터였다.

그는 오늘 저녁차로 새로 건설된 북부지구 강철공장의 조업개시를 위한 기술일군으로 떠나야 했다. 그래서 미리 작별인사를 하려고 찾아온 진호였다.

《떠나기 두렵지 않소?》

언제나처럼 꼿꼿한 눈길로 바라보는것이여서 진호는 그가 어떤 뜻으로 묻는 말인지 가늠할수가 없었다.

《두렵다니요?》

《아니, 됐소. 내가 괜한 걱정을 했는가보오.》

진호는 그와 단둘이 마주앉고보니 배치돼서 첨 만나던 때의 일이 문득 떠올랐다.

그때도 두서없는 질문을 마구 퍼붓고는 어찌도 지독스레 쏘아보던지 거북하기 짝이 없었다.

《뭘 전공했소?》

《열공학입니다.》

《열공학? 그런데 어째 여기 왔소?》

《…》

《희망이요? 아니면 배치됐기때문에 왔소?》

《배치됐기때문에 왔습니다.》

《희망은 뭔데?》

《연료연굽니다.》

《연료연구?》

워낙 까근까근하게 파고드는 사람이 질색인 진호는 틀림없이 이 늙은 직속상관이야말로 일단 마주하면 시시콜콜한 질문을 끝없이 들이댈 겸질긴 사람같아 앞으로 지낼 일이 은근히 걱정스럽기까지 했었다.

아닌게아니라 문규는 부서에 새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깊은 주의와 흥미를 가지고 살펴보군 했는데 그때의 눈길은 마치 새로 사온 금붕어를 어항속에 띄워놓고 지켜보는 사람의 유쾌하고도 진지한 시선이였다. 일정한 만족이 가는 경우엔 혼자 고개를 끄덕이였지만 불만을 느끼게 될 땐, 특히 맡겨진 일을 응당한 수준에서 처리하지 못할 땐 가차없이 발가벗기는것이였다.

《보아하니 동문 대학에서 5년동안 공밥을 먹었군그래. 여기선 동무가 할일이 없는데 어떡허면 좋겠소?》

이럴 땐 옆사람까지도 소름이 끼쳤다.

진호도 그때면 등골이 다 오싹했으나 한편으로는 야릇한 호기심도 누를수 없었다. 이런 국장이 자기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겠는지 자못 궁금했던것이다. 자기 사업에 대한 확고한 자신심이 없는 일군이란 결코 이와 같은 과단성이 없다는것을 그리고 이런 무자비한 일군의 심판이야말로 정당하다는것을 그도 알고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진호는 처음으로 자기가 담당한 도면을 그앞에서 심사받게 되였다.

이때에야 그는 비로소 심사라는것이 재판과 비슷하다는것을, 담당자의 처지가 법관들앞에 나선 피고와 같다는것을 알았다.

자기를 중심으로 반원형으로 빙 둘러앉은 심사원들은 마치 검사가 피고의 죄목을 라렬하듯이 서로마다 도면에서 료해한 부족점을 들춰내기 시작했다.

《내연성을 담보할수 없습니다.》

《안전계수의 허용한계가 정확치 못합니다.》

마치 한장의 도면에서 결함을 얼마나 들추어내는가 하는것이 자기능력을 평가받는 기준이기라도 한것처럼 그들은 하나같이 열을 올리며 따지고들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것을 몰랐으며 또 이전의 관례가 어떠하다는것조차 알수 없었던 진호는 첨엔 당황했으나 점차 안정이 되면서 해당한 론거들을 가지고 반박하기 시작했다.

그 열자동조절기도면을 위해 숱한 밤을 밝힌 그였고 현지에도 몇차례 출장까지 다녀왔던것이다. 비록 자기의 창안품은 아니였지만 배치받아 처음 맡은 과제라는것으로 하여 자기것 이상으로 고심을 들였었다.

이렇게 되자 심사원들의 질문은 점점 까다로와졌고 진호 역시 그들의 의견에 대한 반박에 열을 올리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 눈을 게슴츠레 감고있던 몸집이 뚱뚱한 번대머리심사원이 진호를 참을수 없게 만들었던것이다. 그것은 이미 충분히 납득이 가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들이대는데도 있었지만 보다는 그 엉터리없는 의견인즉 사실상 열자동조절기의 운명에 사형을 선고하는것과 같이 무지한것이기때문이였다.

그런데도 그는 줄곧 범잡은 포수처럼 비만한 표정에 숨길수 없는 우월감을 담고 어디 대답해보라는듯이 기세등등해있는것이였다.

《도대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 부분구조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건 도면을 따져보면 다 알수 있단 말입니다. 도면을 원리적으로 따져볼 능력만 있다면 말입니다.》

《아-니, 이 동무가?》

모두가 불손하기 짝이 없는 진호를 아연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제기된 의견을 창안자에게 전달하고 그대로 수정하도록 도와주는것이 담당자로서의 의무인데 이 풋내기는 사소한 의견에 대해서까지도 굳이 반박해나서는것이 아닌가!

《여보! 누가 동무의 살점을 뜯어내자오? 영 태도가 글렀거던!》
번대머리가 책상을 두드리며 로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심사원들도 이 겸손치 못한 초학도의 소행에 격분을 금할수 없다는듯이 또 처음부터 신발을 단단히 신겨야 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심사를 책임진 문규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때에야 진호는 자기를 쏘아보고있는 국장을 보았고 자기의 행동이 지나쳤음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미안합니다. 전 사실…》
《뭐라구?》
칼날같은 목소리였다. 당장 쏟아져나올 그의 힐난을 기다리며 진호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의 말은 전혀 뜻밖이였다.
《어쨌단 말이요? 뭐가 잘못됐다는거요? 그래야 하오! 담당자의 태도는 백번 그래야 옳단 말이요! 이런 태도야말로 도면에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고있다는게 아니겠소. 자기 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한다는 증거가 아닌가 말이요.》
체소한 몸을 부들부들 떨며 주먹을 흔들어대는 국장의 흥분한 모습에 진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전에도 말했지만 이때까지 우리의 심사는 심사가 아니라 재판이였소, 엉터리없는 재판! 어째선가? 그건 담당자의 노력이 도면에 가해지지 않기때문에.
담당자까지도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긴 아직 그런 결함이 있습니다.〉(그는 입을 삐죽 내밀고 허리를 굽신거리며 비굴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하고 꺼리낌없이 말하군 했지.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말이요.
이거야말로 얼마나 무책임하고 맹목적인 태도요. 그러니까 결국 허동무와 같은 한심한 질문을 한단 말이요. 허동무! 부끄럽지도 않소?
그러나 보오. 이 동무! 진호라고 했던가? 얼마나 깊이 연구했소.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도면에 쏟아부었는가 말이요. 진호동무, 앞으로도 절대로 그런 고집을 버리지 마시오. 알겠소?》
그때부터 진호는 그에게서 어떤 매력적인것을 가려볼수 있었고 그의 사고의 구체성에 대해 느끼지 않을수 없었으며 특히는 이 국장이 자기 사업을 완전히 도통하고있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런 일군을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을거야.)
진호는 국장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그와의 석별의 정 또한 금할 길 없었다.
《내 얘길 하나 할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그는 티 하나없이 깨끗한 자주빛책상을 손바닥으로 쓸면서 빙그레 웃었다.
《언젠가 손자녀석을 데리고 문풍지를 바른 일이 있었는데 들어보오. 글쎄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말수가 적고 다소 답답한 사람이 그런것처럼 그도 단둘이 마주앉아 있을 때에는 갑자기 수다스러워져서 대가리, 꽁지없는 이야기를 곧잘 꺼내놓군 했다.
《그녀석이 풀칠을 해주면 난 의자우에서 그걸 받아붙였지. 한참 창문을 바르다보니 이놈이 제 손으로 아래문턱을 바르고있는게 아니겠소. 아마 풀칠한걸 들고있기가 지루했던게지. 그런데 발라놨다는게 이건 엉망이란 말이요. 하긴 연필도 제 손으로 깎지 못하는 녀석이 그걸 어떻게 제대로 붙이겠소. 한데도 난 꽥 하고 소리를 질렀소.
〈이놈아, 누가 너보고 바르라던?〉
별로 기분나쁜 일도 없었는데 난 괜히 큰소리를 쳤지. 동무도 알지만 내야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요. 이상하게도 우리 집 아이들은 내가 한마디만 해도 몹시 서러워하는게 아니겠소. 이붓자식들처럼 말이요.》
어째서 국장이 이런 얘기를 할가 하고 궁리해보았으나 진호는 좀처럼 료량할수가 없었다.
《그녀석은 입을 실룩거리더니 종내 눈물을 떨구더군. 그리고는 제가 방금 붙인걸 손톱으로 하나하나 긁어내더란 말이요. 그 모습을 보느라니 어쩐지 불쌍한 생각이 들면서 내가 몹시 고약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는게 아니겠소. 무엇때문에 앨 욕했을가 하는 후회가 들더란 말이요.
사실 자기도 할아버지처럼 해보려는 마음, 할수도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얼마나 기특한것이요. 기특하다기보다 소중한것이지. 우리의 현실은 아이들조차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게 아니요. 그런데도 난 어린 마음속에 움트는 그 귀중한 싹을 억눌러버렸으니…

난 곧 자기를 뉘우치는 의미에서 앨 의자에 올려세우며 말했소.
〈자 실컷 발라봐라. 제대로 붙이지 못해도 좋아.〉 하고 말이요. 그런데 글쎄 이녀석이 붙일념을 해야 말이지. 슬슬 눈치만 보는게 아니겠소. 내참! 기가 막혀서… 별치 않은 일이였지만 난 그날 저녁 잠을 다 잘수가 없었소. 그때부터 난 아이들의 욕망, 그것이 비록 부질없고 하찮은것이라 해도 최대로 묵과하기로 결심했소. 그때문에 결코 그 귀중한 싹이 억제당해서야 안되는게 아니겠소. 안 그렇소? 내가 이 말을 하는건 동무도 이담에 참작하라고 해서요. 아이가 생기면 말이요.》
그제야 진호는 그의 뜻을 리해할수 있었다. 왜 그가 이런 말을 하는지 짐작이 갔고 그럴수록 그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속에 꽉 차오르는것이였다.
이미의 실패를 두고 소침해질가봐 걱정해주는 그, 어떤 경우에 처해도 창조에 대한 열정을 잃지 말라고 고무해주는 그, 그것이 없이는 삶의 보람도, 생활의 재미도 있을수 없다고 당부하는 그가 아닌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백배의 정열로 일해야 하리라는 새로운 투지가 가슴속에 사품쳐오르는것이였다.
실상 문규는 지금 진호를 위해 뭔가 더 각근하게 대해주고싶은 심정에 휩싸여있었다. 그것은 그를 진정으로 도와주지 못했다는 후회가 이제 와서 더욱 가슴을 허비기때문이였다.
그는 진호의 실패가 많이는 자기때문이라고 여기고있었다. 물론 미흡한 점이 있는데다가 사전토론도 없이 도입시킨데서 온 후과이기도 했지만 보다는 자기가 첨부터 그의 기술안을 소격하게 대해온데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가책으로 하여 뒤늦게나마 그의 남다른 포부를 각별히 고무해주고싶은것이였다.
사실 그도 첨엔 현장으로 가려는 진호를 만류하고싶었지만 그 일에 대한 그의 각오와 열정을 리해하게 되면서부터는 자기의 생각이 한갖 로파심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대공에 깃을 활짝 펴야 할 뭇새를 조롱속에 잡아두려는 부질없는짓이라는것을 깨닫지 않을수 없었다.
그때부터 그는 당비서에게 이런 권고를 했다. 《저런 사람이야말로 마땅히 창조의 1선에 서야지요. 여기선 한몫을 해도 바라는데 가서는 꼭 열배의 성과를 나타낼 사람입니다.
마치 태여날 때부터 그걸 위해 태여난 사람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불안도 없지 않았다. 정작 떠나보내자니 이제껏 느끼던 근심이 배로 증대되는것이였다. 그것은 젊은 사람 일반에게 하게 되는 늙은이로서의 걱정만이 아니라 유독 진호에게만 해당되는것 즉 일단 옳다고 생각한것에 대해서는 신심 하나에만 충만된 나머지 아직은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선 너무도 무관한 그것이였다.

그는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하면 누가 뭐라든, 가능성여부는 어쨌든간에 무작정 달라붙는데 특히 남들이 할수 없다고 결론지은것들이나 남들이 하다가 물러선것일수록 더 큰 흥미를 느끼는것이였다. 그야말로 수업시간에 강사가 《이건 아직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고 말하면 기를 쓰고 달라붙을 그런 류의 젊은이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하려는 일이 쉽사리 되기를 바라며 그 어떤 장애도 없이 빨리 성사되기를 바라는 법이지만 반대로 자기가 하는 일에 시련과 난관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도 간혹 있는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위험과 위훈이 약속된 생활이라야 흥미를 느끼며 의의를 찾는다. 아무리 바라던것이라 해도 우여곡절이 없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그 어떤 보람도 느끼지 못하는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를 외롭고 고독하고 간고한 처지에 빠뜨리기가 일쑤인데 바로 이런 사람들중의 하나가 진호였다.

이번 경우에도 여느 사람같으면 자기의 현장진출을 놓고 주위사람들의 시비에 신경을 쓰며 고민에 빠져있기마련이련만 그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떠나기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던것이나 그런 내심조차 짐작하지 못하는상싶었다.

(하긴 그럴수밖에! 워낙 제철소로 가겠다는것이 소원이였으니까.)

자리에서 일어난 문규는 서류함을 열고 자기가 쓰던 고급계산기를 꺼냈다.

《이거라도 가져가오, 쓰던거라고 나무라진 말고.》

《계산기야 저한테도 있는데요.》

《그래도 가져가오. 이걸 주는건 아무리 훌륭한 시도도 결과가 명백할 때만 빛이 난다는걸 명심하고 두번, 세번 따져주길 바래서요. 알겠소? 결코 쉬운 일이 아닐거요. 그렇지만 절대로 의기소침해지진 마오.

일이란 능력보다도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언제나 먼저 비밀을 찾

는다는걸 꼭 명심하오. 그 필요성이란 뭐겠소? 그건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간절히 바라고계신다는것이 아니겠소.》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일!)
국장과 헤여진 그는 몇번이고 이 말을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어떤 책임감이 새삼스레 어깨를 내리누르는것이였다.
갑자기 복도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면서 낯익은 얼굴들이 일시에 우르르 방안으로 밀려들었다.
강연회가 끝난 모양이였다.
모두들 진호를 보자 마치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처럼 반가와했다.
《다 돼가나?》
《다가 뭔가? 이제 겨우 시작일세. 무슨 수속이 그리도 복잡한지, 원.》
《그래 송별회는 언제쯤 하자나?》
《난 이제라도 준비됐으니 가자는 말만 기다릴뿐이네.》
《넨장! 신랑이라도 된 기분일세그려.》
《가만가만, 아까 그 할레혜성인지 뭔지 하는게 언제 들이닥친다구?》
방금 있은 과학강연에서 들은 인상을 지워버릴수 없었던지 한 친구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오늘은 천체에 대한 강연이 있은 모양이였다.
《언제라던가? 어쨌든 멀지는 않아! 혹시 이번엔 그놈이 궤도변화를 일으켜 지구를 정면으로 들이받는게 아니여?》
《설마? 그럼 우린 어떻게 되지?》
《제발 그런 끔찍한 소리는 하지도 말게!》
《걱정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 말이나 재치있게 둘러대는 기표라는 친구가 한걸음 나서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땐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인공위성을 타고 다른 행성에 옮겨앉게 될테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옆에 있는 진호의 어깨를 철썩 갈겼다.
《자—보십시오. 이 진호동물 보십시오. 벌써 우리 시대의 새로운

위성을 타고 들끓는 새 행성으로 가지 않나. 이게 바로 우리의 과학이고 우리의 미래란 말입니다. 우리모두 열렬한 박수로 이 우주비행사를 환영합시다, 단 딴따…》

그의 입나팔에 맞추어 요란한 박수가 터져올랐다.

《그런데 단독비행인가?》

이번엔 기표뒤에 있던 키꺽다리가 물었다.

《천만에요, 옆에는 꽃같은 춘향이가 앉아있지요.》

《어랍쇼, 그러니 혼성비행이군그래.》

또다시 《와》하는 웃음판이 터졌다.

이때 출입문으로 근식이라고 불리우는 친구가 고개를 기웃거리며 들어섰다.

떠들썩한 분위기와는 너무도 대조되는 그의 심각한 태도가 대번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무엇때문인지 그는 친구들쪽은 거들떠보지도 않은채 제자리에 가앉는것이였다.

언제나 묘한 사건들과 남들이 모르는 비밀들을 용케 알아내가지고는 친구들을 놀래우군 하는 그여서 기술국에서는 청우계와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친구들은 그를 근식이라는 이름대신 《소식》이라고 불렀는데 한편으로는 무슨 불만이 그리도 많은지 자주 부르터있어서 그럴 땐 《근심》이라고도 했다. 그의 표정을 보고 소식이냐, 근심이냐를 판별하군 했던것이다. 그러고보면 지금은 분명 무슨 근심이였다.

《모를 일인걸! 아무래도 모를 일이야!》

아니나다를가 예보장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자기를 주시하고있다는것을 알자 그는 더욱 고개를 기웃거렸다.

《무슨 일이게?》

눈을 끔뻑해보인 기표가 그에게로 다가갔다.

《진호동무가 제철소에 가는거 말이야, 희망이라는건 거짓말이라면서?》

《뭐라구, 누가 그래?》

《누군 누구야, 심사실장이지. 심사원들앞에서 진호에 대해 얘기하면서 희망이요, 소원이요 하는건 한갖 쫓겨가게 된 처지를 타당화해

보자는 궤변이라면서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했다잖아. 따져보면 그런것 같기도 하고…》

얼른 그에게로 다가선 기표가 아무 말 말라고 어깨를 꼬집어뜯으며 눈을 흘겨붙였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이쪽을 건너다보던 그는 그제야 친구들속에 있는 진호를 발견하고는 입을 딱 벌렸다.

《아—아니!》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두눈에 펄펄 이는 불을 담고있던 진호가 불시에 문을 차고 나갔기때문이였다. 어찌나 급작스런 행동인지 누구 하나 붙들념도 못했다.

《또 일을 쳤군! 그놈의 혀바닥을 땜질해치우든지 해야지 이거야 어디…》

《왜, 내가 거짓말을 했게?》

자신의 실책으로 빚어진 후과를 때늦게 감촉한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는 제편에서 도리여 성을 냈다.

《우린 뭐 그런 말이 있다는걸 모르는줄 아나? 아는것도 입밖에 내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단 말이야.》

《흥! 그렇다고 그렇지 않는걸 참아야 해? 잠자코 있어야 하나 말야, 천만에! 사람이 제일 괴로운 일이 뭔지 알기나 해? 그건 바로 진심을 의심받는거란 말이야. 알겠어?》

《…》

근식이의 이 말에는 누구 하나 아무 대꾸를 못했다.

6

《뭐라구요? 내가 사람들을 속인다구요? 쫓겨가면서도 주먹질한단 말입니까? 어디 다시한번…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보기에…》

솟구쳐오르는 오열로 하여 진호는 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온몸이 와들와들 떨리기만 했다. 생각같아서는 당장 앞에 있는 책상을 산산쪼각이 나게 박산내고만싶었다.

《?…》
너무나도 불시에 들이닥친 일로 하여 명식은 물론 수표를 받으러 왔던 지도원(당시)까지도 질겁한 눈길로 진호를 바라보았다.
무엇때문에 진호가 이처럼 흥분했는지 리해할수 없었던 명식이였으나 곧 짐작이 갔다. 그러나 자기가 결코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과장하지 않았다는것으로 하여, 특히 새로 배치돼온 사람들에게 앞으로 명심해야 할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실례로 지적했을뿐이라는 생각이 들자 은근히 부아가 치밀어올랐다.
(무엄해도 분수가 있지. 이건 너무 분별없이 날치는걸!)
하지만 평소에도 자신의 행동을 감정으로가 아니라 랭철한 리성으로 규정짓는데 버릇된 그는 웬만해서는 성을 내는 일이 없었지만 이런 경우에는 한결 더 침착해지는것이였다.
《그래서 폭탄을 지고 뛰여들었소?》
그의 표정은 마치 차안에서 굉장한 폭발소리를 듣고 잠을 깬 사람이 무슨 충돌사고가 아닌가 하고 놀랐다가 (음— 다행히도 충돌이 아니라 빵꾸가 난게로군. 그렇지만 꽤 시끄럽게 됐는걸!) 할 때의 기색과 흡사했다.
《물론 사고를 냈습니다. 쫓겨간다고 해도 할말이 없구요. 그렇지만 어떻게… 어떻게 남의 진정까지 그렇게 무시합니까. 무슨 권리로 남의 진심을 함부로 모독하나 말입니다. 명백히 말해두지만 난 이미부터 현장에 나갈걸 바랬고 또 그걸 위해…》
실장의 태도가 어떻든간에 진호로서는 가슴속에 소용돌이치는 울화를 내뿜지 않고는 견딜수 없었다.
《이미부터?》
《이미부터지요, 이미부터구 말구요.》
(흠, 이젠 그렇게 둘러치는가?)
대학때부터 연료를 연구해왔다는 말은 들었어도 현지로 갈 결심이였다는건 금시초문인 명식이였다.
아무말없이 뒤로 돌아선 명식은 지도원이 가지고 온 문건들에 수표를 하기 시작했다.
진호는 그가 하는 일을 당장 집어던지고 이건 버릇도 없이 무슨짓이냐고 소리치든가, 아니면 너야 쫓겨나는 놈이지 별다른 놈이냐고 따

지고들어주었으면싶었으나 수표를 다 하고난 명식은 그것을 간종그려 지도원에게 내밀며 나직한 목소리로 덧붙이기까지 하는것이였다.
《이번 출장이 오래겠는데 일없겠소?》
《괜찮습니다.》
《그래도 기회를 봐서 한번 다녀가오. 어머니될 사람한테야 역시 세대주가 있어야 맘놓이는게 아니겠소.》
실장이 당하는 무안을 목격한것으로 하여 어느 정도 소침해있던 지도원이였으나 명식이가 이런 관심을 돌려주는 바람에 그는 히죽 웃기까지 했다.
문을 나서면서 그는 불만스러운 눈길로 진호의 뒤통수를 한번 쩰 흘겨붙였는데 보매 그것으로 실장의 친절에 대한 자기의 례를 표시하려는상싶었다.
그를 바래워준길로 명식은 또 옆방으로 갔다. 급히 전달해야 할것이 아니면 포치해야 할 일이 있는 모양이였다.
방안에 우두커니 혼자 남게 되자 진호는 어쩐지 어처구니없기도 하고 허구프기도 했다.
일단 옳다고 생각하면 상대가 누구든 무작정 덤비는 그였으나 흔히 그런 사람들이 그런것처럼 그 역시 뒤는 그리 질기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을 다잡고 분노에 박차를 가하며 명식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도대체 자기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알기에!)
다른것이라면 몰라도 그처럼 간절한 소원이였던 그 열렬한 지향, 대학때부터 숱한 친구들의 동경과 선망의 대상으로 돼오던 그 꿈같은 포부가 짓밟히는데는 도저히 참을수가 없었다. 아무리 쫓겨가는 처지에 놓였다 해도 결코 그 진정만은 유린당할수 없었다.
(어째서 사고만 따지는건가? 어째서 마음속에 품은 간절한 지향은 리해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인가!)
원래 상처란 일부러 남들이 자꾸 건드리는것 같이 생각되지만 실은 그것이 각별히 민감하게 느껴지기때문이라는것을, 바로 그런데서부터 자기의 격분이 더 무섭게 폭발되였다는것을 그는 알수도 없었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단지 지금 그의 가슴속에는 자기의 량심과 진정을 모독한데 대한 울분과 분노 이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방으로 들어선 명식은 한결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의자를 권했다.

《그럼 내가 잘못 리해하고있었는가?》

진정인지 조손지 종잡기 어려운 목소리였다.

《난 사실 동무가 이미부터 그런 결심을 품고있었다는건 몰랐소. 더우기 지금에야 누구나 현장에 가려 하지 않는게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요. 그리고 동무가 하려는 새 연료에 대한 연구실태를 우린 이미 당에 보고올리지 않았소,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말이요.》

성을 낼래야 낼수 없는 스스럼없는 그의 태도를 보자 진호는 사실이 실장이 어떻게 자기의 희망을 알수 있으랴 하는 느낌이 들면서 어느모로 보나 의심을 받을수밖에 없는 자신의 서글픈 처지가 되새겨졌다. 그러자 새삼스레 자신에 대한 원통한 생각으로 하여 목이 메여오르는것이였다.

《대학때부터라…》

명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였으나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있었다.

그는 실상 진호를 천성적으로 질시해마지않는 그런 형의 인간, 즉 현실을 추상적으로 대하는 터무니없는 랑만주의자일뿐아니라 창조사업을 한답시고 자만심만 가득한 그런 부류의 인간으로 간주했다. 때문에 지금도 남들이 자길 어떻게 보는지는 알지도 못하고 분별없이 날치는것으로밖에는 여기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의 특징은 문제의 본질을 재빨리 포착하는데도 있었지만 보다는 아무리 자기가 확신하는것도 이모저모 구체적으로 타산해보고 그것이 원칙과 어떻게 되는가를 엄밀히 따져본 다음에야 결론하고 행동한다는데 있었다. 바로 그 드팀없는 타산과 원칙성으로 하여 여태까지 그처럼 까다롭다고 하는 심사사업을 한번의 오유도 없이 정확히 수행해오는 그였던것이다.

《한가지 물어보기요!》

이미 명백한것이지만 그래도 자기 물음에 대한 답변이 어떤가에 따라 자기의 견해를 확증하리라 마음먹으며 그는 진호를 지켜보았다.

《그런데 어째서 그 결심을 오늘에 와서야 드러냈소? 현장에 가겠

다는것 말이요. 그거야 숨길 필요도 없는 훌륭한 결심이 아니요.》
아무 생각없이 한 말처럼 한마디 던졌으나 진호가 다른 기미라도 느낄가봐 그는 얼른 뒤를 달았다.
《내 말은 왜 사고가 있은 다음에야 그 말을 했는가 하는거요. 그러니 모두들 잘못 리해하는수밖에.》
《…》
이 물음에는 뭐라고 대꾸할 말이 없는 진호였다.
부에 배치될 때부터 특히 태수와 헤여진 순간부터 그것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몰랐다. 첨 부에 왔을 때는 몇해동안 심혈을 바쳐온 자기 사업이 차페된것으로, 더는 이루어질 가망이 없는것으로 여겨 락망까지 했으나 곧 기술국에서 일하는 과정에 자기 기술안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으려 했고 또 인정되리라 확신했던것이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결심을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데 버릇되였고 아무 일이나 미리 선포하고 하는것은 말없이 하는것에 비해 그 가치가 백분의 일도 안된다고 믿는터여서 더욱 그는 자기 일을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것이다.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될줄이야…
《어쨌든 내 결심은 확고했지요, 대학때부터 말입니다. 특히 이번 실수를 통해 그 결심이 더욱 굳어졌구요.》
(실수를 통해? 그러니 이젠 또 자기 처지를 그렇게 변명하는가?)
《그래 이번엔 자신이 있소?》
《그거야 해봐야지요.》
(하긴 이젠 그렇게라도 우기는수밖에!)
공감을 표시한다는듯이 고개를 끄덕인 명식이였으나 그것은 한갖 외양에 불과했고 속으로는 그의 말을 미련하기짝이 없는 변명으로밖에 들을수 없었다.
엄중한 실책을 저지른 사람일수록 자기의 행동을 남들앞에서는 물론 자신의 량심에까지 저촉되지 않도록 정당화하려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로서는 진호의 이런 소행이 자기가 숨기려던 본심이 드러난데서 오는 저렬한 흥분이라고밖에는 달리 여길수가 없었다.
그의 판단에 의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격분은 두가지 경우에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신에 대한 부당한 평가에서 오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와 반대로 자신의 수치스런 약점을 감추려다가 적발당하는데서 온다는것이였다. 그 폭발형태도 전자는 서서히 끓어오르지만 후자는 더없이 란폭한 법인데 진호의 경우는 모두가 후자에 속했다.

(진심이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객관들한테는 저절로 나타나기마련일세. 한데 무엇때문에 그처럼 떳떳한것을 숨겨왔단 말인가! 그래서 누구나 량심만은 숨기지 못한다는게 아닌가! 그런데도 이런 추태를 부려? 그래야 뭐 자신의 고립을 촉구하는것으로밖에는 안되네,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는 이처럼 단순한 속임수에 자기가 넘어가지 않는다는것을 진호가 눈치챌가봐 더욱 진지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진호의 기색이 어느 정도 풀린것을 확인한 명식은 이제부턴 자기 차례라는것을 느끼며 이 자리에서 결판짓지 않으면 안될 문제 즉 현옥이에 대한 문제를 머리속에 굴려보기 시작했다.

(뭐라고 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두부모 자르듯 할수야 없지 않나!)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이라는것을 파악한 로련한 장기수가 어떤 수를 써야 일격에 역장을 안기겠는가를 궁리하듯이 그는 어떻게 해야 이 기회에 현옥이 문제를 원만하게 수습할수 있겠는가를 따져보는것이였다.

요즘 현옥이를 대할 때마다 그는 불안을 금할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할 때면 《그거야 내가 알아요?》, 《좋을대로 하지요 뭐.》 하며 아주 건성으로 대하군 했는데 그는 현옥이의 이런 태도가 마음의 문을 꼭 닫아매고 속으로는 남다른 결심을 품을 때만 나타낸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에게는 마치 아슬한 산꼭대기의 썰매우에 앉은 진호가 출발에 앞서 같이 가자고, 어서 타라고 현옥이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과 눈앞에 펼쳐진 황홀한 눈세계에 매혹돼버린 현옥이가 방정맞게도 벌써 한발을 올려놓은것으로만 여겨졌다. 진호로서야 운명이 가리키는 길이니 할수 없겠지만 무엇때문에 현옥이가 그 썰매를 타야 한단 말인가! 한데도 들뜬 련정에 포로된 현옥이는 다른 발마저 서슴없이 올려놓으려 하고있으니…

그러나 따져보면 썰매정도가 아니였다.

무작정 감정이 내키는대로만 행동하기에 버릇된 진호에게 현옥이를

맡긴다는것은 단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에게 있어선 마치 날이 선 면도칼이 제일 좋은 장난감이라고 하여 그것을 어린 아이에게 맡기는거나 다름없이 위험천만한 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안돼! 안되구말구!)

명식은 도리를 저었다.

이때 전화종이 울렸다.

송수화기를 들기 바쁘게 그는 곧 반색을 지었는데 그것은 기다리던 전화여서도 아니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기때문도 아니였다. 다만 이제부터 치러야 할 어려운 담화를 다시 새겨볼 여유를 얻은것이 기뻐서였다.

《여보시오.》

자기 생각에 옴해있느라고 상대방의 말은 듣지도 못했지만 그는 듣기나 한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하고 중얼거렸다.

(어째서 난 이런 의심을 받는걸가?)

창밖을 내다보며 진호는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자 문득 한가지 추억이 되살아났다.

무척 오래전 일이긴 했으나 어쩐지 생생한 표상으로 떠오르는것이였다.

…중학교 다닐 때 일이였던가싶다.

그해 겨울 시에서 있은 빙상경기에 참가하느라고 학기말시험을 치지 못했던 그는 미응시과목을 퇴치하기 위해 기하선생을 찾아갔었다.

기하선생은 얼굴에 주근깨가 다닥다닥한 키다리녀선생이였는데 평시보다 시험으로만 성적을 평가하군 해서 진호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별로 미움을 산적은 없었지만 수업때면 한번의 표정변화가 없는것은 물론 마치 록음기를 틀어놓은것처럼 강의안을 그대로 되풀이하는것이여서 진호에게는 그가 꼭 강의실 뒤벽에 세워놓은 대리석조각상처럼 여겨졌었다.

《학급전원이 우등이상의 성적이라는걸 알지요?》

《네.》

원래 수학과목일반에 흥미를 느끼고있는데다가 며칠밤을 밤패워 준비를 했던지라 진호로서는 선생이 문제를 주기만, 그것도 될수록 어

려운 문제를 내주기만 바랐다.
그런데 웬걸, 시험지에 몇자 써준 문제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로도 대답할수 있는 이등변삼각형의 합동조건을 증명하는것이였다.
대뜸 모욕을 당한듯 한 분함과 함께 그런 문제를 내주는 선생이 밉살스럽기까지 했다.
《아니, 왜요?》
고개를 비틀고 앉아있는 진호를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던 선생은 한숨을 뿜으며 락심천만한듯 중얼거리였다.
《이렇게 쉬운 문제도 못 풀다니…》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선생은 다시 책장을 번지기 시작했다.
틀림없이 보다 쉬운 문제를 찾고있다는것을 직감한 진호는 저도 모르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오고말았다.
다음날 수업에 들어온 선생은 진호를 쏘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 학급의 기하성적은 학년에서 꼴등이예요. 바로 저 진호학생이 락제점수이기때문이예요. 앞으로 학급에선 저 동무에 대한 개별방조를 잘해야겠어요. 알겠어요?》
학급동무들의 불만에 찬 눈길이 쏠릴 때는 물론 성적표에 《6》이라는 수자를 보면서 어머니가 놀랄 때도 그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처럼 간단한 합동조건은 쉽사리 증명할수 있어도 자기 마음을 증명해보이기는 어려웠던것이다.
지금도 그때와 같은 심정이라고 할가, 자긴 진심으로 바라마지않았던 일인데 어째서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하는지. 그때의 녀선생이 지금 앞에 있는 실장이라면 그때의 시험문제는 자기가 원해온 현장탄원이라는 너무나도 단순한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아무래도 나한텐 뭔가 석연치 않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야. 그렇지 않고야 어째서 공정하기로 소문난 이 실장한테서까지 의심을 받는단 말인가!)
어릴 때부터 그는 걸핏하면 마른 때를 벗기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이런 지청구를 했다.
《원, 무슨 애매한 소리를 듣자고 밤낮 그 버릇이냐? 당장 거두지 못하겠니?》
이젠 그 버릇도 없어진지 오랬건만 여전히 애매한 소리만은 듣게 되

는 자기였다.

송수화기를 내려놓는 소리에 진호는 다시 실장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전화기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있는 명식의 기색은 사뭇 심각했다. 뭔가 심상찮은 일이 있는 표정이였다. 그러나 명식이가 받은 전화란 심각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심사를 맡았던 ×공장의 기계장치가 정상가동되고있다는 반가운 소식이였다.

이 소식이 그에겐 이제 치러야 할 어려운 담화가 락관적이라는것을 암시하는것이였으나 바로 그래서 그는 더욱 과묵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다가 현옥이 문제야말로 터놓고 말하기 어렵다는 사정, 부득불 천성에도 없는 미사려구를 붙여가며 에둘러 말해야 한다는 난처한 사정이 그의 표정을 긴장하게 만들었던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동무 한번 만나려고 했소, 현옥이때문에 말이요.》

일단 마음을 정하고 결심이 옳다는것을 확신할 때마다 그런것처럼 명식은 두손을 맞쥐여 하나의 커다란 주먹을 만들었다.

《?》

현옥이라는 말에 진호는 저도 모르게 시선을 옆으로 돌렸으나 그런 행동이 비굴하게 느껴질수 있다는 짐작으로 하여 다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실장을 대하는 순간부터 바로 그가 현옥이 오빠라는 생각이 없진 않았지만 그때문에 조금이라도 감정을 속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너절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여긴 그였다. 다만 그로선 이 자리에서 현옥이에 대한 말이 없기만을 바랐을뿐이였다.

그런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것과 함께 자기와 현옥이 사이에 있는 이 실장의 존재를 새삼스레 깨닫지 않을수 없었다.

《난 여태 둘사이를 좋게 생각해왔소.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싶고… 그런데 어떻소? 그 애가 요즘 좀 들뜬게 아니요?》

《?…》

《첨 출판사에 배치받았을 땐 그래도 제딴의 포부가 있었는데 요즘은 영 안착을 못하거던. …》

어떤 일에서나 사실을 피하고 모가 나지 않게 두리뭉실하게 테두리만 만지는것을 싫어하는 명식으로서는 자기가 지금 진호를 그렇게 대하고있다는것으로 하여 저으기 괴로왔다.

《어떻소? 동무 보기엔.》
《?》
진호는 자기의 신경이 악기의 현처럼 어떤 나사에 감겨 점점 팽팽하게 헹기우는것을 느꼈다.
《하긴 아직 철이 없는데도 있겠지. 그렇지만 동무가 옆에서 좀 잘 타일러주오. 안착해서 일하도록 말이요.
동무도 알겠지만 사랑이란 무엇보다 서로의 뜻을 귀중히 여겨주는데 있는게 아니겠소.》
자기가 속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명식은 얼굴이 뜨거웠으나 짐짓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고 내가 못할 말을 한건 아니니까. 한데 이 친구가 내 말의 참뜻을 리해하기나 할가? 제발 짐작이라도 해주었으면 좋으련만…)
옴짝 안하고 책상아래쪽 어딘가를 응시하고있는 진호의 태도로 봐서는 아직 자기의 의도를 짐작하지 못하고있는것 같았다.
하지만 아니였다.
진호는 그의 말에 담긴 뜻을 충분히 리해하고있었다. 리해가 아니라 명백히 듣고있었다.
(타일러주라구? 뜻을 귀중히 여겨주라구? 이거야말로 더는 현옥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경고가 아닌가! 아니, 당장 손을 끊으라는 선고가 아닌가! 그러니 이제 와선 포부는 물론 순정을 기울인 사랑까지도 의심하는것이 아닌가! 아—)
팽팽하게 감겼던 현이 대번에 뚝 하고 끊어진것을 느낀 그는 불시에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벌렁 넘어졌다.
아까보다도 몇배 더한 격분이 온몸을 사로잡는것이였다.
저로서도 무슨짓을 저지를지 모를 그런 위험한 정신상태에 빠져든 순간, 그는 갑자기 어떤 힘이 자기를 힘껏 다잡는것을 느꼈다.
그것은 다름아닌 현옥이의 손길이였고 목소리였다.
《무슨 상관이예요, 오빠가 우리 일에 무슨 상관이예요. 제가 동무를 믿고 리해하면 그만이지 오빠가 뭐예요. 참아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그 목소리에 쫓기듯 진호는 부랴부랴 복도로 뛰쳐나왔다.

7

전기기관차공장의 오랜 조립기능공인 리무원은 현관에 들어서서 외투를 벗으려다 말고 한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불도 켜지 않은 방안에 홀로 앉아 무슨 골똘한 생각에 젖어있는 아들의 모습이 문짬으로 엇비듬히 보였기때문이였다.

(흠— 정작 떠나자니 생각이 많은게지?)

입가에 미소를 띠운채 그는 잠시 한자리에 서있었다.

후리후리한 키에 량쪽으로 보기 좋게 벗어져올라간 이마, 그밑에서 빛을 뿜는 억실억실한 두눈은 젊은 시절 무척 호남아였다는 자취를 느끼게 했으나 칼자리처럼 깊숙이 패인 주름살과 뾰족한 턱은 그에게서 선량한 인상을 모두 압도해버리고 몹시 표독스런감을 느끼게 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패롭지 않았거니와 거칠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없이 부드럽고 친절해서 그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람의 성격은 외양이 아니라 눈에서만 나타난다는것을 증명하는 산 실례로 되군 했다. 그의 눈빛은 그처럼 유순하고 부드러웠다.

직장로동자들이 까다로운 부속을 조립할 때마다 도면을 들고와 그의 방조를 청하듯이 이웃들에서도 어떤 사정이 생길 때면 꼭꼭 그를 찾아오군 했는데 그때마다 그는 자기의 곡절많은 인생갈피를 뒤적이며 교훈이 될 조언을 차근차근 일러주는것이였다.

《그건 그냥 둬두는게 어떻소. 요새 젊은이들한테야 그런 간섭이 필요없지요. 그런 로파심이야 다 낡은 시대의 유물이 아니겠소.》

이러는가 하면 말을 듣지 않는 아들녀석때문에 속을 태우는 사람에겐 《아니, 그 잘못은 애한테 있는게 아니라 부모들한테 있는것 같수다. 거짓이란 워낙 강제가 있는데서만 생기니까요.》 하고 말하군 했다.

확실히 그는 유능한 석공이 돌모양만 보고도 그 결을 알아내듯이 세상만사의 리치를 쉽게 찾아내는 비결을 터득하고있었다. 아마 그것은 소년광부로 일할 때부터 그의 어깨를 지리눌렀던 천근의 광석무게가,

또 청춘기에 그의 육신을 마구 찢어놓은 원쑤의 흉탄이 그리고 또 첫 기관차를 무을 때부터 들어온 둔중한 함마소리가 그를 그처럼 원숙한 사람으로 벼려냈는지 몰랐다.

심각해진 아들의 모습을 보자 비로소 그는 여태껏 아들을 너무 소격하게 대해왔다는 자책과 함께 얼마간의 고무라도 해주어야 하리라는 생각이 드는것이였다.

방안으로 들어선 그가 스위치를 켰을 때에야 진호는 뒤돌아보았다. 그리고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막상 떠나자니 섭섭하냐?》

책상우에 널려있는 책들을 일별한 그는 진호가 앉았던 의자에 가앉았다.

《아닙니다, 그래서가 아닙니다.》

서둘러 아버지의 말을 부인한 진호였으나 자기를 쳐다보는 아버지의 시선에 부딪치자 얼른 고개를 숙이고말았다.

아버지앞에 마주서기만 하면 왜서인지 저절로 소심해지는 그였다.

남들에게는 더없이 지극한 아버지였으나 어쩐지 자긴 언제나 변함없이 깨끗한 량심을 지닌것으로 하여 아무리 엄격한 사람도 감히 획득하지 못하는 그런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기때문이라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이런 구속감은 어머니도 마찬가진것 같았다. 그래도 어머닌 놀라우리만치 용감한 때도 있어서 자주 선불을 걸기도 했지만 그것도 아버지가 말없이 지그시 바라볼 그때까지뿐이였다. 그때면 어머닌 자기를 곁눈질하며 조용히 한숨을 내뿜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땐 몹시 애처롭기까지 했다.

례외로 되는건 오직 누이동생 진희뿐이였다.

어머니와 자기한테 아끼는 정을 아버지는 몽땅 진희한테만 쏟아붓는듯싶었다. 그래서 진희는 봄뜰에 놓여난 망아지처럼 마구 까불어댔다. 무슨 잘못을 타이를 때조차 조금도 타내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건 봉건이예요, 아버지!》

《어째서 봉건이란 말이냐?》

《봉건이 아니라고 우기는건 주관이구요.》

《주관?》

언젠가 동무들과 함께 자기 방에서 떠들어댄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아버지가 무슨 계집애가 사내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소란을 피우느냐고 나무람했을 때도 진희는 새물새물 웃기만 했었다.

《우리가 어떤걸 생각해냈는지 아세요? 자동수예긴데 형타만 삽입하면 꽃도 나비도 새도 다 저절로 수놓아지는 그런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진 봉건만 아니라 주관주의에 보수주의까지…》

《어이구 됐다, 됐어. 꼭 투종공같은 계집애라니…》

《투종공이라니요?》

《조립된 설비에 감투를 해씌우는 사람들이지. 그렇지만 너처럼 마구 씌우지는 않아!》

《호―》

이럴 때마다 어머니는 사랑을 독차지하군 하는 딸을 꼬부장한 눈길로 쏘아보았고 진호도 괜히 코날개를 벌름거리며 아버지를 흘겨보군했다.

진호는 방금전까지 낮에 있었던 일을 되새기고있었다. 되새겨볼수록 점점 더 의혹과 불만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물론 자기가 사고를 낸 책임은 져야 한다는것을 그도 알고있었다. 그러나 리해할수 없는것은 아무리 사고를 냈다 해도 어째서 진정한 의도와 지향까지 타개해마지않을 파렴치한짓으로 치부되는지 또 그렇게밖에는 달리 인정되지 않을수 없는지 그걸 알수 없는것이였다. 그것이야말로 자기가 가장 귀중히 여겨온 보물, 누구앞에서라도 당당히 자랑하던 보물에 더러운 오물을 끼얹어 이젠 사람들이 쳐다보기는커녕 도리여 미간을 찌프리고 피하게 된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만약 모두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진정이 어디에 소용되는것이랴! 더우기 그런 삶이 정당하다는 진리가 어디에 있는것이랴!

우린 누구나 집단과 사회의 리익을 위해 자신을 바쳐야 한다고 교육받아오지 않았는가! 그것만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덕으로, 고결한 의무로 된다고 배우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렇게 살려는것이 어째서 조소와 힐난의 대상이 돼야 한단 말인가! 여기엔 분명 사회의 요구와 사람들의 감정, 집단적인 의무와 그에 대한 견해, 이런것들에 대한 리해할수 없는 모순이 있는것 같았다.

그는 자기의 이런 번민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으려고 맘먹고있었다.

이럴 때 가장 적절한 조언을 줄 사람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이였다.

《물론 저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수 있다는걸 모르진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가장 적절한 어조를 고르며 그는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진실이야 인정돼야 할게 아닙니까.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곡해되고 비난받지야 말아야지요.

아버지도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실보다 강한것이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 더 참된 사람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 저의 결심이 진정이 아니란 말입니까? 제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쯤하면 필경 아버지가 어느 정도의 반응을 보일줄 알았는데 방바닥을 내려다보는 덤덤한 눈길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아버지의 이 태연한 기색이 진호의 불만을 한층 더 가중시켰다.

《그래도 이런 모욕을 참고있어야만 합니까? 그저 기회가 나쁘다고 여겨야만 하나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너무도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전 그럴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 나를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희망이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알게 하고야말텝니다. 내려가도 그걸 알게 한 다음에야 가겠단 말입니다.》

《…》

침묵을 지키고있던 무원은 방바닥에 내려앉으며 진호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다.

《모독이라…》

그는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무언가 고무가 될 말을 해주어야 하리라던 애초의 생각과는 달리 그 어떤 다른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아들이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있다는걸 알았으면 좀더 혼자 내버려둘걸 하고 아쉽게 여기고있었다. 사람이 바로살자면 필요한 고민은 거쳐야 하며 그 과정을 통해 더욱 굳세여진다고 믿는 그였다.

그는 어릴적부터 아들을 일시 불합리한 환경에 반발하다가도 곧 그 환경에 휩쓸리고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고집할줄 아는 인간

으로 키우기 위해 힘썼다. 그런데 그 아들이 벌써 이렇게까지 성장한 것이 아닌가!

자기를 향해 뛰여오다가 넘어지면 배를 땅에 붙인채 눈알을 두룩두룩 굴리며 일으켜주길 바라던 아들, 그 아들이 지금은 남다른 고민을 안고도 현실로 서슴없이 뛰여들고있으니 이 얼마나 놀랍게 자란것인가!

그때 넘어진 아들을 바라보며 일어나라고, 스스로 일어나야 용타고 일러주면 그 말에 벌떡 일어나 달려오던 모습을 볼 때처럼 지금도 못내 대견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하지만 앞자락에 묻어있는 먼지만은 자기 손이 가야 했듯이 다 자란 자식이긴 하지만 아직도 자기의 충고가 필요함을 깨닫지 않을수 없었다.

《그래서 분하다는거냐?》

《분하지 않구요.》

《난 거기엔 분해하거나 억울해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것 같은데?》

《?》

진호는 눈이 둥그래졌으나 무원의 얼굴에는 빙그레 미소가 어렸다.

《난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건 뭐라고 할가? 한마디로 말해서 네 마음이 깨끗치 못한데서 오는게 아닌가싶다. 남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우월감이라고 할가.》

《우월감요?》

어떤 위로나 동정을 바랐던 아버지한테서 되려 충고를 듣는다고 생각하니 진호는 화가 치밀어오르면서 서글프기까지 했다.

《아버진 제가 뭐 자기 행동에 대한 평가를 바라는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예요. 전 다만 모든것이 정당하게 사실그대로 인정돼야 한다는겁니다. 이게 진리가 아닙니까, 생활의 진리!》

자기도 철학을 론할 자격이 있다는것을 강조하려는듯이 그는 진리라는 말에 힘을 주었다.

《그럼 어디 네 말대로 따져보자. 그래 네가 기술안을 추진시키다가 실패한게 사실이 아니란 말이냐? 그 일로 하여 어떤 책벌을 받는다 해도 아무 말도 할수 없는 처지에 있는것도 사실이 아니구? 이런 형편에서 현장에 나가게 됐는데 어째서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냐? 그거야 아주 자연스런 일이지, 가만! 가만히 있어.》

무원은 무슨 말인가 하려는 진호를 제지시키며 다시 말을 이었다.

《넌 지금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데 대해 불만을 품고있는데 그건 네가 순결해서나 순결을 바라서가 아니라 자신을 과신하기때문에 그런거야!》

《과신이라니요?》

《과신 아니문? 그래, 설사 넌 자기의 행동을 수류탄 들고 적진으로 육박하는 영웅에 비기지야 않겠지? 너야말로 네 말대로 응당 가야 할 길을 가는게 아니냐! 열공학을 전문했으니 제철소에 가는거고 원유가 없으니 그걸 대신할 연료를 연구하는거고. 당에서 바로 그렇게 하라고 너를 공부시킨건데 그리로 가지 않으면 어데로 간단 말이냐. 이게 바로 진리지. 그래 지금 네가 이 진리대로 생각하고있니?》

《…》

《아니야! 넌 조금이라도 자기가 남다른 일,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여기고있지. 그런데 반대로 의심을 받았거던. 그래서 불만을 품는거야. 만약 네가 자기의 행동이 응당하고 평범한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런 불만을 느낄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 일에 대한 확신과 정당성을 느끼는 사람은 언제나 너그러운 법이니까.》

진호는 한숨을 쉬였다.

자기가 자신의 심정을 명확히 표현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아버지가 일부러 자기 심정을 리해하려 하지 않기때문인지 까닭을 알수 없으나 어쨌든 아버지는 자기가 바라는 대답을 피할뿐아니라 되려 자기를 가혹하게 몰아세운다는것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그래, 내 말이 틀렸니?》

《…》

무원은 아들의 기색에서 대꾸할 말은 가득하나 그것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뿐더러 표현한댔자 자기의 심정을 리해하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아예 단념해버리고있다는것을 알았다.

그도 맘같아서는 아들의 감정에 편승해주고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것이 지금은 곧잘 자기만이 정당하다고 확신하는 아들의 버릇을 조장시킬수 있다는것으로 하여 도리여 준절하게 대하는것이였다.

《진리라는것도 그렇지, 사람이란 많은 진리를 알아야 되는 법인데 너의 머리속에 있는 지식이란 아직 교과서나 남한테서 얻어들은 쥐꼬

리만 한것뿐이지. 만약 그게 진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넌 일생을 참봉으로 살기마련이야. 그런 의미에서 볼 때도 너의 걸음은 이제 겨우 시작이 아니냐. 그런데도 첨부터 투정이거던.》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게 나쁘다는건가요, 그런 조소와 의심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단 말입니까?》

진호의 목소리에는 항변이라기보다 억울한 사람의 울분이 어려있었다.

《나쁘다기보다 졸렬하고 유치하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사람들은 뒤에서 절 손가락질할게 아닙니까. 저놈은 일을 망치고 쫓겨난 놈이다, 기술안을 완성하러 간다는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게 어쨌단 말이냐? 그렇지 않다는걸 증명하면 되는거지.》

《어떻게 말입니까?》

《행동으로!》

(행동으로?)

진호는 저도 모르게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왜, 자신이 없니? 네가 방금 말하지 않았니.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걸 증명해보이겠다구. 그런데 그걸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거야. 세상에 행동으로 실증하는것보다 더 명백한 진리가 어디 있니?》

순간 진호는 비상한 충격에 몸을 떨었다.

(사실 자기의 헌신을 인정받으려는것이야말로 어딘가 루추하고 비루한짓이 아닌가! 그것은 도리여 자기의 량심을 비속화하는것이 아닐수 없다. 그래 행동, 아버지말처럼 행동으로 보여주자. 나의 진정이 어떤것인가를 새 연료를 만들어내는것을 통해 보여주자!)

알지 못할 새로운 힘이 가슴속에서 불끈 용솟음치는것이였다.

《그러구보니 넌 아직 사내가 못돼. 사내가 아니라 졸장부야. 사내라는게 자기에 대한 신심이 그렇게 얇아가지고 무슨 일을 한단 말이냐. 남의 눈치나 보는 놈이 무슨 사내냐 말이다!》

진호는 갑자기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것 같았다. 사내가 아니라는 아버지의 한마디 말이 백마디의 힐책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찌르는것이였다.

(그래! 남의 눈치나 보는 내가 과연 무슨 사내란 말인가! 하찮은 고민에 시달리는 내가 무슨 대장부란 말인가!)

《물론 사람은 누구나 일생을 부끄럽게 살지 말아야지. 많은 일을 해서 말이다. 그러자면…》

벌써 진호에겐 아버지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당장 자기가 사내라는것을 보란듯이 증명해보이고싶을따름이였고 한시바삐 그걸 증명할수 있는 현장으로 달려가고만싶었다.

이들은 지금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있었지만 내심으로는 실상 서로 만족한 기분상태였다.

진호는 아버지가 자기의 심정을 다는 리해하지 않았지만 생활과 행동의 목표를 뚜렷이 정해준것으로 하여 기뻤고 무원은 무원이대로 아직은 많은것이 부족하지만 그런 열정과 투지로 일한다면 아들이 더욱 참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리라는 믿음이 들기때문이였다.

《그럼 이젠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꽃피우기 위해 강철전선에서 힘껏 일하고있는 믿음직한 혁명동지가 있다고 믿어도 좋겠니?》

자리에서 일어난 무원은 두툼한 손을 진호앞에 내밀었다.

《자-》

순간 진호는 아버지의 얼굴에 말보다 몇곱절 더한 기대가, 말로는 다 나타내지 않는 사랑이 물결치고있음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담배를 꺼내문 무원은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던졌다.

《한데 넌 나이가 그렇게 차두룩 처녀두 하나 사귀지 못했니?》

뜻밖의 질문에 어리둥절해진 진호였으나 곧 시틋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처녀는 사귀여서 뭘해요.》

늘 어떤 심각한 얘기를 한 다음에는 그와 대조되는 얘기를 꺼내군 하는 아버지였는데 그것은 주로 자기의 말이 어느 정도 효력을 나타냈다고 믿을 때였다.

《사실 그런 고민쯤은 옆에 살뜰한 처녀가 있으면 다 풀어지는 법이야.》

불시에 현옥이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자기에게도 그런 처녀가 있다는 말이 나가는것을 진호는 참았다.

누구보다 자기를 깊이 리해해주는 처녀, 그 처녀 하나의 마음이 지

금은 백사람의 의심보다 자기에겐 더 큰 힘으로 된다는것을 소리높이 자랑하고싶기까지 했다.

사실 그에게 있어서 현옥이의 존재는 온갖 조소와 힐난의 바다속에서 자기를 지켜주는 유일한 의지의 섬이였을뿐만아니라 믿음의 섬이기도 했다.

이미부터 현옥이와의 관계를 아버지에게 터놓고싶었던 그였으나 사귄지 얼마 되지 않는 처녀를 두고 얘기한다는것이 어쩐지 경솔하게 느껴질것 같아 말 못했던 진호였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듣고보니 이때까지 숨겨온것이 후회되기도 했다.

(그래도 떠나기 전에는 말해야지. 아니, 같이 와서 인사를 해야지! 《저하고 같이 가는 동뭅니다.》 하고 말하면 아버진 얼마나 놀라실가?)

그때의 광경을 그려보느라니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아이, 추워!》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면서 빨간 목도리를 목에 두른 진희가 총알처럼 방안으로 뛰여들었다.

《어머, 아버지도 벌써 오셨네.》

무엇이 기쁜지 생글생글 웃는 눈길로 아버지와 오빠를 번갈아쳐다보던 그는 갑자기 캐드득하고 웃었다.

《자요, 오빠.》

진호앞으로 다가앉은 그는 손에 쥔 종이꾸레미를 내밀며 발쭉 웃었다.

《이게 뭐니?》

《뭐긴 뭐겠어요, 저의 선물이지. 근데 좀 좋은걸로 하려고 했는데 어디 돈이 있어야지요.》

입술을 삐죽해보인 진희는 옆에 있는 아버지를 할끔 쳐다보았다.

몇겹으로 싼 하얀 포장지안에서는 제도기가 나왔다.

《허, 진희가 제법인걸?》

제도기를 든 무원은 처음보는 물건처럼 신기하게 들여다보았다.

《아버진 뭘 준비하셨나요?》

《나?》

무원은 두눈을 슴벅거리기만 했다.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도 엄만 뭐 아버지도 좋은걸 준비하신다

나? 엄만 오늘 백화점에 들리시겠다구 했어요.》
어찌도 입을 재게 놀리는지 말이 다 끝난 다음에야 그 뜻을 깨달을수 있었다.
《내가 왜 없어! 벌써 다 갖다놨는데.》
《어디요?》
방안을 둘러보던 진희의 눈길은 여전히 믿을수 없다는 눈치였다.
《부엌에 가서 랭동기를 열어보렴.》
《정말?》
손벽을 찰싹 치며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뽀르르 부엌으로 달아나갔다.
《어디요?》
랭동기를 연채 묻는 말이였다.
《거기 세워놓은것 뵈지 않니?》
《피－맥주?》
《그래, 어서 가지고 들어오너라! 뭐니뭐니해도 네 오빤 그걸 제일 좋아할걸!》
그러면서 무원은 진호에게 한눈을 찌긋해보였다.

8

깊은 적막에 휩싸인 밤거리에는 흰눈만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미처 눈을 뜨기 바쁘게 무시로 쏟아져내리는 눈송이들은 하나하나의 잎이 얼마나 크고 소담스러운지 귀를 기울이면 그 정가로운 소리가 사분사분 들릴것만 같았다.
가끔씩 몇사람 안되는 승객들을 태운 무궤도전차만이 수북이 내려쌓인 눈을 말아올리며 부드러운 음향을 남긴채 사라질뿐 전차가 사라진 뒤에는 본래보다 더한 정적이 거리를 뒤덮었다.
여느때 같으면 깊은 사색이나 환상의 나래를 한껏 펼치게 할 이 화려한 은빛적막이 지금 진호에게는 어떤 악몽처럼, 시시각각으로 자기를 집어삼키는 절망의 무시무시한 심연처럼 여겨지는것을 어쩔수 없

었다.

(아니야! 그럴수 없어! 현옥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그는 발밑에 밟히는 눈소리로 하여 방금 한 현옥이의 말을 똑똑히 분간해듣지 못한것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가슴은 마냥 떨리기만 했다.

《제발 저한텐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솔직하게?)

바로 솔직하게 말해달라는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 방금전에도 그렇게 말했었다.

숨을 죽인 그는 다시금 온 신경을 귀에 모은채 다음말을 기다렸다. 애오라지 자기의 짐작이 틀리기만을 바라면서.

《동무의 현장탄원이 진심이예요?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때문이예요? 혹시 남들이 말하는것처럼 자기의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그런 결심을 한게 아니예요?》

자기를 마주보는 현옥이의 의심스런 눈길에 부딪치는 순간 진호는 이제껏 애써 아니라고 부인해온 모든것이 일시에 무너져내리는것을 느꼈으나 은연중 자기가 어떤 착각을 하고있다는 기대에 매달렸다. 그만큼 그 말을 믿을수 없었고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무서웠던것이다.

《왜 말이 없어요? 그걸 대답하기가 그렇게도 어려운가요?》

진호는 더는 자신을 속일래야 속일수 없음을 느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였지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었다.

마치 불을 끄려고 필사의 힘을 다해 노력하던 사람이 옆에서 타오르는 더 세찬 불길을 보고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것을 느낄 때와 같은 심정이라고 할가. 자기가 끄려는 불길은 의식적으로 부정하려는 내심이였다면 보다 더 세차게 타번지는 불길은 부정할래야 할수없이 살아나는 현옥이의 목소리였다.

(아니야! 아니야!)

아무리 부정해야 이젠 그것이 부질없는 미련에 불과하다는것을 가리지도 못하고 그는 여전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남들이 뭐라든 그만은 믿어줄줄 알았고 만사람이 다 의심을 해도 그 하나만은 자기의 진정을 리해해주리라고 여겼던것이 아닌가! 그래서 온갖 모욕과 조소도 참아왔고 또 참을수 있었던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마저…

가슴이 터질것 같았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 아무것도 가려볼수 없었다.

미지의 황홀한 생활을 위해 온갖 모욕을 참아가며 이룩해놓은 모든 것을 의심하는 현옥이의 가혹한 말, 본심을 속이지 말라는 현옥이의 비난은 그를 미치게 할것만 같았다.

당장 돌아서서 현옥이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고싶었고 그럴수만 있다면 서슴없이 가슴을 빠개보이며 《자―봐라, 그렇게도 내 마음을 모르겠니?》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싶었다. 그러나 고함은커녕 한마디의 말조차 할수 없었다.

그는 오늘에야 비로소 격분한 심정을 입밖에 나타낼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 분노가 아직 덜한것이라는것을 깨닫지 않을수 없었다.

(현옥이가 과연 이런 처녀였단 말인가!)

마치 자기의 인내성이라도 시험하고있는듯 한 진호의 침묵에 견딜수 없어 현옥이는 고개를 들었다.

대답을 독촉해서라기보다 진호의 표정을 통해 그의 대답이 어떤것인가를 가늠하기 위해서였다.

오빠의 말을 들을 때는 무작정 부인해나서던 그였으나 밤이 되여 오빠가 돌아가고 오빠를 은근히 편들던 어머니마저 잠든 뒤에는 여러가지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자기를 괴롭히는것이였다. 특히 구체적인 사실을 놓고 따지고들자 진호가 아무 대꾸도 못하더라는 오빠의 말은 그의 가슴을 서늘케 했다. 사소한 일에서조차 지나친 감정을 나타내군하던 그가 한마디의 항변도 못했다는 사실은 그를 더없는 공포에 몰아넣었던것이다.

그러면서 새 연료안이 실패했을 때 《이거 아무래도 무사치 못하겠는걸?》 하고 음울한 기색을 짓던 일과 제철소로 가게 된것이 확정되였을 때 그처럼 기뻐하던 그의 모습도 떠올랐다.

아무리 바라던 일이 성취됐다고는 하지만 집을 떠나고 정든 사람과 헤여지게 되였는데 어떻게 저처럼 기뻐할수 있으랴 하는 의아한 생각이 없지 않았던것이다.

(그럼 그것이 모두 허위였단 말인가! 자기의 허물을 가리우기 위한 과장된 기쁨이였단 말인가!)

그럴 때면 그는 불시에 진호에 대해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자기라

는 존재, 한 사내의 기만에 쉽사리 희롱당하고있는 미련하기짝이 없는 자기자신이 눈물이 날만큼 통분스러웠으나 서둘러 그것을 부인해버렸다. 그것을 인정하기가 너무도 두려웠기때문이였다.

그도 진호가 그런 의심을 받으면서도 자기에게 터놓지 않은데 대해서는 제나름의 리해가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어떤 체면이 작용했을수도 있었겠지만 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나올가 하는 우려, 즉 사랑하는 처녀와의 관계에 금이 가지나 않을가 하는 위구심때문이였으리라는 짐작에서였다.

자기와의 사랑을 소중히 여긴 나머지 그가 취한 행동이야 그 행동이 어떻든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을뿐더러 또 자기가 리해해주지 않으면 누가 리해해주랴 하는 일종의 도의심이 작용했던것이다. 그러나 그가 현장으로 가게 된 리유만은 똑바로 알아야 했다.

아무리 현장생활이 황홀하고 매혹적인것이라 해도 그가 오빠의 말대로 사람들을 기만한 그런 인간이라면,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 처지에 있다면 결코 자기가 바라던 그런 보람이 없으리라는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도리여 수치와 모멸밖에 차례질것이란 아무것도 없을것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도리를 저었다.

(아니야! 그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품고있는 의심에 대해 응당한 믿음으로 대답해줄거야.)

이렇게 믿어마지 않았다. 아니, 그렇게 믿고싶었다.

그런데 막상 자기를 증명하기는 고사하고 다소 나타낼상싶은 격분의 감정도 전혀 비치지 않는것이 아닌가. 더우기 리해할수 없는것은 자기에 대한 처사가 조금이라도 부당한것이라면 당장 소동을 일으키고야말 그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앞에서까지 묵묵히 있는 그것이였다.

(너무도 엄연한 사실이여서 부인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걸가? 아니면 말한대야 뻔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으리라는것을 알기때문일가?)

진호의 침묵은 점점 더 그를 절망상태로 이끌어갔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가 흔들리는 저울판우에 앉아있는듯 한, 말하자면 자기가 힘을 주는데 따라 오빠나 진호 어느쪽으로나 기울어질 처지에 있는것 같던것이 오늘은 벌써 자기가 바라는 반대쪽인 오빠편에

기울어지는것을 의식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에게는 바로 이것이 더 무서웠다.

(만약 모든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처지가 정말 그렇다면?)

공포에 질린 그는 다시금 이런 의문에 부딪쳤다.

(과연 그가 그런 사람이라는걸 알면서도 내가 그의 일을 도울수 있을가? 그런 굴욕적인 처지를 참아낼수 있을가? 온갖 모멸과 수치를 그에 대한 사랑으로 다 씻어버릴수 있을가? 아니, 그런 사랑이 도대체 사랑이기나 할가? 아니야! 그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열렬하다 해도 그런 수치스런 처지에 자신을 빠뜨릴순 없어! 그건 나만이 아니라 그에게도 고통스런 일이 아닐수 없으니까.)

《전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동무의 처지가 정말 그렇다면…》

그러나 현옥이는 차마 다음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그래서 말을 바꾸어보려고 했으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얼른 생각나지 않았다.

하지만 진호는 현옥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가를 대뜸 알아차렸다. 그러자 온몸의 피가 일시에 얼어드는것 같았다.

(내 처지가 그렇다면 같이 못 가겠다는거지? 나같은 놈은 믿지 못하겠다는거지? 그러니 이젠 관계를 끊자는거지?)

얼어붙었던 피가 대번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당장 한곳을 뚫고 무섭게 뿜어나올것만 같았다. 그러나 말은 한마디도 할수 없었다.

여느때는 그시그시의 격분을 폭발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던 그가 지금 침묵으로 대하는것은 너무나도 한계를 넘은 분노가 불시에 들이닥친데도 있지만 보다는 그처럼 몽매간에도 잊지 못하던 간절한 소원을 의심받고도 그것이 부당하다는것을 증명해보일 길이 없기때문이였고 또 증명해보이기도 싫었기때문이였다.

뭐라고 한단 말인가! 무슨 말로 그를 납득시킬수 있단 말인가! 아니, 이제 와서 무슨 말이 필요하고 설복이 필요하단 말인가!

현옥이자신이 진호의 마음을 똑바로 알려고 했다면 진호는 벌써 그의 태도에서 모든것을 결정해버린것이나 다름없었다.

(좋다! 지금은 네 말이 옳다고 하자. 내가 그런 인간이라고 하자. 그러나 똑똑히 지켜봐라! 지금 너에게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한 그걸 행동으로 보여줄테니까, 백배의 실천으로 증명할테니까. 기어코 하고야 말테니까.)

그는 오늘에야 비로소 안심하고 길을 걷던 사람이 눈앞에 깊은 낭떠러지를 만났을 때처럼 자기들사이에 놓인 커다란 심연을 절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 처녀야말로 자기가 사랑해온 사람의 마음도 리해하지 못하는 그런 처녀가 아닌가! 이 처녀야말로 남의 말에 따라 자기 의사와 행동을 재여보는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처녀가 아닌가! 그런데 어째서 그처럼 진실하고 아름답게만 보였을가? 어째서?…

그 리유를 지금은 따질수도 없었고 따지기도 싫었다. 리유가 어쨌든간에 진호는 자기들사이에 더는 진정한 사랑이 있을수 없으리라는 것만은 명백히 깨닫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실수치가 어떤 계산법으로 얻어졌든 거기에는 상관없이 도저히 그 문제의 해답으로는 될수 없다는것을 확신하게 되는 경우와 같았다.

(할수 없지! 헤여지는수밖에!)

이런 생각에 미치자 갑자기 그는 가슴이 선뜩했다.

현옥이와 헤여지다니? 상상하기도 무서운 일이였다. 이제 와서 절교를 선언하는것이 어쩐지 그의 순정을 짓밟아놓고 돌아서는 무뢰하기짝이 없는 소행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저도 모르게 그는 현옥이의 발가우리한 볼이며 곱게 다듬어진 턱이며 마구 퍼부어대는 눈송이들로 하여 거의 감기다싶이한 그래서 더욱 부채살같이 차분히 내리덮인 속눈섭을 얼핏 쳐다보았다.

그 긴 속눈섭끝에는 미세한 물방울이 보석처럼 매달려있는데 눈을 우로 뜨기만 하면 그것들이 금시 이슬처럼 부서질것 같았다.

그 아름다운 얼굴의 섬세한 부분까지 알아보게 되자 그는 여태까지 한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그런 류다른 애정이 가슴을 태우는것이였다. 그의 용모의 모든 특징들, 그에게 속하는 일체가 새삼스레 그지없이 아름다운것으로 느껴지면서 자기의 생명을 새로이 자감시키는것이였다.

(과연 이렇게 곱게 생긴 처녀가 어디에 있으리란 말인가!)

삽시에 현옥이에 대한 사랑이, 표현 못할 애정의 물결이 가슴을 애타게 흔드는것이였다.

모든것을 털어놓고 그를 리해시키고싶었다. 서로 사랑하느라면 이런 오해가 있기마련이 아닌가! 그 역시 얼마나 고민이 많았으면 그

련걸 물어보랴!

하나 이런 생각은 순간에 불과했다. 가슴속에 파도치는 그에 대한 애정의 물결은 곧 거대한 암초에 부딪쳐 산산쪼각이 났다.

(아니! 이 처녀는 나를 의심하고있다. 믿지조차 못하고있는것이다. 결코 일시적인 오해도 아니다. 나의 진정과 량심, 지어는 기술안까지도 다 무시하고있다. 그 역시 이제 와선 내가 쫓겨가는것으로만 생각하는것은 물론 자기를 어떤 교활한 방법으로 꼬여서 데리고가려는 파렴치한 인간으로밖에 치부하지 않는것이다!)

이 모든것을 상기하자 진호는 또다시 하등의 변화과정도 없이 대번에 분노와 절망, 굴욕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여 자기가 이 순간의 일시적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생활에는 허위와 기만밖에 없으리라는것을 똑똑히 깨닫지 않을수 없었다.

(그렇다! 그는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품지 않았다. 일시적인 충동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충동에 장애가 생겼다. 그러니 헤여져야 한다.)

확실히 자기들이 타고있는 사랑의 돛배에는 물이 새고있었다. 그 물은 점점 더 무서운 압으로 솟구쳐올라 어쩔수없이 침몰되지 않으면 안될 경각에 처해있었다. 더 깊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것은 물론 자기를 믿지 못하는 현옥이는 부득불 내려놓아야만 했다.

이윽고 걸음을 멈춘 그는 현옥이를 향해 돌아섰다.

현옥이도 따라섰다.

벌써 진호의 기색을 통해 그가 어떤 중요한 말을 하리라는것을 현옥은 륙감으로 느꼈던것이다.

《사실은…》

진호는 이제부터 해야 할 말을 더듬느라니 저절로 목이 메여올라 잠시 얼굴을 찌프렸다.

《솔직히 말하면 동무 말이 옳소. 내가 제철소에 가는건… 그리로 가는건 희망이나 소원이래서가 아니요.》

속으로 미리 준비한 말이였지만 목이 잠겨 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그래서 얼른 기침을 깇었다.

《사실 난 내자신이 어떤 인간인지도 모르면서 동무를 불안과 모험에 찬 길로 유혹하려고 했소. 하지만 이제라도 동무가 눈을 뜨고 똑

바로 볼수 있게 된것을, 그리하여 험한 운명을 피할수 있게 된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오.》

《…》

《난 이 사실을 누구한테도 숨겨왔소. 직장사람들은 물론 동무한테도…》

《?…》

현옥이의 두눈은 점점 더 휘둥그래졌다.

담배를 꺼내문 진호는 불을 붙이기 바쁘게 긴숨을 몰아쉬였다. 다시금 목구멍에 뜨거운것이 꽉 치밀어오르는것이였다.

본래부터 그는 실제의 자기보다 더 가혹하고 심술궂은 때가 가끔 있었다. 실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것도 정작 맞다들어선 괜히 상대를 괴롭히고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었으나 지금은 결코 그런 지꿎은 버릇에서가 아니였다. 그렇게 행동하는것만이 자기들 문제를 손쉽게 아퀴짓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때문이였고 그외의 다른 방법이란 도저히 있을수 없다는것을 깨달았기때문이였다.

이제 와서 그에게 자기의 심정을 헤쳐보인다는것은 지금까지 그토록 열렬하게 사랑해왔으며 또 그처럼 믿어마지않았던 자기들의 관계가 죄다 거짓말이였으며 허망한것이였다는 구슬픈 사실을 부득불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의미했다. 지금에 와서 자기들사이에는 이미 아무런 말도 소용없게 되였다는것을 그는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래, 이젠 아무 말도, 그 어떤 진정도 다 무의미하다. 부질없는짓이다!…

불현듯 진호는 자기로서도 놀라울만치 이상스레 평온해진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 그가 바라는것은 오직 현옥이자신이 자기한테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것이였다. 자기에게 품는 그의 감정이 혐오든, 증오든, 모독이든 상관이 없었다. 그래야 후날 그에 대한 추억이 되살아나도 아무런 고통도 없이 일소해버릴수 있을것 같았기때문이였다.

《아—》

갑자기 가느다란 비명을 토으며 현옥이는 얼른 두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런 현옥이를 피해 진호는 얼른 거리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아득히 뻗어있는 대통로, 그옆으로 아지를 드리운채 그림처럼 서있는 가로수들, 이 모든것은 벌써 깊은 잠에 빠져있었다. 오직 가로등만이 머리우에 흰눈을 뒤집어쓴채 외롭고 적막한 설경을 쓸쓸히 지키고있을뿐이였다.
문득 진호의 눈에는 멀리서부터 보도를 따라 촘촘히 찍혀온 자기들의 발자국이 유표하게 안겨왔다. 광장과 네거리를 지나 곧추 여기 궁륭식교각의 란간앞에까지 이른 자기들의 발자국이였다.
눈송이들은 마치 정성들여 입혀놓은 은비단우에 난 그 상처를 서둘러 가시려는듯 더욱 기세좋게 내리고있었다.
이젠 더 있어야 할말도 없을뿐더러 이 마당에서 헤여지는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한 진호는 현옥이에게 돌아서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잘있소!》
고개를 숙인채 어깨를 떨던 현옥이가 불시에 와락 달려들었다.
《아이 안돼요, 가면 안돼!》
《…》
현옥이를 떼여놓고 한걸음 물러선 진호는 잠시 그를 말없이 지켜보다가 서둘러 뒤로 돌아섰다. 그리고는 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했다.
얼마나 걸었는지… 곧바로 뻗은 대통로에서 아빠트로 굽이도는 갈림길에 이르러서야 그는 뒤돌아보았다.
멀리 바라보이는 아치형교각, 그 교각의 란간옆에 아직도 얼굴을 두손에 묻은 현옥이가 표연히 서있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비껴온것은 홀로 서있는 현옥이의 모습과 함께 거기에서 찍혀진 발자국, 자기 한사람의 발자국이였다.
(이제부턴 나 혼자구나! 가자! 모든 미련을 털어버리고.)
이렇게 되뇌이는 그의 두눈에도 어느덧 뜨거운것이 고여오르고있었다.

제 3 장

불길처럼 타오르라

9

《이런 경우에는 접수하기 곤난합니다. 부득불 본직장에 다시 수속을 의뢰하기마련이지요. 파견장과 함께 근무이동증과 기사자격증이 첨부되여야만 한단 말입니다. 이 파견장도 그것들이 있을 때만 효력을 나타내니까요.》

곱살하게 생겼으나 겉보기와는 달리 몹시 깔진깔진한 제철소의 지도원은 진호의 미진된 수속에 대해 이렇게 말하면서 좀처럼 접수할 의향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태도는 상대가 누구든, 설사 이전 직급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 해도 자기한테는 마찬가지며 아무리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해도 이 엄격한 절차야 어떻게 어길수 있느냐는듯 한 사뭇 근엄한 기색이였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정이 그렇게 된걸. 올 때 단단히 부탁을 해놨으니까 수일내로는 나머지 문건들이 도착할겝니다.》

《그럼 그때 가서 접수해야지요.》

《아니, 지도원동무! 그러지 말고 사정 좀 봐주시오. 그때까지 난 어떡하랍니까? 할일없이 그저 빈둥거리란 말입니까? 접수하고 안하고 하는거야 지도원동무 손에 달린게 아닙니까, 예?》

자기를 흘끔 쳐다보는 그의 눈길에서 어떤 반응이 있다는것을 느낀 진호는 더욱 간절한 표정을 지어보이며 없는 비위를 부렸다.

《제발 날 좀 살려주시오. 내같은 햇내기야 지도원동무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발자국도 움직일수 없지 않습니까. 부탁입니다.》

《…》

아니나다를가 지도원은 더없이 중대한 문제에 직면한 사람처럼 심각한 기색을 지었다. 그러고보면 속은 그다지 까다로운 사람이 아닌

것 갈았다.

자기 운명은 전적으로 지도원의 결심여하에 달려있으니 그저 불쌍하게 생각하고 관대하게 처분해달라는듯 한 표정을 짓고있는 진호였으나 속으로는 지금 자기가 정말 그토록 바라마지않던 새 일터에 와있는가를 실질적으로 또 온몸으로 느껴보고싶은 충동에 더 옴해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채 식지 않은 시뻘건 강괴들을 실은 기차가 지나갈때면 얼른 거기에 정신을 팔았고 멀리에서 쿵쿵 하는 열풍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올 때면 마치 음악을 즐기는 사람이 고조되는 선률에 귀를 기울이듯 자못 커다란 흥분을 느끼며 듣고있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어떻게 믿을수 있단 말인가!

방금전에 수도를 떠난 자기가 어느새 철갑을 두른 로체들이 우뚝우뚝 솟아있고 짙은 갈색연기에 휩싸여있는 제철소에 와있다는것을 아니, 그처럼 중대하게 여겨오던 일신상의 변화가 눈깜빡할 사이에 벌어졌다는것을. 그러고보면 생활의 대하란 얼마나 거창한것인가! 과연 얼마나 광대한 생활이 우리 주위에 펼쳐져있는가!

그는 하늘같이 넓고 바다같이 깊으며 또 파도와 같이 장엄한 생활의 대하가 자기를 휩싸고있음을, 그 대하속의 자기란 마치 백사장의 모래알과 같이 미세한것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새삼스레 깨닫지 않을수 없었다.

이런 느낌은 흡사 기차를 타고 오면서 혼곤히 잠들었던 자기가 어떤 소란스런 정거장에서 깨난듯 한 느낌 아니, 그보다 어떤 사나운 일진광풍에 휘몰려 날아온것 같은 착각이 일게 하는것이였다.

사실 그는 제철소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맞아줄가 하는 생각으로 하여 저으기 위축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야금기지의 거창한 위용은 대번에 그런 고민을 일축케 해주었을뿐아니라 한갖 옹졸한 생각에 젖어있는 자신을 더없이 어리석은 존재로까지 느끼게 했다. 바로 이 점이 그를 기쁘게 했던것이다.

《그러니 기어이 깡철인가요?》

《네?》

공장정문으로 들어서고있는 견학생대렬을 보느라고 진호는 미처 그의 말을 새겨듣지 못했다.

《꼭 깡철직장으로 가시겠나 말입니다.》

마침내 지도원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위기에 처한 한 인간을 구원해주어야겠다는 의로운 결심을 품은 사람마냥 못내 심중한 태도로 대장을 펼치였다.
《그렇습니다, 꼭 강철직장입니다.》
《그렇다—》
히죽이 웃는 그의 미소는 보매 자기에 대한 긍지와 함께 자기 일에 대한 보람을 나타내는상싶었다.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흔히 대학을 졸업하거나 연구기관에서 오는 동무들을 보면 첨엔 모두 깡철이요, 용광로요 하고 현장을 택하지만 후에 가선 하나같이 기술부나 연구소로 옮겨앉군 하지요.
물론 사업상필요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럴바하군 아예 첨부터 기술과나 연구소에 적을 붙이는게 어떻습니까. 기사장동무와 토론해볼테니 말입니다.》
배치부서쯤은 자기의 결심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시킬수 있다는 겸손한 우월감을 그의 얼굴에서 읽은 진호는 비로소 이 지도원이 사업을 갓 시작했다는것과 처음 대상하는 사람에겐 누구에게나 이런 태도를 취하며 거기에서 일종의 만족을 느끼고있다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그런 느낌은 은연중 웃음이 나오게 했다.
《아니, 전 꼭 강철직장에 가야겠습니다. 후에 지도원동물 성가시게 굴지 않을테니 걱정마십시오.》
《그런 말도 누구나 첨엔 다 하지요. 하여간 모두들 신통하다니까. 깡철이라… 그렇게도 깡철이 소원이라면 어디 토론해봅시다.》
거듭 《깡》, 《깡》 하고 발음하는데 각별한 재미를 느끼고있는듯한 그의 버릇을 어쩐지 야유해보고싶어진 진호는 《어떻게든 그 강—철로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러 《강》이라는 발음을 유연하게 해보였다.
《기어이 깡철이라…》
다시 이렇게 중얼거린 그는 그 《깡》이라고 발음해보는 만족만은 종내 버리지 않은채 사무실을 나섰다.
진호가 수속들을 마저 끝내지 못하고 오게 된것은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 차마 수속이 다될 때까지 앉아기다릴수가 없었던것이다.
그 사실을 알고난 다음에는 어떻게 자기가 하는 일없이 빈둥거릴수

있었던지 리해할수 없었고 또 그런 자신이 가증스럽기까지 했다.

얼마전 정무원(당시)에서는 중유를 각 부문들에 배정하게 되였는데 아무리 짜보아도 애초의 계획과는 달리 극히 필요한데만 그것도 적은 량밖에는 차례지지 않았다는것이다.

정무원에서는 이런 실태를 부득불 어버이수령님께까지 보고드리지 않을수 없었다.

사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미 작성된 배정안을 거듭 보시다가 어째서 제철소에는 중유가 배당되지 않았는가고 물으시였던것이다.

뜻밖의 물으심에 의아해진 일군이 제철소에서는 본래부터 제기된것이 없었다고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내 그럴줄 알았소. 내가 회의때마다 우리의 연료로 쇠를 녹일수 없겠는가를 연구해보라고 했더니 이 동무들이 중유가 요구되는데도 선뜻 달라고 하지 못하는 모양이요. 일전에 알아보니 제철소에 중유가 얼마 없더란 말이요.》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던것이다.

《동무들, 생각해보시오. 만들어놓은 기계를 돌리기도 힘든 일인데 새로운것을 만들어내는 일이 어떻게 쉽게 이루어지겠소. 중유가 긴장되는 이런 때일수록 우린 그 동무들을 먼저 생각해주어야 하오. 중유가 떨어져가는데도 감히 달라고 제기하지 못하는 그 동무들의 심정이 어떻겠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동무들한테 먼저 줍시다.》

이 말씀을 전달받는 순간 진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수 없었다.

너무도 크나큰 은덕에 목이 메여 저절로 눈굽이 달아올랐다. 우리 수령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처럼 뜨거이 또 속속들이 헤아릴수 있는 은정이고 사랑이랴!

그러나 감격만이 아니였다. 감격보다 더한 자책이, 뼈아픈 자책이 곧 폐부를 사정없이 찌르는것이였다.

얼마나 간절하시면, 얼마나 바람이 크시면 이런 말씀을 다 하시는것일가? 그는 수령님의 이 말씀이 주체야금법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연료연구소나 해당 부문의 과학집단에게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하신 말씀같았고 또 자기때문에 하신 말씀인것만 같았다. 그럴수록 아직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죄책감, 평생을 두고도 용서받을수 없는 그런 죄스러운 자책에 휩싸였다.

더우기 새 연료를 연구하기 위해 현지에 내려왔다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당분간은 새 연료취입이 불가능하다는것을, 때문에 중유를 계속 공급해줄것을 제기한 명식이네의 처사가 괘씸하고 불만스럽기짝이 없었다. 그럴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자기 한몸이 쇠를 녹일수 있는 한줌의 연료가 되여 보란듯이 로안으로 뛰여들고싶었다.

남들처럼 아직 몸가까이에서 직접 뵈옵는 영광을 지닌적은 없지만 명절날 광장의 주석단에서 군중들의 물결에 휩싸여 발을 구르며 환호하는 자기에게도 그처럼 다정한 미소를 보내주시던 자애로운 모습,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을 위해서만 바치시는 로고로 하여 이젠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신 그 인자하신 수령님의 영상이 떠오르자 저절로 두눈에 눈물이 핑 고이는것이였다.

(잘못했습니다, 수령님! 외람되게 행동한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새 연료를 만들어 다시는, 다시는 수령님께서 심려하시지 않도록…)

그 즉시 그는 짐을 꾸려들고 기차에 올랐던것이다.

장차 일이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것은 알수 없었으며 또 생각조차 할수 없었다. 다만 제멋대로 흩어지고 분산되여있던 자기의 모든 힘이 하나로 집중되여 무서운 정력으로 줄달음치고있음을 느낄뿐이였다.

(저기가 바로 내 일터란 말이지!)

창가에 다가서서 정문어구에 있는 우람찬 강철직장을 흥분된 심정으로 바라보던 그는 갑자기 무엇에 놀란 사람처럼 후다닥 뒤로 돌아섰다. 한가지 생각이 번개같이 떠올랐기때문이였다.

다짜고짜 책상우에 있는 송수화기를 움켜쥔 그는 접단기를 두드려댔다.

자기가 왔다는것을 알기만 하면 대번에 그 왕눈을 디룩거리며 어쩔줄 몰라할 태수, 바로 그 막역친구를 통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변화를 새로이 확인해보고싶었던것이다. 지금은 오직 그만이 자기를 납득시킬수 있는 유일한 존재처럼 여겨지는것이였다.

《기술과에 부탁합니다.》

교환수특유의 선명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바쁘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기술과 어느 부서예요?》

(어느 부서?)
태수의 편지구절을 되새겨보았으나 어느 부서에 있다는것은 적혀있지 않은것 같았다.
《가만 있자, 야금기계과던가?》 하고 중얼거리는데 대번에 까르르하는 웃음소리가 고막을 찔렀다.
《여기가 뭐 대학인줄 아세요? 설비면 설비겠지…》
《옳소, 옳소! 거기가 맞겠소.》
교환수의 무랍없는 핀잔도 그에게는 유쾌하기만 했다.
《설비외다.》
대뜸 교환수의 목소리와는 너무도 대조되는 굵직한 목청이 들려오는 바람에 그는 상대가 틀림없이 주임석에 앉아있는 위풍도도한 과장이 아니면 그쯤되는 사람이라고 짐작하고 한껏 공손한 억양으로 태수의 이름을 댔다.
《태수?》
이렇게 되뇌인 그는 곧 뭐라고 일러주는데 무슨 말인지 통 가려들을수 없었다.
《뭐라는지요?》
《사별 80톤 말이요.》
(사별 80톤? 이거야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알수 있나!)
《아니, 여보십시오, 전 사람을 찾는데요. 태수동무 말입니다.》
《그러게 사별 80톤이라잖소.》
(챠! 이거라구야.)
사정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싶었으나 상대방의 억양이 어찌도 위엄스러운지 도저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누구요?》
상대방의 어조에는 자기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대한 로골적인 불만이 어려있었다.
《새로 제철소에 파견돼온 사람입니다. 태수의 동창생이지요. 진호라면 아마…》
《그럼 가보우다나.》
《어델 말입니까.》
《사별 80톤 말이요. 용광로뒤에 있으니까 후문으로 가는게 빠

를거외다.》

그제야 진호는 그 괴상한 이름으로 불리우는것이 어떤 설비라는것을, 그렇게만 불러도 이곳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설비라는것을 짐작했다.

(꽤나 을러댈 관료주의자겠군!)

송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진호는 방금 전화를 받은 사람이 필경 불룩한 몸집에 떡떡거리기 잘하리라는것과 그것으로 하여 부서사람들한테서 비난을 받고있을것이며 특히 누구보다도 그런 구속을 싫어하는 태수가 어지간히 골머리를 앓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저절로 웃음이 터졌다.

《안됐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다시 나타난 지도원의 낯색은 아까보다 한결 밝아져있었다.

《기사장동무가 이미 전화를 받았더군요. 부에서 말입니다. 요구하는 깡철로 기본적인 합의는 봤습니다. 기사장동문 회의가 있기때문에 다섯시에 만나자고 합디다. 그런걸 제가 오늘은 수요일이기때문에 합숙에서 다섯시까지밖에 접수하지 않는다는걸 상기시켰더니 그럼 숙소를 정한 다음에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부터 해야 할 수속들과 절차에 대해 순서를 꼽아가며 하나하나 대주는데 보매 이런 사무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자기가 기사장이나 지배인보다 한등급 우라는것을 시위하려는상싶었다.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짐들을 그의 사무실에 맡겨둔채 진호는 부랴부랴 밖으로 나왔다. 수속도 수속이지만 우선 직장부터 돌아보고싶어 견딜수가 없었던것이다.

파철장으로 쓰이는 직장앞 공지는 예나 다름없이 어수선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쇠붙이들중에는 자동차운전실뚜껑이며 무쇠바퀴들 그리고 어떻게 날라왔는지 짐작키 어려운 커다란 기계부속들도 있는데 거의나 벌겋게 산화된것들이였다.

파철장사이로 난 좁은 통로로는 잔쇠붙이들을 가득 실은 자동차들이 겨끔내기로 꽁무니를 들이대고있었고 이미 부리워진 쇠밥부스레기들은 자석기중기의 무쇠흡반에 척척 빨리워 화차우에 있는 장입바가지들에 담겨지고있었다.

왜서인지 포장길로가 아니라 파철장을 가로질러가고싶어진 그는 장

애물을 극복하듯 하며 쇠붙이를 타고넘다가 우뚝 걸음을 멈추고 강철직장의 거창한 위용을 바라보았다.

주런이 서있는 로체들과 로마다에서 내뻗치는 사나운 불길들 그리고 하늘을 찌를듯이 솟아있는 여섯개의 굴뚝들에서 솟구쳐오르는 희고 갈색이 도는 연기들…

저절로 가슴이 후두둑 뛰면서 어쩐지 한발에 들어서기는 못내 아쉬운 그런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실습을 왔던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처리장의 벽은 시커먼 박판으로 둘러져있었는데 지금은 은빛으로 번쩍거리는 아연도금판이다. 그땐 발생로의 배관들로 하여 멀리에선 용해장을 볼수 없었는데 지금은 휑하니 들여다보인다.

그 숱한 로체들과 배관들은 다 어데로 사라졌담! 그러니 발생로를 아예 없애버렸는가. 변했다. 참으로 많이 변했다. 철도인입선이며 그우로 분주히 오가는 기관차들도 전에 없이 불어난것 같았고 로문이 열릴 때마다 뿜어나오는 화광까지도 이전보다 몇배 더 억세게 느껴졌다.

《비켜요! 동무!》

귀청을 찢는 야무진 소리에 와뜰 놀라 돌아보니 한 처녀가 머리에 이고 온 파철덩이를 당장 자기 발등우에 내던지려 하고있었다.

《이크!》

덴겁을 하며 물러선 진호였으나 뒤에 있는 삐죽한 쇠붙이에 걸려 넘어질것처럼 두팔을 허우적거렸다. 그 바람에 처녀는 물론 주위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배를 그러쥐고 웃어댔다.

다만 진호만이 얼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서있었는데 다시 다가선 처녀가 이번에는 팔을 자기쪽으로 힘껏 잡아당기는것이였다.

《아이! 좀 정신을 차리세요.》

돌아보니 웬걸 장입바가지를 가득 담은 화차가 기척도 없이 뒤걸음질치고있는것이 아닌가!

(정말 단단히 정신을 차려야가보군.)

불시에 어떤 격렬한 운동의 필요를 느낀 그는 처녀에게 씩 웃어보이고나서 산화철가루가 융단처럼 깔려있는 무쇠계단을 두세층씩 마구 올려짚으며 용해장으로 뛰여올랐다.

출격하는 땅크의 서렬처럼 진을 치고 으렁으렁 동음을 울리는 로체

들이며 로문짬으로 한발씩 내뻗치는 사나운 불길 그리고 이 장엄한 철의 군단의 지휘자야 내가 아니고 누구냐는듯이 긴팔을 휘저으며 돌아가는 장입기를 보느라니 저절로 장쾌해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용해장을 뒤흔드는 동음은 금시 무엇을 와지끈 부서뜨릴듯싶은 위구를 촉발케 했으나 온몸에서는 알지 못할 쾌감이, 사나이다운 쾌감이 못견디게 꿈틀거리는것이였다.

(흠! 여기가 바로 내 일터란 말이지!)

그는 벅차게 끓어번지는 생활의 률조를 새삼스레 온몸으로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엔 단지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생활자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여태까지는 이런 생활에 매혹되여 이 생활을 누리고있는 사람들에 대해 부러움만 품어왔지만 오늘부터는 바로 자기자신이 그 따분한 생활을 이 격동적인 생활로 바꾸었다는 긍지가 가슴속에 꽉 차오르는것이였다.

그의 가슴속에는 말로써는 표현하지 못할 환희와 함께 행동하고 투쟁하고싶은 열망이 견딜수 없이 끓어올랐고 행복이라고 할수 있는 감정이 그득히 차올랐다.

지령실의 지시가 확성기를 통해 들려오는가 하면 아스라니 높은 천정기중기에서는 무선기를 입에 댄 운전공들이 연방 뭐라고 중얼거린다. 로의 계기실마다에는 빨갛고 파란 구슬전등들이 쉽없이 반짝이는데 산업텔레비죤화면에는 로안의 사품치는 용금성분들이 또렷이 찍혀있었다.

이젠 자기도 이 거창한 철의 군단의 당당한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이것저것들을 바라보던 그는 자기 눈에 비치는 모든것이 쇠로만 되여있는데 대한 새삼스러움에 저절로 미소가 피여올랐다.

여기저기 붙어있는 구호판은 물론 로상으로 오르는 사다리며 계기실에 있는 책상과 의자도 다 철판으로 무어진것이였고 지어는 작업일지의 뚜껑이며 구석에 세워놓은 비자루까지도 철사로 엮어진것이였다.

견학을 왔던 그때에도 모든것이 쇠로만 되여있는걸 두고 얼마나 신기해했던가. 어릴 때 선생님이 《명사에 무엇이 속합니까?》 하고 물으면 《의자》, 《책상》, 《못》 하고 떠들어대듯이 자기들도 누가 쇠로 된것을 먼저 찾아내는가에 열을 올렸었다.

진호도 그때 한창 신이 나서 떠들어댔는데 갑자기 그보다 몇배 더

신기한것을 발견하고는 무춤 걸음을 멈추고말았었다. 그것은 로앞에서 빙빙 돌아가며 신명나게 해대는 용해공들의 삽질이였다. 그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도 호케이 슛동작과 흡사한지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나왔던것이다. 삽자루를 거머쥐고 휘친휘친 로앞으로 다가서서 두팔을 힘껏 휘두르는 모습은 그야말로 팍을 몰고 들어가다가 문대를 향해 채를 후리는 바로 그 동작이였다.

삽시에 얼음판을 질주하던 때의 흥분이 되살아오른 그는 어망결에 용해장복판으로 뛰여들었었다.

《삽질을 한번 해볼수 없을가요?》

《삽질?》

이마에 깊숙한 상처자리가 있어 얼핏 보기에도 몹시 험상궂게 생긴 로장은 대번에 마뜩잖아했지만 그 정도에 물러설 진호가 아니였다.

《걱정마십시오, 전 대학 호케이선숩니다.》

《호케이선수?》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는듯이 더욱 얼떠름해하는 로장이였으나 진호는 얼른 삽자루를 움켜쥐고 보수재를 떴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용해공들짬에 끼여든 그는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앞자리들의 동작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기어이 자기도 용해공들처럼 삽을 휘두르는 순간엔 뒤다리까지 보기 좋게 흔들어보이리라고 벼르면서…

이윽고 불길이 널름거리는 로문앞에 이른 그는 온몸에 힘을 주면서 힘껏 휘둘렀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저도 모르게 《으악.》 하는 비명을 지르고말았다. 그담부턴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조차 할수 없었다. 다만 눈섭이 끄슬리지 않았나 해서 조심히 쓸어보는데 뒤에서 굉장한 폭소가 터져올랐던것이다.

《여—호케이!》

히죽이 웃으며 다가선 로장이 《삽자루가 뭐 불살구갠줄 아나?》 하고 말했을 때에야 그는 자기 손에 있어야 할 삽이 없음을, 너무도 뜨거운 바람에 그것을 그만 로안에 던져버렸다는것을 알았다.

(아이구! 이게 무슨 망신이람!)

이 일로 하여 그는 대학에 돌아온 후에도 한동안 뒤문출입만 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 추억도 오늘은 마냥 즐겁기만 했다.
어디서 삽질하는데가 없는가싶어 두리번거렸으나 어느 로도 투사작업을 하는데는 없었다.
그는 다시금 유쾌한 기분으로 출강장이며 용해장의 설비들을 이것저것 살펴보기 시작했다.

10

(여기가 지령실이던가?)
현장을 한바퀴 돌아본 진호는 5호로옆에 있는 산뜻한 2층건물, 용해장을 환히 내다볼수 있게 한면이 온통 유리로 되여있어 마치 1등선박의 조타실을 련상시키는 웃층을 쳐다보다가 그리로 올라갔다.
태엽에 감겨진 기계처럼 그는 한동작이 끝나면 서슴없이 다른 동작으로 넘어가군 했다.
초록색주단이 깔려있는 정갈한 방안, 문을 닫고 들어서자마자 외계의 소음은 들리지 않아 갑자기 물속에라도 잠긴듯 한 정적을 느낄 때에야, 특히 벽을 따라 주런이 놓인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시에 자기를 쳐다볼 때에야 그는 자기가 다소 덤비고있다는것을 느꼈다.
《저ㅡ》
무슨 말을 해야 하며 어떻게 처신해야 자연스러울것인가를 미처 생각할 사이도 없었던 그는 자기의 마음속에서 일고있는 흥분으로 하여 그만 미소를, 그것도 퍽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우고말았는데 이 헤식은 미소가 사람들을 더욱 아연케 만들었다는것을 통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건 어디서 굴러온 얼뜨기야!)
모두의 시선이 이러는것 같아 창피했으나 그 부끄러움으로 하여 한결 대담해진 그는 지령탁을 향해 서슴없이 걸어갔다.
모르긴 해도 여러대의 전화기와 산업텔레비죤화면을 마주하고 앉아있는 머리가 멋있게 벗어져올라간 사람이 필경 직장장이 아니면 그쯤되는 사람이라고 확신해마지 않았던것이다.
《직장에 새로 배치돼왔습니다. 리진호라고 합니다. 앞으로 많이 가

르쳐주십시오.》

줄곧 어리둥절한 기색으로 마주 쳐다보던 그였으나 진호가 허리를 굽석하고 숙이자 갑자기 풍이라도 만난 사람처럼 두손을 황급히 내저었다.

《아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입을 싸쥐고 웃는 킥킥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에야 진호는 자기가 또 하나의 망측한 실수를 저질렀다는것을 알았다.

(넨장! 머리는 왜 벗어져가지고…)

그는 모든 원인이 상대의 벗어진 이마에 있기라도 한것처럼 그의 대머리를 힐끔 쏘아보았다.

《전 그저 지령원에 불과하지요. 예, 저기 저 동무가 바로 우리 책임기사입니다.》

그가 가리키는쪽으로 고개를 돌린 진호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의 행동은 마치 자기가 제때에 일어나지 않으면 진호가 또 실수를 하리라고 여겨 그 망신을 사전에 면하게 해주려는것 같았다.

《제가 책임기삽니다.》

《?》

그에게 다가선 진호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자기의 직속상관일 사람이 겨우 자기 나이와 비슷할 새파란 청년이였기때문이였다.

(이렇게도 젊은 친구가 책임기사라니? 보통이 아닌걸!)

유순한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 시선이 마주칠 때면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그의 모습은 마치 수태를 머금은 순박한 처녀같았으나 가끔씩 어덴지 모르게 나타나군 하는 긴장한 표정은 어떤 일도 허술히 하지 않는 영민한 사람의 자신심이 어려있었다. 분명 평시엔 얌전하다가도 일단 전투에 돌입하기만 하면 남다른 투지를 나타낼 그런 부류의 젊은이라는것이 알렸다.

《방금 간부과에 들렸다가 오는 길입니다.》

자기 소개를 하면서도 진호는 책임기사를 유심히 살폈다.

소금기가 내밴 뻣뻣한 작업복을 입고있는 모습이며 얼굴전체에 느껴지는 진지한 표정은 늘 무거운 부담을 이겨내려고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 사람의 열정과 헌신과 피곤이 한데 어려있었다.

대뜸 그에게서 어떤 호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게 된 진호는 이런 책임기사와의 상면이 마치도 자기 연구사업에 대한 성과를 담보해주는 계시처럼 여겨져 흐뭇해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괜찮아! 마음이 맞을것 같애!)

왜서인지 그는 언제나 첫대면에서 받은 인상으로 상대방을 규정해버리군 했는데 그것이 무척 오래동안 지속되는것이였다. (영 말째겠는걸.) 하고 첨부터 머리를 젓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원시원한게 좋아!) 하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도대체 어떤 짐작도 가지 않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생활은 적지 않게 자기가 느낀 첫인상과는 반대되는 결론을 내린다는것을 모르지 않는 그였으나 어째선지 아직도 첫인상만은 좋기만을 기대하게 되는것이였다.

《반갑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금도 과장된 기쁨이라든가 책임기사라는 위치가 요구하는 지어낸 겸손성이라고는 없었다. 오히려 자기에 대한 내심을 짐작하기라도 한듯 (난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애숭이지요.) 하고 고백하는것 같았는데 이 점이 진호에게는 더 믿음을 자아냈다.

《그래 어떤 과제를 안고 왔습니까?》

《과제래야 아직 뭐…》

첨부터 자기의 의도를 밝히지 않는것이 온당치 못한 일이긴 했으나 진호는 터놓게 되지 않았다. 자기 기술안에 대비한 직장의 구체적인 실정을 검토도 해야겠지만 보다는 처음부터 자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고싶지 않았기때문이였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리유는 자기 연구사업에 대한 의도를 알면 그가 내심 어떤 위구를 품을수도 있다고 생각되여서였다.

그는 자기 일에 대한 확신이 더없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선지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쉬이 납득하지 않으리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방안에 있는 지령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눈 진호는 그를 따라 다시 현장으로 나왔다.

《나도 대학을 졸업한지 몇해 안됐습니다. 아는것은 물론 경험도 없구요. 더우기 지금은 직장장동무까지 학교에 가고 없어서 그 짐까지 맡자니 여간 베차지 않군요.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오.》

가식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이 한마디만 듣고도 그가 얼마나 소박한 사람인가 하는것을 다시금 깨닫지 않을수 없었다.
《배합이 얼마요. 아흔둘?》
《대차입환은 확인했소?》
그는 용해장에서 마주치는 매 사람들과 정련이 어떻고 대차가 어떻고 하고 한두마디씩 주고받았는데 진호로서는 한마디도 알아들을수 없었다. 확실히 여기서는 이들만이 통하는 언어가 따로 있는상싶었다.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품으로 보아 젊기는 하지만 한결같이 미더운 일군으로 여기고있는게 분명했다.
《부에 있었다지요?》
《네, 기술국에 있었습니다.》
《그럼 실장을 잘 알겠군요.》
《실장이라니요?》
《현명식실장 말입니다.》
진호는 흠칫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헤집지 말자고 굳게 닫아매두었던 추억의 고리를 그가 너무 불시에 잡아당기는것이여서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프리지 않을수 없었다.
명식이에 대한 생각이 미칠 때마다 그의 머리속에 떠오르는것은 그날 자기에게 현옥이를 도와주라고, 사랑이란 서로의 뜻을 소중히 여겨줘야 하는게 아닌가고 리면에 본심을 숨기고 하던 그의 말이였다. 그러면서 그 말에 항거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울분이, 또 그런 울분을 터뜨릴수 없게 하는 그에 대한 생리적인 불만이 동시에 솟구쳐오르는것이였다.
《잘 아는 사인가요?》
《새 기술이 제기될 때마다 련계를 가지기마련이니까요, 언젠가는 같이 공동론문을 제기한적도 있구요. 며칠전에는 이번에 새로 만든 투사기에 대한 심사를 의뢰했는데 어떻게 되겠는지…》
따져보면 그가 제철소와 밀접한 관계에 있을수밖에 없지만 여기에 와서까지 그의 이름을 듣고보니 어쩐지 이상한감이 들면서 불쾌하기까지 했다.
사실 그에게 있어서 명식이는 불가사의한 존재였다.
아무리 곰곰히 따져봐도 그의 말이, 그의 행동이 자기한테는 하나

같이 부당한것이였지만 객관들에게는 지어는 사물에 대해 공정한 사색을 할줄 아는 사람까지도 그를 그르다기는커녕 오히려 정당한것으로 평가하고있는것이였다. 과연 그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 자신을 그처럼 정당화하는지, 어째서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는것조차 그앞에서는 이렇다할 론거를 세우지 못하고 무력해지는지 그 리유를 알수 없었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즉 그가 어떤 일을 하는 경우 주로 승산이 있는것만 골라할뿐아니라 그것도 철저히 안전수치가 담보돼있는것만 수행한다는것인데 이 점만은 도저히 수긍할수 없었다. 수긍이 아니라 도리여 침을 뱉고싶도록 가증스럽기까지 했다.

(그래서 백가지 일을 한들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그런 일을 할바엔 차라리 삽자루를 쥐고 땅을 파는게 훨씬 낫지. 어째서 남들이 못한다고 하는 일을 해놓는것이 할수 있는 일의 천가지, 만가지보다 더 가치가 크다는걸 모른단 말인가!)

한데 문제는 진정한 일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모든것을 바치려는 자기는 걸음마다 암초요 시비지만 명식이처럼 아무 보람도 없는 길을 걷는 사람은 언제나 일 잘한다는 찬사를 받는다는데 있었다.

(모르겠다니, 정말 모를 일이야.)

부에서 떠나올 땐 그와 이젠 아무런 인연도 없으며 먼거리에 있는것이라고 여겼던것이나 생활은 또다시 자기들을 한고리에 이어놓는것이였다.

(그러니까 나의 새 연료안도 앞으로는 그의 심사를 거치지 않을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자 방금전까지만 해도 그처럼 우람차고 광대한것으로 느껴지던 생활이 삽시에 외진 오솔길처럼 여겨지면서 서글픈 한숨이 터졌다. 그러나 그는 곧 저로서도 알수 없는 어떤 충동에 몸을 떨었다.

(좋다! 어디 겨뤄보자! 누가 옳고그른가 하는것은 이 엄혹한 생활이 심판을 설테니까.)

그는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얼음판에 나설 때면 그랬던것처럼 온 근육에 힘을 주면서 힘껏 심호흡을 했다.

《책임기사동무!》

이때 뒤에서 책임기사를 찾는 챙챙한 녀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 몇번이나 찾아야 해요. 정말!》

도면말이를 내미는 처녀의 두눈에는 웃음인지 노여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기색이 어려있었다. 보매 무슨 의견이 있어서라기보다 언제나 그런 태도에 습관돼있는 처녀같았다.

《벌써 다 고쳤소?》

《고치지 않구요.》

《주오, 내 인차 볼테니.》

《언제까지요.》

《래일은 설비점검이 있으니까 모레까지 보도록 하지!》

《모레요? 안돼요! 래일까지 꼭 봐줘야 해요.》

《래일?》

응당 자기는 그런 요구를 할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처녀의 행동에 비해 조금도 탓하는 기색이 없는 책임기사였다. 그러고보면 이들의 관계는 이미부터 이렇게 지내는데 버릇된것 같았다.

《할수 없지.》

그제야 처녀는 방긋 웃었다.

《그럼 부탁하겠어요. 꼭!》

《참! 정아동무!》

뒤로 돌아서는 처녀를 불러세운 책임기사는 진호를 가리키며 말했다.

《인사하오, 우리 직장에 새로 배치돼온 기사동무요.》

《그래요? 전 또…》

무슨 말인가 하려던 처녀였으나 곧 고개를 숙이며 정색을 했다.

《윤정압니다.》

그는 살그머니 진호를 쳐다보다가 눈을 깜빡했는데 그 눈은 마치 스위치를 켰을 때의 전등처럼 반짝하고 빛을 뿜는것이였다.

다시 걸음을 옮기면서 책임기사가 말했다.

《작년에 공장대학을 졸업했는데 전기부문을 담당한 공정기사지요. 얼마나 극성인지… 그만하면 능력도 있구요. 잠간 저쪽으로 갑시다.》

그는 갑자기 현장을 가로질러 2호로옆에 세워놓은 커다란 설비앞으로 진호를 이끌었다.

《이게 바로 이번에 새로 만든 투사깁니다.》

그의 태도로 보아 진호는 그가 아까부터 이 기계를 자기한테 소개

하려고 했다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삽질을 대신하는 기곈데 이 투사기로 해서 이젠 용해장에서 삽이 없어졌지요. 실로 커다란 혁신이 아닐수 없지요. 현실장한테 심사를 의뢰한것이 바로 이 기곕니다.》
(그래서 삽질하는데가 없었구나.)
실상 삽질은 용해공들에게 있어서 그중 힘든 육체로동일뿐아니라 고열작업이였다. 쇠물에 침식된 로벽을 보강하는것이 무척 까다롭고도 세밀한 작업이여서 여러차례 기계화를 시도했댔으나 빈번히 성과가 없었다는것을 진호도 이미부터 알고있었다.
(대단한걸?)
평로에 새 력사를 불러온 기계, 언젠가 자기를 그토록 망신시킨 그 삽질을 대신하는 기계를 진호는 놀라운 눈길로 살펴보았다.
원료장입실에서 흘러내리는 보수재가 여러개의 완충장치들과 교반이바퀴의 조절에 의해 압축공기로 투사될수 있게 만들어진 매우 정교한 설비였다. 육중한 설비이긴 했으나 아무때나 손쉽게 이동시킬수 있게 밑에는 고무바퀴까지 달려있어 얼핏 보면 멋진 기동포를 련상시켰다.
《도기술경연에선 1등을 했는데 부에선 뭐라겠는지… 아마 부에서도 괜찮은 평일겝니다. 우선 용해공들이 다 좋아하니까요.》
《그러니 이건 집체작인가요?》
《웬걸요, 태수라고 기술부에 있는 동문데 숱한 고생을 했지요.》
《태수요?》
진호는 대번에 두눈을 흡떴다.
(아니 태수가? 그래! 편지에 분명 1등을 했다고 했댔어! 그럼 정말 이걸 그가?)
《태수동물 압니까?》
진호의 태도에 책임기사도 반색을 지으며 물었다.
《알다마다, 서로 막역한 사이지요. 대학때부터 말입니다. 원래 이리로 같이 오려고 했댔는데 내가 그만 한발 늦었지요. 한데 이게 정말 태수의 창안품이란 말입니까? 편지를 받긴 했지만 이런 훌륭한 설비일줄은 미처…》
《두달을 꼬박 현장에서 밝혔습니다. 밤낮 〈제길, 제길〉 하면서

말입니다.》
진호는 큰소리로 웃지 않을수 없었다.
《제길》이라는건 불만스러울 때는 물론 즐거울 때까지도 태수가 버릇처럼 입에 붙이고다니는 말이였던것이다.
(이 친구가 정말 대단한걸 제꼈는걸… 왜 그처럼 우쭐해하는가 했더니… 하긴 이쯤한것이면 백번이라도 자랑할수 있지. 어쨌든 내가 단단히 한꼴 먹었어.)
내심 더없이 기쁘고 놀라왔으나 책임기사앞에서 환성을 지른다는것이 어딘가 자존심이 꺾이는 노릇같았고 그렇다고 짐짓 입을 다물고있자니 또 친구의 성과에 지내 랭담한것처럼 여겨져 어떤 태도를 취했으면 좋을지 알수 없었다.
진호는 투사기의 구조며 작용원리들을 구체적으로 뜯어보기 시작했다.
(흠! 그렇지! 그래! 그 덜렁바우가 이런 기발한 착상을 다하다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것때문에 현장에 나와있었는가요?》
《…》
고개를 들고보니 책임기사는 벌써 옆에 없었다.
어느새 로앞에 가있는 그가 용해공들과 이쪽을 보며 뭐라고 하는데 분명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있는것 같았다. 그들에게서 태수에 대한 얘기를 더 듣고싶었으나 진호는 그리로 다가갈수가 없었다.
온 용해장을 망질하듯 돌아가는 장입기가 불안스러워서였다. 어떤 구간을 왕복하거나 가락맞게 움직이는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을수 없이 마구 휩쓸며 돌아가는것이여서 잠간만 눈을 팔아도 어느새 포신같이 어마어마한 팔이 뒤통수를 겨누고 스르르 다가서는것이였다. 그러나 책임기사나 용해공들은 불안은커녕 자기들 얘기에만 정신이 없다가도 그 육중한 동체가 다가설 때면 보지 않고도 한발씩 옮겨 그 위험을 쉽사리 극복하는것이였다. 마치 그들의 몸에는 예민한 촉수가 뻗어있어 이런 위험을 미리 다 예감하는것 같았다.
진호는 책임기사와 마주서서 얘기하는 늙은 용해공에게 시선이 멎었다. 두툼한 보안경이 달린 모자채양을 한껏 제껴쓴 모습이 어딘가 낯익어보여서였다. 이쪽으로 돌아서는 그의 이마에서 깊숙한 상처를 발견한 순간 그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그렇지!)

장입기가 멎기 바쁘게 진호는 그에게로 다가섰다.
《안녕하십니까, 로장아바이.》
장입기운전공에게 무슨 손시늉을 해보이고 돌아서던 로장은 진호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서로 알리 만무라고 여기는 사람의 무관심한 눈길로 일별했다. 그런 태도가 상대방을 무안하게 한다는데 대해서는 전혀 오불관언인듯싶었다.
《절 모르시겠습니까? 실습을 왔다가 로안에 삽을 집어넣던 대학생입니다.》
《?…》
《왜 호케이선수라고…》
《호케이선수?》
그제야 그의 눈에는 생기가 돌았는데 틀림없이 삭막한 기억의 갈피속에서 한오리의 실머리가 잡히는 모양이였다.
《그래그래! 호케이선수! 생각나네, 생각나!》
삽날처럼 뾰족한 턱을 쳐들고 껄껄 웃던 그는 언제 웃었냐싶게 다시 진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왔나. 왜 또하나 날려볼 생각인가? 그렇지만 이젠 늦었쇠. 저 투사기가 이젠 삽질을 대신한단 말일세.》
《아니, 이번엔 아예 눌러앉자고 온걸요.》
《그ㅡ래?》
그는 쇠뭉치같이 짯짯한 손을 내밀며 다시금 만족스레 웃었다.
로장이 그때 삽질하던 얘기를 해서 책임기사는 물론 옆에 있던 용해공들까지 폭소를 터뜨렸다.
이때였다.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수 없는 가느다란, 매미같은 목소리가 책임기사를 찾는 바람에 진호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기철입니다.》
책임기사가 어깨에 메고있는 무선전화기를 입에 갖다댔을 때에야 진호는 그 목소리가 거기에서 흘러나온다는것을 알았다.
《책임기사동무요? 나 태수요. 다른게 아니라 내 친구 하나가 방금 제철소로 왔다는데 혹시 거기 가지 않았나 해서…》
《친구라니?》

그는 진호를 돌아보며 빙긋 웃었다.

《키는 구척이고 얼굴은 시커먼게 꼭… 어쨌든 스산하게 생긴 친구요. 좀 찾아보구려. 강철로 보내달라고 떼를 썼다니까 아마 그 어방 어디에서 어스벙댈거요.》

《그래?》

기철은 무선전화기를 벗어주며 한번 놀래워주라고 눈을 끔뻑했다. 그러나 진호는 상대가 태수라는것으로 하여 벌써 제정신이 아니였다.

전화기를 받아들기 바쁘게 그는 그것을 입에 대고 《날세, 나야!》하고 소리쳤으나 웬일인지 태수는 아무 대꾸도 없었다. 책임기사가 옆에 있는 단추를 누르면서 말해야 된다는것을 알려주어서야 그는 자기말이 통하지 않았음을 알았다.

《나란데, 진호란 말이야!》

《뭐 누구? 아－니 이게? 원! 이런 제길!》

흥분할 때면 아무말이나 두서없이 내뱉군 하는 그의 습관이 떠올라 진호는 저절로 웃음이 나갔다.

《가만, 가만! 거기 있겠나? 내 당장 그리로 가지.》

《아니, 아직 직장에 들려 인사도 못했네!》

《그래? 그럼 직장에 들려 인사를 하고 그길로 나한테 오게. 나한테 와서도 인사를 해야지. 아무래도 선배를 찾아보는게 도리가 아닌가! 어때? 아니, 근데 진호가 옳긴 옳아?》

《젠장! 이따 실물확인하게나.》

두 친구의 상봉을 지켜보는 책임기사며 로장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11

직장초급당비서를 만나본 진호는 맡겨두었던 짐들을 책임기사방에 옮겨놓은 다음에야 태수가 있는 기술과로 찾아갔다.

《아－니 이게 누군가, 응? 정말이군그래, 정말이야!》

기술과청사의 좁은 계단으로 막 굴러내려오다십이 한 태수는 다짜

고짜 진호를 부둥켜안았다.
《하— 이거 모르겠는걸! 어떻게 된판인지 모르겠다니! 어디 보세, 진호가 맞나.》
《글쎄 내가 뭐랬어, 꼭 온다잖았는가 말야!》
사무실에 들어서서도 태수는 《자— 다들 보시오, 바로 이 친구가 진호요.》 하고는 마치 경기에서 이기고 퇴장하는 진호를 맞을 때처럼 허리를 안고 한바퀴 돌기까지 했다. 이런 부산스런 행동에도 부서 사람들은 탓하는 기색이 없이 빙그레 웃기만 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한마디 한 태수는 곧 진호의 팔을 끌었다.
《가자구.》
《어디루?》
《어디긴 어디야, 우리 집이지!》
《우리 집?》
그제야 진호는 그사이 태수가 결혼했다는것을 감감 잊고있은 사실에 놀랐다.
작년말, 결혼식에 꼭 와야 한다는 편지를 받고도 바쁜 출장이 제기되여 몸을 빼지 못했던 자기였다. 지방려관의 초라한 방안에서 어떤 축전을 보낼것인가를 궁리하다가 숱한 초안들을 다 찢어버리고 《행복의 꽃을 피우라》는 단마디로 된 전문을 날렸던것이다.
어떻게 생긴 녀잘가? 성격은 어떻고?
모르긴 해도 태수의 안해될 녀자라면 한두마디의 핀잔쯤에는 끄떡도 하지 않을 녀장부래야 된다고 믿는 진호였다. 그렇지 않다간 그 드센 성격에 몰리워 밤낮 애꿎은 눈물만 짜리라는것은 의심할 여지 없었다.
편지에는 교원대학을 졸업한 꼬마선생님이라고 했었지?
아무리 생각을 굴려보아도 태수가 어떤 녀자를 데려왔겠는지 가늠할수 없었다. 우선 그가 낯모를 녀성과 생활을 꾸리고있다는 자체가 믿어지지 않았다.
결혼생활, 특히 신혼생활이란 부부끼리 서로 귀속말로 속삭일줄도 알아야 하고 안해의 온정에 넘친 트집도 아량있게 대할줄 알며 특히는 각별한 매력이 숨어있는 생활의 갈피들을 묘리있게 들추어내는 재간도 있어야겠는데 덜퉁스럽기만 한, 수업시간 옆사람과 한다는 얘기

가 강사의 목소리보다도 큰 그가 어떻게 그런 생활을 꾸려나가는지 자못 의심스럽기만 했다. 한마디로 색다른 생활을 능숙하게 대할 재치라고는 전혀 없는 그가 어떻게 살고있는지 몹시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 우습기도 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진호는 소란을 피운데 대한 사과의 뜻에서 사람들에게 묵례를 했다.

문옆에 서있는 남달리 뚱뚱하고 혈색이 좋은 사람에게 시선이 미친 그는 분명 낮에 전화를 받던 그 과장이라고 생각하며 각별히 공손하게 머리를 숙여보였다.

《아깐 안됐습니다.》

《뭘요.》

아무 의미도 없는 미소를 띄운 그였으나 목소리만은 더없이 위엄이 있었다.

《어때? 경기장에선 내가 내내 동무의 뒤를 쫓았지만 이번엔 날 따르지 않을수 없었지?》

《정말 죽기내기로 따라왔네.》

《어물어물하다간 영 떨어지고말어!》

정말 자기뒤를 바싹 쫓아오는가 어떤가를 시험이라도 하듯이 태수는 두팔을 휘저으며 힘차게 걸었다.

《같이 배치된 친구들은 다 잘있나?》

《잘있지. 이젠 여기 귀신이 다 됐어. 정국이는 밤낮 새까매가지고 두더지처럼 굴뚝만 쑤시는데 뭐 연진에서 새로운 금속을 잡아낸다나? 그리고 용필이는.》

《용필이라니?》

《아, 왜 그 〈구강공학강좌장〉 있잖아.》

《그래그래!》

너무도 능한 웅변가여서 일격에 《구강공학강좌장》이라는 칭호를 수여받은 기계제작학부의 뚱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친군 무슨 프로그람선반에 달라붙었는데 도무지 만날 사이도 없어!》

《참! 내가 깜빡 잊었댔군! 축하하네. 그사이 굉장한걸 만들었더군. 투사기 말이야.》

《피－》
미간을 찌프린 태수는 곧 입술을 삐죽이 내밀었다. 언제나 자기에 대한 평가는 그것이 아무리 응당한것이여도 이러군 하는 그였다.
《내가 특별히 고맙게 여기는건 그게 대단한 기계라는데도 있지만 보다는 그걸 만든것으로 해서 동무가 내 빚을 갚아준거야.》
《빚이라니?》
《그런 일이 있지!》
《아직이야 알게 뭔가? 이제 부의 심사를 거쳐봐야지. 생각만 해도 난 벌써부터 가슴이 졸아드네. 그들이야 덮어놓고 흠만 잡자고 달려드는걸.》
《아니, 환성을 올릴거네. 용해공들이 격찬인데야 무슨 걱정인가. 표창급수에 상금은 맡아둔걸세.》
《제－길.》
기쁠 때마다 속으로는 더없이 흥이 나 하면서도 무슨 다른 화제를 꺼내려고 사방을 두리번거리군 하는 그의 모습을 보느라니 진호는 자기들이 그동안 서로 떨어져있은것이 아니라 대학생활을 그대로 연장하고있으며 교정을 거닐며 하던 얘기를 계속하고있는듯싶었다.
태수를 만나는 첫 순간에 진호는 벌써 그가 이전과는 달라졌다는것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오래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던 사람의 얼굴을 오래간만에 볼 때면 처음에는 헤여져있었던 사이에 생긴 외모의 변화에 놀라게 되지만 차츰 그 얼굴은 이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면서 모든 변화들이 가뭇없이 사라지고 그 사람에게 고유한 표정만이 나타나는 법이다.
진호도 그에게서 바로 그런 낯익은 점들을 찾아보게 되면서도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특징, 확신에 넘쳐 한곳을 향해 줄달음치는 사람에게만 특유한 열정과 신심을 깨닫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본래의것을 억지로 다르게 바꾸어 나타내는것이 아니라 본래의것이 한껏 좋게 발전된, 말하자면 훌륭한 생활속에서만 얻을수 있는 자신심이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아니 왜 이쪽으로 가나?》
인도를 벗어나 야산쪽에 있는 좁다란 비탈길로 접어드는 바람에 진호는 의아한 눈길로 태수를 쳐다보았다.

《아빠트에 들라는걸 떼를 써서 이 집을 얻었네. 낡은 유습이라고 욕할건 없어. 일이 일이니만치 조용한 곳에 있고싶더군. 또 일터가 가깝기도 하고. 그런데 왜 물어보지 않나? 어떤 처녀를 얻었는가구?》
《왜 겁이 나나? 과소평가할가봐?》
진호는 뒤에 선것으로 하여 태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게 유감스러웠다.
《난 동무의 평가보다 자기의 인상을 기준으로 삼고픈거야. 내가 물어보면 동문 암암리에 정도이상으로 과장할게고 그럼 난 실지 부닥쳐서는 실망할수도 있지 않나.》
《원, 제―길! 보면 알겠지만 과대고 과소고 할 대상이 못돼!》
태수는 어처구니없다는듯이 고개를 저었다.
나지막한 산비탈을 에돌자 열댓채됨직 한 아담한 사택들이 서로 이마를 맞대고있었다. 그중 첫머리에 있는 집앞에 이른 태수는 익숙한 동작으로 울타리문을 열어제꼈다.
첫눈에도 주부의 알뜰한 손길이 느껴지는 정갈한 집이였다.
마당가에는 벌써 품들여 손질해놓은 꽃밭이 있고 그 주위로는 하얀 옥돌들이 보석처럼 다문다문 박혀있었다. 그 꽃밭으로부터 지붕까지는 포도넝쿨이 덮여있어 여름이면 아늑한 공원에 들어선듯 한 느낌이 들게 할것이 틀림없었다. 처마끝에 매달아놓은 새장들에 눈길이 미친 진호는 더욱 어리둥절해지고말았다.
《아니! 이거야 분수가 없을따름이지 별장이 아니고 뭔가!》
모든것이 태수의 재간이 아닐것은 두말할것도 없고 오히려 이렇게 꾸리기까지 그가 안해의 속을 얼마나 태웠겠는가를 십분 짐작할수 있었다.
《엉큼하다니… 어느새 이런 알뜰한 처녀를 다 구슬려냈나? 그렇지만 뭐 1년만 지나면 저절로 달아나고말걸! 도대체 어떤 처녀가 동무같은 불도젤한테 견디겠나 말일세.》
이러면서 뒤돌아보던 진호는 주춤하지 않을수 없었다.
어느새 자기옆에 얼굴을 다소곳이 숙인 태수의 안해가 미소를 머금고 서있기때문이였다.
《안녕하십니까?》
《?!》

어떻게 처신해야 좋을지 몰라 주밋주밋하는데 옆에 다가선 태수가 웃음을 터뜨리는것이였다.
《하하! 이젠 좀 헴이 들었군그래. 우물쭈물할 때가 다 있는걸 보니.》
《정은심이예요. 얘긴 많이 들었습니다.》
자그마한 키에 상냥한 눈빛도 다정스러웠지만 바로 그 유순한 눈에서 흘러나오는듯 한 맑은 목소리가 더욱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다.
(한데 지내 아련해뵈는걸? 태수가 한마디만 해도 대꾸는커녕 눈물부터 떨구겠군. 그렇지만 저 귀여운 모습으로 해서 이 친구가 노상 입을 벌리고살겠어!)
《자, 이젠 올라오게. 우린 그저 이렇게 사네.》
퇴마루에 올라서서 방문을 열어젖히며 말하는 태수의 어조는 마치도 초라한 살림을 흉보지는 말라는듯 했으나 그 말이 진호에게는 되려 정반대의 의미, 즉 《자,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사네.》 하고 강조하는것 같았다.
집안은 더욱 알뜰했다.
전실을 사이에 두고 아래웃방이 갈라져있는데 웃방은 주로 태수에게 필요한 책상과 책장, 침대가 놓여있고 아래방에는 옷장과 재봉이 있었다. 텔레비죤과 갖가지 화분들이 놓여있는 전실에는 제도판이며 설계도구까지 설치돼있어 제법 기사가정의 품위가 여실히 느껴졌다.
《뭐 좀 없소? 아무거나 있는대로 가져오오.》
갓 살림을 꾸린 세대주가 흔히 그런것처럼 태수의 목소리는 어딘가 호령하는듯 하면서도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였다.
이런 태도로 미루어보아 진호는 아직 한번도 태수가 안해에게 곰살궂게 군 일이 없으며 또 앞으로도 없으리라는 짐작이 갔다. 그리고 은심이의 행복에 겨운 모습, 조용하면서도 자신만만한 행동거지는 그가 아련한 녀자임에도 불구하고 교단에서 사랑스런 꼬마를 다루듯 그렇듯 수월히 또 재미와 존경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진호는 이들의 모습에서 신선하고도 청신한 향기를 풍기며 잎이 피기 시작하는 한쌍의 백양나무를 보는듯 한감을 느꼈다.
웃방 태수의 책상에 마주앉은 진호는 무심결 유리판밑에 깔아둔 종

이장에 눈길이 갔다. 거기에는 자기가 수행해야 할 과제며 계획들이 깨알같은 글씨로 적혀있었다. 무수한 색갈로 그려진 동그라미며 삼각표식을 보는 순간 그는 갑자기 전기에라도 감전된것 같았다.
그처럼 자기가 꿈꾸던 일, 현옥이와 함께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그 생활이 자기한테서는 영영 사라져버리고 친구의 생활에 꽃피고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자 저절로 가슴이 메여오르는것이였다. 반갑다고 해야 할지 서글프다고 해야 할지 종잡을수 없는 심정이였다. 고개를 돌리긴 했으나 시선이 자꾸만 그리로 쏠리는것 같아 그는 아예 방바닥에 내려앉고말았다.
《자— 이젠 좀 차근차근 얘기해봐.》
이제까지 한 말은 모두 가식에 지나지 않고 이제부터야말로 진짜라는듯이 태수는 진호앞에 바싹 다가앉았다.
지금 태수는 그사이 진호가 어떻게 지냈으며 또 어떻게 예고도 없이 불시에 내려오게 되였는가를 알고싶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그동안 자기가 겪은 생활, 한두마디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벅찬 사건들이 새로운 의미로 회고되는것이여서 그것들을 어떻게 다 펼쳐보일가 하는 생각에 젖어있었다.
《아니, 눈이 더 나빠진게 안야? 그전보다 더 자주 깜빡이는군!》
《뭐 일없네!》
어느새 상을 차려 든 은심이가 방안으로 들어섰다. 자개가 박힌 네모난 상우에는 락화생이며 조개따위의 마른 안주와 함께 보기드문 생선회까지 올라있었다.
《이건 또 뭔가?》
《상봉을 축하해서지.》
상을 받아놓은 태수는 두손을 마주 비벼대며 싱글벙글했다.
《아무것도 준비한게 없어 미안해요.》
미리부터 준비한것이 틀림없었으나 은심이는 녀성일반이 그렇듯이 자기 솜씨는 좀더 우월한데 바삐 서두르다나니 이렇게밖에는 차리지 못했다는듯 한, 그러면서도 은근히 주부의 능력을 과시한것을 못내 만족해하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것이였다.
《난 동무가 아무때건 이리로 오리란걸 알았어. 그 따분한 장벽을 뚫고야말리라는걸 말이지. 그런데 어째서 강철직장을 택했나?》

은심이가 부엌으로 내려가자 태수는 진호의 잔에 맥주를 부으며 이렇게 물었다.

《왜 내가 거길 내놓고, 그 깡철직장을 내놓고 어딜 간단 말인가?》

진호는 일부러 공장지도원의 흉내를 내여 《깡》이라고 발음해보았다. 그러자 우습긴 하면서도 무척 친숙한감이 드는것이였다.

《아니! 내 말은 호케이선수가 불바다에 뛰여들었으니 하는 말일세. 얼음과 용금을 합쳐보게. 어떻게 되나? 폭발일세. 그것도 굉장한 폭발! 야금이 불과 물의 과학이라고는 하지만 그것들은 서로 상극이거던.》

《하하.》

오래간만에 가슴을 터놓고 웃어보느라니 진호는 자기에게 닥쳐온 새 생활에 대한 환희와 함께 이미 지나간 생활의 구슬픈 선률이 한데 엉켜 어쩐지 가슴이 멨다. 그러면서 태수한테야말로 자기가 이제껏 겪은 모든 일들, 그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한 사연들을 다 털어놓을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것이였다. 그리하여 그는 자초지종을 자세히 얘기하기 시작했다.

진호의 얘기를 다 듣고난 태수는 그를 무척 위로해주고싶은 심정에 휩싸였다.

그는 자기가 진호한테서 이런 련민의 정을 느끼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그러자 가슴속에 그 어떤 모순된 감정, 이를테면 진호에 대한 동정과 그의 행동에 대한 열렬한 공감은 금할수 없으면서도 그가 자기의 지향을 고집한탓으로 의심받은 부당한 생활에 비하면 자기가 걸어온 길은 너무도 뚜렷하고 줄기찬것이였다는 긍지가 솟구쳐오르는것이였다.

사업을 놓고보나 개인적인 생활에서나 자기가 행복하다는 의식은 그것을 바랐으면서도 이룩하지 못한 진호에게는 불쾌하리라는 생각이 들어 그는 자기 생활에 대해서는 될수록 비치지 않으려고 맘먹었다.

《그래 이번엔 그 새 연료가 자신이 있나?》

《글쎄… 뭐라고 해야 할지. 생성물처리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네만 보다 중요한 온도만은 아직도 부족점이 많아. 전번 실패도 바로 열부족에 있었거던. 겨우 1 650도정도니까 아직 150도는 더 올려야 하네.》

《아니, 아직도 150도나?》

태수는 버럭 어성을 높였다. 그런데는 어딘가 락심해하는듯 한 진호의 태도가 불만스러웠기때문이였다.

이럴 때 진호의 의기를 돋구어주기 위해선 어떤 양념을 쳐야 한다는것을 알고있고 또 격하기 잘하는 그의 버릇을 오래간만에 즐겨보고 싶어진 태수는 이번에도 틀림없이 자기의 계책에 말려들리라는것을 느끼며 곧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모르긴 하겠지만 아직도 그 정도라면 이제라도 다른 과제를 잡는게 어때?》

《왜?》

《숱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얼마나 씨름했게? 작년에도 그 연구집단이 반년이나 내려와있지 않았나. 그런데도 결국 허탕이였거던.》

《흠! 그들이 뭐라구!》

진호의 눈이 꼿꼿해지는것을 보며 태수는 속으로 고소를 머금었다.

《그래도 그들이 동무보다야 훨씬 선생이 아닌가! 그들에 비하면 동문 초학도에 지나지 않지.》

《하긴 그럴수도 있지. 그들이 나보다 아는거야 많겠지. 경험도 있고.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걸 내가 알아낸것도 있단 말일세. 그들은 새 연료자체 그 하나만 가지고 취입하려고 했거던. 말하자면 새 연료에 첨가제를 배합하려 하진 못했단 말이네. 여기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 내가 대학기간 3년을 괜히 첨가제 하나에 몰두한줄 아나? 그들은 단지 어떤 기성원리가 있으면 그걸 현실에 적용해보려고 할따름이야. 마치 하나의 나무모를 지고 다니면서 여기는 땅이 나빠 안되오, 여긴 물이 없소 하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처럼 말이야. 문젠 나무에 맞는 땅을 찾을게 아니라 그런 땅에 맞는 나무모를 키워야 한다는데 있지. 난 나의 첨가제야말로 아직 부족점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맞는 그런것이라고 생각하네. 자— 보라구. 여기에 9천카로리의 중유가 있네. 그리고 여기엔 6천카로리밖에 안되는 연료가 있고. 그래 이 연료가 어떻게 중유만 한 열량을 담보한단 말인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

《그럼 그들이 아직 그것도 모른단 말인가?》

《왜 알기야 하지.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 아직 그렇게 도입한 실

례가 없으니까 시도하지 않는걸세. 그들에겐 기성의 전례와 경험이 활동기준으로 돼있단 말이네. 어쨌든 기본고리는 이 첨가제네. 이 첨가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있지. 이걸 보게. 이게 연료네. 그런데 여기다 이 첨가제를.》

《아니, 가만! 양념이야 쳐얗게 아닌가!》

앞에 놓인 양념접시를 집어옮기려고 하는 진호의 손을 멈추며 태수는 미소를 지었다.

《난 중유를 제철소에 먼저 주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전달받는 순간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았네. 그 사랑이 너무도 고마와 눈물이 나다가도 어떤 죄책감으로 하여 울수조차 없더란 말일세. 그이께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도 과학자며 연구사들이 그 무슨 사정이요, 조건이요 하고 손꼽아 렬거하는 리유들에 대해 반감이 치밀어 견딜수가 있어야지. 아니, 그보다 내자신이 여태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어떻게 태평스레 하루하루를 살아올수 있었는지 리해할수가 없더란 말일세.

사실 우리야 그이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해야 한다고 교육받지 않았나. 교육은 둘째치고 여태껏 받은 사랑에 뭔가 하나라도 해놓은 일이 있어야 할게 아닌가. 난 그때에야 내 심장이 녹쓴 파철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똑똑히 알았네.》

점점 낯빛이 창백해지는 진호를 여겨보며 태수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언제나 모순된 문제성만 옹호해나서던 그가 이젠 필요한 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신심을 느끼고있을뿐아니라 거기에 한몸바칠 불같은 각오에 충만돼있는것이 아닌가!

《좋아!》

태수는 그의 어깨를 철썩 갈겼다.

《진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걸 똑똑히 보여주게, 경기때처럼 말이야. 응, 자— 그 소원이 성취되길 바래서!》

태수는 잔을 들어보였다.

《그래, 직장사람들은 마음에 듭데?》

잔을 비운 태수는 화제를 옮길 생각으로 이렇게 물었다.

《누구 말인가, 비서? 좀 무뚝뚝해뵈더군.》

《하긴 그렇기도 해. 바탕이 용해공이였으니까. 로행정도 환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은 그보다 더 잘 들여다본다네. 어떨 땐 너무 속속들이 꿰뚫어봐서 막 화가 날 때도 있지.

그의 버릇이 뭔지 아나? 언제나 자기가 먼저 론증을 해놓고는 반박을 기다리는거야. 만일 자기를 꼼짝 못하게 반박을 가하면 좋아하지만 말문이 막혀 우물쭈물하면 오히려 성을 내거던.》

진호는 《반갑소. 어디 같이 한번 일해보기요.》 하면서도 도대체 몇푼이나 되는가를 가늠해보기라도 하듯이 깔끔한 눈길로 훑어보던 비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참! 누구보다 책임기사가 맘에 들더군! 그 나이에 책임기사라니 보통친구가 아닌 모양이지?》

생선회를 씹느라고 입을 우물거리던 태수는 대답대신 제꺽 세개의 손가락을 펼쳐보였다.

《벌써 세개의 기술안을 현장에 도입했는데 그중 두개는 발명권까지 받았다네. 남다른 재간에 일욕심까지 있어서 제철소에선 누구나 찬사를 아끼지 않지. 거기다가 생기긴 또 얼마나 곱살하게 생겼나? 그래서 숱한 처녀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군 하지만 그에겐 언제나 시기상조라네.》

《그건 왜?》

태수는 벌쭉 웃었다.

《〈남아 이십 미평국이면 후세수칭 대장부리요〉 하는 시조를 알지? 남이의 시 말이야. 그게 그에게는 〈남아 이십 미현국이면 후세수칭 과학도리요〉 라고 읊히운다네. 말하자면 이십대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을 누가 과학자로 인정하겠는가 하는거지. 새색시처럼 얌전해뵈지만 속에는 그런 만만찮은 투지를 품고있는 대장부야. 알겠나? 지금도 무슨 열관리개선에 대한 기술안을 연구하고있는데 뭐 중유를 절약하는 안이라던가?》

《중유를 절약하는 안?》

진호는 저도 모르게 태수의 말을 되받아외웠다.

《하여간 뭘 어떻게 해서 중유소비기준을 떨군다는건데… 아－니, 그러고보니 동무 기술안과 비슷하군그래. 응?》

그제야 태수도 굳어졌다.

커다란 충격이 진호의 온몸을 휩쌌다. 어떤 원리에 의한 기술안일가?

《어디 좀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어쨌든 이미부터 그 기술안이 숱한 사람들의 관심속에 있는것만은 사실이네.》

어떤 새로운 흥분에 휘말린 진호는 책임기사에 대한 놀라움을 더욱 금할수 없었다.

그는 잔을 들어 단숨에 입안에 쏟아넣었다.

《어쨌든 첫인상은 괜찮았네. 비서도 그렇고 책임기사도 말이야. 아무렴 동무네 과장같은 사람이겠나?》

《과장이라니?》

《그 뚱뚱보 말이야. 전화를 받으면서 어찌나 을러대는지, 원…》

한참 눈알을 굴리던 태수가 갑자기 방바닥을 내려치며 웃어대기 시작했다.

《그— 그 친군 과장이 아니라 며칠전에 온 햇내기야.》

눈에 고인 눈물을 씻으며 그는 계속 숨넘어가는 소리를 질렀다.

《같이 있으면 씩씩거리는 숨소리로 해서 가슴이 다 답답하지, 그래서 우린 〈송풍기〉라고…》

《송풍기? 하하.》

진호도 고개를 쳐들고 온몸을 들썩거렸다.

안주접시를 들고 들어오던 은심은 너무도 호탕하게 웃어대는 두 사내의 모습에 놀랐으나 저 역시 곧 손등으로 입을 가렸다.

《그런데 이쪽 문젠 어쩔셈인가?》

진호의 표정이 밝아진것을 보고 태수는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던졌다.

그가 이렇게 우연한 말처럼 물은것은 그만큼 그것이 궁금했고 중요했기때문이며 아무리 내색하지 않으려 해도 그렇게 되지 않거니와 진호가 괴로와하리라는 생각으로 하여 묻지 않는다면 그의 맘이 더 괴로우리라는것을 알기때문이였다.

《뭘 말인가?》

태수가 무엇을 묻는다는걸 모르지 않았으나 진호는 이렇게 되물었다.

《현옥동무문제 말이야. 말하자면 의문분가 아니면 휴지분가 하는거야.》

태수는 진호의 말을 들으면서 명식이에 대한 불만은 끝이 없었으나 현옥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정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고 이들사이가 이렇게까지 버성겨진게 명식이도 명식이지만 진호의 지나친 과단성때문이 아닐가 하는 생각도 들었던것이다.

대학시절 현옥이에 대해 느끼던 인상때문인지 아니면 진호가 그런 선고는 했지만 맘속으로는 결코 그를 그처럼 타기해마지 않을 처녀로까지는 치부하지 않으리라고 여겨선지 어쨌든 그는 이들의 관계가 못내 아쉽게만 생각되는것이였다.

《헛참! 장가를 들더니 의심이 많아졌군그래! 휴지부도 의문부도 아니야. 깨끗한 종지불세.》

《제길! 이렇게도 한심한 친구라구야.》

태수는 대뜸 눈을 흘겨붙였다.

《동무같은 주제에 그런 처녀를 다시 만날것 같아?》

태수는 진호의 성격이 남달리 명확하고도 단순한것으로 하여 좋아했으나 어떨 때는 도가 넘어 심중성조차도 소심성으로 치부해버리는 점만은 더없이 안타까왔다. 대학때도 《세상만사가 다 동무뜻대로 된다 해도 처녀 하나만은 안될걸.》 하고 자주 놀려대군 했었다.

《그건 왜?》

《동무가 바라는것처럼 그렇게 완전무결한 처녀가 세상에 있어야 말이지.》

그때마다 진호는 자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처녀를 찾아내고야말테니 두고보라고 장담을 했었다. 정말 그런 처녀를 찾아냈는가 했더니 웬걸…

《아무래도 동문 안되겠어, 훌륭한 처녀는 고사하고 곱사등이조차도 동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걸 알고는 당장 뺑소니치고말걸세.》

《아니, 그거야 너무하지 않나!》

《너무하긴 뭐가 너무하다는거야! 이것 보게, 흔히 사랑하느라면 서로의 행동을 지나치게 보고 관계를 첨예하게 만들 때도 있지 않나. 그게 사랑이기도 하지. 그런데 그것조차 리해를 못하니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지나치게? 그래, 동문 그가 날 지나치게 봤다고 생각하나? 있을수 있는 일로 생각해?》

단호히 고개를 젓던 진호는 갑자기 한숨을 내뿜었다.

《나도 차라리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면 좋겠네. 의심에 싸여

있을 땐 괴롭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는게 아닌가. 그러나 그게 아니야. 그는 그이상 더 날 모욕하고 배반할수 없는 행동을 한걸세. 어쨌든 이젠 명백한 일이네. 안개속에 있는 배를 보고 바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 배라는것을 안 다음에 어떻게 그걸 다시 바위로 볼수 있겠나 말일세. 난 이번에 진정이란 생활에서는 물론 사랑에서도 필수적인 선결조건이여서 그것을 리해하지 못할 땐 사랑도 그에 반작용하기마련이라는걸 똑똑히 깨달았네.》

확실히 그는 자기자신을 더없는 멸시와 모욕을 받은 인간으로, 나아가서는 그 굴욕을 씻을 가능성을 잃어버린 인간으로 치부했다. 바로 그래서 그는 그렇듯 확고하던 자기의 포부와 희망을 졸지에 허망한것으로, 무의미한것으로 일축해버린 현옥이가 괘씸해서 견딜수 없는것이였다.

《그게 탈이야. 그게 바로 동무의 결함이거던. 동문 우리 생활이 자기가 바라는것처럼 순수하기만을 원하지만 현실은 아직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다니?》

진호의 눈은 대번에 번쩍하는 빛을 뿜었다. 어찌보면 살벌하기까지 했다.

《바로 그거네! 난 바로 그걸, 동무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있는 그걸 부정하자는걸세. 그게 틀렸다는걸 증명하고야 말겠단 말일세. 지금 일부 사람들속에서 아무리 옳아도 옳은것으로 되지 않고 오히려 곡해되고 비난받는 원인이 바로 동무처럼 생각하기때문이라고 보는거네. 순수하지 못한 오물들이 진리를 가리우고있기때문이라고 말일세. 그래 그것들이 진리를 가리울수 있나? 가리워야하나 말일세. 난 오직 순수한것만이, 가장 깨끗한 량심만이 승리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야말테네. 그 진리가 누구한테 있는가 하는걸 똑똑히 실증해보일테란 말이네. 현옥이한테, 그 오빠한테 아니, 온 세상사람들한테. 그래, 내가 그만한 힘도 없을줄 아나? 사실 그만한 힘도 없이야 도대체 내한테 젊음이라는게 있어 무엇하겠나.》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확고한 의지에 넘치다못해 어떤 처절한 비분까지 어려있었다.

그 목소리만 듣고도 태수는 진호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또 어떤 결심을 품고있는지 충분한 짐작이 갔다.

《…》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둘 다 자기들이 만나자마자 대학때 하던 버릇대로 또 론쟁에 열을 올리고있다는것을 생각하고는 곧 침묵을 지켰다.

저가락을 집어든 진호는 부지런히 안주를 집었다. 어느새 방금 들여온 생선회 한접시가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

이런 그의 행동이 마음속에서 이는 어떤 격정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는것을 태수는 알았다.

《허, 이런 걸구라구야. 닥치는대로 냠냠일세그려!》

《…》

진호는 여전히 저가락만 놀려댔다.

《난 아까 동무를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네!》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어젖힌 태수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들의 생활은 언제나 3월에 시작된다고 말일세. 우리가 서로 알게 되여 가슴들먹이며 수도의 야경을 바라보던 그때도 3월이였지.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만나 3월에 새생활을 시작하게 됐으니… 결국 3월은 우리의 달이네. 안 그런가?》

3월! 확실히 그것은 희망을 예고하는 계획과 기쁨의 계절이였다.

진호도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리라는 계획들이 머리에 떠오르는듯한감이 들었다.

(그래, 이제부터야말로 새생활이 시작되는것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선 그는 새삼스런 눈길로 화광에 타오르는 제철소의 밤하늘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12

용금은 로벽을 두드리며 세차게 끓어오르고있었다.

정련기, 쇠물이 최고의 온도에서 비등되면서 용금속에 포함된 불순물과 갈라지는 가장 맹렬한 반응이 촉진되는 때다. 불순물이란 언제나 제일 높은 온도에서만 분리되는 법이다.

우택로장은 두툼한 벙어리장갑을 낀 두손을 얼굴부위에 올리고 로안을 유심히 살피고있었다. 손을 들고있는것은 뜨겁게 미치는 복사열을 막기 위해선데 이쪽저쪽을 들여다볼 때마다 손위치도 이리저리 달라지는것이여서 마치 격술선수가 천천히 시범동작을 하고있는것 같았다.

지금도 그는 최대의 온도에서 정련작업을 다그치고있었다.

자기가 로를 조작하는 한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의지에 로가 복종할것이며 또 사소한 사고도 생기지 않으리라는것을 확신하는 그였다.

자기에 대한 신심, 자기 힘에 대한 신심은 그에게 각별한 기쁨, 아무리 제강하기 어려운 강종이라도 훌륭히 졸여낸다는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창조의 기쁨을 산생시켰고 불패의 힘을 주는것이였다. 언제나 그는 로를 자기 몸의 한부분으로 간주하는것이여서 로의 요구를 짐작하는것이 아니라 체감하는것이였다.

용해공들은 주위에서 쇠물을 뜨기도 하고 시편을 깨보기도 하면서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로장의 지시를 기다리고있었다.

출강을 앞둔 이런 때면 용해공들은 로장의 어떤 지시라도 제때에 응할수 있는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있어야 했다. 만약 한순간이라도 그의 요구를 지체시켜 혼란을 가져오기라도 하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것을 너무나 잘 아는 이들이였다.

누구를 큰소리로 나무라거나 꾸짖을줄 모르는 우택은 맞갖잖은 일이 있을 땐 그저 상대를 묵묵히 마주보기만 했는데 그때 그의 눈길은 앞에 있는것이 사람이 아니라 쓸모없이 굴러다니는 쇠꼬챙이나 나무토막을 볼 때와 같은 그런 무심한 눈길이였다. 그러나 이 눈길에 한번 쏘이기만 하면 아무리 성격이 드센 사람도 그 자리에서 초절임이 돼버렸다. 초절임만 시켜놓으면 몰라라 다음날부터는 그에게 일체 작업분담을 하지 않기때문에 정말 그는 나무토막이나 꾸어온 보리자루 신세를 면치 못하는것이였다.

억대우같은 용해공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었다. 때문에 그들은 로장앞에 있을 때면 언제나 자기는 기운이 왕성한 사람이지 절대로 나무토막이나 쇠꼬챙이가 아니라는것을 시위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를 봐가며 해야지 잘못하다간 《쫄랑

거리지 말어! 쇠물은 눈치가 아니라 맘으로 끓이는거야.》 하는 말을 듣기가 일쑤였다.

이처럼 엄한 그였으나 기분이 좋을 때는 가끔씩 《갈매기 쌍쌍》을 목청껏 뽑아 부르기도 했는데 그것은 노래라기보다 글을 읽는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을 정도였다.

직장사람들은 물론 온 공장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를 아끼고 존경했다. 그런데는 해방전부터 용해공이였다는, 또 최고기능공으로서 수많은 용해공을 길러냈다는 무시할수 없는 관록때문이기도 했으나 보다는 그의 이마에 새겨진 깊숙한 상처자리로 해서였다.

피맺힌 과거가 새겨진 그의 이 상처에는 각별한 사연이 깃들어있기도 했다.

왜놈들은 현장에서 로동재해로 잘못된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나어린 아들을 용해장에 끌어냈다. 안전시설도 없는데서 일하다가 잘못됐는데도 턱없는 빚까지 연약한 그의 어깨우에 짊어지워놓았던것이다.

그가 열여덟살때였다.

쇠물을 뜨려고 쇠물뜨개를 로안에 들이밀던 우택은 갑자기 불길이 확—하고 내부는 바람에 일시 주춤했는데 그바람에 쇠물뜨개는 벌써 엿가락처럼 휘여들고말았다.

문짝도 없는 로앞에서 어떻게 쇠물을 단번에 떠낼수 있으랴만 감독놈은 불길을 낮춰주기는커녕 단 한번의 실수조차 용서하지 않았다.

《무엇이나 따가운가! 무엇이나! 무엇이나!》

슬라크를 걷어내기 위해 들고있던 칼날같은 철판이 순식간에 그의 이마로 날아들었다. 대번에 그의 이마에서는 시뻘건 피가 분수처럼 뿜어올랐다.

그러나 아프다는 말 한마디없이 팔굽으로 이마를 쓱 문대고난 그는 곧 다른 쇠물뜨개를 들고와 다시 로안에 밀어넣었다. 누가 봐도 그의 행동은 자기 잘못에 대한 공손한 보상처럼 여겨졌다. 실상 출강직전의 쇠물이란 초를 다투며 성분을 달리하기때문에 잠시도 우물거릴수가 없었던것이다.

쇠물을 떠내기 바쁘게 슬라크를 걷어낸 감독놈은 쏟아놓은 용금에서 피여오르는 불꽃을 보기에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어찌 이놈이 쇠물뜨개에 남아있던 반바가지의 쇠물이 자기 잔등에 쏟아지리라는걸 상

상인들 할수 있었으랴. 불꽃만 지켜보기에 여념이 없던 감독놈은 갑자기 《으악.》하는 비명을 지르며 공중으로 길길이 뛰여올랐다.

《아찌찌.》

《흠! 따가운줄은 아나보군!》

자벌레처럼 발딱거리는 감독놈을 노려보며 우택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이 일로 하여 놈들에게 잡혀갔던 그는 해방이 되여서야 다시 돌아왔고 돌아와서는 놈들이 마사놓고 달아난 로를 맨 선참으로 복구했다. 그런데 첫 출강의 날에 오매에도 그리던 어버이수령님을 현장에 직접 모시게 될줄이야.

출강작업을 끝낸 우택의 땀에 젖은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짧은 기일안에 로를 복구해서 쇠물을 뽑은 동무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하시던 그이께서는 곧 우택의 이마에 시선을 멈추시고 안색을 흐리시였다.

우택이 상처에 대한 사연을 말씀올리자 수령님께서는 조용히 그러나 분노에 차신 어조로 《보시오, 동무들! 놈들은 여기서 쇠물이 아니라 우리 조선사람들의 피를 뽑았소.》라고 하시면서 우택의 상처를 쓸어주시였던것이다.

우택은 그날 난생처음 눈물이 쩝절하다는것을 알았다.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제철소를 찾으실적마다 그를 불러 이것저것들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고 전국천리마선구자대회때에는 그가 토론을 마치자 이마에 난 상처에 대한 래력까지 대회참가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로동계급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과분한 치하를 주시였던것이다.

이런 사실로 하여 사람들은 그를 더욱 존대했고 이마에 난 상처를 무슨 금별메달이라도 되는것처럼 선망이 어린 눈길로 쳐다보는것이였다.

《자요, 아바이!》

작업반의 막내동이 영기가 얼음을 띄운 탄산수고뿌를 그에게 내밀었다.

용해공이 된지 두달밖에 되지 않는 그여서 작업분담은 늘 공구관리에 불과했지만 자기도 이젠 어엿한 용해공이라는것을 드러내지 못해 안달아하는 귀염둥이였다.

작업복도 몸에 꼭 맞게 고쳐입었고 모자에 다는 코발트안경까지도 어디서 제일 멋진걸로 구해달고 다녔다. 하지만 지내 새것일 경우에는 누가 봐도 첫눈에 햇내기라는것이 알린다는것을 고려하여 불편하지 않게 한쪽 귀때기에 약간 금이 가게 한것은 물론 작업복도 팔굽이나 무릎을 더러 눋게 했는데 얼핏 보면 정말 몇년은 용해장에서 잘 굴러먹은듯 한감이 드는것이였다.

《열이 과하지 않아요?》

《어째?》

《천정이 저렇게 새하얀데요!》

열이요 천정이요 하는게 벌써 그의 푼수치고는 지내 오지랖 넓은것이지만 우택은 천정을 올려다보는척 했다. 영기에게만은 정도이상으로 다심한 우택이였다.

영기가 이러는데는 누구나 로장앞에서는 함부로 말도 걸지 못하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것을 시위해보임으로써 자기를 허술히 대하는 반원들에게 일종의 시기심을 촉발하려는데 있었다. 그러나 그의 의도는 매번 사전에 탄로나버리군 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척 하면서도 남들은 인정하지 않고 남들을 인정하는척 하면서도 자기를 나타내지 못해 애쓰는 넌령기엔 누구나 그런것처럼 그 역시 지금 자기도 용해공이라는것을, 선전화에도 언제나 제일 앞에 서있는 로동계급중에서도 진짜배기 로동계급이라는것을 만사람에게 시위해보이지 못하는것이 여간만 안타깝지 않았다. 그럴수만 있다면 멋있는 작업바지에 파란 보안경이 달린 모자를 이마우에 쑥 올려붙인채 시내의 한복판을 아니, 수도의 대도로를 맘껏 활보하며 《자— 보시오, 내가 용해공이요. 내가 우리 수령님께서 제일 아껴주시는 용해공이란 말이요.》 하고 목청껏 소리치고싶은것이였다.

그러면 자기를 필경 교과서의 그림에서나 보았을 꼬마들이 《야— 용해공아저씨다.》 하고 달려와 조롱조롱 매달릴것이고 어른들은 《음— 저 사람이 바로 쇠물을 끓이는 사람이군!》 하며 선망어린 눈길로 쳐다볼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흐뭇한 미소를, 사나이다운 미소를 보내주고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번씩 일군 했다.

특히 후야근작업때 로문의 동그란 시공으로 내뻗치는 화광을 한몸

에 받으며 용해장에 서있느라면 마치 오색령롱한 조명이 비치는 화려한 무대에 서있는듯 한 착각이 일어 그 유혹은 더욱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것이였다. 그가 생각하는 무대라는것은 온 세상이였고 뜨겁게 내려비치는 조명은 만사람의 경탄어린 시선이였다.

《이런거야 제때에 치워놔야지. 뭐야! 자— 영기!》

이런 소리와 함께 비자루 하나가 휭하니 날아와 발앞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는 대뜸 눈을 까뒤집고 그쪽을 쏘아보았다. 제때에 현장정리를 하라는 소리였다.

이런 현실은 늘 꿈같은 하늘을 날고있는 그에게 참을수 없는 수치를 안겨주었다.

(빌어먹을! 당장 공구관리를 집어치우든가 해야지, 이거야 어디… 엥이!)

그는 자기의 위신을 저락시키고도 태평스레 누워있는 비자루를 구두발로 힘껏 걷어찼다. 뱀이 난김에 또 한번 차려고 뿌르르 달려가던 그는 저쪽에서 줄을 지어 밀려드는 견학생들바람에 할수없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매일처럼 찾아드는 견학생들이여서 놀라울건 없지만 오늘은 하나같이 차림들이 요란해서 대번에 용해장이 환해진것 같았다.

대다수가 화려한 봄철옷들을 떨쳐입은 처녀들인데 첫눈에도 며칠전에 축하공연을 하러 내려온 중앙극장의 예술인들이라는것이 알렸다.

모두들 제모양대로 고운 얼굴을 쳐들고 참새처럼 재잘거리다가 빙그르르 돌아가는 장입기앞에서는 와 하고 비둘기같이 흩어지기도 했다. 어떤 처녀는 우람찬 동음에 기가 질려 두손을 귀에 갖다대며 몸을 옹송그리기까지 했다.

《허— 봄나비가 날아들었군그래.》

누군가 이렇게 말하자 곧 《봄나비라니요? 물찬 제비같소이다. 낄낄…》 하는 괴상한 목소리가 되받았다.

이럴 때면 용해공들은 견학온 사람들이 그들이 아니라 마치 자기들이기라도 한것처럼 눈살을 꼿꼿이 세우고 견학생들을 마주 바라보는것이였다.

대상에 따라 화제의 내용도 다른데 예술인쯤 되고보면 턱없는 롱담이 오가기마련이였다.

한 친구가 견학생대렬속에 있는 어떤 처녀를 가리키며 뭐라고 하자 모두들 일제히 그쪽을 주시했다. 아마 어느 가극을 주연한 배우라도 찾아낸 모양이였다.

모두들 그를 여겨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갑자기 불만에 찬 영기의 목소리가 들리였다.

《아니, 저 처녀가?》

이런 소리와 함께 다짜고짜 견학생들을 마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간 그는 맨뒤에서 서로 팔을 끼고오는 두 처녀앞을 척 막아서는것이였다.

《동무!》

어느새 한손을 허리에 올린 영기는 제법 엄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

눈이 올롱해진 처녀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서로 마주 쳐다보기만 했다.

《동무 말이요!》

두 처녀중에서 입에 손수건을 대고있는 처녀를 가리킨 영기는 호령이나 하듯이 소리쳤다.

《여긴 신성한 용해장이란 말이요. 오염되지 않게 랭풍장치가 다 돼있으니 그 손수건을 입에서 떼시오, 당장.》

《네?》

옆에 있던 처녀가 갑자기 방그레 웃으며 한걸음 나서는것이였다.

《아이참! 그런게 아니예요. 이 동문 지금 병원에서 오는 길이예요. 방금 이발을 뽑았거던요. 안정해야 된다는걸 용해공들이 보고싶다고 기어이 따라나선거예요.》

《?…》

그처럼 도고하던 영기의 기세가 삽시에 한풀 꺾인것 같았다.

《그러고보니 동무도 용해공이군요. 그렇지요?》

다시 방긋 하고 웃는 처녀의 입귀에 뽀얀 덧이가 드러나자 마음의 탕개가 풀어진 영기는 대번에 주눅이 들어버렸다. 처녀의 달콤한 미소도 미소였지만 용해공이 보고싶어 왔다는 말이 더욱 태도를 수습할수 없게 만든것이였다.

《그렇소! 내가 바로 용해공이요. 그런데 이발을 뽑았단 말이요? 벌레가 세게 먹었던 모양이구만. 어디 보기요.》

영기가 팔을 쳐들고 다가서자 처녀들은 질겁을 해서 달아났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용해공들은 물론 견학생들까지 배를 그러쥐고 웃어댔다.

《에— 고놈의 처녀가 살짝 웃는통에 고만…》

이러며 뒤더수기를 긁는 영기의 잔등을 용해공들은 서로마다 한대씩 우려댔다.

《메뚜기같은 녀석!》

로장도 시뭇이 웃으며 로쪽으로 돌아섰다.

《사기들이 났군그래!》

처녀들이 사라져간쪽에서 초급당비서 최상범이 흡족한 표정으로 걸어왔다. 오늘도 그는 언제나처럼 소금기가 내밴 끄리가 빳빳이 쳐들린 작업복을 입고있었다. 시원시원한 생김새처럼 성격도 활달한 그였으나 롱담을 할 때만은 오히려 무뚝뚝해지군 하는 사람이였다.

《두물째요?》

그는 로앞에 모여있는 용해공들속에 끼여들며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웬걸요. 세물쨉니다.》

《벌써?》

《벌써라니요? 이젠 〈고기반찬〉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실 요즘은 어느 로에서나 주는대로 먹어치운다. 먹을뿐아니라 트림 한번 하는 일없이 깨끗이 소화시켜서는 특강만 쏟아놓는다.

쇠물이 왜 안 나오느냐고 용해장에 대고 삿대질을 하던 조괴공, 남비공들이 도리여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좀 작작 갈길노릇이지 하루 세번이 뭐야!》

《여태 〈변비〉에 시달린 봉창일세.》

《그래도 자리야 봐가며 갈겨야지.》

《그럼 밑구멍을 막으라나?》

《틀어막게!》

《헤— 입으루 게우라구?》

이들의 걸죽한 롱에도 여느때없이 쏟아지는 쇠물에 대한 기쁨이 어려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것처럼 좋아해야 할 아니, 누구보다도 더 기

빼해야 할 상범이였으나 그는 요즘 도리여 어떤 불안에 휩싸여있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내지 않으려나 하는 걱정이거나 어느 공정이 제때에 따라서지 못해서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나 하는 위구때문이 아니였다. 어째선지 이번엔 저로서도 첨 느끼는 불안, 언제나 그렇게 되길 바라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온 용해공들의 앙양된 기세, 그자체로 하여 불안한것이였다.
생산을 따질 때면 먼저 로동자들의 열의를 가늠했고 그 열의를 가늠하기에 앞서 자신이 얼마만큼 그들의 열의를 높이기 위해 애썼는가를 따져보는것이 그의 버릇이였다. 그것은 언제나 자기자신의 정신적긴장과 구체적인 조직정치사업에 의한 노력의 대가만큼 용해공들의 기세가 앙양되고 그 앙양된 열의만치 생산실적이 나타나기때문이였다. 이것을 그는 생산단위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 당일군의 가장 기초적인 또 필수적인 공식으로 간주하고있었다.
한데 최근에는 그 공식에 부합되지 않는 실수치가 나타나는것이였다. 말하자면 자기와 로동자와 생산이라는 세개의 지수에서 자기라는 수가 응당한 크기가 아닌데도 로동자들의 기세는 높고 생산은 오르는것이였다.
언제나 자기의 지수가 크다고 여겨도 생산은 그만큼 오르지 못하는것이 일반적인 실태인데 지금은 반대현상이 나타나고있는것이였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것을 만족으로, 지어는 자기 사업의 성과로까지 여길지 몰라도 우연과 요행을 경계하고 오로지 자기 노력의 대가만을 받아들이는데 버릇된 그는 도저히 정상으로 느낄수가 없었다.
중유를 맘대로 쓰기때문에 사기가 높고 생산이 오른다!
그럴수 있고 또 설사 그렇다 해도 이렇게만 리해하고 만족해한다면 자기는 벌써 아무런 가치도, 필요도 없는 일군이 아닐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였다.
그땐 자기가 훌륭한 금속을 졸이는 유능한 용해공처럼 대중들을 어버이수령님과 당에 진정으로 충정을 다하는 인간으로 단련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진정한 당일군의 본분을 저버린것으로 될뿐아니라 사람들에게 나쁜 물, 만성적인 행복감이 가져다주는 태만과 의존심을 조장시키게 되는것이다.
최근 분위기를 통해 이런걸 느낀 그였으나 처음 겪는 일이다보니 이

런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하겠는지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일이 안될 때뿐만아니라 잘될 때에도 대중들을 교양해야 하며 그때의 교양이 몇배 더 어렵고 힘들다는것을 깨닫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어떻소? 〈고기〉 맛이.》

로장한테 다가서며 이렇게 한마디 비친 그는 보안경으로 로안을 들여다보다가 제 먼저 환성을 질렀다.

《어이구, 확실히 색갈부터 다르구만. 저 화염을 보지? 아주 막 새하얗군그래. 역시 그놈의 〈고기〉가 맥을 쓰긴 쓰는구만.》

《고기》란 중유를 이르는 용해공들의 은어였다.

《그렇잖소?》

그는 자기 생각을 흔히 자기의 견해와는 반대되는쪽을 옹호하는 립장에서 말하군 했다.

《왜 지내 먹을가봐 걱정이요?》

비서의 속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우택은 담배를 권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걱정이라니? 난 〈고기〉 냄새만 맡아도 그저 기운이 부쩍부쩍 솟는단 말이요.》

다시 비서를 흘끔 치떠본 우택은 (허— 이 량반이 몹시 초조했군!) 하고 생각했다.

비서의 이런 태도는 흔히 불만을 느낄 때, 그것도 다른 사람때문이 아니라 자기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느낄 때 나타내군 했기때문이였다.

《걱정 마우. 지내 먹어 〈고혈압〉에 걸리진 않을테니.》

《고혈압?》

과연 이것이 고혈압정도겠는가!

생산이 바쁘면 자재와 원료는 물론 연료까지도 다 국가에서 대준다. 우린 그저 팔짱을 끼고있다가 깡만 뽑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생산의 주인인 우리의 몫은 뭐란 말인가! 이런 맹목적이고 무책임한 관념에 젖어드는데 어떻게 이것을《고혈압》에 비기겠는가! 이것은 《고혈압》보다 더한 불치의《암》으로까지 확대될수도 있다.

오직 자기들이 없으면 일이 안되며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주인들인 자기가 생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드팀없는 자각을 가지게 해야 하며 그것만이 참된 로동계급의 자세라는것을 잠시도 잊게 해서는

안되는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무엇을 통해 깨닫게 할것인가! 어떻게 해야 상승일로로 줄달음칠 이 《고혈압》 아니, 점점 더 커져가는 《종양》을 막을것인가!

《획!》

무슨 징후를 발견했는지 우택은 아래입술을 비틀면서 야무진 휘파람소리를 냈다. 장입기를 부르는 소리였다.

환갑나이에 이른 그가 이런짓을 하는것이 어색할것 같았으나 도리여 깊숙이 숨어있던 젊음이 되살아나는것 같아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다.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보인 그는 얼른 정수리를 꾹꾹 짚어보였다. 생석회를 장입하되 가운데문으로 강욕중심에다 하라는 지시였다.

용해장에서는 일체 작업이 그의 손짓에 의해 진행되는데 주먹을 들어보이면 광석을 넣으라는것이고 손으로 나사를 트는 시늉을 해보이면 용선을 먹이라는것이였다. 손바닥으로 칼질을 하면 시료분석을 보내라는것이고 두주먹을 맞부딪치면 출강구를 막으라는 지시였다.

이런 동작에 습관된 나머지 어떤 친구들은 출근이 늦어졌을 때까지도 말대신 눈을 까뒤집어보이며 늦잠을 잤다는 시늉을 했다.

《왜 신입공이 보이지 않소?》

현장에 진호가 없다는것을 안 상범은 옆에 있는 한 용해공에게 물었다.

《말도 마십시오.》

《왜?》

《글쎄 밤엔 선별장이요, 공업시험소요 저 부두가에 있는 연료적재장까지 메주밟듯 돌아치다가 낮엔 낮대로 꼬박 로에 붙어있으니 말입니다. 그것도 하루이틀이 아니라 근 한달쨉니다. 어저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무슨 얘길 신이 나서 하던 그가 잠잠하길래 돌아보니 웬걸 졸고있는게 아닙니까. 그러다가 무슨 사고를 낼것 같습니다.》

상범은 그를 직장열담당공정기사로 일하게 하면서도 기술안연구는 2호로에서 하도록 했던것이다. 믿음직한 로장밑에 있게 하고싶어서 그렇게 결심한것이였으나 본인도 어째선지 꼭 2호에서 하겠다는것이였다.

새 연료안에 대한 연구를 승낙하긴 했으나 미타한 생각도 없지 않았다. 이미 숱한 사람들이 내려와 연료연구를 할 때마다 온갖 방조를 아끼지 않았지만 아무 소득도 없었는데 그는 외토리인데다가 더우기 이미 내려와 연구하던 사람에 비하면 아무 경험도 없는 대학졸업생에 불과한것이 아닌가!

상범은 그를 생각할 때마다 더없이 대견하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도 모르게 고개가 기웃거려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던것이다.

13

진호는 그 시각 용해장아래에서 6호로의 소연도뚜껑을 열어제끼느라고 안깐힘을 쓰고있었다. 얼마나 무거운지 힘을 쓸 땐 들리는척 하다가도 이내 제자리에 덜컥하고 내려앉고마는것이였다.

(넨장 무겁기란?)

가쁜숨을 몰아쉬면서도 그는 이따금씩 주위를 힐끔힐끔 돌아보군 했는데 그때의 눈길은 마치 주인 몰래 참외밭에 뛰여든 장난꾸러기를 방불케 했다.

사실 수리중에 있는 로의 연도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여있었다. 못 들어간다기보다 누구도 그 시뻘겋게 달아있는 불도가니속에, 더우기 넓은 공간이라면 몰라라 엎드려 네발걸음을 해야 하는 캄캄한 굴속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것이였다.

《연도에요? 원 어림도 없수다. 당장 불고기가 되자구요?》

연도에 들어가볼수 없겠는가고 물었을 때 하던 축로공의 대답이였다.

(그래도 아무렴 몇분이야 못견디겠는가!)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연도에 들어갈 결심이였다. 연도에 들어가봐야 연도구조는 물론 연진의 궤적상태며 궤적량을 알수 있었고 중요하게는 앞으로 새 연료취입조건에 맞게 연도를 개조할 가능성도 찾을수 있는것이였다.

기회는 오늘밖에 없었다. 래일이면 6호로가 수리를 끝내고 불을 잡

기도 하거니와 이제 언제 또 다른 로가 수리하게 될지도 알수 없는 일이였다.

실상 그는 요즘 눈코뜰새 없었다.

생각했던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지어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겹쌓였으나 조금도 힘든줄 몰랐다.

첨가제의 성분을 새로운 조건에 맞게 개조해야 할뿐아니라 고체연료를 분말상태로 가공해야 했고 그것을 분사할수 있는 취입장치제작도 병행시켜야 했다. 어느것 하나도 쉬운 일이 아니였지만 그는 드팀없이 밀고나갔다.

이중에서도 제일 품이 많이 드는것이 연료의 가공이였다. 직장에 연료가공설비가 없다보니 부득불 연료를 선별장까지 날라야 했고 날라놓고도 선별기부하가 없는 틈을 타서 가공하자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사이에도 짬시간만 생기면 공업시험소에 뛰여가 이미 진행된 시험의 열효률에 대해 따져보았고 흑도와 복사열을 알아보았으며 거기에 기초하여 첨가제의 비례를 다시 새롭게 배합해보는것이였다.

이것만이 아니였다. 이 모든것을 수행하면서도 열공정기사로서의 임무, 매 로의 열관리상태며 열균형을 조사장악하고 그 과정에 나타난 편향들을 바로잡아나가야만 했다.

이처럼 많은 일감으로 하여 잠시도 한자리에 서있을 여유조차 없었지만 그는 도리여 자기가 어쩐지 한가한것 같기만 했다. 더우기 이상한것은 자기가 하는 일이 하루이틀사이에 다 해결돼야 하며 또 자기의 노력에 따라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게 되는 그것이였다.

피곤할 때도 한시간정도만 엎드려있거나 벽에 기댄채 눈을 감고있어도 피로는 가뭇없이 사라지고 왕성한 의욕과 새로운 힘이 다시 온몸에 넘쳐나는것이였다.

그가 이처럼 커다란 흥분을 느끼게 되는데는 이미 현장으로 올 때의 각오도 각오였지만 새로 받아안은 충격때문이였다. 그 충격이란 바로 책임기사의 중유절약안에서 시작된것이였다.

각별한 호기심을 가졌던 중유절약안이였으나 그것이 어떤것이라는것을 안 순간 그는 실망하지 않을수 없었다.

기발한 착상으로 시도됐을뿐아니라 쉽사리 완성될 여지까지 있는것

이긴 했지만 결코 현실이 바라는 그런것이 못된다는것으로 하여 불만스럽기까지 했다. 그야말로 얼마간의 중유를 절약하는데만 목적을 둔 기술안에 불과했다.

(흥, 이거야말로 활활 타번지는 불길을 바가지물로 끄려는것과 같이 쬐쬐한것이 아니고 뭔가!)

《소극적이다— 중유절약안!》

간단한 소감까지 적어놓군 하는 자기의 시험일지에 그는 이렇게 써넣었다.

(그래도 뭐 숱한 사람들의 관심속에 있다구?)

생각같아서는 책임기사에게 의견을 털어놓고싶기도 했으나 그보다 그는 자기의 새 연료안을 하루빨리 실현해야겠다는 촉박감에 휩싸인것이였다.

(불길을 그런 쪽박이 아니라 어떻게 단번에 꺼버리는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자면 하루빨리 나의 새 연료안을 완성하는데 있다.)

이런 충동은 대뜸 그에게 중간공정시험단계를 뛰여넘을 대담한 결심을 품게 했다. 말하자면 시험로에서 확정된 새 연료를 직접 로에 취입해볼 생각이였던것이다. 이것은 결국 시험을 석달이나 앞당기는것으로 되는것이였다. 더우기 그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데는 현실에 온 첫 순간부터 그처럼 애써 증명하려고 했던것, 그것만이 유일한 생활의 목표로 되고있었던것, 그것을 증명해보임으로써 현옥이는 물론 자기를 헐뜯던 시비군들이 가슴을 치며 절통해할 그 순간을 단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는 아니, 앞당길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이 생겼기때문이였다.

이미의 분석을 통해 연재처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다. 단지 얼마만 한 열량을 담보하는가 하는것이 문제지만 그것도 연소속도가 높은 혼합가스가 있고 700도이상으로 예열된 공기, 거기다가 연료의 연소를 촉진시키는 산소까지 분사된다는 조건이 1 800도를 능히 담보할것 같았다.

(할수 있어! 있고말고.)

그는 이제 와선 오히려 자기앞에 더 큰 난관이 있기를,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뚫기 어려운 그런 장애가 나타나길 바랐다. 그래야 일을

수행한 다음에 느끼게 될 보람도 클터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것 같아 자못 유감스럽기까지 했다.

낑낑거리며 겨우 뚜껑을 열어제끼긴 했으나 연도에서 확 뿜어나오는 열기로 하여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수 없었다.

수리에 들어간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연도는 아직 무섭게 달아있었다. 열기도 열기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느라니 시꺼먼 입구가 흡사 들어서기만 하면 형체도 없이 삼켜버릴 흉악한 괴물의 아가리같아 무시무시하기까지 했다.

(만단의 준비를 하고도 떨다니! 내가 언제부터 이런 시라소니가 됐어.)

두툼한 방열복이며 수갑, 회중전지를 내려다보며 입구로 다가선 그였으나 좀처럼 발을 들여놓을수 없었다. 다가섰다가는 물러서고 다시 다가섰다가는 또 물러서게 되는것이였다.

어릴 때 벼랑우에 올라서서 퍼런 강물을 내려다보며 가슴을 조이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도 속으로는 얼마나 강심을 먹고 나섰던가.

《바보! 거기서 뛰여내리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해봐. 당장 뒤에서 뱀이 따라온다고 말이야!》

중학생들이 이러며 부추겨댔으나 종내 뛰여내릴수 없었던 자기였다. 사실이 그렇지 않은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수 있단 말인가!

(사실이 그렇지 않다니?)

불시에 이런 느낌이 뇌리를 쳤다.

여기 들어가지 않으면 그만큼 새 연료취입이 늦어지고 그러면 제철소에 배당되는 중유만큼 다른 부문이 지장을 받을것이 아닌가! 그럼 어버이수령님께선 또다시… 안된다! 조금도 주저해서는 안돼!

이런 절박한 생각과 함께 자기를 비웃으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핏 떠오르는것이였다.

《희망이였다구? 그런 희망을 품었던 사람같으면 저렇게 우물쭈물할게 뭐겠소. 워낙 비렬한 사람이니까 비겁할수밖에!》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세상에 행동으로 증명하는것보다 더 명백한 진리가 어데 있니.》

(그렇다! 나의 희망과 포부는 물론 나의 진정 아니, 나의 온 생명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 그런데도 못 들어간다면 그야말로 죽는것

과 무엇이 다르랴!)
전지며 권척, 연재를 담을 주머니들을 다시 확인한 그는 서슴없이 연도안으로 내려섰다.
바닥에 내려서기 바쁘게 그는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지 않을수 없었다. 당장 내장을 태울것 같은 열기가 입으로 확 쓸어들었기때문이였다. 일시에 수천개의 바늘이 피부를 사정없이 찔러대는것 같았다. 전지불을 켜든 그는 마치 포복전진하는 병사처럼 연도를 따라 엉금엉금 기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연재가 많이 쌓이다니?)
그는 주머니에 넣어둔 자막대기로 연재의 두께를 재려고 했으나 좀처럼 바닥이 드러나지 않았다.
(저긴 왜 저런 턱이 졌어? 그러니 연재가 더 많이 쌓일수밖에? 그래! 새 연료를 취입하는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연도의 구조를 변경해야겠군. 최대의 단면을 가지면서도 곡선은 완만하게.)
숨이 막히고 눈을 뜨기조차 어려웠으나 그는 애써 태연하려고 했다. 발목이 뜨끔해서 돌아보니 웬걸 실밥이 처져있던 바지가랭이에 불이 달리고있는것이 아닌가! 벌떡 몸을 일으키려던 그는 그만 《아이쿠.》 하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싸쥐였다. 천정에 이마를 짓찧은것이였다. 서둘러 발뒤축으로 불을 비벼끈 그는 (흠! 이까짓게 뭐라구!) 하고 악에 받쳐 중얼거리며 더 안으로 기여갔다.
(아니, 어째서 적어져야 할 연재가 여기에 이렇게 궤적된걸가? 새 연료를 취입하면 더 많은 연재가 쌓이겠지? 그럼 혹시 여기다 흡진장치를…)
이런 새로운 느낌에 심장이 쿵 하고 흉곽을 쳤다.
서둘러 권척을 꺼내 주변의 면적을 재던 그는 갑자기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바람에 흠칫하고말았다. 점점 더 역해지는 냄새로 하여 숨을 돌릴수가 없었다.
(가스가?)
돌아서긴 했으나 어쩐지 제대로 기여갈수가 없었다. 벌써 손발이 말을 잘 듣지 않는것이였다. 전지불이 오려낸 동그란 원이 점차 희미하게 변해가는것을 그는 똑똑히 느꼈다.
바로 그 순간이였다.

그는 자기 눈앞에 나타난 어떤 몽환적인 착각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전지불이 나타나고있는 동그란 테두리안에 한 처녀의 모습이 또렷하니 새겨졌기때문이였다.

고개를 숙인채 울고있는것 같기도 하고 안타까이 자기를 부르며 발을 구르는것 같기도 했다. 아니, 야무진 눈길로 자기를 쏘아보고있는것이였다.

《어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도대체 동무의 기술안이 가능하긴 해요?》

현옥이였다.

불시에 모욕적인 분노가 가슴에 파고들었다.

(실컷 원망해라! 맘껏 저주를 퍼부어라! 이 무뢰한놈한테 기만당한 자신을 가슴치며 원통해해라. 그렇지만, 그렇지만…)

필사의 힘을 다해 밖으로 기여가려고 팔을 움직이자 그 동그란 불빛과 함께 현옥이의 모습도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그에겐 이젠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깊은 심연의 적막, 오직 그 적막속으로 그는 점점 빠져들뿐이였다.

제 4 장

사랑을 꽃에 비김은…

14

누가 사랑을 따사로운 봄날에 꾸는 단꿈이라고 했던가, 그 누가 청춘기의 련정을 무섭게 타오르는 불길과 같다고 했던가.

그렇듯 달콤하고 그렇듯 열렬한것이기에 이르는 말이련만 현옥이에게는 그 말이 자기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 말로, 지어는 사랑이 아직 어떤것이라는것을 알지 못하는 자기같은 어리숙한 처녀를 파멸시키기 위한 독이 발린 미사려구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꿈이라기에는 너무도 야속하고 불이라기에는 또 너무나도 순간적인 자기의 사랑이 아닐수 없었다. 아니, 불이나 꿈이라기는커녕 눈깜박할사이에 굴러떨어진 천길 아득한 낭떠러지가 아닐수 없었다.

(과연 사랑이 이런것이란 말인가! 이처럼 엄혹하고도 무자비한것이 사랑이란 말인가!)

그제야 그는 비로소 남들이 그처럼 아름답고 고상하고 신비롭다고 하는 사랑의 무서운 리면, 즉 아름다운 반면에 가혹하고 고상한 반면에 심각하며 신비로운 반면에 더없이 독선적이기도 한 사랑의 리면을 뼈저리게 체험하지 않을수 없었다.

(사랑이란 자칫 잘못 다치면 산산쪼각이 나고마는 유리그릇과 같은거야. 아니, 물거품과 같은거지.)

진호와 헤여진지 근 한달이 되여오지만 아직도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혼자 더듬어볼수 있는 여유를 가질수가 없었다. 상혈된 눈에 모든 물체가 2중으로 보이듯이 그의 마음속에도 모든것이 2중으로만 헛갈리는것이였다. 자기가 무엇을 겁내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조차 분간할수 없었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이런 생각에 이를 때마다 그는 어떤 공포에 휩싸여 부랴부랴 그 생각을 머리에서 털어버리는것이였다. 그때면 오직 우울한 표정을 짓고 하던 진호의 마지막말만이 끝없이 머리속에 맴돌이칠뿐이였다.

《난 내자신이 어떤 인간인지도 모르면서 동무를 불안과 모험에 찬 길로 유혹하려고 했소. 하지만 이제라도 동무가 눈을 뜨고 똑바로 볼수 있게 된것을, 그리하여 험한 운명을 피할수 있게 된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오.》

이 말이 상기될 때마다 그의 입에서는 저절로 무거운 탄식이 쏟아져나오군 했다.

자기가 그처럼 두려운 마음을 품고 상상하던 그 의혹을 확인하여 준 진호의 말은 그의 가슴에 혹독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고통만이 아니라 고통보다 몇배 더한 원한까지 새겨놓았다.

(어쩌면 나한테까지 그 사실을 숨겼을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해도 상대에 대한 기만이 그 사랑을 거품으로 만든다는것을 몰랐단 말인가! 기만당한 상대방이 그 기만을 의식적으로 부정하면서까지 인위적인 감정을 품을수 없다는걸 몰랐단 말인가!)

어느모로 따져봐도 자기는 정당했고 그는 비렬했다. 누가 봐도 순진한 자신에 비해 그는 무례한 인간이였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어떻든간에 또 누가 옳고그른지간에 리유는 둘째치고 그와의 결렬이 가져다주는 고통만은 피할길이 없었다. 어떤탓으로 생겼던간에 또 누구의 잘못으로 받은 상처라 해도 역시 아픔은 아픔인것이다.

진호와 지낸 잊을수 없는 일들이 가슴을 저미는가 하면 그가 하던 한마디한마디의 말이 새삼스런 의미로 회고됐고 어쩌면 자기들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불행은 세상에서 유독 자기들만인것 같아 눈앞이 깜깜해지기도 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자기 혼자 남게 된 순간에야 그는 자기가 얼마나 진호를 사랑하고있었는가 하는것을 절실히 느낄수 있었다. 요즘에 와서야 그는 자기가 어째서 그때 진호만 제철소에 보내고 자기 혼자 여기에, 그가 없는 여기에 남아있을수 있으며 그때의 자기 심정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랴 하는것을 미처 가늠해보지 못했는지 리해할수가 없었다.

그래도 그가 옆에 있을 때에는 그에게 사실여부를 따지기도 하고 자

신이 취할 태도를 랭정하게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진호가 떠나간 지금에 와서는 마치 자기 육체의 한부분이 그대로 뭉청 떨어져나가 자기 혼자로서는 도저히 어떤 사색도 행동도 자유로이 할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자길 속인 이상 자기는 결코 그와 같이 행동해야 할 그 어떤 도덕적인 의무도 없을뿐아니라 응당 헤여질수밖에 없다고 단정했댔으나 오늘에 와서는 그런 생각대신 오히려 아무리 그가 자길 속였다 해도 어떻게 자기의 처지에서 그런 생각을 품을수 있었을가 하는 의혹까지 금할수 없는것이였다. 하지만 그는 가끔 그런 정신상태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쳐 놀라기도 했다.

(아니, 도대체 내 잘못이 뭐길래 내가 고민하는거야. 내 잘못은 없어! 없지 않고, 어디까지나 죄를 지은건 내가 아니라 그니까.)

이러면서 자신을 랭철한 리성으로 다잡는것이였으나 일단 기름에 젖었던 물체가 물에 잘 젖지 않는것처럼 좀처럼 그 리성에 익숙되지 않는것이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일시적인 감정보다 리성에 의해 행동하기마련이지만 그 리성이 리성으로만 있을 때에는 즉 그 리성이 감정과 합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 행동에 대한 자신을 가지지 못하는것이다. 아무리 리성으로는 옳다고 여기는것도 감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리성은 그 자리에 굳어져버리던가 아니면 사멸되고마는 법인데 바로 지금 현옥의 경우가 그랬다. 아니, 현옥의 경우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동반하지 못해서라기보다 서로 상반돼있다는데 문제가 있었다. 리성이 옳다고 고개를 추켜들면 들수록 그의 감정은 리성에 더 반발하는것이였다.

바로 이런 불가사의한 정신상태로 하여 그는 몇번이고 진호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으나 쓸수가 없었다. 정작 편지지를 펼쳐놓기는 했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알수가 없었던것이다.

그의 기만을 탓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런 그를 원망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번민과 고통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그에 대한 미련을 적어야 하는지 도무지 종잡을수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자기의 처지가 아무리 정당한것이라 할지라도 언제까지나 이 상태로 있을수는 없다는것을 똑똑히 느꼈으며 자기가 찾아낸 결론이외에 그와 못지 않는 아니, 그보다 더 강한 또 하나의 억센 힘이 자기를 조종하고있다는것을, 또 그 힘은 결코 자기가 바라는 안정만

을 주지 않으리라는것을 절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에게로 육박해오는 그 불가사의한 형체를 공포에 질려 바라보는것이였다.
오늘도 그는 책상에 마주앉아 창밖을 내다보고있었다.
소설책을 펴놓긴 했지만 그것은 한갖 자기의 고민을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았다. 때없이 방에 들어오군 하는 어머니가 빨래감을 찾는척 하기도 하고 필요도 없는 말을 시키면서 자기의 내면을 투시할 때마다 나타내군 하는 그 은근한 눈길을 마주볼 때면 저으기 당황하게 되는것이였다.
어머니앞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숨기기도 어려웠거니와 자기의 정신적 고통을 읽고 괴로와할 어머니를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언짢았던것이다.
…다음번 출장시에는 저에게 꼭 들려주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
그의 눈에는 아까부터 몇번이고 반복해읽은 소설의 이 글줄이 다시금 밟혔다. 그것은 주인공이 누구에겐가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구절이였다.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도대체 뭘 의심하지 않는다는 소릴가?)
이때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방안으로 들어왔다.
돌아보지 않고도 들어온 사람이 누구라는것을 곧 알아차린 현옥이였으나 아무 기척도 느끼지 못한 사람처럼 여전히 책에만 시선을 쏟고있었다.
《또 소설책이냐?》
이렇게 묻는 오빠의 목소리가 여느때없는 활기에 넘쳐있다는것을 감촉하자 현옥은 어쩐지 화가 치밀어올랐다.
사실 진호와의 결렬이 있은 후부터 은연중 오빠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수 없었던 현옥이였다. 따져보면 오빠의 말을 부인할 근거가 없는것은 물론 오히려 오빠로 하여 진호의 온당치 못한 새로운 측면을 깨닫게 되긴 했으나 어째선지 오빠를 마주할 때면 저절로 반감이 솟구치고 울화까지 겹치는것이였다. 마치 자기들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고 서로 원한의 감정을 품게 만든 고통의 장본인이 바로 오빠인것처럼 여겨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자기옆으로 다가선 오빠가 소설책의 표지를 보려고 하는것을 한쪽

으로 밀어치운 현옥은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어떻게 왔어요?》
《너하고 말좀 하자고 왔다.》
손가방에서 몇권의 신간기술번역잡지를 꺼내 책상우에 놓은 명식은 현옥이의 기색을 살피면서 천천히 전축옆에 있는 포의자에 몸을 실었다.
《무슨 말이예요? 전 별로 할말이 없는걸요.》
《할말이 없어? 그래 네가 요즘 고민하는건 뭐니? 어머닌 네가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자지 못한다고 얼마나 걱정이신지 몰라. 바로 그걸 같이 얘기해보자고 왔어, 너도 이젠 모든걸 랭정하게 따져볼 여유가 생겼을테니 말이다.》
《저에겐 고민이라곤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무슨 말을 해도 죄다 마뜩지 않게 여길 현옥이라는것을 이미부터 짐작하고있던 명식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다행한 일이고. 실상 그는 네가 고민할만 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은 못돼.》
제잡담 본론에 들어가면서 명식은 그런 문제는 대수로운 일이 아닌것은 물론 론의할 가치조차 없는것이라는듯이 전축옆에 쌓여있는 레코드판들을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물론 가슴이야 아프겠지, 너로선 진정으로 사랑했으니까. 그렇지만 네가 진정으로 사랑한 그가 너를 진심으로 대해주기는커녕 도리여 속였는데도 무엇때문에 고민하냐 말이다. 고민한다면 자길 속인 그에게 증오가 아니라 미련을 품고있는 나약한 자신에 대해 고민해야 옳지, 안 그렇니?》
현옥이는 오빠의 말에 점점 더 부아가 솟구쳤지만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설사 대꾸를 한다 해도 틀림없이 오빠가 언제나처럼 해당한 론거를 가지고 자기를 옴짝 못하게 하리라는것을, 그러면 자기 맘이 더 고통스러우리라는것을 짐작하지 않을수 없어서였다.
그래서 그는 말로는 음악에 꽤 관심이 있고 조예가 깊은것처럼 하지만 막상 음악을 감상하거나 거기에 섭취해본적이라고는 없는 오빠라는것을 모르지 않는터여서 지금 오빠가 레코드판을 고르기는 하지만 틀림없이 회전판우에는 올려놓지 않으리라는것을 짐작하고 그 짐

작이 옳은가 어떤가를 지켜보기로 했다.
아니나다를가 명식은 레코드판을 이것저것 뒤적이기는 했으나 표지에 새겨진 사진이며 그림들을 보기만 할뿐 그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차곡차곡 꽂아놓는것이였다.
(그렇겠지 뭘!)
《그러나 미련이나 동정도 애매한 경우나 뜻하지 않는 경우에만 한하는거야. 그런데 그야 어디… 그래 넌 그렇게도 자존심이 없니? 그렇게도 사랑에 눈이 멀었느냐 말이다.》
《?!》
이 말을 듣는 순간 현옥이는 여태껏 자기 맘속에 도사리고있던 울분과 애써 극복하려고 하는 혐오감, 그것이 오빠에 대해선지 아니면 자기자신에 대해선지 알수 없는 그런 혐오감이 일시에 창끝처럼 고개를 추켜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사랑에 눈이 멀었다구? 자존심이 없다구?)
《그래요, 전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자존심도 없구요. 그러니 어쨌단 말이예요, 그게 오빠와 무슨 상관이예요!》
고민이 없노라고 한 현옥이였으나 정작 오빠가 진호를 두고 고민할 가치가 없다고 한 말을 듣자 참을수가 없었다. 더우기 그런 감정을 자존심과 결부시켜 사랑에 눈이 먼 처녀의 미련한짓으로밖에 치부하지 않는데는 불만스럽기 짝이 없었던것이다.
《?…》
명식은 한동안 의외의 경우에만 나타내는 그런 표정, 량눈섭을 한군데 몰고 눈살을 한껏 좁힌채 유심히 현옥이를 지켜보았다.
대체로 감정이라는것을 중시하지 않을뿐더러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오로지 합리적인것을 위해서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로서는 현옥이의 심정을 도저히 리해할수가 없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감정이란 한갖 공정한 사색을 방해하는 불순물로서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인간들에게만 한하는 소유물이라는것이였다. 때문에 자기처럼 지극히 엄정한 사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불순물에 유혹되거나 희롱당하지 말아야 하는것은 물론 결코 그런 권리조차 없다는것이였다.
《그러니 넌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걸 알면서도 잊지 못하겠다는

거냐?》

의자를 책상옆에 끌어다붙인 명식은 한결 의아한 어조로 말했다.

《얘, 이걸 봐라, 너도 알겠지만 내가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그를 과장해서 나쁘게 보려는건 아니지 않니. 난 언제나 사실에 기초한 공정성, 이것을 사업에서나 생활에서 첫째가는 본분으로 여기고있어. 그가 너를 속인건 둘째로 치자,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문제니까. 우선 그는 우리 사회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당 지켜야 할 일반적인 요구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냐. 우린 누구나 그가 어떤 사람이든 사회가 요구하는 위치에 있어야 할뿐아니라 언제나 거기에서 정보로만 걸어가야 하는거야. 〈앞으로 갓〉, 〈뒤로 돌앗〉하는 구령에 맞추어 정확히 행동해야 하며 전체의 대오에 지장이 없이 움직여야 한단 말이다. 우리의 대오란 조직이고 집단이니까,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욕망이야 다 있겠지.》

(욕망?)

현옥이의 머리속에는 하나의 의문이 피뜩 떠올랐다.

(과연 오빠한테도 욕망이 있을가? 그런 충동을 한번만이라도 느껴보았을가?)

《하지만 그런것은 어디까지나 집단의 요구에 순응시켜야 하는거야. 제때에 아무 미련도 없이 말이다. 왜냐하면 개인이란 아무리 천재적이라 해도 집단에 비기면 티끌에 지나지 않으니까, 알겠니? 이게 바로 우리의 생활원칙이지. 그런데 그는 이 요구를 제멋대로 무시할뿐아니라 자기가 대오내 한 성원이라는 자각조차 가지지 못하거던. 그래서 제 맘대로 삐여지는가 하면 남달리 행동하길 바라지. 결국 어떻게 됐니? 집단은 자기의 의사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법이야.》

언제나 오빠의 말을 들을 때면 그런것처럼 이번에도 현옥이는 오빠의 론리앞에서 무력해지는 자신을 깨닫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은 왜서인지 무작정 반발하고싶은 충동을 억제할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아까보다도 더 야무진 소리로 대꾸했다.

《오빠가 말하는 그 자존심이 저에게 없기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아직 그에 대한 미련이 증오로 바뀌질만치 그를 미워할순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제발 제앞에선 그에 대한 얘길 말아주세요, 더우기

비난만은 말이예요. 글쎄 어떻게 사람이 감정을 오빠가 요구하는것처럼 필요에 따라 가지기도 하고 버리기도 할수 있겠어요.》

《그것 참!》

명식은 다시금 고개를 기웃했다.

사업을 설계할 때나 도면을 분석할 때에는 그 과정에 있을수 있는 사소한 요소까지도 다 예견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는 명식이였으나 지금 현옥이를 대함에 있어서는 자기가 진호에 대해 면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즉 그런 사람을 두고 고민할 가치가 없다는것을 증명하면 할수록 현옥이의 가슴에 도리여 진호에 대한 그리움과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 애달프게 여기게 만든다는것을 모르는것이였다.

《넌 바로 그런 하찮은 감정에 자신을 얽어매는게 탈이야. 그럼 도대체 네가 바라는건 뭐니?》

《바라는거라구요? 그래요, 전 지금도 그의 일이, 그의 연구사업이 잘되기만 바랄뿐이예요. 단지 그것뿐이예요.》

《연구사업?》

대뜸 아연한 눈길로 현옥이를 지켜보던 명식은 갑자기 어이가 없다는듯이 허구픈 웃음을 터뜨렸다.

《얘, 넌 그가 거기서 연구사로 일하는줄 아니? 아직도 새 연료를 연구하는줄 알아? 넌 어째서 아직도 그 새 연료안이 가망이 없다는걸 모르니? 그러니까 제철소에서도 그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겠니. 생산을 위한 공정기사로 말이다. 그건 그렇다치고 지금 제철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있는지 알기나 하니? 이젠 그전보다 더 많은 중유가 공급되고있어. 말하자면 우리가 제기한대로 지금 단계에선 새 연료의 취입이 불가능하다는것을 우에서도 시인했단 말이다.》

《?》

현옥이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고 오빠를 쳐다보았다.

(더 많은 중유라니?)

이 소식은 실로 현옥이에게 충격이 아닐수 없었다.

(그럼 그의 기술안이 지금단계에선 정말 무리한것이란 말인가!)

저로서도 의심을 품고 이미부터 그 가능성에 대해 따지긴 했지만 정작 국가적인 조치까지 취해졌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아연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보다 더 가슴을 찌르는것은 그가 그처럼 대학때부터 고

심해오던 일이 이젠 영영 막혀버렸다는 절망감이였다.

(그러니 그의 기술안이 아직은 한갖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 아닌가!)

《이것만 놓고봐도 그의 기술안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 허황한것인지 명백하지 않니. 그러니까 너도 이젠 마음을 다잡고 자기 일에나 전념해라, 알겠지?》

명식의 얼굴에는 다시금 아까 방안에 들어설 때의 활기와 미소가 어리였다.

사실 그가 오늘따라 여느때없이 흡족해하는데는 여태껏 질질 끌어오던 ××설비의 심사를 무난히 끝내 위원회에 통과시켰다는데도 있지만 보다는 제철소에 중유가 공급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데 있었다.

까다로운 설비의 심사를 맡아 끝낸것이 자기의 실무를 과시한것이라면 또 자신이 책임지고 한 연구사업의 결과를 당에 보고올려 중유를 공급받을수 있게 한것은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안목을 평가받는것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실무능력과 랭철한 안목, 심사일군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 두가지를 최대의 수준에서 겸비하고있다는것이 이번 기회에 여실히 증명된것으로 하여 그는 특별히 만족스러운것이였다. 그런 기분으로 해서 그는 지금 현옥이가 겪고있는 고민도 별로 대수롭지 않는것으로만 여기는것이였다.

(일없어! 그런건 시간이 저절로 해결해주니까. 상처란 첨엔 아프지만 아물기마련이거던. 한데 그건 상처라고도 할수 없지, 손톱이나 발바닥에 박힌 가시를 뽑은것이나 같으니까.)

그러나 소설책에 시선을 꽂고있는 현옥이의 가슴은 걷잡을수없이 활랑거렸다. 도무지 진정할수가 없었다.

(그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있을가? 희망을 잃고 절망에 잠겨있을가? 아니면 이젠 모든것을 단념하고 맡은 일이나 하고있을가? 후회하고있을가 아니면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있을가?)

그의 눈에는 또다시 아까부터 반복해읽던 그 대목, 《다음번 출장시에는 저에게 꼭 들려주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하는 그 글줄이 안겨왔다.

그는 아무 의미도 없이 그 글줄을 몇번이고 몇번이고 곱씹어 읽어나갔다.

15

자정이 가까와오는 깊은 밤이건만 책임기사 류기철은 오직 한가지 생각에만 옴해있었다.

(세호는 전공이 기계니까 힘에 부칠게고 석규동문 출장중이지? 리현이가 그중 낫긴 한데 그야 당장 급한 과제가 있지 않나!)

그는 지금 자기가 여태껏 애써 추진해오던 중유절약안을 누구에게 맡길것인가를 따져보고있는중이였다.

로문이 열릴 때마다 벌겋게 달아오르군 하는 자기 사무실의 유리창을 바라보며 그는 책상우에 펴놓은 백지우에다 공정기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나갔다.

(광일이? 그는 아직 그런 과제를 감당하긴 어렵지.)

그는 방금 쓴 그의 이름옆에도 십자를 그었다.

무슨 사색에 잠길 때마다 그는 종이장에 글을 쓰는 버릇이 있었는데 흡사 진동계수를 표시하는 계기처럼 사색이 심화될수록 그 종이는 점점 알지 못할 부호와 표시로 얼룩지는것이였다. 대학시절 시험공부를 할 때부터 익힌 그 버릇으로 하여 친구들로부터《오씰로그라프》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기까지 했다.

불현듯 그의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흘렀다.

며칠전까지만 해도 어쩌면 좋을지 몰라 안타까와하던 자기가 오늘은 새로운 푸짐한 식탁에 앉아 이미 손에 들었던 음식을 누구에게 줄것인가를 따져보고있기때문이였다.

(정아한테?)

언제나 생기에 넘쳐있으면서도 무슨 말을 할 때면 무엇때문인지 곧잘 뾰로통해지군 하는 처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대학때부터 중유절약안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던 정아였다. 더우기 전기를 전공했다는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만하면 그에게 맡길만도 했으나 아직 현장에 익숙되지 못했다는 점이 머리를 기웃거리게 하는것이였다. 기철은 그의 이름옆에다도 십자를 그었다.

숱한 이름들이 적혀있는 종이장은 무슨 경기대전표같은데 이긴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패배자들뿐이였다.

《음-》

그는 입술을 꾹 다문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구한테 맡긴다?)

사람들중에는 자기 느낌이나 생각을 아무에게나 꺼리낌없이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달리 될수록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가 과묵하고 진중한 성격에 기인되지만 성격이 그렇지 않으면서도 의식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사람도 간혹 있는것이다.

원래의 천성을 정신적인 긴장으로 압도해버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중의 하나가 강철직장 책임기사 류기철이였다.

그의 선량한 표정은 마치 《보다싶이 난 그저 일에만 쫓겨사는 사람인걸요.》하는듯 했으나 그를 잘 아는 사람이면 감탄과 존경, 지어는 일종의 두려움까지도 금치 못하는것이였다. 그런데도 그가 말이 없는것이 유순한 성격으로 해서가 아니라 딴 사람에겐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지만 그자신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어떤 내적인 문제로 하여 감정을 토로하지 않는다는것을 알기때문이였다.

사실 그의 가슴속에는 남다른 포부가 간직돼있었다.

《기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부는 실력이다. 그 실력에 따라 기술자의 가치가 규정되고 그 가치는 어떤 창조물을 내놓는가에 따라 계산된다.》

이것이 그가 주장하는 생활신조였다. 실력이 없는것보다 슬픈 일이 없고 노력을 아끼는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다고 여기는 그로서는 책임기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하루 취침 세시간이라는 견인불발의 투지로 학습과 탐구를 거듭했다.

그런 노력으로 하여 벌써 적잖은 성과를 거두었고 작년부터는 공장대학 초빙강사로까지 추천되였으나 그는 이에 조금도 만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해야 할 일에 비해볼 때 자신의 능력이 너무도 부족하다고 느꼈으며 이 부족점들을 시급히 보충하지 않으면 영영 추서지 못할 락오자로 된다고까지 간주하는것이였다. 흔히 이런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도 자기에 대한 평가, 특히 자기 실력에 대

한 남들의 평가에는 몹시 예민했고 더없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군 했다.
만약 누가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앞서나갈 여지가 있다는것을 느끼게 되면 그의 두눈은 대번에 시뻘겋게 충혈졌고 그날부터 그 대상자를 멀리 떨구어놓기 위해 이발을 사려물고 달라붙는것이였다.
언제나 다른 사람에 비한 자기 실력의 확고한 우위, 이것이 바로 그의 생활철칙이였고 확고부동한 신념이였다.
이런 그여서 제 나이라면 이젠 응당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 사랑이니, 결혼이니, 행복이니 하는것에 대해서도 남들과는 전혀 다른 견해를 품고있었다.
인생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즉 총각시절과 그 이후시기로 구분하여 생각하는 그는 총각시절은 응당 그 이후 가정생활을 담보할수 있는 행복의 온상이 되여야 한다는것이였다.
가정생활은 부득불 총각시절과 련결되기마련인데 그것은 무엇보다 청춘시절에 어느 정도의 위훈을 세웠는가 하는데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되기때문에 사랑도 이에 기초해야만 참다운 생활로 련결된다는것이였다. 만약 이런 확고한 기여가 없이는 누구를 사랑할 자격이 없는것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설사 사랑을 한다 해도 메마른 땅에 심어놓은 화초와 같이 이내 시들어버리지 않을수 없다는것이였다.
말하자면 그는 청춘시절을 인생의 봄, 파종하는 계절로만 여기는것이 아니라 무르녹은 가을, 수확의 계절로까지 돼야 한다고 믿는터여서 그 푸짐한 수확물이 있을 때라야 진정한 행복도 있을수 있다는것이였다. 때문에 시대가 바라는 문제에 대한 특출한 기여, 어떤 시련과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세상을 놀래운 시대의 영웅들과 같은 비상한 헌신, 오직 이것만이 사랑의 전제며 결혼의 촉매일뿐아니라 또 행복의 비옥한 토양이라는것이였다.
이런 그의 속심을 알길 없는 부모들은 드러내놓고 아들을 불효막심한녀석이라고 지청구를 해댔다.
《그래 장가는 안 가겠니?》
《가야지요, 그렇지만 아직은 이른걸요.》
《이르다니? 나이 스물여덟이 적어서? 그리구 네가 가야 동생도 갈게 아니냐.》
《저도 애인은 있습니다.》

《있어? 도대체 어떤 처녀게?》
《저의 애인은 야금이지요.》
《망할녀석! 어디 평생 실컷 쇠붙이나 끼고 살아라!》
이렇듯 오직 자기 임무인 야금에 대해서와 세상을 놀래울 기술안에 대해서만 모색하는 그였다.
그러던 그가 마침내 작년에 그처럼 바라마지 않던 그런 혁신안을 찾아냈던것이다. 그것은 가스의 연소효률을 높임으로써 중유취입량을 절반이상으로 감소시키는 중유절약안이였다.
늘 중유에 지장을 받고있을뿐아니라 마침 명식이네의 연료연구까지 수포로 돌아간 때여서 대번에 그의 안은 커다란 지지를 받았었다. 공장에서는 물론 연구소며 부에서까지도 그의 중유절약안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비상한 열정으로 기술안추진에 돌입했다. 중간시험로에서 기초시험을 끝내고 넉달만에는 도입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것이 순조로이 또 그렇게 확신성있게 전진되던 일이 그만 암초에 부딪칠줄이야.
그것은 이미의 전기장치와는 다른 고열에서도 정밀하게 작용하는 새형의 자동기구의 제작을 필요로 하는데 있었다.
그는 이 난관도 서슴없이 맞받아나갔다. 보통 암초가 아니라는것을 깨닫고는 더욱 과감히 돌진했다. 하지만 그것은 좀처럼 움쩍도 하지 않았다. 세번, 네번을 거퍼 덤볐으나 매번 격파당하고말았다.
일시 주저와 동요를 느꼈으나 뭇사람들의 기대에 다시 전신의 힘을 모아 육박해들어갔다. 그러나 여전히 이렇다할 전진이 없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과연 내 힘으로 타개할수 없는 장애란 말인가!
그사이 몰린 피로와 좌절감으로 하여 그는 며칠동안 앓아눕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 그는 우연하게도, 그야말로 우연하게도 하나의 놀라운 령감에 부딪쳤던것이다. 그것은 중유절약안과는 거리가 먼것이였지만 그만한 아니, 그보다 확실히 더 의의가 있는 그런 거대한 새 기술안에 대한 착상이였다.
그 착상이란 현재 제강행정에 도입되고있는 산소의 취입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강욕취입방법이였다. 어려운 점들이 없진 않지

만 현 설비상태를 충분히 리용할수 있을뿐아니라 그 방법이 완성되면 지금보다 제강시간을 두세시간은 확고히 더 단축할수 있었다. 또한 산소취입에서 가장 난점인 로벽의 혹사를 결정적으로 방지할수 있다는데도 특별한 우점이 있었다.

그는 이 기술이야말로 야금계가 바라는 새로운 혁신안이라는것을, 자기가 모색해마지 않던 그런 전대미문의 기술안이라는것을 륙감으로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확실히 령감이란 불시에 떠오르기는 하지만 언제나 노리는 사람에게만 찾아드는 모양이였다.

걷잡을수 없는 충동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이 기술안에 대한 의욕이 불같았으나 서뿔리 그것을 시작할수가 없었다. 시작은 고사하고 자신의 의도를 남들에게 말할수조차 없었던것이다. 바로 이미부터 하던 중유절약안이 발목을 잡기때문이였다.

《그럼 이젠 중유절약안을 포기한다는건가?》

《그게 기술자의 외도라는거지 뭔가?》

모두가 이러며 자기를 비웃을것 같았다.

(창조적열정이란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타산에 토대하는게 아닌가! 그렇다고 내가 중유절약안을 버리는건 아니니까.)

이렇게 자신을 변호해보기도 했으나 그것이 한갖 구실이라는것을 깨닫지 않을수 없었다.

언젠가 기술과에 있던 한 친구가 자기 기술안의 추진전망이 막혔다는것을 간파하고는 거기서부터 벗어나긴 해야겠는데 방도가 없어 고민하던 일이 되살아났다. 그는 그때 묘한 궁리를 해냈는데 그것은 본래의 기술안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기술안(전혀 성격이 다른것이긴 하지만)을 제기했던것이다.

사실 그 기술안이 사람들을 현혹시킬수는 있어도 실현하기는 어려운것이였지만 사람들은 그의 기술안에 찬사를 보냈고 그는 쉽사리 본래의 기술안에서 손을 뗄수 있었던것이다.

그때 기철은 그를 얼마나 질시했는지 몰랐다.

《참다운 기술자가 되려면 우선 참다운 인간이 되여야 합니다.》

공장대학의 강당에 나설 때마다 이 말을 버릇처럼 외워온 그였다.

몇해동안 책임기사로 일하면서 그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

을수 있은 주요한 특질은 그가 자신에 대해서는 지극히 까다로운 반면에 남들에게는 더없이 관대한것이였고 다른 하나는(이것이 더 중요한것이지만) 어떤 일도 량심적으로 처리한다는 그 점이였다. 누구도 그가 하는 일을 시비하거나 우려하는 일이 없는것은 물론 그가 맡아 하는 일은 어떤것도 자기를 위한것이 없으며 틀림없이 정당하리라는 것을 믿어마지 않는것이였다.

(아무래도 중유절약안을 결속하지 않고는 새 기술안을 시작할수 없어!)

그는 당장 먹고싶은것을 눈앞에 놓고도 이미 입에 넣은것으로 하여 먹지 못하는 사람의 안타까운 심정에 처해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었던것이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으로 얼마전부터 제철소에 중유가 우선적으로 공급되게 된것으로 하여 앞으로 더는 생산에 지장받을 일이 없게 된 사실이였다. 이 새로운 사태는 대번에 그에게 이제껏 강압적으로 눌러오던 강욕취입안에 대한 의욕을 한껏 부풀어오르게 했다.

(중유가 풀리여 생산이 정상화되는 이런 정황에서야말로 무엇보다 더욱 생산을 높일수 있는 기술안이 요구되는것이 아닐가!)

아닌게아니라 제철소에서는 생산에 대한 요구를 부쩍 높이였다. 수령님의 은정에 더 많은 증산으로 보답하기 위한 총돌격전에로 로동자들을 추동했다. 증산대책들을 위한 토론이 매일처럼 벌어졌다.

기철은 마침내 그사이 더욱 무르익혀온 강욕취입안을 도면과 함께 제기했다.

대번에 일대 격찬이였다.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것처럼 모두가 쌍수를 들고 지지해나섰다. 바랐던바보다 몇배 더 큰 격려와 찬사여서 그는 어리둥절하기까지 했다.

《당장 이 기술안을 구체화하오. 우선 도면부터 완성해야겠소. 다소 자재나 돈이 들더라도 빨리 실현할수 있게만 하오! 알겠소?》

기술부기사장의 전에 없는 고무였다.

(중유절약안은 어떡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나 그는 곧 새로운 결심에 사로잡혔던것이다. 그것은 자기가 반년동안이나 고심해온, 그래서 이젠 거의 마감단계에 들어선 중유절약안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겠다는것이였다.

(아니, 넘겨주다니? 그게 어떤거라고?)
따져보니 아까왔다. 생각할수록 그 기술안에 바친 노력이, 또 실현을 눈앞에 두었다는 사실이 미련을 품게 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기술안인가!
하지만 그는 도리를 저었다.
(우리한테야 누가 어떤걸 만들었는가 하는것보다 그것이 현실에 어떻게 쓰이는가가 더 중요한것이 아닌가!)
그는 자기에게 차례진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상의 혜택이라고만 여겨졌고 그 혜택에 어쩐지 자기를 희생시키고싶기까지 한 심정이였다.
(그래! 인계하자! 인계할바엔 송두리채 깨끗이 넘겨주자! 그 정도의 희생이 아니면 무슨 선행이라고 하랴!)
언제나 자기가 남들보다 확고히 앞섰다고 느낄 때에만 품게 되는 그런 아량이 그에게 작용했던것이다.
일단 이렇게 마음을 먹고나자 그는 자기의 결심이 자기 희생에서 출발된다는것으로 하여 자랑스러웠고 그 사실을 알고 기뻐할 사람들의 모습으로 하여 더욱 만족스러웠다.
이리하여 그는 지금 그 무상의 행복자가 될 대상을 고르고있는중이였다.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던 그는 불시에 떠오르는 한사람의 모습에 소스라치듯 놀랐다.
(그렇지!)
어째서 진작 그를 생각하지 못했는지 알수 없었다.
불같은 열정의 소유자겠다, 또 현실을 감수하는 기민한 판단력은 어떻고? 특히 그가 시도하는 기술안과 중유절약안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것이 아닌가! 언젠가 흥분한 표정으로 중유절약안의 도면을 보여달라고 하던 진호의 얼굴이 상기됐다.
(그래, 그이상 적임자는 없어! 이걸 수행하느라면 그 역시 새로운 눈으로 자기 기술안을 검토해볼수 있고 또 그 과정에 적잖은 도움도 받을테니까!)
그도 진호가 시도하는 기술안이 어떤것인가를 모르지 않았다. 이미의 시도와는 전혀 다른 방법, 즉 완전히 새로운 첨가제를 만들어야 하

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든것인가 하는것도 잘 알고있었다. 아무리 대학때부터 해오던 연구라 해도 첨가제에 대한 확정, 부단한 반복시험과 그를 통한 확률적인 지수의 측정, 이 과정만 해도 간단치 않는데 연료를 가공하고 취입해야 할 장치까지 도입하자면 얼마나 오랜 기일이 걸릴지 알수 없는 일이였다.

기철은 그의 열정에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째서 그처럼 현실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가지고있는 그가 그런 료원한 과제를 잡았는지 알수 없기도 했다.

그때마다 자기가 그랬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현장에 나온 사람이면 누구나 한땐 그런것처럼 진호 역시 간혹 가다 자기의 지혜로 도달한 어떤 결론의 가치에 지나친 흥분과 열정을 앞세운 나머지 이여의 타산이며 경험은 고려에 두지 않은 상태에 있는것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진호는 확실히 여느 대학졸업생들과는 달랐다.

흔히 대학시절 학과에 충실했던 수재라 해도 현장의 복잡한 정황에 부딪치면 어안이 벙벙해지거나 왕청같은 질문을 하기마련인데 진호가 처음부터 느끼는것들은 거의 모두가 현실적이고 여태껏 해결하지 못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불균형이 조성된 모순점들이였다. 말하자면 교육실습에서만 생산과 접촉해본 그런 유치한 점이라곤 없었다.

기철은 그를 첫눈에 재능형으로 결론내렸었다.

그의 판단에 의하면 기술자들인 경우에는 어쩔수없이 두가지 류형으로 구분되는데 첫 부류는 재능형이고 둘째 부류는 노력형이라는것이였다.

재능형은 잉크방울을 빨아들이는 흡인지처럼 어떤 대상에서 야기되는 문제들과 해당한 방도를 재빨리 포착할줄 아는 사람이라면 노력형은 이와는 달리 물방울을 빨아들이는 종이처럼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만큼 폭넓고 진진하게 흡수하는 사람이였다.

이 두 부류는 어느쪽이나 우단점이 있는것으로서 영민한 판단과 감수성이 있는 사람은 진지한 태도가 부족하고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은 부득불 예민하지 못한 약점을 가지게 된다는것이였다. 물론 이 두 부류에 속하지 못하는 제3부류가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은 그가 제일 질시해마지 않는 무맥형으로서 기술자의 셈에조차 넣지 않았다.

그러나 따져보면 진호를 단순히 한가지 류형에만 국한시킬수는 없

었다.
언젠가 로에 취입되는 열량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그는 현재 로들이 취입되는 열량의 8할도 소모하지 못하고있다고 했다.
《3 500립방의 가스와 4기압의 산소, 거기에 9천카로리의 중유가 취입되면 80톤의 원료를 50분에는 녹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로나 용해시간이 1시간이 넘는군요.》
《형편은 그렇소.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기준수치고 로내의 구체적인 정황이야 다르지 않겠소. 로상태를 고려했소?》
《했지요.》
《열의 파동은?》
《그것도 평균수칩니다.》
《그럼 장입방법도 따져봤소?》
《?》
그제야 그는 생각에 잠기는것이였다. 그쯤으로 리해했으리라고 믿었는데 며칠후에 또다시 그 문제를 들고나오는것이였다.
《확실히 이건 열량의 지나친 랑빕니다. 이걸 보십시오.》
그가 내미는 자료들을 보면서 기철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웬만한 경험을 가진 기사가 아니고서는 해명해내지 못할 그런 문제가 정확히 밝혀져있기때문이였다.
흔히 재능이 있는 사람에겐 노력이 부족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에겐 재능이 결핍돼있기 십상이지만 진호에게는 량자가 서로 배합돼있는것 같았다. 아니, 어떻게 보면 끈덕진 노력이 더 우위를 차지하는것 같기도 했다.
(그래, 그 이상 적임자는 없어!)
기철은 그가 중유절약안을 맡으면 틀림없이 지금의 난관을 해결하리라는것을, 또 그것으로 하여 적어도 발명권쯤은 차례지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무수히 써넣은 진호의 이름옆에다 그는 빠짐없이 동그라미를 그려넣었다. 숱한 공정기사들은 다 패배하고 유독 진호 하나만이 승리한 대전표를 내려다보며 그는 또다시 미소를 머금었다.
그러나 그는 주춤하지 않을수 없었다. 불시에 그 어떤 힘이 자기의 충동을 다잡는것이였다.

(과연 그에게 중유절약안을 맡기는것이 옳은 일일가?)
이런 의혹이 서리면서 아무리 그의 기술안이 실현하기 어려운것이라고 해도 그걸 위해 지금 모든 심혈을 쏟아붓고있는 진호에게 자기의 기술안을 인계한다는것이 혹시 온당치 못한 일이나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드는것이였다. 며칠전 연도에 들어갔다가 질식된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실정을 모르는데서 범한 실수라고 했지만 기철은 애초부터 그가 결심하고 단행한 행동이라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또 그런 결심은 남다른 목적을 가졌다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만 있을수 있는것이여서 그는 진호를 더욱 새삼스런 눈으로 보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누구나 자기의 정신적희열에 지배되고있는 순간처럼 자기본위가 되는적은 없는것이고 그런 때에는 자기보다 더 아름답고 더 흥미있는것은 세상에 없는듯이 생각되는 법인데 바로 진호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경우에는 오직 그 유혹에 몸을 맡김으로써만 거기에서 빠져나올수 있다는것도 그는 경험을 통해 알고있었다.
(아무래도 지금은 맡길수 없어!)
허리를 편 그는 다시 창문쪽으로 다가섰다.
출강장의 불빛이 온 용해장을 감빛노을로 물들이고있었다.
(어떻게 한다?)
《따르릉!》
갑자기 울리는 전화종소리에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시계를 보니 12시가 가까와오는 시간이였다.
송수화기를 드는데 교환수가 부에서 오는 전화라고 일러주는 바람에 그는 대뜸 의자를 당겨놓으며 귀를 강구었다.
《책임기사동무요?》
상대가 누구라는것을 안 그는 곧 반색을 지었다. 명식이였다.
《실장동무군요.》
《역시 밤늦게까지 분투를 하는군. 난 틀림없이 동무가 직장에 있으리라고 믿었소.》
《흠! 실장동무야 뭐 거기 앉아서 축구구경하는 기분일테지만 여긴

어떤줄 압니까? 혀를 빼물고 달리는 선수 맞잡이란 말입니다.》
워낙 롱담이라고는 잘하지 않는 그였지만 오늘은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갔다.
《허허, 하긴 그럴수밖에! 이젠 중유가 풀렸으니까, 그래 쇠물이 좀 나오나― 축구선수?》
《꽝꽝 쏟아지지요, 어느 로나 하루 세차집니다.》
《축하하네, 우리가 제때에 정확한 보고를 올리기 얼마나 잘했나!》
중유를 보장받을수 있게 된것이 자기들때문이라는 일종의 자랑이 그의 목소리에 어려있었다.
《참, 투사기도면을 받았습니까?》
《받았네! 바로 그것때문에 전화를 걸던참이야! 본래는 이달내로 도면을 료해하고 담당심사원을 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긴급과제가 제기돼서…》
《네?》
필경 심사가 늦어지는데 대한 발명이리라는것을 알고 물었으나 명식은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한것으로 여기고 더 큰소리로 곱씹는것이였다.
《외국에 보낼 설비의 심사가 제기됐단 말이네. 당분간 항에 나가있어야 할것 같네. 어쩌겠나? 미안한대로 좀 참아주게.》
그러면서 될수록 최선을 다해 빨리 끝내도록 하겠다는것을 부언했다.
《할수 없지요, 어쨌든 여기선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있다는것만 잊지 마십시오.》
《암, 잊지 않겠네! 참! 동무가 하던 그 기술안 있지? 중유절약안 말이야. 그것도 추진시키고있겠지!》
《네, 곧 대책을 세우지요.》
《놓치지 말게, 중유가 풀린 이런 땔수록 우린 중유를 더 절약해얄게 아닌가! 응?》
《참, 실장동무!》
진호에 대한 생각에 미친 기철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실장동무 신세를 너무 지는게 아닙니까?》
《신세라니?》
《도면만 방조받는게 아니라 이젠 사람까지 보내주니 말입니다.》
《사람? 오― 진호 말인가? 그 친구가 동무네 직장에 있다면서? 공

정기사로 있다는걸 나도 들었네. 어쨌든 옆에서 좀 잘 도와주게.》
기철은 송수화기를 놓고도 한동안 얼굴에 피여나는 흐뭇한 기색을 지울길 없었다.
(그러니 아무래도 적임자는 정아뿐인데… 정아한테 맡겨?!)
책상우에 널려있는 종이장들을 주섬주섬 챙기고 밖으로 나서니 벌써 하늘엔 별들이 총총했다.
그 별들을 쳐다보느라니 어째선지 앞으로는 모든 일을 더욱 버젓한 긍지를 가지고 대할수 있도록 곱절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과 할수 있다는 자신이 새로이 가슴에 맺히는것이였다. 그 많은 일들은 또 무척 실행하기가 유쾌할것 같은 공상의 나래가 훨훨 펼쳐지기도 했다.
그는 희망이 용솟음치는 씩씩한 기분으로 현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16

(어째설가? 무엇때문에 만나자고 할가? 도면일가? 아니면 무슨 계산때문일가?)
현장지령실의 책상우에 있는 일보철을 뒤적이며 정아는 아까부터 이 한가지 생각에만 골똘해있었다.
지령탁에는 방금 교대를 인계받은 2교대 부직장장이 늘 그런것처럼 뿌루퉁한 표정으로 앉아 뭐라고 중얼거리며 작업일지를 뒤적거리고있었다.
(확실히 뭔가 주저하는 눈치였어! 부탁이라고 했지? 그런데 어째서 무엇이라는걸 밝히지 않았을가? 그의 부탁이란 도대체 뭘가?)
누가 생각해도 책임기사가 공정기사를 찾는다면 더없이 당연한 일로 여기련만 당사자인 정아로서는 그렇게만 느낄수 없었다. 여느때없이 조심스런 책임기사의 태도가 어쩐지 사뭇 야릇한 흥분으로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것이였다.
낮에 그는 설계연구소에 다니는 동무와 함께 구내산 야외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었다.
대학에 같이 다니다가 직장에 배치받은 후로는 처음 만나는터여서

음료며 얼음보숭이를 청해놓고도 그동안 지나온 얘기에만 정신이 팔린 나머지 그것들은 돌아보지도 못했다.

《허— 이건 지나친 용해구려.》

이런 소리에 고개를 돌린 정아는 자기네 식탁옆을 지나 식당안으로 들어서는 두사람, 공장설비과장과 그뒤를 따르는 책임기사를 보았다.

설비과장이 지나친 용해라고 한것은 받아놓고도 손을 대지 않아 그릇우로 녹아내리고있는 얼음보숭이를 가리켜 한 말이였다.

《누구니?》

그들이 아름드리느티나무옆에 있는 식탁에 앉는것을 지켜보며 선옥이가 물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은 설비과장이고 그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우리 직장 책임기사야!》

《책임기사?— 오, 그래! 대학때 가끔 강의에도 출연하던 그 사람이구나, 발명권을 두개씩이나 가지고있다는 사람! 그렇지?》

《두개가 뭐야, 세개란다.》

세손가락을 펼쳐보인 정아는 《그래서 말이야.》하며 하던 말을 계속하려고 했으나 웬일인지 방금까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댔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 원인이 바로 책임기사한테 있다는것을 짐작하자 그는 어쩐지 뾰로통 화가 치밀어올랐다.

《넌 좋겠다 얘. 저런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니 말야.》

《좋긴 뭐가 좋아!》

《왜? 그래도 많은걸 배울게 아니니?》

《배워? 하긴 나도 첨엔 그렇게 생각했댔어. 많은걸 배울수 있다고 말이야. 그런데 정작 같이 일해보니 영 딴판이야!》

《딴판이라니?》

《뭐라고 할가? 형편없이 메마른 사람이지 뭐야. 그저 싸늘한 대리석인걸.》

《그래도 보기엔 그렇지 않은것 같은데?》

《애, 사람 겉보고야 아니?》

《…》

《저런 사람은 말이야, 겉으로는 싹싹한것 같아도 속은 언제나 자기 생각밖에 없는 법이야.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데 대해선 조

금도 관심을 두지 않거던. 하긴 뭐 그런것까지 내가 상관할건 아니지만!》
《?…》
의혹이 어린 끄부장한 눈길로 정아를 흘겨보던 선옥이는 갑자기 《너 혹시》하며 발쭉 웃었다.
《혹시 너 저 사람을 사랑하는게 아니니?》
《뭘?》
정아는 펄쩍 뛰였다.
《누구나 흔히 맘에 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괜히 내리깎는다더구나.》
《바보! 아무렴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저런 사람을 사랑하겠니? 천만에! 난 저런 사람은 싫어! 사랑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사랑받을 필요도 없어! 없지 않고.》
그러면서 정아는 깔깔 웃었는데 그것은 사랑을 제 맘대로 주고받는 물건처럼 취급해버린것이 어처구니 없어선데도 있었지만 보다는 선옥이가 어쩌면 자기 속심을 그리도 면바로 찌를가 하는데 대한 놀라움에서였다.
사실 대학때부터 책임기사에 대한 남다른 감정을 품고있는 정아였다.
강단에 나선 그가 열정적인 눈빛으로 자기들을 바라보며 과학의 가장 미세하고 깊은 곳에까지 파고들어가 수자와 실례들을 가지고 꺼리낌없는 비유를 사용할 때면 그는 저도 모르게 솟구쳐오르는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내가 태양을 들어 그것을 광물이라는 바다에 던진다고 합시다. …》
《내가 태양을 들어 그것을…》
그의 말을 곱씹어보는 정아의 두눈은 열정과 환희에 반짝였다. 무한한 힘이 지식을 향해, 만물과 그 법칙을 향해 뜨겁게 분출하는 동시에 이제껏 느끼지 못했던 이성에 대한 새로운 감정이 가슴속에서 타오르는것이였다.
그는 왜서인지 범속하고 일반적인것을 싫어하는 처녀였다.
자기가 그런것처럼 자기가 바라는 대상에 대해서도 특별한 점, 특히 남들은 도저히 엄두도 못낼 그런 비상한 포부를 품고 그 가능성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불태우는 그런 열정과 용기가 있는 대장부가 소

원이였다.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 역시 모든것을 다 바쳐 한점의 불꽃으로 보태주고싶은것이 그의 념원이였던것이다. 아니, 그것을 처녀로서의 행복으로 간주하는것이였다. 불타는 청춘시절! 그만 한 정열도 없이야 무슨 보람이 있으랴! 그만한 패기도 없이야 무슨 젊음이라고 하랴!

그는 자기가 바라마지 않던 이런 정신적매력을 대뜸 겸임강사 기철이한테서 느꼈던것이다. 더우기 중유절약안에 대한 그의 특별강의를 듣고나서는 너무나도 큰 격정으로 하여 며칠밤을 한잠도 자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점에 대해 언제나 과학적인 시기심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과학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자면 탐구가 없는 하루, 사색이 없는 한때를 절대로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도 오늘이고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것도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장 잃기 쉬운것이기때문에 그것은 더욱 귀중한것입니다.》

(저런 사람의 세계는 얼마나 심원할가! 저런 사람들이 꿈꾸는 생활이야말로 얼마나 벅차고 아름다울것인가!)

끝없이 고상하고 아름다운것을 동경해마지 않는 그의 순진한 가슴은 구름처럼 부풀어올랐다. 점점 정아에게는 기철이가 모든 완벽의 모범으로만 간주됐다. 자기에게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것, 아무리 노력해야 최소의 한정된 량밖에는 가질수 없는 지식이며 탐구력이며 열정을 최고도로 구비하고있는것으로 여겨졌던것이다.

(저 사람과 같이 일해봤으면…)

그런데 정작 대학을 졸업하고 그가 있는 강철직장에 배치받게 되자 정아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었다. 어째서 그런지 따져보지 않았다.

설사 그것이 책임기사에 대한, 그의 능력과 학식에 대한 존경의 한계를 벗어난 그 어떤 다른 감정때문이라 해도 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니, 인정할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런데는 책임기사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수없이 고상하고 흠잡을데 없는 존재로 생각되면 될수록 자기는 너무도 평범한 존재여서 그의 옆에는 서기조차 부끄러울 상대로밖에 여겨지지 않았기때문이였다. 그럴 때면 그는 자기가 좀더 아는것이 많고 아름다왔으면싶었다.

원래 외모를 무시하거나 남에게 주는 인상을 아랑곳하지 않는 습성

이라고는 없는 그였지만 어쩐지 더욱 곱게 보이고싶었고 부족한 아름다움이나마 될수 있는 한 사람들의 마음에 들었으면 했다.

보통 한 사내에 대한 이런 존경은 처녀를 소심하게 만들거나 주눅이 들게 하기 십상이련만 정아는 결코 그런 부류에 속하는 처녀가 아니였다. 다른 사람에 비해 감정이 섬세한 그였으나 그것을 태연히 누를줄 알았고 지어는 고민이 있을 때조차 웃을수 있는 정신력을 지니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만사에 결단이 빨라 머리속에서 어떤 결심이 생기면 서슴지 않고 실천에 옮기는 담대한 기질까지 가지고있었다.

이런 기질에도 원인이 있었지만 그가 책임기사를 사모하면서도 정도이상으로 랭정하게 대하게 되는데는 바로 자기의 감정에 대한 그의 지나친 무관심에 있었다. 자기의 감정을 고백한것도 아니고 더우기 그것을 눈치채게 행동한적이라고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가 자신의 마음을 리해해주지 않는데는 역시 불만스러웠다.

물론 그도 책임기사가 자기에게 관심을 돌리지 않는것이 자기로서는 전혀 알수 없는 무슨 다른 리유가 있다는것을, 사업에 한하는 어떤 중요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있기때문이라는것을 모르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불만을 품고있으면서까지도 태연하게 자신을 꾸미기는 싫었다.

《저런 사람은 어떤지 아니?》

바로 그런 심정으로 하여 그는 낮에도 책임기사를 더욱 몰아세웠던 것이다.

《사업에선 성공할수 있어도 사랑에선 실패하기마련이야. 저런 수재들이란 사랑에선 꼭 불우하기마련이거던. 내 말이 틀리나 이제 두고보렴! 난 말이야…》

《좀 가만가만 말해! 듣겠다 얘.》

《들음 뭐래?》

그쪽을 힐끔 돌아본 정아는 정말 입을 다물지 않을수 없었다. 벌써 자리에서 일어난 그들이 이쪽으로 걸어오기때문이였다.

자기들의 식탁옆을 지나려던 책임기사가 걸음을 늦추며 이쪽으로 돌아서는것으로 보아 정아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련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정아동무! 퇴근할 때 좀 들려주겠소?》

《무엇때문에요?》

《부탁할 일이 있어서 그러오.》
(부탁?)
어쩐지 여느때없이 주저하는 기색이였다.
《대리석이라구? 뭘 사근사근하기만 하다 얘.》
구내산쪽으로 걸어가는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선옥이가 이렇게 말했으나 정아는 곧 고개를 저었다.
《뭐 부탁이라는게 다른걸것 같니? 틀림없이 도면이 아니면 무슨 계산이야, 뻔해!》
하지만 그때부터 속으로는 (정말 도면이나 계산일가? 아니, 이번엔 그런것 같지 않아! 그럼 도대체 뭘가?) 하는 생각으로 하여 도저히 진정할수 없는 마음이였다.
사람이란 누구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는 극도로 예민한 감정을 지니는 하나의 반응체인것이다. 퇴근준비를 하고 지령실에 들려 오늘 작업에서 제기된 자기 부문공정들을 료해하는 지금에 와선 더욱 걷잡을수없는 심정이였다.
《아니, 그렇게 우물쭈물할게 뭐요. 속에 있는걸 다 털어놓으란 말이요다.》
송수화기를 든 부직장장이 꽥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정아는 깜짝 놀랐다. 언제나 무슨 억울한 루명을 뒤집어쓰고있는 사람의 표정인 그는 입심이 세기로 유명했다. 한번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항복할 때까지 끊임없이 줄폭탄을 쏟아붓는것이였다.
《아니, 뭐 용선초과라구? 우리가 언제 용선을 초과해 먹었단 말야. 손이야 발이야 빌어도 안 줄 땐 언젠데 이제 와선 초과해먹었다는거야. 제발 그따위나발은 작작 줴치게. 뭐? 그게 나발이 아니구 뭔가? 나발도 왕나발이지, 꺼럽!》
그가 말할 때면 주런이 박힌 금이발로 하여 온 입안이 번쩍거리군했는데 특히 웃을 때는 더욱 호화찬란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도 자기의 웃음을 《황금의 미소》로 자처하는것이였다. 지금도 그 황금이 마구 번쩍거리고있었다.
탁우에 있는 또 한대의 전화기가 울자 그는 들었던 송수화기를 얼른 턱짬에 끼우고는 새 송수화기를 들었는데 그 모양은 흡사 연주창을 앓는 목삐뚤이같았다.

《얼마? 파철이 920에 광석이 1 400? 가만, 자넨 좀 가만있게. 젠장 귀구멍은 둘이래두 따루 듣는 재간은 아직 못 배웠어.》
량쪽 송수화기에 대고 번갈아가며 말을 하던 그는 턱밑에 끼운 송수화기가 아래로 미끄러져내리자 턱에 더 바싹 힘을 주기만 할뿐 종내 그것을 내려놓으려고는 하지 않았다.
정아는 무심결에 자기앞에 놓여있는 산업텔레비죤화면조절기를 돌려보았다. 조절에 따라 용해장은 말할것도 없고 출강장, 남비장, 원료장의 실태까지 한눈에 다 알아볼수 있게 되여있는 자동카메라였다.
원료장의 신호공아바이가 화면에 나타났다. 어딘가 웃쪽을 쳐다보며 간절한 표정을 짓고있는것으로 보아 기중기운전공에게 무슨 부탁을 하고있는 모양인데 운전공이 잘 응하지 않는것 같았다. 눈을 지릅뜨는가 하면 발을 굴러대며 위협하기도 하던 그는 대뜸 옆에 있는 장입바가지에서 반죽한 도이제를 한줌 쥐여뿌렸다. 그게 운전공의 얼굴을 매닥질해놓았는지 그는 무릎을 짯짯 치며 이발도 없는 입을 벌린채 통쾌하게 웃어댔다.
《자, 다시 시작해볼가?》
다시 본래의 송수화기를 쥔 부직장장이 후반전을 계속해보지 않겠냐는듯 한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보면 상대도 여간 질긴 사람이 아닌것 같았다.
정아는 이번엔 용해장으로 카메라를 돌렸다.
무엇때문인지 4호로앞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있고 그 한복판에서 한사람이 손을 흔들며 무슨 설명을 하고있었다. 손세로 미루어보아 틀림없이 기중기의 가동을 놓고 얘기하고있는것 같았다. 그에게로 화면을 접근시켜나가던 정아는 그가 이쪽으로 돌아서는 순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땀을 흘리며 이쪽 어딘가를 가리키고있는 사람은 바로 책임기사였기때문이였다.
얼른 조절기를 다른 곳으로 돌리긴 했으나 눈길은 저절로 화면을 마주하고앉아있는 부직장장한테로 쏠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람? 방금전까지 미간을 찌프리고있던 그가 흐뭇한 그 황금의 미소를 짓고있는것이 아닌가!
《아 알만하네, 알만해! 그럼 진작 그렇다구 할게지. 사람두 원, 그런걸 난 또… 거야 다 좋은 일이 아닌가! 꺼럼.》

워낙 능구렝이같은 부직장장이여서 송수화기를 들고있긴 했지만 자기의 속심을 들여다보고 하는 말같아 정아는 그자리에 더 있을수 없었다.

(언제나 하던 부탁같으면 이번엔 받지 않을테야! 바쁘다든가 하다 못해 다른 일이 있다고 해서라도.)

이렇게 마음다지며 그는 총총걸음으로 지령실을 나섰다.

17

책임기사실의 방문을 열자마자 정아의 눈에 비친것은 목에 수건을 두른채 책상을 내려다보고있는 책임기사의 모습이였다.

그의 이마에는 아직도 땀방울이 맺혀있었다. 그러나 그가 왜 고개를 숙이고있는가를, 즉 무엇을 보고있는가를 안 순간 대뜸 바늘끝같은 비애가 가슴을 뚫고 지나가는것이였다.

(역시 도면이구나!)

그의 책상우에는 커다란 도면이 펼쳐져있었다.

어떤 반감과 서글픔이 일시에 솟구쳐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하긴 뭐 나같은건, 나같이 단순하고 뛰여난 점이라고는 없는 처녀야 한갖 사업대상으로밖에는 달리될수 없지! 없고말고!)

저절로 목이 메여올랐다.

《자, 이쪽으로 오오. 이리 와서 도면을 좀 보오.》

정아의 내심이 어떻다는건 알지도 못하고 기철은 자못 반가운 기색을 지으며 자기앞에 있는 의자를 가리켜보였다. 그러나 정아는 그가 가리키는 의자가 아니라 자기의 손목시계만 얼핏 내려다보았다.

《왜 무슨 일이 있소?》

《네, 누구와 좀 만나려구요. 만나자고 해서요.》

《?…》

자기를 마주 쏘아보는 정아의 눈길과 더우기 여느때없이 싸늘하게 들리는 목소리에 놀란듯 기철은 정아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더없이 명랑하다가도 이렇듯 리유도 없이 새침해지군 해서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기색이였다.

사실 왜서인지 기철은 정아를 마주할 때면 이렇다 할 리유도 없이 당황해질 때가 있었다. 어떤 일감을 놓고 그 수행정형에 대해 따지고 새로운 과업을 주는것은 자기지만 오히려 그럴 때마다 자기의 내심을 읽히우는것 같은 그런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는것이였다. 그러나 그 리유가 무엇때문인지는 저로서도 딱히 알길이 없었다.

《그렇다면 할수 없지. 후에 만나는수밖에. 래일 얘기하기요.》

바로 이런 점, 언제나 자기를 남들과 똑같이 대해주는 이 점이 정아에게는 더 부아를 돋구는것이였다. 차라리 갈수 없다고 하든가 누구를 만나느냐고 물어보기라도 해도 좋으련만!

《그래야 뭐 이 도면에 대한 계산이겠지요?》

당장 나갈듯이 출입문쪽으로 돌아선 정아였으나 나가지는 않고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던졌다.

《아니, 그런게 아니요. 무슨 과제나 지시가 아니라 내 개별적인 부탁때문이요.》

(개별적인 부탁?)

정아는 한걸음 책상앞으로 나서며 도면을 내려다보았다.

첨 보는 도면이였다. 대체의 륜곽으로부터 선을 따라가며 구조들을 더듬어나가던 그는 갑자기 온몸이 긴장되면서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아니, 이건?)

자기의 짐작을 확인할양으로 그는 도면의 맨밑에 있는 명기란에 시선을 옮겼다.

《로내에서 열관리개선의 새로운 대책(중유절약안)!》

틀림없었다. 바로 그 도면, 자기를 그토록 흥분시키던 그 기술안이였다.

(이걸 어떻게 하자는걸가?)

가슴속에 도사렸던 착잡한 감정은 삽시에 사라져버리고 까닭모를 의혹이 서려들기 시작했다.

《이 기술안을 동무가 좀 맡아줄수 없겠는가 해서 그러오.》

(이 기술안을?)

정아는 더욱 어리둥절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

이 찬탄해마지 않는 기술안, 고심참담한 노력을 다 바쳐 마침내 황홀한 결실을 눈앞에 둔 기술안이 아닌가! 그걸 무엇때문에 이제와서 나한테 인계한단 말인가? 단번에 소화하기에는 너무도 아름찬 충격으로 하여 그는 숨이 다 막혔다.

《실은 다른 과제가 제기돼서 그러오. 얼마전에 새로운 산소취입안을 제기했더니 공장에서는 생산성을 담보하는 안이라고 당장 그것부터 추진하라는거요. 하긴 이젠 중유도 풀렸기때문에 모든 력량을 생산에 집중하는것이 응당한 일이 아니겠소. 그렇다고 그것때문에 이 기술안을 그냥 묵여둘수는 없고. 그래서 따져보던 끝에 난 바로 동무가 이 기술안의 적임자라고 생각했소. 누구보다 공감해온것도 그렇고 리해하는것도 그렇고, 특히 이 기술안의 고충이 바로 전기장치의 도입에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동무이상 적임자가 없더란 말이요.》

《…》

그대로 믿기에는 너무도 놀라운 사실이여서 정아는 기철이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불만과 절망의 나락으로부터 대번에 행복과 환희의 절정에 솟구쳐오른듯 한 느낌이였다. 기술안자체가 가지는 의의도 의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한테 맡겨주는 그의 의도에는 다만 전기를 전문했다는것만이 아닌, 자신이 여태껏 그토록 바라마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내색조차 할수 없었던 그 살뜰한 온정이 스며있지 않을가 하는 생각으로 하여 더욱 가슴이 터질것 같았던것이다.

(누구보다 공감해온것도 그렇고 리해하는것도 그렇고…)

정아는 그의 말을 되새기며 틀림없이 이 도면에 자기의 섬약한 마음의 매듭을 풀어주는 그의 따뜻한 정이 간직되여있으리라는것을 믿었다. 아니, 믿고싶었다.

심술사나운 론리의 목소리는 이 사실을 믿을만 한 근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우겨대는것이였으나 그의 감정은 이 모든 반박을 물리치고 한사코 《그렇다! 그렇다!》하고 자신있게 속삭이는것이였다.

흔히 누구나 소망이 간절하면 할수록 사소한 일상사도 줄곧 거기에 결부시켜 생각하기마련이고 그것을 서로 련관시키면 시킬수록 또 틀림없이 그럴것이라는 확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법이다.

《어떻소? 맡아주겠소?》

《…》
한마디로 대답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물음이였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과제가 아니기때문에 내키지 않는걸 억지로 맡을수야 없지 않겠소. 때문에 나도 결코 강요하는건 아니요.》
기철은 방금 자기를 쏘아보던 정아의 눈길을 되새기며 못내 조심스런 어투로 말했으나 반대로 정아는 자기의 태도가 그처럼 야무진것이 바로 그자신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그만치 열렬하기때문이라는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책임기사가 여간만 안타깝지 않았다.
《하겠어요, 해보겠어요.》
정아는 어쩐지 당장 눈물이 쏟아져내릴것 같아 얼른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고맙소.》
《그런데 제힘으로 감당해낼수 있겠는지…》
《하긴 쉬운 일이 아닌것만은 사실이요. 그렇지만 난 동무가 꼭 해결해내리라고 믿소.》
《그래도 옆에서 도와주셔야 해요.》
《물론 그래야지. 그러나 내가 출장을 떠나게 되면 그땐 진호동무가 방조하게 하려고 하오. 이 기술안의 방조가 그의 새 연료안 수행에서도 도움이 될테니까.》
(진호?)
진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정아는 내심 언짢았다.
그의 눈으로 볼 때 진호는 아무 일에나 지나친 열정을 시위하려는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때에 따라서는 리해할수 없으리만치 괴벽한 사람이기도 했다. 특히 아무때나 자기의 주장을 고집해나서는것을 볼 때면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도 제 생각밖엔 없을가 하는 불만을 품지 않을수 없었다.
(어쨌든 그의 도움은 받지 않을테야. 아니, 다치지 못하게 할테야. 이것만은 기어이 내 힘으로 해내고야말테야! 보란듯이!)
속으로는 이런 강심을 먹으면서도 그는 전혀 다른 말을 뱉었다.
《그럼 차라리 그 동무한테 맡기는게 어때요? 아무래도 그 동무가 저보다야…》

《그렇지만 그 동무야 직장에 갓 온 사람인데다가 자기 과제가 있지 않소.》

이렇게 대답한 기철은 이 처녀가 이제 와서 또 발딱 뒤집지나 않을가 하는 위구에 사로잡혀 조심스레 쳐다보다가 서둘러 말머리를 돌렸다.

《이 친구가 이젠 오겠는데…》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던 기철은 그제야 눈이 둥그래졌다.

《아니, 내가 정신이 없구만! 내 얘기만 하느라고 동무가 누구와 만난다는것도 깜빡 잊고… 이제라도 어서 가보오.》

《됐어요. 후에 만나지요 뭐.》

《?!》

너무나도 흔연한 대꾸에 기철은 또다시 얼떠름해졌다. 과연 알다가도 모를 처녀다.

이때 이마에 붕대를 감은 진호가 모자를 벗으며 방안에 들어섰다.

정아가 있는것을 본 그는 일시 멈칫 했으나 책임기사의 표정을 살피고는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느꼈는지 성큼성큼 책상앞으로 다가서는 것이였다. 붕대는 붕대대로 동였지만 아직 눈섭우에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두군데나 있었다.

그날 우연히 6호연도옆으로 지나가던 축로공들이 아니였다면 자기가 어떻게 됐을지 모를 처지에 있었다는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는것 같았다.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는지 작업복은 온통 검댕이칠이였다.

책상을 가운데 놓고 두사람을 마주앉힌 기철은 례의 그 단정한 목소리로 새로운 과제, 산소취입법을 선행할데 대한 공장의 요구로부터 중유절약안을 인계하기로 한 결심을 말하고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부턴 이 기술안을 정아동무가 맡아하는 조건에서 진호동무가 옆에서 도와주었으면 해서 그러오. 물론 연료안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말이요. 내가 이걸 권고하는건 중유절약안을 빨리 수행하자는데도 있지만 진호동무의 기술안 완성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이요. 어떻소?》

《…》

진호는 줄곧 책상만 내려다보았는데 보매 거기에 펼쳐진 도면을 보고있는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집중시키고있는게 분명했다. 다시 시

선을 옮겨 창밖을 한참 바라보던 그는 그제야 대꾸할 말이 생각나기라도 한것처럼 천천히 기철이쪽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오래동안 생각한데 비해서는 너무도 단순한 대답이였다.

《솔직히 말하면 난 반댑니다.》

《?!》

기철은 물론 정아까지도 아연한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책임기사동문 이 중유절약안을 방조하는 과정이 나한테 도움이 될거라고 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난 벌써 몇번이나 이 기술안을 검토해보았지요. 두 기술안이 다 연료를 해결하기 위한것이긴 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중유를 인정하면서 절약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유를 무시하고 새 연료를 쓰자는겁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반대하는 리유가 내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반대하는건 이 중유절약안이 우리의 현실에 피동적이기때문입니다.》

《피동적이라니?》

《나도 이 기술안의 착상이 기발할뿐아니라 실현될 가능성도 풍부하다는건 압니다. 그렇지만 우린 어디까지나 우리의 연료로 제강할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다 해도 말입니다.》

실로 천만뜻밖이였다. 이 기술안에 대한 뭇사람들의 평가를 무시하는것은 둘째치고라도 그만치 현실을 식별할줄 아는 그가 이런 말을 한다는것이 기철에게는 놀랍기만 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놀라움쯤은 누를줄 아는 사람이였다.

《물론 나도 동무의 의도를 모르는건 아니요. 나 역시 어디까지나 우리의 연료에 의한 제강조업, 이게 현실이 바라는 절박한 문제라는건 아오. 그렇지만 그건 아직 이렇다할 성과가 없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 일인지 모르지 않소. 그래 빠른 시일에 해결할 전망이라도 있소? 바로 그래서 당에서도 중유를 우리한테 우선적으로 풀어준게 아니겠소.》

진호는 책임기사에게 자기 견해를 더 명백히 이야기하고싶었다. 자기 견해를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가 자기 주장을 계속 피력할 필요는 없어질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곧 이 문제에 대한 서로

의 견해가 너무도 판이하다는것을,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설명한대야 도저히 서로가 리해에 도달할수 없는 일이라는것을 알아차리고는 입을 다물고 그저 묵묵히 듣기만 했다.

《이런 조건에서 그중 합리적인 생산방법이 뭐겠소? 한방울의 중유라도 절약하면서 생산하는 이것이 우리한텐 당면한 과제가 아니겠소.》

《옳습니다.》

진호는 아무래도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지 않을수 없다는것을 깨닫고는 기철이를 마주보았다.

《론리적으로 따지면 그럴수도 있지요. 그러나 난 이런 경울수록 오히려 우리가 중유를 하루빨리 쓰지 않는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력량을 집중해서라도 말입니다. 우린 언제나 자신이 자기를 어쩔수 없는 사태에 빠뜨려놓고도 거기서 헤여나오려고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되려 거기에 만성이 돼버리군 하지요.》

《?!》

기철의 눈길이 금시 꼿꼿해졌다. 이렇게까지 엇나오리라고는 예상도 못한 그였다.

《그러니까 동문 자기 기술안만이 가장 현실적이라는건가요?》

이렇게 쏘아붙이고 진호를 노려보는 정아의 표정에는 어딘지 모르게 모독적이고 혐오스러운것이 있었다.

《그렇소. 난 그렇게 생각하오.》

《전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포기한 그 안이야말로 가능하지 못할뿐더러 무모한 안이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야 사람나름이지요. 동무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볼수밖에!》

진호의 이 말은 대번에 정아의 비위를 거슬렀다. 자기에 대한 로골적인 멸시를 느낀 그는 자기가 받은 아픔에 대하여 앙갚음할만 한 신랄한 문구를 궁리해내여 툭 내쏘았다.

《좋아요! 저 역시 동무같은 사람이 제 말을 리해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여기엔 분별과 리성이 필요하니까요. 물론 중유절약안에 대한 방조도 바라지 않구요.》

흔히 처녀들이 모욕적인 언사를 썼다고 생각할 때 쓰는 그런 표정을 지으며 정아는 진호를 쏘아보았는데 그의 눈길은 마치 《나를 더

는 무시하지 말아요. 그랬다간 가만두지 않겠어요.》하고 단단히 벼르는상싶었다.

사실 그는 지금 진호에 대한 분노로 하여 가슴이 터질것만 같았다. 의의있는 기술안을 무시하는것도 그렇지만 그토록 자기에 대한 따뜻한 정이 스며있는것을 무자비하게 묵살하려는데는 도저히 참을수가 없었던것이다.

(흥, 제가 뭐라구…)

진호의 방조를 달가와하지 않던 그로서 이런 거절을 응당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것이나 그의 의도가 어떻다는것을 안 이 마당에 와서는 오히려 더없이 분하기만 했다.

한편 진호는 진호대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 처녀가 이처럼 되바라지게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그저 웃음많은 명랑한 처녀겠거니 했는데 보통 암팡진 처녀가 아니지 않는가! 마치 영문모를 뺨을 한대 얻어맞은것 같기도 했다.

(어째서 중유절약안에 그토록 큰 의의를 부여하는걸가? 하긴 내 기술안이 어떤건지 모르니까 이런 절충안에도 매혹될수밖에. 다른게 없어! 하루빨리 내 기술안을 완성하는것밖에! 그래서 실물로 보여주는 수밖에!)

18

갖가지 꽃들이 피여나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하는 이때야말로 누구에게나 일년중에서도 가장 즐거운 계절, 가슴부풀어오르는 기쁨의 계절이련만 쇠물을 끓이는 용해공들에게는 도리여 시름이 시작되는 계절인것이다. 일년 4계절을 줄곧 불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여서 눈덮인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은 모두 여름으로 간주하는데 버릇된 이들이였다.

진호도 벌써부터 앞으로의 시련이 보통 아닐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혔다.

닥쳐올 더위도 더위지만 요즘에 와서는 주위의 분위기를 통하여 자

기가 바랐던 정신적인 희열과 따뜻한 즐거움을 찾기는 어려우리라는 느낌이 드는것이였다. 왜서인지 자꾸만 불안하고 초조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연료의 직접취입을 결심했을 땐 연료에 배합할 첨가제의 성분만 확정해놓으면 되리라고 여겼던것이 그것을 준비해놓은 지금에 와서는 또 연료를 취입할 취입장치가 문제였다. 그 취입장치도 밤패워 설계는 끝냈으나 기술부의 검사를 거쳐 공무직장에서 완성까지 하자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일이 걸릴지 알수 없는 일이였다.

겹쌓이는 난관보다도 그가 더 불안스러운것은 이런 난관을 타개할 자신심이 희박해지는데 있었고 나아가서는 그처럼 가슴깊이 다졌던 애초의 그 결심을 혹시 성사시키지 못하지나 않을가 하는 걱정이였다.

확실히 자기의 생각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현실이였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의도를 알기만 하면 팔을 걷고나서리라 믿었고 그리하여 쉽사리 자기의 지향이 어떻다는것이 증명되리라고 여겼던것이 도와주기는커녕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것이 아닌가! 첨엔 자기의 출현에 일정한 충동을 받은것 같던 사람들도 이젠 기대를 잃고 랭랭한 태도를 취하는것이였다.

《자— 이젠 두달이 지났소. 그동안 동무가 해놓은 일이 뭐요? 당장 일을 칠것처럼 덤비더니… 누군 뭐 동무만 못해서 고생하는줄 아오?》

모두가 이러며 손가락질하는것 같았다. 그런데도 자기는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은채 어떤 대책 하나 똑바로 취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면서 안일무위한 생활에 빠져들어가고있는 이것이 더욱 부아를 돋구는것이였다.

새 연료안추진만이 아니였다. 며칠전부터는 또 하나의 골치거리가 생겼는데 그것은 여태껏 말없이 잘 쓰던 태수의 투사기를 로장이 용해장 한쪽구석에 밀어놓은 사실이였다. 리윤즉 로에 취입되는 가스압이 높아지자 투사기로 분사하는 보수재가 그 가스에 날려 후벽보수를 제대로 못한다는것이였다.

설사 그런 부족점이 있다 해도 태수가 그처럼 고생해 만들어놓은 기계를 부정해버리는 로장의 태도란 너무도 지나친것이 아닌가! 더우기 당장 심사를 눈앞에 두고 그런 배척을 당한다면 평가에 결정적인 영

향이 미치리라는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그가 투사기에 대해 각별히 마음쓰지 않을수 없는데는 출장을 떠나면서 하던 태수의 부탁때문이였다.

《혹시 심사가 있을 때까지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대신 변론을 좀 맡아주게. 도면심사가 아니니까 내가 없어도 일없으리라고 보네. 사실 그 사람들한테야 내보다 동무가 훨씬 유력할테니까.》

《그러니 막후교섭을 하라는건가? 좋아, 걱정말게! 내 힘껏 해볼테니!》

대학때부터 그가 베푼 우애에 비해 너무도 무심했던 자기로서 이 부탁만은 꼭 성실히 수행하는것으로써 친구의 도리를 지키고싶었던것이다. 그리하여 온밤 구체적인 작전을 세운 그는 지금 로장을 찾아가는 길이였다.

창조과정에는 어떤 부족점도 있을수 있다는 일반적인 지역사격으로부터 투사기의 우월성을 론증하는 집중사격을 들이댈 심산이였으나 어딘가 찜찜하기도 했다.

마침 휴계실에서는 로장이 낮교대작업반장과 마주앉아 한담을 하고 있었다. 무엇때문인지 매우 흐뭇한 표정을 짓고있던 그였으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진호를 보고는 곧 이마살을 찌프렸다.

《왜? 또 투사긴가?》

《그렇습니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투사기를 쓰는게 옳다고 봅니다.》

《…》

진호는 마음을 다잡으며 로장을 지켜보았다.

《혹시 보수재반죽을 지금보다 더 굳게 하고 투사압을 높여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봤네만 안돼.》

《그럼 가스를 낮춰도 안돼요?》

《가스를 낮춰? 그렇게 하면 될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할수야 없지 않나.》

마주 쳐다보는 로장의 서늘한 눈길에서 잠시도 열을 떨굴수 없다는 뜻을 알아챘으나 그렇다고 잠자코 있을순 없었다.

《그래야 단 몇분동안이 아닙니까?》

《몇분? 이 사람아, 그 몇분동안에 수백톤의 쇠물이 왔다갔다해! 우

린 입김이라도 더 불어넣고싶은 심정인데 가스를 낮춰?》
《아바이!》
진호는 곧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물론 결함이야 있겠지요. 그렇지만 심사를 앞둔 설비가 아닙니까. 그리고 기계란 흔히 쓰는 과정에 더욱 좋게 완성될수도 있구요.》
《나도 아네, 친구가 만들어놓은 설비니까 자네 맘이 더 간절하다는걸.》
《아니, 전 뭐 그래서가 아닙니다. 전 다만…》
서둘러 이렇게 부인한 진호였으나 갑자기 얼굴이 달아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렇지만 이것 보게. 지금상태의 투사기로 로보수를 한다는건 사실 로벽을 허무는것이나 다를바 없네. 우린 설사 그 기계가 없어 살거죽이 익는다 해도 우리 손으로 후벽을 보강하겠네. 살점을 떼붙이는 한이 있어두 말일세!》
흔연한 표정으로 진호를 쳐다본 우택은 탁자우에 놓여있는 사탕봉지에서 알사탕 한알을 꺼내 입에 넣더니 우드득 하고 씹었다. 호두알도 깨물수 있는 단단한 이발을 가진 로장이라는것을 모르는 진호가 아니였지만 사정없이 박살내여 씹어대는 거기에 자기 의견에 대한 그의 대답이 있는듯싶었다.
아니나다를가 그는 곧 황소처럼 한쪽입귀를 실룩하며 웃어보였는데 그 웃음은 주로 어처구니없을 때만 사용하는것이였다. 이 웃음만 나오면 벌써 어쩔 도리가 없는것이였다.
집중사격이고 지역사격이고 통할리 만무였다.
(이 사실을 알면 태수가 얼마나 괴로와할텐가!)
자기를 쳐다보던 태수의 얼굴이 다시금 눈앞에 나타났다. 순간 그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 투사기는 쓰게 해야 한다. 로장은 단지 있을수 있는 불안전성에 겁을 먹고있을뿐이다! 그거야말로 기술에 대한 무관심이지.)
이렇게 마음을 다지며 휴계실을 나선 그는 사무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공정기사들과 토론해볼 생각이였던것이다.
공장정문으로는 벌써 후야근교대성원들이 떼를 지어 들어서고있었다. 언제나처럼 정문앞에 서있는 방송차에서는 흥겨운 노래소리

가 흘러나오고있었다.

높은 산 험한 령이 우리는 좋아
사나운 비바람이 우리는 좋아
…

(넨장! 그저 좋다는군! 하긴 높은 산이나 험한 령 정도라면 얼마나 좋아! 이건 발붙일 틈도 없는 절벽인데야.)

로장을 생각하며 그는 이렇게 투덜거렸다.

노래가 끝나자 이번에는 처녀방송원의 챙챙한 목소리가 귀청을 긁어댔다.

미래의 용해공들을 키우는 교수교양사업에서 남다른 성과가 있는 어느 유치원의 교양원을 소개하겠다는것이였다. 강철전사들의 투쟁을 고무하기 위해 그의 가족들을 찾아가 취재록음해온 내용을 노래와 함께 섞어 편집한 선동축하방송이였다.

《정말 많은 일을 하셨군요. 래일의 강철전사들을 믿음직하게 키우고있는 동무의 성과를 축하해서 노래를 한곡 선물하렵니다. 어떤 노래를 요청하겠어요?》

《노래요? 제가 뭘했다고… 그래도 들려주시겠다면 〈철의 도시 밤하늘에 붉은 눈이 내리네〉이 노래를 부탁하겠어요.》

걸음을 멈춘 진호는 길가에 있는 파철덩이에 장갑을 놓고 그우에 털썩 주저앉았다. 숱한 노래중에서도 이 서정가요의 은근한 선률과 녀성저음가수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그중 좋아하기도 했거니와 늘 수도에서만 듣던 이 노래를 철의 기지 밤하늘아래서 직접 듣는다는 새삼스러움이 구미를 동하게 했던것이다.

《한데 전 이 노래를 같이 듣고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의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서요.》

그러고보면 교양원도 꽤 다심한 녀자가 틀림없었다.

《좋아요. 누군지 어서 말씀하세요.》

《강철직장에서 새 기술안을 완성하기 위해 분투하고있는 리진호동뭅니다.》

《엉?》

진호는 후닥닥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교양원?)
얼른 머리를 스치는 한 녀자가 있었다. 두손을 모두어쥔채 수집은듯 방그레 웃던 태수의 안해 은심이였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그에 대한 고마움이 절로 가슴속에 꽉 차오르면서 아직 한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류다른 감정이 온몸에 소용돌이치는것이였다.
(고맙소, 은심동무!)
《그럼 강철직장에서 새 기술안도입을 위해 분투하고계시는 리진호동무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현옥이도 이 노래를 좋아했었지.)
불시에 현옥이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는것이였다. 아름찬 일들에 휩싸여 정신없이 돌아치다가도 잠시의 여가가 생길 때면 느닷없이 지나간 추억이 되살아나면서 이상하게도 꼭꼭 한쌍의 눈물에 젖은 맑은 눈길과 부딪치군 했다. 그것은 현옥이의 눈이였다. 눈물이 고인 눈길로 무엇인가 원망하고 나무람하기도 하고 구름에 가리워진 쪼각달처럼 애달픈 미소로 무엇인가 하소연하면서 말없이 자기를 지켜보는 현옥이의 눈이였다.
현옥이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언제나 그 처녀다운 날씬한 어깨우에 자연스레 흘러내린 부드러운 머리칼과 애티나는 맑은 눈을 먼저 그려보게 되는것이였다. 그중에도 매번 자기를 황홀케 하는것은 무엇을 물어볼 때마다 그 대답이 어떤것인가를 미리 짐작하고 짓는 눈가에 새겨지는 다정한 미소의 물결이였다. 그 눈매의 독특한 표정은 그 용모의 섬세한 아름다움과 어울려 잊을래야 잊을수가 없었다.
사실 그는 제철소로 내려오면서 자기가 제일 불안해했던것, 즉 여기 사람들이 자길 어떻게 보며 어떻게 대해줄것인가 하는 근심은 곧 공연한것임을 깨달을수 있었으나 자기가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극복할수 있으리라고 여겼던 현옥이에 대한 생각만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뿐더러 더욱 강렬하게 되살아나는것이였다. 특히 눈내리는 보통교의 란간에 서서 두손에 얼굴을 묻은채 흐느끼던 그의 모습을 상기할 때면 자기가 무엇인가 다시 찾지 못할 귀중하고 아름다운것을 버렸다는 상실감마저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확실히 그는 자기가 현옥이를 잃어버린데 대한 섭섭한 생각을 가슴에서 지워버릴수 없으며 또한 현옥이와 함께 있음으로 하여 맛보았던 행복한 순간들, 그 당시에는 별반 깨닫지 못했던것이 지금에 와서는 온갖 매력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뒤흔들어주는 그 행복의 순간들을 기억속에서 씻어버릴수 없다는것을 알았다. 그에 대한 기억은 흡사 어둠속에서 반짝이는 밝은 점처럼 생생하니 떠오르는것이였다.

(나는 그를 사랑했었지. 순결한 애정으로 진실하게 사랑했었지. 그런데 그는… 아서라! 내가 무슨 생각을… 이제야 다 지나간 일이 아닌가!)

수령님 다녀가신
철의 도시에
…

이윽고 녀가수의 은은한 목소리가 꿈결에서처럼 조용히 울렸다. 마치 자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것 같은 그 고요한 선률은 자기를 부드러운 요람에 태워 어딘가 멀고먼 곳으로 아니, 황홀한 세계로 서서히 이끄는상싶었다.

한 소절의 노래가 이다지도 심금을 울리리라고는 상상도 해본적이 없는 진호였다. 그 하나하나의 선률은 부드러운 눈송이마냥 천천히 가슴속으로, 끝없이 심연속으로 떨어져들어갔다. 떨어져서 수면에 고요한 파도를 일으키며 잠겨들면 수면은 가벼이 일렁이다가 어둠속에서 소리없이 심장을 쿵 하고 울리는것이였다.

…
이밤도 송이송이
눈이 내리네
…

그의 눈앞에는 어느덧 눈덮인 공장과 구내길이 펼쳐지면서 흰눈을 맞으시며 용해장을 찾으신 자애로운 수령님의 영상이 우렷이 안겨왔다. 천천히 로앞으로 다가서신 그이께서 보안경을 드신채 사품쳐오르는 쇠물을 여겨보신다, 오래도록 여겨보신다.

마침내 수령님의 자애로운 안광에 환한 미소가 넘쳐흐른다.

무엇이 기쁘시여 그리도 만족해하시는것일가? 무엇이 흡족하시여 그리도 밝은 미소를 지으시는것일가?

세상에는 물과 불이라는 가장 거대한 힘을 가진 두 자연력이 있다. 그 불과 물이 한데 합쳐진 쇠물이야말로 얼마나 위력한 힘, 아름다운 힘을 가진것이랴! 저것이 어떻게 기계가 되고 대포가 되며 산악을 버티고 설 동발이 된단 말인가! 저 령롱한 구슬이 어떻게 수천톤의 화물선이 되여 대양을 횡단하고 화려한 고층건물의 철주가 된단 말인가! 과연 뉘라서 세상의 억만재부가 바로 저 아름다운 구슬로 쌓여지리라는것을 믿을수 있단 말인가!

끓어오르는 용금에서 부강해질 조국의 미래를 그려보시기때문일가? 아니면 용해공들의 불같은 충정의 마음을 읽으시기때문일가? 아, 어쩌면 우리 수령님 저리도 저리도 기뻐하실가? 다만 끓는 쇠물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시기때문만이 아니리라, 용해공들의 뜨거운 마음을 읽으시기때문만이 아니리라, 저 쇠물이 중유가 아니라 우리의 연료로 끓고 있기때문이리라, 바로 그때문에 그토록 만족해하시는것이리라.

《수령님! 이젠 우리의 연료로 쇠물을 끓이고있습니다. 중유는 한 방울도 먹지 않습니다.》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신 수령님께서 자기를 마주보시는 순간 온 하늘의 꽃송이가 축하의 꽃보라인양 자기를 향해 마구 쏟아지는것이였다. 터질듯 한 행복감으로 하여 그는 일시에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
쇠물보다 뜨거운 충성의 마음
저 하늘에 차고넘쳐 붉게붉게 내리네

진호는 자기가 따뜻한 눈송이에 포근히 싸여있는것만 같았다. 영원히 그속에 묻혀있고만싶었다.

노래를 듣고나서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날수가 없었다.

가슴속에서는 여전히 노래소리가 울려퍼지고있었다.

(내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새 연료를 만들어 우리 수령님께 꼭

기쁨을 올리리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그는 갑자기 딴 사람이 되기라도 한것처럼 힘찬 걸음을 성큼성큼 내디디였다.

퇴근했을줄 알았던 공정기사들이 오늘따라 무엇때문인지 하나같이 다 자리에 앉아있었다. 심각한 표정들로 보아 무슨 심상찮은 일이 있는게 분명했다.

《그러게 내 뭐라던가? 그만큼 천정연화만이라도 갖다놓으라구 얼마나 말했어! 그런데 뭐 보수가 보름은 걸릴거라구? 자, 보란 말일세. 이들이 일을 얼마나 열광적으로 해제꼈나!》

생산을 담당하고있는 성일이가 이렇게 웨치자 식물성기름만 먹고 자란듯이 연약해보이는 리현이가 대뜸 코웃음을 쳤다.

《흠, 열광? 하긴 그런 방법이 기적을 낳을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건 열광이 아니라 오히려 력량과 설비의 무모한 랑비에 불과하다는걸 알아야 하네. 그들은 계획과 로동조직을 무시하고있거던. 그런 열광이야말로 소나기와 같은거지. 그 소나기로 하여 어지러워진 진창이 이제 생산에 어떤 지장을 주게 되는지 두고보게.》

론점은 4호로의 중보수문제였다. 생산담당인 성일이는 계획보다 일찍 시작한 보수가 벌써 끝나간다는것을 긍정하면서 그에 따르는 자재와 설비, 특히 천정연화를 제때에 대주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였고 설비담당인 리현이는 반대로 계획보다 먼저 시작한 보수로 하여 자기 분야에 가해진 피해에 대해 격분해하고있었다.

《도대체 보수를 앞당겨한것이 어째서 력량과 설비의 랑비라는건가? 그게 어째서 생산에 지장을 주구?》

《이걸 보게. 계획에 의하면 4호는 이달 중순에 수리하게 돼있네. 그런데 열흘이나 먼저 시작했지. 그럼 과연 더 가동할수 없는 실탠가? 아니네! 노력하면 얼마든지 견딜수 있었지. 그런데도 로를 깠거던. 그래 이것으로 해서 원료와 연료계획은 물론 수백톤에 달하는 자재가 랑비된다는건 생각지 않나? 공급체계가 마비된건 둘째치고 전반의 생산에 얼마나 지장을 주는가 말일세.》

《지장은 무슨 놈의 지장! 그만큼 수리를 일찍 끝냈으니 절대가동시간은 많을게고 생산도 많아질게 아닌가?》

《이렇게 답답하다구야!》
리현이는 가느다란 목을 설레설레 저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네. 새 로가 축조됐으니 지령실에서는 자연히 원료를 4호에 집중시킬게거던, 직장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것이 생산성이 높으니까. 그럼 다른 로들이 한물 뽑는 사이 4호에선 두물을 뽑지. 일은 쉽고 생산은 배로 오르구. 바로 이걸 노린단 말일세.
다른 로들이 맥을 못 출 때 제꺽 수리해서 자기네만 강행조업을 한다! 이거야말로 중량급선수가 경량급선수를 때려눕히고 1등 하는것과 뭐가 다른가! 그래 생산을 많이 한다고 이런걸 긍정할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뭔가? 직장에서도 이런 현상을 비판할 대신 생산을 잘한다고 도리여 춰주는데 있지. 난 생산을 턱에 걸고 이런 교묘한 수단을 쓰는 4호로를 평가할것이 아니라 도리여 문제를 세워야 한다고 보네.》
담당기사란 자기 부문의 대변자요, 옹호자기때문에 자주 이런 마찰이 있기마련이지만 이번처럼 심각하게 대립되기는 처음이였다.
책임기사는 언제나처럼 책상우에 펴놓은 종이장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그리고만있었다. 그의 이런 태도는 론쟁에 열중하고있을뿐아니라 여느때없이 심사숙고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였다.
새로운 산소강욕취입안의 부분설계가 완성되지 못한것으로 하여 그는 아직 출장을 떠나지 못하고있었다. 그 설계가 완성돼야 기술과의 협조성원들과 함께 현지로 떠날수 있었다.
《옳소! 그들은 틀림없이 그런 방법으로 기적을 낳으려고 했소. 이달 생산평가에서 4호를 제외하는것은 물론 설비와 자재의 소요량을 따져보고 그만큼 변상케 합시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움직일수 없는 힘을 지니고있었다.
《다른 의견들은 없소?》
모두들 잠잠했다.
《다른 문제긴 하지만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선 사람은 기계담당인 장환이였다.
《다름이 아니라 투사기문제지요. 가스압이 증가된것과 관련해서 투사기에 일련의 부족점이 나타난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고열로동을 막기 위해 도입된 새 기계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무턱대고 일축

해버리니 이거야 어디…》
마침이라고 생각한 진호는 대뜸 일어서며 다급히 말했다.
《옳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린 로장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태도를 묵인한다면 앞으로는 어떤 기술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중한 후과입니까? 그리고 이건 응당 대담하게 극복해야 할 사소한 결함에 지나지 않지요. 난 이 문제에 한해서는 조직적으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기술혁명은 기계혁명이기 전에 사상혁명이니까요.》
진호는 마치 자기 말에 그 어떤 의견도 있을수 없다는듯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언제나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있던 그가 오늘따라 웬일이냐는듯이 모두 놀란 표정이였으나 진호는 이렇게라도 말해놓고나니 태수의 부탁은 물론 방금 노래를 선물해준 은심이한테도 어느 정도의 면목은 선듯싶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였다.
《투사기에 대한 의견에는 나도 동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투사기는 쓰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철이도 호응해나섰다.
《전 다른 의견이예요.》
맨 끝자리에 앉아있던 정아가 야무진 눈길로 이쪽을 돌아보는것이였다.
《?》
진호는 은연중 이마살을 찌프리지 않을수 없었다.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우선 우리의 립장, 기술자의 립장에서 옳지 않아요. 사상혁명은 뭐 로장한테만 해당되고 우리한텐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오히려 우리한테 더 필요한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계의 선택은 전적으로 로동자들에게 한하는게 아니예요? 우린 그들의 선택에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을뿐이지요. 그런데 어째서 달가와하지 않는것을 억지로 쓰게 해야 합니까. 그런 강압적인 방법은 자기의 임무에 대한 너무도 피동적인 자세라고 봐요.》
(피동적인 자세?)
그 말이 언젠가 자기가 중유절약안을 두고 한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는것이라고 생각하자 진호는 울컥 화가 치밀었다.

(보복을 하는건가?)

(그래요, 보복이예요.)

마주 쏘아보는 정아의 눈길은 드러내놓고 이렇게 말하는것 같았다.

그때 론쟁이 있은 후로는 마주서지 않았지만 서로가 싸움은 일시 가라앉았을뿐 완전히 끝난것이 아니라는것을 느끼고있었던것이다.

《우린 어디까지나 자신을 위한 립장보다 로동자들을 위한 립장, 공장과 국가를 위한 립장에 서야 한다고 봐요.》

《국가를 위한 립장? 아니, 그럼 우리가 뭐 개인기업을 한다는거요? 자신을 위한 일이자 곧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니겠소.》

《그래도 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뭐가 그렇지 않다는거요?》

성일이와 리현이의 론쟁이 어느새 진호와 정아의 론쟁으로 번져갔다.

《전 투사기에 대한 진호동무의 주장이 용해공들의 립장에서가 아니라 창안자 즉 태수동무의 립장에서만 생각한것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는 당장 심사를 앞두고있기때문이겠지요. 가까운 동무를 도우려면 더 진실하게 도와야잖아요?》

《뭐요?》

진호는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럼 동문 내가 무원칙하게 싸고돈다는거요?》

《그래요.》

정아는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됐소. 조용히 토론합시다.》

분위기를 늦춰보려는듯 어줍은 미소를 띠우는 기철이였으나 그 미소가 진호에게는 어쩐지 불쾌했다. 그것은 마치 정아가 아픈 곳을 건드린다고 해서 뭐 겁낼 필요가 없다는것을 암시하는것 같았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한편으로는 어떤 온당치 못한것을 교묘하게 숨겨온 자기가 그것을 적발당함으로 해서 격분하고있지 않나 하는 일종의 수치감 비슷한것이 온몸을 휩싸는것이였다.

(아니! 난 응당한것을 위해 옳게 행동하고있을뿐이다.)

이렇게 거듭 확신하면서도 그는 왜서인지 얼굴이 달아올랐고 그리하여 정아를 마주볼수가 없었다. 그럴수록 더 화만 났다.

19

밤교대성원들이 올라올 때까지도 진호는 줄곧 기계실의 철판의자우에 멍하니 앉아있었다.

오늘도 그는 취입기때문에 공무직장에 갔댔었다. 공장으로부터 취입기를 제작할데 대한 지령을 받고도 과제가 바쁘오, 긴급지령이 떨어졌소 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오는터여서 오늘은 결판을 내자고 단단히 벼르고 갔던것이다.

《아니, 또 왔소? 소털같이 많은 날에 덤빌게 뭐요. 맘 푹 놓고 기다리구려! 어련히 될 날이 있지 않으리요.》

이런 직장장의 대꾸에 그는 격분이라기보다 어떤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뭘가?)

이런 사람은 따지고들어야 성을 내기는커녕 도리여 능글능글 웃으며 접어드는 법이다. 진호는 그가 누구에게나 이런 태도를 취하리라는것을, 회의에 참가해서도 누구의 토론에도 꼭같이 공감이라는듯이 고개를 끄덕거릴 위인이라는것을 생각하고는 곧 돌아서고말았다.

(하여튼 일은 점점 개판이야!)

교대를 인계받은 작업반장 형묵이가 로상태를 검열하고있는 모습이며 전교대의 중유소비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중유탕크가 설치된 머리부로 올라가는 기남이를 그는 무성영화의 화면처럼 아무런 감각도 없이 바라보고있었다. 공구창고에서 한아름이나 되는 삽을 안고나온 영기가 그것을 현장에 멨다치는 모습을 보느라니 저절로 입가에 쓴웃음이 스쳤다.

(하긴 누구보다 저 영기가 속상할수밖에! 투사기를 쓸 땐 꺼내지도 않던 삽을 요즘은 매일 열자루씩이나 거두어야 하니… 참 말썽이라니, 투사기나 취입기나 다, 투사기에 취입기라… 투사기, 취입기…)

입속으로 몇번이고 이 말을 되풀이하던 그는 저절로 눈이 스르르 감기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끄덕 하고 이마를 쪼았다. 흔히 조는 사람

이 그런것처럼 간신히 눈을 뜬 그는 또다시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투사기, 취입기, 투사기, 취입기…》

그는 스무번도 더 이 말을 반복했다.

이때였다.

꿈이런듯 혼몽한 속에서도 어떤 예감에 소스라쳐놀란 그는 눈을 번쩍 떴다. 그 예감의 불꽃은 곧 번개같은 섬광이 되여 눈앞에 작렬하는것이였다.

《음?!》

그는 갑자기 자기의 심장이 세차게 고동치기 시작하는것과 두귀가 어떤 장벽이 걷히기라도 한듯 모든 음향이 원근의 차이를 잃어버리고 무질서하게 고막을 두드리기 시작하는것을 느꼈다.

《그렇지!》

자리에서 튀여일어난 그는 모든것을 다시한번 음미해보려고 했으나 가슴속에 일어번지는 격정은 그런 생각을 대번에 무시해버리는것이였다. 입에서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고함이 터져나왔다.

《됐어! 됐단 말이요!》

누구에게라없이 이렇게 부르짖으며 용해장으로 달려나가는 그를 용해공들은 눈이 둥그래서 쳐다보았다.

맥을 놓고 투사기우에 걸터앉아있던 영기는 진호가 당장 멱살이라도 비틀것 같은 기세로 마주 달려오는 바람에 벌떡 일어나기까지 했는데 그의 눈은 (아니, 저 사람이 실성한게 아니야?) 하는 기색이였다.

《이것 보오. 반장동무, 연료취입을 투사기로 한단 말이요, 저 투사기로.》

진호는 로옆에 세워놓은 태수의 투사기를 가리켜보였다.

《투사기로?》

《자— 보오!》

발앞에 딩구는 석회석덩이를 집어든 그는 다짜고짜 형묵이앞에 쭈그리고앉아 깔판에 금을 긋기 시작했다.

《1, 2차원료장입실과 압축공기조절기, 연료발브, 글쎄 이 이상 더 적합한 취입기가 어데 있단 말이요. 투사관이 문젠데 그건 구경이 작은 바나로 교체만 하면 되오, 공기조절변은 이렇게 고정해놓고. 자— 투사기의 피스톤이 앞으로 이렇게 나갈 때 뽐프실안의 격막이 이렇게

밀려나가오. 그럼 이때 연료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질게 아니겠소.》
연료가 떨어지는것을 설명할 때 지나치게 힘을 준탓으로 쥐고있던 석회석덩이가 부서져나가자 그는 아예 주먹보다 더 큰것을 골라잡았다.
《이때 뽐프실의 연료가 압축변을 밀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흡입변이 이렇게 열리면서 피스톤을 이렇게 민단 말이요. 그럼 연료가 이 관을 통해 이렇게, 이렇게…》
그는 자기가 하는 말을 누가 막거나 부인이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있는상싶었다.
《그럼 공기와 연료의 배합비는 어떻게 하고?》
형묵이도 어느덧 흥분한 기색이였다.
《흡입변을 이쪽으로 돌려놓고 이렇게 조절한단 말이요. 점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공기압은 3기압이면 되니까…》
《음― 그럴듯해. 내 당장 지령실에 가서 얘길 하지. 우선 제대로 취입되는가 하는것부터 보잔 말이요.》
《가만, 로장아바이한텐 어떡한다?》
한 친구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형묵이를 쳐다보았다. 아무리 교대부직장장이 승인한다 해도 로관리와 관련되는 일에서는 사소한것조차도 로장 모르게 할수 없으며 또 해서도 안된다는것을 누구나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아바인 걱정말라요, 내가 말아요.》
영기가 제법 호기있게 장담해나섰다. 그의 장담이 무슨 소용이랴만 그래도 모두가 한시름을 덜었다는 기색이였다.
《그저 굴뚝에 봉화가 오르지 않게만 해요.》
집에 들어가서도 늘 굴뚝에서 솟구치는 연기를 바라보며 로상태를 가늠하는 로장이였다. 연기의 색갈과 량을 보고도 무슨 강종을 졸이며 누가 로조작을 하고있다는것까지 귀신처럼 알아내는 그였다.
언젠가 한순간의 과열로 굴뚝으로 불길이 나가게 한적이 있었는데 당장 현장에 달려온 그가《이눔들이 어떻게 일을 하게 굴뚝에 봉화가 치솟게 하는거야. 어디 네놈들 코구멍에 불을 달아볼가.》 하는통에 모두들 독수리를 본 병아리처럼 질겁해서 달아났었다.
진호가 사무실에 뛰여가 시험일지며 자료들을 가지고오는 사이 용

해공들은 벌써 투사관을 손질하고있었다. 역시 결심만 하면 행동에는 단호한 사람들이였다.

량쪽에 있는 중유취입관중에서 한쪽만은 새 연료를 취입할 투사기를 설치하는것이였다.

(고맙네, 태수! 동무가 아니였다면 정말… 돌아오면 내 한상 단단히 내지!)

진호는 취입을 통해 확증해야 할 요점들을 재빨리 머리속에 새겨보았다. 우선 연료의 열량을 가늠해야 한다. 물론 단번에는 알아내기 어려운 일이지만 가능한한 새로 배합한 첨가제의 효률이라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연료의 취입량을 중유와 등가한 량으로 하자. 연소될 때 생성물이 어떤 궤적을 따라 류동하는가도 알아보자.

맞춤하니 가열된 연료를 장입실에 쏟아넣고 투사기에 련결된 배관들을 검열할 때까지도 진호는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꿈을 꾸는것 같았고 어떤 환각속에 있는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엄연한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었는데 그것은 가슴속에 스며드는 불안의 그림자였다.

(만약 이번에도 실패하면?)

이런 공포가 그전 일들과 어울려 가슴을 압박하는것이였으나 그것도 미처 오래 새길 여유가 없었다. 어쨌든 승패가 달린 한알이다. 아니, 운명이 달린 한알이다.

그는 마치 수만관중의 시선을 받으며 문지기와 1 대 1로 맞선 그런 흥분을 온몸에 느꼈다.

이윽고 심판의 호각소리같은《삐ㅡ》하는 변경신호가 울렸다. 그 신호가 그대로 전류가 되여 자기의 심장을 지지는것 같았다. 이제 발브만 틀면 서쪽에서 취입되던 중유대신 새 연료가 동쪽에서 취입되는것이다.

천천히 투사기앞으로 다가선 진호는 스스럼없이 투사기의 취입발브에 손을 올렸다. 심장은 언제나 현실보다 결단성이 있다는것을, 그것은 온갖 동요를 일축해버리고 언제나 새길로 용감하게 뛰여들게 한다는것을 그는 체험을 통해 알고있었다.

(덤비지 말고 침착하게.)

그는 조절변을 틀어쥔 손에 지그시 힘을 주었다. 가스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변경되는 첫 순간 벌써 그는 화염색갈이 중유때보다 어둡다

는것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영기에게 연료의 취입량을 높여보라고 신호했으나 여전했다. 산소량을 높여보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광온계의 바늘은 1 770도에서 점차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가스!》
계기실을 향해 소리친 진호는 다시 광온계로 화염을 투시했다. 역시 바늘은 1 765도에서 아래로만 미끄러지고있었다.
《취입량을 적게! 천천히!》
그는 흠칫했다. 그 어떤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미세하고 순간적이여서 착각이 아닌가싶을 정도였다. 아니나다를가 바늘도 한자리에 멎어있었다. 1 762도였다. 그러니 연료의 연소효률이 산소만 아니라 가스와도 련관돼있다는건가? 아니, 가스만 아니라 공기와 산소의 호상배합비에 따라 달라진다는게 아닌가! 바로 그 배합의 일반적인 법칙성을 찾아내야 한다!
《저 화염폭을 보우.》
옆에 다가선 한 친구가 팔굽을 다치며 놀랍다는듯이 말했다. 연료의 비중이 중유보다 무겁기때문에 화염이 뜨지 않고 용금에 직접 미친다는 뜻이였으나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의 시험을 통해 확신하고있는 진호였다. 연료의 우점의 하나가 바로 그것이였던것이다. 그런데 어째선지 벌써 변경신호가 났다.
변경주기가 지내 빠른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 계기실을 돌아보니 웬걸 어느새 왔는지 변경변조작스위치를 틀어잡고있는 교대부직장장이 형묵이에게 벼락같은 소리를 지르고있었다.
《도대체 정신이 있소? 이게 뭐 동무네 집 밥가마가 하오? 엉?》
푸접이 좋기로 소문난 형묵이였으나 너무나도 험악한 부직장장의 기상에 기가 질렸는지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입만 쩝쩝 다셨다. 보매 승인을 얻으러 갔던 형묵이와 지령실에서부터 옥신각신한 모양인데 로에서 취입하고있는것을 보고는 화가 동해 달려온 부직장장인것 같았다.
《로설비만은 공장의 승인없이 발브 하나 다치지 못한다는걸 모르오? 모르는가 말이요?》
소리칠 때마다 그의 입안은 온통 현란한 금빛으로 번쩍거렸다.
진호는 얼른 그에게로 다가갔다.

《부직장장동무! 시험은 제가 하자고 해서 한것이지 형묵반장한테는 잘못이 없습니다.》

《동무가 뭐요? 직장장이요, 지배인이요?》

도끼눈을 한 부직장장은 진호를 당장 찍어넘길듯이 꼬나보았다. 언제나 정도이상으로 격하군 해서 아무 말이나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직장장이라는것을 알고있는 진호는 더없이 공손한 태도로 말했다.

《사실 이건 시험이라기보다 실험에 불과하지요.》

《실험? 실험이면 실험실에서 할노릇이지 왜 여기서 야단이요, 야단은!》

《이걸 보십시오. 이미 실험을 통해 많은걸 알아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성냥가치를 만들었는데 그걸 시험해보는것과 같지요. 여태까지는 만들어놓고도 그걸 켜볼 성냥판이 없었기때문에 시험을 못했지만 이젠 그 성냥이 얼마만 한 열을 내는가 하는것도 알아봐야 되잖겠습니까. 방금 취입해보니 생각보다…》

《글쎄 안된다지 않소! 안된단 말이요.》

두부모 자르듯이 손을 홱 내리그은 그는 무엇때문인지 진호에게 손바닥을 내밀어보였다. 무슨 뜻인지 몰라 진호가 마주 쳐다보자 그는 이제까지 성내던 사람같지도 않는 어조로 말했다.

《한대 없소?》

마치 누구든 자기를 화나게 한 사람은 응당 담배를 권해야 한다는듯 한 태도였으나 진호는 그의 행동에 어떤 여지가 있을수도 있다는것을 느끼고 얼른 주머니에서 《제비》담배를 꺼내 갑채로 맡기였다.

《그저 한두주기만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1시간이면 됩니다. 생산에 지장을 주거나 설비를 혹사하는 일이 없을테니 안심하십시오.》

부직장장은 아무 대꾸도 없이 담배만 빨아댔다.

《부직장장동무!》

진호는 한걸음 더 그에게로 다가섰다.

《첨엔 열이 떨어지더니 연료취입을 조절하니까 뚝 멎더란 말입니다. 이건 보충연료와의 배합비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지요. 확실히 새로 만든 성냥은…》

《제발 그 성냥이요, 성냥곽이요 하는건 주머니에 넣어두우.》

그는 마치 이렇게 하라는듯이 쥐고있던《제비》담배곽을 통채로 자

기 웃주머니에 훌쩍 집어넣고는 지령실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니, 담배는 왜 가지고가!》
옆에 있던 형묵이가 어처구니없다는듯이 중얼거렸다.
(과연 이다지도 힘이 든단 말인가!)
걸음마다 앞을 막아서는 암초에 진호는 화가 동해올랐다. 침체와 보수는 배겨낼래야 낼수 없으리라고 믿었던 현실에 대한 자기의 짐작이 한갖 유치한 공상에 지나지 않음을 다시금 통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다면 도대체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질것인가! 새 연료안을 앞당기기는 고사하고 도리여 이런 구태의연한 분위기에 묻혀 영영 매장되고말것이 아닌가!)
순간 그는 몸을 떨었다.
(아니다! 이걸 극복해야 한다. 바로 이 질식을 뚫고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취입시험을 해야 한다! 오직 그 길만이 새 연료안을 완성하는 길이고 혁신을 이룩하는 길이다.)
불현듯 어떤 저돌적인 흥분이 그를 세차게 사로잡는것이였다.

며칠이 지난 어느날 진호에게는 마침내 기다리던 기회가 차례졌다. 고집이 소발통같은 교대부직장장이 대휴를 받은데다가 작업공정도 취입시험을 하기에 좋은 가열기에 맞다들렸다.
사실 공장의 승인도 승인이지만 그보다 로장의 허가를 어떻게 받을가 하는 생각에 더 암담해있던 진호는 아무래도 로장이 지키지 않는 후야근교대때 시험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결심하고 짬짬이 취입준비를 갖추어놓았던것이다.
《자, 빨리!》
형묵은 취입구에 투사기를 설치하고있는 작업반원들을 다몰아댔다.
어떤 일에 부딪쳐도 행동을 먼저 한 다음에야 말로 설명하는데 버릇된 형묵은 진호와 어딘가 일맥상통한데가 있었다. 그를 만나는 첫 순간부터 진호는 그가 무엇인가 일단 마음먹기만 하면 그 희망을 달성하기까지는 억척스레 매여달리며 그것이 뜻대로 안되는 경우에는 매일처럼 아니, 매 시간마다 달려와서 종당에는 한소동 일으키고야말 그런 형의 청년이라는것을 알아차렸다.
사람들은 그의 너무나도 엉뚱한 행동에 자주 놀라군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든 그는 《할수 없지요 뭐》, 《욕을 먹지요 뭐》하고 은연히 대꾸하군 했다. 그래서 용해공들은 그를 《태평반장》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공장대학 3학년생인 그는 대학에서도 많은 일화를 남기고있었다. 강사의 물음에 제일먼저 일어서는것은 그였지만 언제나 대답은 틀린다는것이였다.
언젠가 사회과목시간에 선생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질문하자 그는 대뜸 일어서서 《사회주의 쁠류수 전기홥니다.》하고 자신있게 대답했다는것이다.
《그럼 사회주의는 뭐요?》
다시 이렇게 묻자 그는 주저하는 빛도 없이 《거야 공산주의 미누스 전기화지요 뭐.》하고 대꾸해서 선생과 학생들이 배를 그러쥐게 만들었다는것이다. 그만치 엉뚱하고도 배포가 유한 친구였지만 언제나 직장간부들과는 엇서기가 일쑤여서 자주 비판무대에 나서군 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렇다고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뿐더러 회의때마다 그를 두들겨패는 일군들조차 급한 정황이 생기거나 중요한 일이 생길 때면 그를 먼저 찾는것이였다.
이윽고 조립된 투사기로 연료를 취입하기 시작했다.
진호는 처음부터 연료의 취입량을 조절하면서 화염온도를 주시했다. 우선 가스와 산소의 취입량을 고정시켜놓은채 연료량을 증가시켜보았다. 그러나 이렇다할 변화가 없었다. 이번엔 반대로 취입량을 점점 적게 해보았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때 로앞에 바투 서있던 형묵이가 갑자기 환성을 지르다싶이 했다.
《아니, 저걸 보오, 저 화염색갈을!》
진호는 얼른 광온계를 눈에 갖다댔다. 까딱하지 않던 바늘이 1 770도에서 미미하게 상승하고있는것이 아닌가!
(그렇지! 이건 바로 연료의 취입량과 온도가 서로 비례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문제는 보충연료와의 적합한 배합비를 찾는데 있다. 그 배합비도 보충연료들이 중유취입때보다 적어야 하며 그러면서도 필요한 온도를 얻을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자면?)
그는 자기의 생각을 되새겨보는 순간 다시말해서 자기의 구상을 확증해보는 순간 모르긴 해도 자기가 확신하고있는것이 옳으리라는것을 본능으로 느꼈다. 하지만 이런 확신은 찰나에 불과했다.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았는데 로내 온도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였다.

진호는 곧 발브의 조절이 없이도 취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연료량이 점차 많아질수 있다는것을 짐작하고 얼른 연료를 적재해둔 장입실에 올라섰다. 아니나다를가 엄청나게 많은 연료가 취입되고있었다.

(혹시 지나친 취입이 도리여?)

이런 의혹은 그를 곧 새로운 흥분으로 휘몰아갔다.

(취입량이 많아도 열이 떨어질수 있지! 있고말고! 그래! 다음주기엔 이걸 확인하자!)

변경신호가 날 때에야 그는 자기 몸이 흠뻑 젖어있다는것을 알았다.

《후—》

장입실턱에 허리를 얹은 그는 취입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다시 되새겨보며 련관된 고리를 하나로 이어보았다. 그러나 아직은 많은것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돼있었다.

그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미지근한 땀방울이 가슴이며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다시금 《후—》하고 긴숨을 내쉬며 목에 건 수건으로 흐르는 땀을 씻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였다.

갑자기 귀를 멍멍하게 하는 요란한 폭음에 이어 자기 몸이 공중까마득히 솟구쳐오르는것을 그는 똑똑히 알았다.

《꽝!》

무엇을 가릴 사이도 없이 또 한번의 폭음과 함께 자기 몸에 특히 한쪽어깨에 무자비한 타격이 가해지는것을 이번에는 꿈속에서처럼 어렴풋이 느꼈던것이다. 그다음부턴 아무 생각도 감각도 없었다. 다만 주위의 모든것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하고 적막할뿐이였다.

20

그는 웅근 이틀이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오늘이 사흘째였다. 방금전부터 그는 자기 눈앞에 나타나 맴돌이치기 시작하는 반점들, 빨갛고 파랗고 노란 색갈의 반점들과 맹렬히 싸우고있었다. 커졌다가는

작아지고 작아졌다가는 다시 커지는 그 반점들은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회오리속에 자기를 몰아넣고는 까마득히 높은 하늘로 치솟아오르게 하는가 하면 갑자기 천길 아득한 나락으로 멨다꽂기도 했다. 그때마다 그는 아츠러운 비명을 지르며 까무라치군 했다. 그러기를 몇차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영영 사라진듯싶던 반점들이 다시 먼곳에서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기를 아까처럼 어지럽히지는 않고 조심스레, 마치 안개처럼 차분히 자기 주위를 감도는것이였다. 뜻밖에도 그 요지경같이 현란한 장막을 헤치고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한 녀인이 자기앞에 조용히 다가서고있었다. 어머니였다. 수수한 치마저고리를 입고있는 어머니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사려깊고 인자했다.

다정한 목소리로 무슨 말인가 속삭이는데 통 알아들을수가 없었다. 눈에는 눈물이 어려있는것 같기도 했다. 무엇때문인지 어머니의 표정은 삽시에 돌변하는것이였다. 온화한 기색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노한 눈길로 무섭게 쏘아보는것이였다.

《안돼! 안되고말고.》

연방 엄한 질책을 퍼붓기만 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자기에게가 아니라 방 아래목에 앉아있는 진희에게 하는 꾸중이였다.

《용서할수 없어! 절대로 널 가만두지 않을테야!》

진희는 방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울기만 했다.

《왜 그러니?》

얼른 자기에게 매달린 진희였으나 말은 못하고 그냥 흐느껴대기만 했다.

《무엇때문이야? 글쎄.》

긴 속눈섭에 내려덮인 눈시울로는 뜨거운 눈물만 줄지어 흘러내리고있었다.

《자— 눈을 뜨고 말해봐, 어서!》

눈물에 젖은 눈을 조심스레 뜬 진희가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또다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누이동생이 어느새 다른 처녀로 변해있기때문이였다. 금시까지 눈물을 흘리던 처녀가 방그레 웃기까지 하는것이 아닌가!

《아니?》

그 처녀가 누구라는것을 안 순간 진호는 한걸음 뒤로 물러서지 않을수 없었다.

《저예요.》

《?》

마주 서있는 처녀는 아무리 봐야 현옥이가 틀림없었다.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섭을 바르르 떨면서 곁에 바싹 다가서더니 타는듯 뜨거운 입김을 들씌우면서 자기 목에 매달리는것이였다.

《보고싶었어요, 정말.》

진호는 저도 모르게 그를 그러안고 힘껏 애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째선지 돌연 현옥이가 자기 품에서 빠져나가려고 안깐힘을 쓰는것이였다.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한사코 자길 떠박지르는것이였다. 가슴을 주먹질까지 하는것이였다.

《눈을 떠요! 정신을 차려요.》

진호는 정말 누군가가 자기의 가슴을 흔들고있다는것을 느꼈다.

천천히 눈을 뜬 그였으나 첫 순간엔 뭐가 뭔지 분간할수가 없었다. 다만 육안으로 쇠물을 볼 때와 같은 그런 강렬한 빛이 동공을 찌를뿐이였다. 차차 사람들의 희미한 모습이 얼른얼른하는데 그것도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기렌즈를 볼 때처럼 온통 뿌옇기만 했다.

(왜 이럴가? 어째서 제대로 보이지 않을가?)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희미한 망막속에 어머니와 진희의 모습이 떠올랐다.

문득 현옥이에 대한 생각에 미치자 은연중 지나간 일들에 대한 구슬픈 선률의 추억이 가슴을 헤집는것이였다. 자기가 사랑하였고 자기를 사랑한 그 미모의 처녀가 자기에게 준 가지가지 감정의 신비로운 세계가 몽롱하게 떠올랐다. 그러면서 그 처녀에게서 받은 모욕과 그 모욕에서 흘러나온 분노와 반감도 기억에 새로왔다.

(잊자! 이젠 다 잊어버리자! 아무래도 우린 그렇게밖에 될수 없는걸.)

한쪽으로 돌아누우려던 그는 갑자기 어깨를 찌르는 동통으로 하여 그만 비명을 지르고말았다. 그제야 그는 자기의 상체가 붕대에 감겨있다는것을, 상체만이 아니라 머리며 얼굴에도 온통 붕대가 동여져있다는것을 알았고 자기를 둘러싸고있는 사람들이 의사들이라는것도 알

아보았다.
(그러니 내가 병원에 와있는가? 어째서? 참! 투사기로 취입시험을 했었지, 1 760도까지 올랐던가? 아니, 그보다 더 상승했어!)
그의 머리속에는 취입시험을 하던 때의 일이 점점 선명하게 되살아올랐다. 그러자 곧 새로운 흥분이 심장의 박동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는것이였다.
(확실히 이전보다 첨가제의 질이 좋아졌어. 그만하면 배합도 괜찮다는걸 의미하지 않는가! 아니! 아직은 그런 결론은 일러! 그건 보충연료의 덕택일수도 있으니까.)
그는 자기의 부상이 어느 정돈가 하는것보다 자신에 대한 어떤 자랑스러운 감정에 도취돼있었다. 마치 경기에서 결정적인 한알을 넣고 부상당했을 때와 같은 기분이라고 할가,
(그래도 이 친구가 돌아오면 시까슬러대겠는걸? 호케이선수가 언제부터 자유락하선수가 됐느냐고, 넨장!)
그는 자기 몸이 공중에 솟구쳐오르던 때의 광경을 되새겨보았다. 압의 반출, 연료의 폭풍, 굉장한 폭음과 함께 자기 몸에 미치던 드센 타격!
(과연 무엇이 그리도 요란한 소리를 냈을가? 압의 반출로만 그런 굉음이 날리는 없지, 확실히 뭔가 터지는 소리였어. 분명 어떤 쇠붙이가 깨지는 그런 소리였어. 뭘가? 혹시 투사기가?)
투사기생각에 이른 그는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다.
(뭐, 투사기가?)
후닥닥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그는 다시금 드센 망치로 얻어맞는것같은 아픔이 뒤통수에 미쳤으나 이번에는 그걸 가릴 여유가 없었다.
(아니, 그게 어떤거라구? 태수가 얼마나 고심해 만들어놓은것이라구. 아니야! 그 육중한 설비가 어떻게 파괴된단 말인가!)
하나 리성은 이런 믿음을 삽시에 부인해버리는것이였다. 불안은 점점 어떤 확신으로 굳어졌고 그 확신은 또 무서운 절망으로 번져졌다.
(아—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친구가 그토록 고심해 만들어놓은 기계, 그것도 심사를 부탁하기까지 한 투사기를 파괴하다니! 세상에 이렇게 무례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변론을 당부하던 태수의 표정이 되살아나는가 하면 걱정말라고 장

담하던 자기의 모습이 상기됐다. 그러나 보다 더 똑똑하게 들려오는 것은 량심에 대해 력설하던 자기의 목소리였다.

《난 바로 그걸 증명할테네. 우리 생활에선 순수한것만이, 오직 성실한 량심만이 승리한다는걸 말일세. 그 진리가 누구한테 있는가 하는걸 똑똑히 보여줄테란 말이네.》

(그러던 내가 이젠 도리여 한푼의 량심도 없는 인간이라는것이 증명된것이 아닌가! 자기를 위해서는 친구의 성과까지도 서슴없이 해치는 그런 비렬한으로 된것이 아닌가!)

이미 자기를 그런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더욱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았다.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저절로 신음이 터졌다. 그 신음은 상처의 아픔으로 해서가 아니라 만회할길 없는 실패로 하여 그처럼 이루어보려던 소원이 사라져버렸다는 허무감과 몸을 깨면서까지 자기의 진정을 증명하려고 했건만 오히려 친구의 성과까지 해친것으로 하여 더 험한 구렁텅이에 빠졌다는 괴로움이 심장을 아프게 비틀어짜기때문에 새여나오는 소리였다.

21

세상에 자기처럼 불행한 처녀가 어데 있을가? 자기처럼 지꿎은 운명의 장난에 희롱당하는 처녀가 또 어디 있을가 하는 생각으로 하여 현옥이는 숨이 다 막혔다.

제철소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진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였다.

《글쎄 몰래 시험했지요 뭐. 그래서 문제가 더 커졌답니다. 공장에서는 지금 야단이예요. 그런데다가 심사를 앞둔 태수동무의 투사기까지 파괴했으니…》

태수를 찾아갔으나 그가 출장을 떠나고 없는것으로 하여 할수없이 직장사무실에 들렸을 때 자기를 맞아준 통계원처녀가 하던 말이였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가 느낀것은 까무러칠듯싶은 경악도 경악이였

지만 보다는 자기가 왜 한발 먼저 오지 못했을가 하는 뼈저린 후회였다. 며칠만 먼저 왔어도 진호에게 결코 그런 불상사가 없었으리라고 믿게 되는것이였다.

제철소로 떠나오기 전에 그는 진호가 어떻게 지내고있는가를 알기 위해 동창들중에서 제철소와 밀접한 련계가 있는 부문에서 일하는 동무들을 만나보았던것이다. 그들의 말을 통해 진호가 여전히 새 연료안에 몰두하고있다는것을 알았을 때 놀라움도 컸지만 보다는 역시 그는 자기 희망을 쉽사리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결코 오빠가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일종의 믿음으로 하여 가슴이 후더워오르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곧 많은 사람들, 특히 연료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통해 점점 불안으로 확대되였던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진호가 하는 일을 두고 진심으로 걱정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물론 절실한 과젠것만은 사실이요, 그래서 또 그만치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 어디서도 해본적이 없는 그걸, 그것도 혼자힘으로 해보겠다는것이 좀 무리가 아닐가? 이젠 국가적으로도 중유를 맘대로 쓸수 있는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럴 때야말로 덤비지 말고 과학의 매 단계를 차곡차곡 밟아나가는게 어떨는지…》

이런 충고는 현옥이에게 많은걸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게 했다.

(사실 무엇때문에 아직 파악도 없는것을 도입하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있단 말인가! 생산에 지장을 받는것도 아니고 당장 수행하라는 급한 지시가 있는것도 아닌데!)

사정이 그렇다는걸 모르지 않을 진호가 왜 그토록 그 기술안을 고집하는지 현옥은 짐작이 갔다. 그것은 이미부터 해오던 일에 대한 미련도 미련이지만 그 기술안으로 해서 받은 수모와 울분이 그에게 이젠 아무것도 가리게 하지 않는 처지에 몰아넣고있다는 확신이였다.

(그래! 틀림없어! 그것때문에 그는 자기를 더 과격하게 내모는거야! 가자! 이제라도 가서 그를 타이르자! 현실을 랭정하게 봐야 한다고, 지나친 감정으로 자기를 내몰지 말라고.)

이런 생각이 들자 그런 권유는 오직 자기만이 할수 있다는 의무감까지 솟구쳤던것이다. 물론 자기의 출현이 그를 괴롭히는것으로 되지 않을가 하는 우려, 즉 배신한 처녀를 마주하게 될 때 느끼게 될 진호의 수치와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것은 아니였지만 그런 걱정에

비하면 그를 만나고싶은 충동이 너무도 불같았다. 그가 자길 어떻게 대하며 지나친 모멸감이 분노로 폭발하여 혹시 무례한 행동으로 망신시키지나 않을가 하는 위구따위도 문제로 되지 않았다.

다만 그를 만나기만 하면 항시 끈덕지게 자기를 괴롭히는 형체모를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여 사소한 구속도 느끼지 않고 살수 있고 그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수 있으리라는 그 하나의 기대가 모든 불안과 근심을 일소해치웠던것이다. 그래서 부랴부랴 내려왔건만 바로 이틀전에 그가 사고를 내고 중상까지 입었다니 무슨 운명이 이렇게도 가혹하단 말인가! 어쩐지 이제 와선 진호가 그런 사고를 낸것이 마치 자기가 한발 늦게 도착한탓으로 빚어진 후과같아 눈앞이 깜깜해지기만 했다.

(투사기를 파괴한데다가 분출구까지 허물어 로를 수리하지 않으면 안되게 했다니 이번엔 필경 무사치 못할거야. 더우기 한번도 아니고 두번째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는 진호를 두고 하던 오빠의 말이 상기됐다. 진호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되나 두고보라던, 그런 사람은 집단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였다. 아무리 괴로와도 상기하지 않을수 없고 상기할수록 그 말은 현실에 그대로 증명되고있다는것을 의식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를 만나야 하나? 만나지 말아야 하나?)

그제야 너무나도 단순한 생각으로 제철소에 내려온 자신의 소행이 돌이켜졌다.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을수 없고 잊으려고 할수록 도리여 더더욱 간절히 되살아나는 진호의 모습이 못 견디게 보고싶어 내려온 그였다. 단 한순간 먼발치에서 얼핏 보기만 해도 자기의 괴로움이 덜어질것 같았고 모든 의혹이 가슴속에서 씻은듯이 사라지리라고 여겨 달려온 그였다. 더우기 그가 오빠가 말하는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을 안고싶은 충동이 그를 기차에 태웠던것이다. 한데 사태는 자기가 바라던바와는 너무나도 반대가 아닌가!

(만나야 하나? 만나지 말아야 하나?)

그는 또다시 이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처지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난감하다 해도 그를 만나지 않고는 돌아갈수 없다는것을, 자기의 출현이 자기뿐아니라 그

에게도 괴로우리라는것을 여겨 만나지 않고 간다면 후에 자기 맘이 몇배 더 고통스러울것은 물론 두고두고 자신을 후회하리라는것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진호가 입원해있는 제철소병원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놓았다.

그 시각 진호는 침대에 드러누워 앞으로 자기에게 닥쳐올 일들을 불안한 마음으로 점쳐보고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막연하기만 했다. 그럴수록 자신에 대한 멸시와 함께 여태껏 가슴속에 고여있던 묵은 상처의 아픔까지 되살아나는것이였다.

(하긴 나같은 놈이 연구는 무슨 연구란 말인가! 밤낮 손가락질만 받는 처지에 희망은 무슨 희망이고. 자길 위해서는 친구의 성과까지도 서슴없이 해치는 놈이 량심은 또 무슨 량심이란 말인가!)

누구를 탓할것도 없었다. 모두가 제 불찰이고 제 잘못이였다.

(연료연구는 고사하고 이젠 공정기사로도 둬두지 않을게다. 아니, 직장에서 내쫓을지도 모른다.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한다?)

밤낮 쫓겨다녀야만 하는 자기의 처지가 스스로도 가련하고 역겨웠다.

이때 그는 출입문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을수 없었는데 누가 방안으로 들어와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선을 끄는 일이 있어서도 아니였다. 다만 그쪽으로 돌아보지 않을수 없게 하는 그런 내적인 충동이 일었기때문이였다.

순간 그는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여태까지 비여있던 출입문 옆의자에 웬 처녀가, 곤색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어떤 처녀가 앉아 고개를 숙인채 어깨를 떨고있는것이 아닌가!

《?!》

처녀를 여겨보던 그는 더욱 놀랐으나 너무나도 어이없는 자기의 착각에 곧 랭소를 머금고말았다.

(정신이 나갔지. 도대체 무엇때문에 그가 여기에 나타난단 말인가!)

어제 꿈에서 보았던 환각이 재현된것이라고 여기며 그는 다시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는 곧 어떤 흐느낌소리,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참을수 없어 터져나오는 그런 흐느낌소리에 놀라 재차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다.

(아—니?)

그제야 두손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고있는 처녀가 누구인가를, 자리에서 일어나긴 했으나 정작 발걸음은 떼지 못하고있는 처녀가 누구라는것을 그는 똑똑히 알아보았다. 그랬다. 그는 틀림없이 현옥이였다.

두눈에 눈물을 가득 담은 현옥이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있었다. 공포에 질려 얼굴을 두손에 묻었다가는 묻었던 얼굴을 다시 들고 할뿐이였다.

《어쩜 동문… 어쩌면 이렇게까지…》

토막토막 끊어지는 그의 목소리는 당장 통곡이라도 터뜨릴것만 같았다.

그래도 병원에 올 때까지만 해도 될수록 태연한 태도를, 지어는 자기를 기만했던 진호에게 어느 정도 못마땅하게 여기고있다는것을 보여주려고 맘먹었던 현옥이였으나 정작 요드냄새가 코를 찌르는 입원실에 들어서서 벽에서 조금 떨어진 침대우에 머리와 상체를 온통 붕대로 감고 누워있는 그를 보느라니 그 결심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울음이 북받쳐올라 견딜수가 없었다. 특히 붕대밑으로 삐여져나온 굽실굽실한 머리카락과 피골이 상접한 그의 안면을 보느라니 살을 에이는듯 한 련민의 정으로 하여 가슴이 찢어지는것이였다.

(과연 저 사람이 그란 말인가! 그처럼 억센 근육을 자랑하던 그란 말인가!)

이제 와선 그가 겪는 모든 불행이 다 자기때문인것만 같았다.

그가 제철소에 내려온것도, 내려와 무리한 시험을 한것도 그리고 엄청난 사고를 내고 이런 처참한 상태에 처해있는것도 다 자기탓인것만 같았다. 전에는 그가 자기를 괴롭히고 불행에 빠뜨렸다고 원망했으나 지금에 와선 자기가 바로 그를 이런 처지에 빠뜨렸다는 생각을 지울길이 없었다. 당장 그의 발밑에 엎드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두손모아 빌고싶기만 했다. 생각같아서는 당장 그의 가슴에 파고들며 《동무에 대한 사랑을 이기지 못해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온 저

예요. 그런데 어째서 동문 이런 몸이 되여 따뜻한 손길 한번 내밀어 주지 않아요. 어째서 다정한 미소 한번 던져주지 않나 말이예요.》하고 몸부림치고싶기만 했다.

《…》

진호는 아직도 자기가 어떤 착각에서 깨나지 못하고있지 않나 하는 의혹에 잠겨있었다. 침대모서리를 움켜잡고 흐느끼는 이 처녀가 현옥이라는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아니, 믿을수가 없었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점점 뚜렷이 느끼지 않을수 없었는데 그것은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그 감미롭고 부드러운 현옥이의 목소리가 갈가리 터갈라진 자기 가슴을 따뜻이 감싸주면서 일시에 온몸의 피를 설레게 한다는 그것이였다. 그런 느낌은 곧 현옥이에게 《난 사실 한순간도 동무를 잊은적이 없었소.》 하고 소리치며 뜨겁게 안아주고싶은 충동으로 변하는것이였다. 설사 아직까지 현옥이가 자기의 과실이 무엇이라는것을, 자기를 의심한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였다는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좋았다. 다만 자기를 찾아 내려왔다는 이 사실, 어째서 이렇게 되였느냐는 그 한마디 말에 그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주고싶었다.

이제 와서야 그는 그때 자기가 현옥이에게 결별을 선언했고 그것을 태수에게도 종지부라고 단언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에 지나지 않았다는것을, 속으로는 언제나 그를 생각하고있었으며 또 그와 다시 만나 뜨겁게 포옹할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마지않고있었다는것을 절실히 깨닫지 않을수 없었다.

《낮차로 왔소?》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물었으나 현옥이는 대답대신 고개만 끄덕이였다.

《거기 동무들은 다 잘 있소?》

《네.》

비로소 자기가 눈물만 흘리고있어서는 안될 처지라는것을 깨달은 현옥은 손수건으로 눈굽을 훔치면서 오던 길에 사들고온 과일이며 사이다를 꺼내놓았다. 그리고는 그사이 자기 직장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평양에 있는 동무들에 대해 또 흔히 문병 온 사람이 환자의 기분을 위로할 때 하군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현옥은 그 얘기가 자기들과는 인연이 없으며 아무런 의의도 가지지 못하는것이라는걸 알았다.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것은 단지 자기들사이에 놓여있는 본질적인 문제, 즉 헤여진 다음에 겪은 고통이며 그 과정에 얻은 결론, 특히는 자기의 내심을 밝히기 꺼려해서 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자신은 물론 진호도 벌써 다 짐작하고있다는것을 눈치채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이윽고 의자를 들어 침대옆에 놓은 현옥은 거기에 걸터앉으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여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전 가끔 동무가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 많을가 하고 생각해보군 했어요. 그러나 제가 상상해본 동무의 고통이란 아무것도 아니군요. 아무것도 아니라는것을 전 오늘에야 똑똑히 알았어요. 과연 동무일은 어쩌면 모두…》

자기 목소리가 다시 젖어들기 시작하는것을 느낀 현옥은 잠시 사이를 두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보다 절실히 느낀건 동무가 자기에 대해 너무나도 가혹하다는거예요. 확실히 동문 언제나 자기스스로가 자신을 그런 처지에 내몰군 하지요. 의식적으로 말이예요. 저도 동무가 바라는것이 뭔지 모르지 않아요. 그걸 꼭 해야 한다는것도 알고요. 그렇다고 그런 모험까지 할건 뭐예요? 어째서 누구나가 아직은 실현하기 어렵다고 하는걸 그렇게도 무리하게 시험하나 말이예요. 전 이 말만은 꼭 해야겠어요. 아니, 이 말을 하자고 왔어요.》

《…》

《물론 이미부터 하던 일이니까 미련이야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젠 중유도 공급되지 않아요? 국가에서도 새 연료취입이 어렵다는걸 인정하고있지 않나 말이예요.》

진호는 창문을 통해 미풍에 흐느적이는 버드나무아지들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현옥이의 목소리에서 자기에 대한 원망과 함께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깃들어있다는것을 알았다.

《다른 사람들도 진심으로 권고하고있어요. 쉽사리 성사되지 않을 일인데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요.》

《…》

현옥이쪽으로 돌아선 진호는 붕대를 감은 팔을 힘겹게 옮겨놓으며

입을 열었다.

《나도 내가 하는 일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걸 알고있소. 그러나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일만은 그만둘수도 없고 미룰수도 없소.》

《어째서요?》

현옥이의 두눈에는 대뜸 불만이 어렸다.

《아직도 자기가 겪는 고생이 모자란다는건가요? 아직도 사람들한테서 받은 수모가 부족하다는건가요? 이것 봐요, 이젠 제발…》

현옥이의 표정은 갑자기 애원하는 사람의 간절한 표정으로 변했다.

《부탁이예요. 제발 이젠 그런 고집은 버려주세요. 그래 그 고집의 결과가 뭐예요. 뭔가 말이예요? 주위를 좀 랭정한 눈길로 돌아보세요. 남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요. 동문 지금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진호는 얼굴을 감싸쥐려는 현옥이의 손목을 잡으려고 했으나 현옥이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너무해요. 동문 정말 너무하단 말이예요. 언제나 자기 생각밖엔 없지요, 없구말구요.》

참아오던 오열을 터뜨린 현옥이는 다시금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할 길이 없는 사람의 설음에 겨운 울음이였다.

그런 현옥이를 바라보는 진호의 얼굴에는 은연중 서글픈 애소가 어렸다. 입가에 맺혀 흩어질줄 모르는 그 애소는 현옥이때문이 아니라 어느땐가는 자기의 진정을 리해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리라고 여겼던 그 처녀한테서 되려 설복당하고있는 자신의 처지때문에 떠오른것이였다.

《사실 동무가 어떤 말을 한다 해도 난 할말이 없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의 자책어린 목소리로 그는 말을 이었다.

《확실히 난 무모한 인간일뿐아니라 한푼의 량심조차 없는 인간이요. 모든 사실이 그걸 증명하고있지 않소. 그렇지만 난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해도 설사 지금보다 더한 소리를 듣는다 해도 새 연료연구만은 미루지 못하겠소.》

《할수 없는 일인데두요?》

《그래도 꼭 해야만 할 일이란 말이요.》

《?…》
절망과 분노와 안타까움이 어린 눈길로 마주보는 현옥이의 시선에서 진호는 새삼스레 비참한 몰골이 되여 누워있으면서도 한사코 제 고집만을 내세우는 자기에 대한 련민의 빛, 동정의 빛을 똑똑히 읽을수 있었다. 그러자 여태까지와는 전혀 다른 어떤 소외감이 전신을 휩싸는것이였다.
(현옥이의 저 눈빛은 흔히 불치의 병에 걸려있으면서도 자기의 병이 뭔지 모르고있는 환자를 바라볼 때의 그런 눈길이 아닌가? 어째서 현옥이는 아직도 나를 제대로 리해하지 못하는걸가? 어째서 내가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어떤 고통을 참아가면서도 기어이 이룩하려고 하는 일을 한갖 무모한 객기로밖에 여기지 않는걸가?)
이런 느낌은 곧 현옥이에 대한 감정을 서글픔으로 변하게 했을뿐아니라 보다 이젠 자기는 완전히 고독하다는 의식으로 하여 비통하게까지 만들었다. 자기가 동정을 받는 처지, 그나마 오로지 진정을 리해해주었으면 하고 바랐고 드디여 자기의 진정을 리해한것이라고 믿었던 처녀한테서 동정을 받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목이 메여올랐다.
(어째서 우린 단 한번도 서로가 진정한 리해에 도달하지 못하는걸가? 나의 지향과는 너무나도 먼거리에 있는 현옥이가 아닌가! 도저히 넘어서지 못할 단애가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일가?)
방금전까지만 해도 현옥이가 자기 잘못이 무엇이라는걸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용서해주리라던 진호였으나 그가 무엇을 의심하고 무엇을 바라는가를 알게 되자 그런 생각은 고사하고 아무리해도 자기와 현옥이가 결합될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를 찾아온 그가 못내 야속스럽기만 했다. 만일 현옥이가 그때 자기에게서 완전히 멀어졌다면 분노와 불행만을 느꼈을뿐 지금 느끼고있는것 같은 자기로서는 도저히 다잡을수 없는 정신상태에는 빠지지 않았으리라는 한가지 생각밖에는 없었다.
그는 될수록 태연한, 지어는 무관심한 태도를 지어보이려고 애썼다. 지금 부닥친 사건이 의외의 일이 아니며 따라서 그 일이 평범한 사건에 지나지 않는것으로 느끼는 사람과 같은 태도를 취하기 위해 온 신경을 썼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만 가슴이 미여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제 5 장

할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

22

《어떻소? 이젠 좀 낫소?》

진호를 찾아온 초급당비서 상범은 병원앞마당 느티나무아래에 있는 의자에 그를 끌어다앉히며 물었다.

《이젠 좀…》

자리에 앉기는 했으나 진호는 고개도 들지 못한채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대꾸했다.

《어쨌든 그만하니 다행이요.》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큰일날번 했단 말이요.》

물끄러미 진호를 바라보던 상범은 갑자기 생각난듯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며 약간 엄한 어조로 말했다.

《한데 어째서 그런 일을 아무 토론도 없이 했소? 어째서 갑자기 그런 용단을 내렸는가 말이요.》

《…》

어떤 자학의 감정에 치받쳐오른 진호는 자신에 대해 뭔가 혹독한 말을 하고싶었지만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래, 시험에선 뭐 새로운것이라도 알아냈소?》

사실 연료와 가스와 공기의 배합비에 따라 온도가 예상외로 달라진다는 새로운 발견은 진호에게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것이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유독 자기만이 그것도 륙감으로 알아차린데 불과하기때문에 그런 설명이 사고를 무마시키려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으리라는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여서 잠자코 있기만 했다.

《알아두오만 직장에선 모든 사람들이 이젠 동무의 기술안에 머리

를 젓고있소. 기사들은 말할것도 없고 로동자들까지도 말이요. 공장에서는 또 뭐라는지 아오? 사태의 엄중성으로 하여 공장적인 사고심의를 따로 조직하겠다는거요. 사고에 대한 처리며 동무에 대한 결론을 거기서 확정할 모양이요. 그렇지만 결론은 벌써 명백하오. 새 연료안연구는 그만두어야 하며 동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오.》

진호는 자기 머리우에 떠돌던 검은구름이 이젠 뚜렷한 형체로 나타났다는것을 절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래 어떻게 하겠소?》

《할수 없지 않습니까, 결정되는대로 하는 수밖에.》

마음은 쓰렸으나 그런 일은 이미부터 각오하고있었다는듯이 그는 흔연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결정되는대로 하겠다. …》

상범은 자리를 고쳐앉으며 깊숙이 빨아들인 연기를 후— 하고 내뿜었다.

진호는 지금 비서의 추궁을 전적으로 타산도 없는 기술안을 시험한 결과 엄중한 후과를 빚어낸데 대한 비판으로만 받아들였지 반대로 그자신이 자기에 대한 그 어떤 자책과 후회로 하여 가슴아파하고있는줄은 전혀 짐작도 못하고있었다.

자식의 행동을 놓고 꾸지람하는 부모는 자식의 소행이 위험했던것일수록 더 호되게 꾸짖게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길 바라서인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 소행이 위험하긴 했지만 참된것이라는걸 알았을 땐 오히려 자식을 제때에 도와주지 못한것으로 하여 더 가혹해지는 부모도 있는데 이런 준절함은 어느 부모에게나 다 해당되는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을 아는 참된 부모에게만 한하는것이다.

사실 상범은 진호가 사고를 낸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가 그에 대해 너무도 무관심했다는것을 깨달았던것이다.

누구에 대해서건 그 사람을 잘 알자면 후에 가서 고치고 바로잡기 힘든 오해나 편견에 떨어지지 않도록 두고두고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것을 철칙으로 삼고있는 그였으나 진호에 대해서만은 선입견이 작용했다는것을 시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따져보면 그것은 그가 목적하는 일에 비해 그자신의 힘이 너무도 미약하다는데서 오는 편견과 우

려의 결과였다.

진호에 대해 특히 그의 기술안에 대해 관심을 돌리는 과정에 그는 곧 하나의 사실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그가 어떤 각오와 충동과 열정을 가지고 새 연료안연구에 달라붙고있는가 하는 그것이였다.

확실히 그는 여느 사람들과 달랐다.

용해공들과의 담화를 통해 더우기 진호가 자기 기술안을 위해 적어온 시험일지를 보면서 그는 이것을 더욱 통감하지 않을수 없었던 것이다.

그의 시험일지 첫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있었다.

《그 동무들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시오. 지금 원유가 두만강까지 와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느 부문에 원유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해당 일군들에게 하신 말씀이였다. 수령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맺혔으면 첫장에 또박또박 새겨넣은것일가? 안타까와하시는 수령님의 심정을 헤아리며 한자한자를 눈물로 써넣었으리라!

바로 어버이수령님의 이 심뇌가 그의 모든 행동과 사색의 원동력이라는것을 보풀이 인 4년간의 시험일지가 뚜렷이 증명하고있었다.

때문에 남들이 중유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은정을 사랑으로만 받아안을 때에도 그는 도리여 수령님에 대한 죄책감으로 가슴뜯었고 그처럼 남들이 대단한 혁신안으로 여기는 중유절약안조차 그에게는 대수롭지 않은것으로만 보인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누구나 말로는 다 자기는 당의 뜻을 받들어 일한다고 하지만 정작 따져보면 그 각오와 감정에는 차이가 많은것이고 바로 그 차이로 하여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것이다. 흔히 그런 사람들은 수령님의 교시를 법적인 과제로, 지상의 의무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기만 할뿐 그것을 수행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최대의 욕망, 간절한 충동으로까지 승화시키지는 못하는것이다. 그러나 진호는 바로 거기에 자기의 모든것, 기쁨과 행복, 환희와 사랑은 물론 분노와 울분까지도 담고있는것이였다.

진호에 대한 이런 새삼스런 느낌은 자기에 대한 뼈아픈 자책, 사람을 책임진 당일군으로서 진실한 한 인간을 너무나도 소격하게 대했다는 괴로운 자책과 함께 사람을 똑바로 볼줄 알고 옳바르게 지도한다

는것이야말로 얼마나 힘든 일이며 또 얼마나 섬세한 과학인가 하는 진리를 통절히 느끼게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 그는 보다 놀라운 한가지 사실에 부딪치지 않을수 없었다. 그야말로 깜깜한 어둠속에서 펑끗 하는 섬광을 본것처럼 정신이 펄쩍 드는 그런 엄연한 사실이였다.

그것은 자기가 여태껏 고민하면서도 종내 해결책을 찾지 못해 모대기던 문제 즉 요즘 직장전반을 지배하고있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수습할 방도가 바로 그의 새 연료안과 관련되여있지 않을가 하는 느낌이였다. 의존심으로 만성화된 사람들의 관점과 새 연료를 도입하려는 진호의 자각, 이것은 중유로부터 파생된 문제이긴 하면서도 서로가 극단을 이루고있는것이였다. 만약 그의 기술안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그 수행에로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들의 그릇된 관점을 바로잡아나갈수 있지 않겠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 직장이 걸린 문제를 푸는 열쇠, 내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고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그를 불길처럼 사로잡기 시작했던것이다.

집단이란 잘라놓아도 하나와 같이 훌륭한 단면을 가진 강괴와 같아야 한다. 그렇지만 훌륭하게 보이는 단면도 산으로 표면을 침식시키면 드문드문 반점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강철내에 함유된 불순물인것이다. 그 불순물이 지금 직장에서는 중유에 대한 사람들의 만성적인 관념이다. 이 불순물을 없애자면 오직 중유가 아닌 우리의 연료로 강철을 졸여내는 과정을 통해서만 사람들도 참답게 단련시킬수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할수록 그 이상 더 정당하고 적합한 대책이 없을상싶었다. 하지만 아직은 주관에 지나지 않았다. 문제는 의도에 있는것이 아니라 기술안의 현실적인 가능성여부에 있기때문이였다.

결코 그는 의도가 옳고 방법이 섰다고 해서 무턱대고 내밀거나 특히 기술은 무시하면서 대중들을 부추겨대는 우둔한 일군이 아니였다. 반대로 기술에 대한 파악이 있고야 방법이 있으며 그런 파악에 기초한 방법이래야 어떤 의도도 옳바로 실현된다는것을 원칙으로 여기는것이였다.

그는 공업시험소며 연료연구소로 다니며 여러 사람들과 새 연료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토론해보았다. 언제나 그런것처럼 이번에도 진호

의 기술안을 부정하는 립장에서 상대방과 론쟁을 벌려나갔던것이다. 누구든 자기를 반박하고 납득시키는 사람이 있기만을 고대했으나 그런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하나도 없고 도리여 자기의 보잘것없는 공격에도 이내 수그러들고마는것이였다.

자기의 희망이 한갖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느끼게 될수록 그는 부아가 치밀어올랐다.

(아무래도 진호를 직접 만나봐야겠어. 다른 사람은 그렇다 해도 그만은 덤벼들테지!)

그래서 병원으로 온것이였으나 진호가 덤벼들기는커녕 어떤 비관에 젖어있는것이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보자 정말로 격분하지 않을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는 오늘 진호한테서 하나의 새로운 측면을 찾아보게 되였는데 그것은 그가 심장이 가리키면 어떤 일이라도 하고야마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야 그것을 가장 빨리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가 하는것은 모르고있다는것이였다. 오직 자기의 힘을 경기에 나선 선수의 역할로만 생각할뿐 집단이라는 유기체와 결부시켜 따져보지 못했다. 확실히 그에게는 자기가 옳다는것을 대중을 통해 확인하려는 습성이 적었고 그들한테 인정받는 습관이 없었다. 일이 어렵고 힘들수록 그들에게 의지해야 하며 그때라야 진정한 힘이 발휘된다는것을 알지 못하거나 안다 해도 무시하고있는것이였다.

《그러니 비서동지도 저의 기술안을 가망이 없는걸로 보십니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에 따라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기라도 하는것처럼 비서를 마주보는 진호의 두눈은 사뭇 긴장돼있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요. 나야말로 언제나 대중들의 의사를 좇아야 할 사람이 아니요.》

상범은 진호를 흘끔 훔쳐보고나서 말을 이었다.

《동문 혹시 지금 내가 동물 지지해나서면 되지 않을가 하고 생각하는게 아니요? 천만에! 아무리 사상이 좋고 의도가 좋다 해도 과학과 기술이 안받침되지 않는 한 절대 안되오. 기술안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문제니까. 설사 내가 그 기술안에 사람들을 동원시킨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그들이 호응해나설것 같소? 그 일에 대한 정당성을 느끼고 진심으로 궐기해나설것 같은가 말이요.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

을거요. 무슨 근거로? 무슨 과학적인 담보가 있어서?》
《그럼 제가 설명하지요. 이걸 보십시오.》
얼른 땅바닥에 내려앉은 진호가 막대기를 쥐고 땅에 금을 긋기 시작하자 상범은 손을 저어보였다.
《아니, 그만두오! 자기 기술안에 대한 희망을 잃은 사람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겠소. 나온대야 구차한 설분에 지나지 않을걸. 또 그런 사람이 기술적인 신념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소.》
그러면서도 그는 진호가 금을 긋는 땅바닥만 유심히 내려다보기 시작했다.

23

출장지에서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황홀한 기대의 상상봉으로 날아오르던 태수였으나 직장에 들려 집으로 향하는 지금에 와서는 정반대의 감정, 누를길 없는 절망으로 하여 가슴이 터지는것 같았다.
숱한 탐색과 실패와 수정을 거듭한 끝에 자기의 완성된 특성을 가지고 뚜렷이 살아났던 매개의 선들, 그처럼 많은 고통과 기쁨을 가져다준 요소들, 또 그처럼 힘들게 이룩하였던 그 모든 조화의 률조들이 일조에 거품처럼 날아나고만것이 아닌가!
생각할수록 울분이 솟구쳐올라 견딜수 없었다. 그러나 입원하고있는 진호를 생각하면 자기가 그런 괴로움만 터뜨려놓을수 없다는 구속감에 사로잡히지 않을수 없었는데 이것이 그에게는 더 고통스러웠다.
워낙 사소한 감정도 숨기지 못할뿐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털어놓는것만이 진실한것이라고만 믿어마지않는 그로서는 이런 경우를 당해보지도 못했거니와 당한다 해도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가늠조차 할수 없었다. 아무리 참아야 한다고 속다짐하는 일도 감정은 한사코 그 계선을 넘어서는것이였다.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며 외진 오솔길로 접어든 그는 집쪽에서 마주걸어오는 은심이, 분명 직장에 전화를 걸어 자기가 돌아왔다는것을 알고 아까부터 집앞에 나와 기다리고있었을 안해에게조차 말 한마디 던

질 기분이 없었다.

《수고하셨어요.》

《…》

《가셨던 일은 잘됐어요?》

《…》

자기를 대하는 조심스런 거동에서 태수는 은심이가 자기의 기분상태를 이미 간파하고있다는것을 알았다.

아닌게아니라 은심이는 다 짐작하고있었다.

마당에 들어서서도 그는 피로와하는 남편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좋을지 몰라 한동안 서성거리기만 했다. 그러다가 자기의 그런 매련없는 행동이 오히려 남편의 기분을 더 잡쳐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하여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섰다.

《여보!》

더없이 무뚝뚝하게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에 은심은 돌아서지 않을수 없었다.

《네?》

《술 없소?》

《술요?》

창황중에도 은심의 입가에는 엷은 미소가 스쳤는데 그것은 걸핏하면 과격하게 나오기 잘하는 남편의 버릇을 감촉했기때문이였다.

《있어요. 왜요?》

《가져오오.》

《지금요? 지금은 안돼요!》

은심이를 치떠보는 태수의 눈길은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할 때마다 나타내군 하는 그런 위엄정도가 아니라 어찌보면 무섭기까지 했다. 그래서 은심이는 얼른 부언하지 않을수 없었다.

《드리긴 하겠어요. 그렇지만 병원에 갔다오신 다음에요.》

《병원에? 병원엔 내가 뭣하러 간단 말이요. 누가 뭐 다리라도 부러졌다오?》

늘 자기의 속심을 정확히 알아맞추군 하는 은심이가 여느땐 더없이 사랑스러웠으나 지금은 도리여 얄밉기만 했다.

《아무래도 가실걸요. 갔다오시지 않고는 한잠도 주무시지 못할텐

데요.》
(챠— 요런!)
《그래 내가 그 친구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하라는거요. 투사기를 박살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라는거요?》
은심은 벌써 알고도 남는 남편의 성격 즉 참을수없이 괴로운 나머지 가슴속의 오뇌를 지우기 위해 하등 상관도 없는 문제를 들고 트집하는 그의 내심의 요구를 짐작했다. 일단 불만을 품기만 하면 자기의 불만에 대하여 누구든 남에게 그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터놓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남편이였다.
《그래 내가 그 친구한테 간다고 합시다. 술을 먹으면 왜 안된다는거요? 주정을 할가봐?》
《아니요.》
《그럼?》
《술을 마시고 하는 말은 다 진정이 아니니까요.》
살며시 치떠보는 은심은 조심스러워하긴 하면서도 웃을수도 또 뾰로통해질수도 있는 표정, 이를테면 남편의 기색에 따라 자기의 태도를 결정지으려는 그런 눈매로 쳐다보았다.
《헛참! 모르면 가만있기나 하오. 실은 술을 먹고 하는 소리가 진짠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는게 탈이란 말이요.》
《이봐요.》
남편의 기색이 다소 누그러진것으로 느낀 은심은 한걸음 다가서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알아요. 당신의 맘이 어떠리라는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보다 걱정스러운건 화만 내면 당신은 모든걸 다 잊어버리는거지요. 생각해봐요. 당신이 그러면 진호동무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투사기를 파괴한것때문에 그를 얼마나 욕하게요. 그런데 당신까지 그러면… 당신도 말했지만 그는 이미 부당한 의심으로 하여 마음에 상처를 입고있는 사람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동문 내 투사기가 파괴된것보다 그에 대한 동정이 더하다는거요?》
《동무》라는 말에 은심은 또다시 어리둥절해지고말았다. 확실히 여느때와 다른 기분상태에 있는 남편이였다.

《혹시 동무도 투사기에 결함이 나타났기때문에 파괴된걸 대수롭지 않는걸로 여기는게 아니요? 진호도 바로 그래서 그걸 취입기로 썼겠지. 그렇지만 그런 부족점은 한주일이면 얼마든지 보충할수 있는거란 말이요!》

진호에 대한 남편의 불만이 바로 자기가 그를 옹호해나서기때문에 더한것이였으나 은심은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고있었다. 다만 그로선 자기의 심정을 리해하려고 하지 않는 남편이 야속스러울따름이였다.

《어째서 당신은 자꾸 자기와 저를 따로 구분하는거예요. 자기가 괴로울 땐 저 역시 그만치 괴롭다는걸 왜 리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덜가 하고 저도 생각한다는걸 왜 모르세요.》

말끝을 흐리며 은심은 얼른 뒤로 돌아섰다.

그는 남편을 다루는데 있어서 제일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무기 즉 정도이상의 감정으로 뾰로통해지는 무기를 사용하려고 했다. 그럴 때면 천성이 곧은 남편이 화는 내면서도 내심으론 어느 정도 누그러지기때문이였다. 아니나다를가 남편의 목소리는 한결 낮아졌다.

《이것 보오! 물론 내가 그를 위로해야 할 립장에 있기야 하지. 그렇지만 위로한다고 해서 어떻게 속에도 없는 소리를 한단 말이요. 난 그런 거짓을 꾸밀줄도 모르거니와 꾸미기도 싫소. 어쨌든 난 내가 품고있는 불만을 털어놓지 않을수 없소. 그러지 않고는 견딜수가 없단 말이요.》

《그래요. 바루 그거지요. 당신이야 원래 어떤 감정도 숨겨선 안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자기의 무기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것을 느낀 은심은 확신에 넘친 어조로 말했다.

《그렇지만 속에 있는걸 다 털어놓는게 진실한걸가요? 그게 솔직한걸가요? 그건 마치도 열을 내며 앓고있는 환자가 시원한 음료가 우선은 구미를 돋군다고 해서 마시는거나 같은것이라고 봐요. 그것이 당장엔 시원하겠지만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약을, 내키지 않을수 있어도 쓴 약물을 택해야 하는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하고싶은 말도 참는게 진실이 아닐가요? 상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를 위해

서도 말이예요.
전 아직도 잊을수 없어요, 당신이 하던 말을. 그까짓 고민이 뭐냐고, 우리야 젊은 사람들이 아니냐고, 우리의 번민은 언제나 새것을 위한 투쟁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하던 말을 말이예요. 전 그 말에 용기를 얻었고 또 그 말에 당신을…》
《…》
태수는 문득 보슬비내리는 합숙의 정원에서 그를 붙잡고 안타깝게 호소하던 때의 일이 떠올랐다. 그때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알수 없으나 지나친 고민에 시달리고있는 그가 가엾었던것만은 사실이였다.
《그땐 그때고 지금이야 지금이지! 어쨌든 술이나 빨리 가져오오.》
이젠 별로 술을 마시고싶은 생각도 없었으나 일단 고집했던것을 관철해야 할 남편으로서의 자존심이 본래의 요구를 강조케 했다. 정 그렇게 요구되면 제가 부엌으로 내려가 마실수도 있으련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굳이 안해가 들고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수 없었다.
할수없이 부엌으로 내려선 은심은 유리잔에 술을 부어들고 나왔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마치 독약이라도 되는것처럼 내밀기를 주저했다.
대뜸 술잔을 앗아든 태수는《자 봐라, 이 정도엔 눈섭 한오리 까딱 안한다.》하듯이 잔을 통채로 입에 대고는 단숨에 꿀꺽 삼켜치웠다.
《참! 그 동무가 왔다갔다는걸 알아요? 현옥이라는 동무!》
《들었소.》
그 말을 들었을 때 태수는 현옥이가 내려온 그날로 되돌아갔다는데 대해서는 어딘가 리해되지 않았으나 모름지기 진호가 그를 그렇게 돌려세웠으리라는것을 짐작하고는 그에 대한 불만을 누를길이 없었다.
(하여간 얼빠진 친구라니! 어쨌든 만나야 해. 아니, 만나지 않을수 없어!)
그는 자리에서 움쭉 일어섰다.
사위는 벌써 어두웠다.
병원으로 갈 때까지는 물론 소독약냄새가 풍기는 복도에 들어서서 의사가 가르쳐준 호실을 찾을 때까지도 그는 진호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오히려 제편에서 불

안스러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아무런 결심도 가지지 못했지만 8이라는 호실번호가 눈에 띄자 그는 저로서도 리해할수 없으리만치 단호한 기세로 문을 열어제꼈다.

먼저 눈에 비친것은 량쪽벽에 붙여놓은 두개의 침대와 그사이에 있는 원탁이였다. 한쪽침대에 까딱않고 누워있던 환자, 팔이며 어깨며 머리에 온통 붕대를 동이고있는것으로 하여 움직이기가 몹시 거북한듯 겨우 이쪽으로 돌아눕는 환자를 본것은 그다음이였다.

《어－》

괴상한 소리를 지른 그가 일어나앉으려고 할 때에야 태수는 그를 알아보았다. 우묵히 패여져들어간 눈확, 삽날처럼 뾰족해진 턱, 한둘레나 작아져 가냘파보이기까지 하는 어깨… 과연 이 사람이 진호란 말인가? 대번에 가슴이 저려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흠! 꼴 좋군! 붕대를 칭칭 동인게 꼭 패잔병같군 그래!》

미리 준비한 말이 아니여서 퍼그나 수월하게 나갔으나 어쩐지 진호를 면바로 쳐다볼수가 없었다.

《…》

자기와 시선이 부딪치기 바쁘게 얼른 눈길을 아래로 내려깔며 송구해하는 진호를 보자 왜서인지 더 큰소리가 터지는것이였다.

《남의 투사기는 하늘로 날려치우고 셈평좋게 떡 드러누워있어?》

《…》

고개를 든 진호였으나 또다시 눈길을 피하는것을 본 태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를 짐작하고는 얼른 뒤를 달았다.

《그러게 내 뭐라던가! 호케이선수가 불바다에 뛰여들면 폭발이 인다고 말이야. 그 주제에 뭘 해보겠다고…》

태수는 벌써 자기가 애초에 품었던 감정을 털어놓을수 없다는것을 알았다. 털어놓을수 없을뿐아니라 이런 진호앞에 그것을 털어놓는다는것이 친구로서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라는것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용서해주게.》

《용서? 투사기를 콩가루로 만들어놓은 이제 와서 용서는 무슨 놈의 용서야!》

《하긴 용서조차 바랄수 없지. …》

목갈린 소리로 떠듬거리는 진호의 가긍한 정상에 태수는 대뜸 눈굽이 달아올랐다.

(제길! 이렇게도 고지식하다구야.)

자기한테서 어떤 란폭한 일격이 있기만을 기다리는듯 한 그의 공손한 태도를 지켜보느라니 그에게 품었던 자기의 감정이 더욱 수치스러웠다. 어쩌면 자기가 진호에게 그런 야비한 감정까지 품을수 있었던지 도저히 리해되지 않았다. 그럴수록 이상하게도 말은 더 가혹하게만 나가는것이였다.

《하여간 동문 량심이 없는 사람이야. 파괴된 투사기를 보았을 때 난 미칠것만 같았어. 동무가 미리 입원했으니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내한테서 더 심한 부상을 당했을걸.》

그는 자기가 품었던 불만을 숨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보임으로써 그 불만이 덜하다는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할 말이 없네. 사실 투사기로 취입할 때까지도 난 그게 동무의 고심어린 창조물이라는것을 생각하지 못했어. 심사를 애타게 기다리고있을 동무의 심정에 대해선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단 말일세. 동무한테서 그런 부탁까지 받고도 말이네. 그저 내 기술안에만 혈안이 돼있었지. 글쎄 이런 내가 무슨…》

너무도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하여 태수는 더 과장된 태도를 취할수가 없었다.

《그래도 난 여태까지 자신을 성실한 인간으로 여겼었지, 그만하면 진실하다고 치부했고. 그러나 이제 와서야 내자신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걸 비로소 느끼게 됐네. 왜 남들이 나를 욕하며 질시하는가 하는것을 알게 됐고 또 그것이 백번 응당하다는것도 깨닫게 됐네. 사실 나같은 인간이 사람들의 조소를 받는거야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 아닌가.》

《그래 사고심의는 언제 한대?》

태수는 서둘러 진호의 말허리를 꺾어버렸다.

《글쎄…》

《이번 시험에서도 성과가 없나?》

《뚜렷한건 없네. 그렇지만 온도가 이전보다 20도나 올랐지. 보충연료의 덕분도 있겠지만 난 첨가제가 그만한 열량을 담보하는것으로 믿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껏 알지 못하던걸 새로 발견했는데 그건

연료의 지나친 취입이 오히려 열을 떨군다는걸세.》
《그건 어째선가?》
《그건 나도 아직 모르겠네. 이렇다할 근거가 없기때문에 남들은 웃을지 모르겠지만 난 어느 정도 신심을 얻었네. 확신을 얻었단 말일세, 비서동지도 리해해주고. 그렇지만 이제야 무슨 소용인가! 다 필요없어!》
진호는 갑자기 맥을 놓으며 침대모서리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난 어떤 일이 있어도 새 연료를 완성하는걸 통해 자길 증명해보이려고 했지만 이젠 틀렸네. 어리석었지. 오히려 한쪼각의 량심도 없는 철면피한 인간이라는것이 낱낱이 드러났으니 말일세.》
태수는 그가 이미 받은 부당한 의심, 그것도 진정을 부인당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의 노력을 다하다가 도리여 더 험한 구렁텅이에 빠져들었다는것을 통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고 그가 이젠 거기에서 헤여나올 기력마저 잃고 절망상태에서 허우적거린다는것을 알았다.
이런 느낌은 불현듯 막다른 골목에 빠진 진호를 어떻게든 구원해야 하리라는 의협심과 함께 오직 그것은 자기에게 한하는 일이며 또 자기가 해야 한다는 충동으로 사품쳐오르게 했다.
(어째서 이처럼 고지식하고 진실한 진호가 그런 혐오의 대상으로 되여야 한단 말인가! 돕자! 도와야 한다. 이럴 때 돕는게 참다운 벗이렷다.)
그는 진호에 대한 이런 감정의 도약에 저로서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기뻤다. 자신의 감정을 난생처음 자신의 의지에 복종시킨것으로 하여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직장에는 부탁해놓았네만 이제라도 꼭 다시 만들어주게.》
자기 생각에만 옴해있느라고 태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다.
《기술과에서도 승인했네. 이젠 공무직장에 도면만 넘겨주면 될거네. 최대한 빨리 제작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제야 태수는 진호가 투사기에 대해 말하고있다는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동무의 취입기자재로 내 투사기를 만들라는건가?》
《글쎄 그건 나를 위해서라잖나! 나한테도 약간의 량심쯤은 있다는

걸 보이게 해달라는거야.》
그의 고뇌에 찬 모습과 애원이 담긴 목소리를 듣는 순간 태수는 불시에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고개를 들고 일어나 자기를 더 대담한 어떤 새롭고 신비로운 길로 이끄는것을 느꼈다.
《그렇게 해주겠지?》
의미심장한 눈길로 진호를 바라보던 태수는 갑자기 히쭉 웃었다.
《정 요구라면 할수 없지! 그렇게 하는수밖에! 아니, 꼭 그렇게 하겠네!》
그제야 그는 자기 내심에 이는 충동이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깨달을수 있었다.
(그래! 그 자재로 투사기가 아니라 그의 취입기부터 만들어놓자! 이제라도 그가 바라는것이 어떤것인가를, 무엇을 위해 그가 헌신하는가를 사람들이 알게 하자!)
이렇게 결심하자 그의 가슴은 형언할수 없는 기쁨으로 설레기 시작했다. 그까짓 고민이 뭐냐고,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아니냐고, 우리의 번민은 새것을 위한 투쟁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하던 은심이의 말이 상기됐다.
(암! 그렇고말고!)
그것은 분명 자기가 한 말이였으나 그 참된 의미는 오늘 은심이에게서 새삼스레 깨닫게 되는것이였다. 그렇다! 우리는 젊은이들이다. 그 어떤 시련도 고민도 난관도 절망도 무자비하게 짓밟고 일어서야 할 불타는 청춘들인것이다. 그까짓 사고가 뭐란 말인가! 내 투사기야 도면이 있으니까 아무때나 만들수 있지 않는가!
그는 자기의 이 새로운 결심을 진호가 눈치챌가봐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쪽으로 걸어갔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사실 태수는 입원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듣고싶던 말, 현옥이에 대한 말을 진호가 먼저 꺼내기를 기다리고있는것이였으나 그는 자기가 바로 그것을 기다리고있다는것을 빤히 짐작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것을 알았다. 그래서 더는 참기를 그만두고 그에게로 돌아섰다.
《현옥동무가 왔댔다면서?》
진호는 마주 쳐다보기만 했다.

《왔댔네.》

그러면서 그는 고개를 돌리고 한숨을 내쉬였다.

《그렇지만 그가 온건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깨달아서나 어떤 결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맘이 괴롭기때문에 내려왔을뿐이네. 아니, 날 설복하려고 왔었지. 차라리 난 그가 어떤 론거를 가지고 내 기술안을 부정해주기라도 했다면 그다지 맘이 쓰리진 않았을거네. 그러나 그는 나를 이젠 어떤 객기를 부리는 가련한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는단 말일세.》

《그래서 그시로 돌려보냈나?》

《어쨌든 우리사이의 간격이 어떤것이라는것을 난 이번에야 똑똑히 알게 됐네. 동문 언젠가 내가 지나치다고 했지만 실은 내가 지나친것이 아니라 따져보면 우리 두사람사이에 가로놓였던 심연이 그때 그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냈던거야. 하지만 오늘은 리해의 샘이 영영 말라버린 그가 바로 그 메마른 모습을 다시 드러냈거던. 그땐 날 의심하던 그가 이제 와선 동정하지. 그저 불쌍하게 여길뿐이란 말이네. 그러나 그런 동정이 얼마나 나에 대한 모욕인가 하는건 모른단 말일세. 그래 어떻게 서로의 사이에서 가장 귀중하고도 선차적인 리해를 그따위 동정으로 메꿀수 있겠나 말일세.》

《리해?》

진호에게로 돌아선 태수는 곧 침대앞으로 다가섰다.

《그래 그가 아직 동물 제대로 리해하지 못하는건 사실이라고 하세. 동정으로만 대한다고 하잔 말이야. 그럼 대체 동문 그를 얼마나 리해하나? 그의 고통이 뭔지, 그 고통을 가시기 위해 그가 얼마나 모대기는지, 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의 마음속에 어떤것이 고여있는지 알기나 하나? 알려고나 했나 말일세.

동문 그가 자길 동정하고있다고 분해하지만 동무자신은 그를 동정이라도 해보았나? 상대는 연약한 처녀지만 그래도 동무야 사내가 아닌가! 내가 보건대 동문 확실히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에 상대가 이르길 바랄뿐이지 자긴 한번도 상대의 요구에 비춰보지 않거던. 무서운 독선주의자란 말이네.》

《?》

진호는 새삼스런 눈길로 태수를 바라보지 않을수 없었다. 덜퉁할뿐 아니라 아무 문제나 직선적인 감정 하나로 식별하기에 버릇된 그가 이

런 말을 한다는것이 놀라와서였다.
자기가 알기엔 태수는 모든 생활이 그런것처럼 사랑이며 결혼도 특별한 요구를 내세우지 않지만 저절로 남다른 혜택이 차례지는 행운아였다. 그런데 자기의 경우에는 별로 높지도 않는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실천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데도 생활은 빈번히 자기를 배척하는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런 자기를 태수는 너무 까다로운 요구를 내대기때문이라고 했지만 진호는 오히려 태수가 남다른 팔자를 타고났기때문이라고 여기는것이였다.
그러나 지금 그가 한 말은 그런 사랑의 행운아가 한마디 한것이라고 듣기에는 스쳐버릴수 없는 어떤 뜻이 담겨져있는것 같기도 했다.
《난 이렇게 생각하네. 동무가 결코 속으로는 그처럼 그에게 매정하게 대하고싶진 않았을거라고. 그런데 왜 그랬는가? 그건 이제 와서 그를 리해시킨다는것이 이제까지 고집하던 자기의 주장을 부정하는것으로 되는것 같았으니까 그랬던거네. 안 그런가?》
진호는 도리를 저었다. 그 말이 리해되지도 않았거니와 받아들일수도 없었던것이다. 그것은 사랑의 리치를 단순하게만 생각하는 태수가 구체적인 실정을 모르는데로부터 자기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는가를 가늠하지 못한다는데도 있었지만 보다는 현옥이에 대한 자기 립장을 따져볼 때 어떤 잘못도 없다고 확신하게 되기때문이였다.
이때 환자복을 입은 뚱뚱한 중년의 사내가 주사를 맞고오는지 살집이 좋은 엉치를 비벼대며 방안에 들어섰다. 다른 한쪽침대의 주인인듯싶었다.
《그럼 난 가겠네. 아직 저녁도 못 먹었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란 말일세.》
진호를 유쾌하게 만들어주고싶었던 태수는 얼른 그의 귀가에 입을 갖다대며 말했다.
《은심이가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있거던. 밥을 먹고 가라는걸 뿌리치고 일어섰더니 그럼 술이라도 하잔 하라는게 안야. 그래서… 알만한가? 하긴 총각이 이런 재미를 알게 뭔가!》
방문을 나서면서 그는 다시 오겠다고 부언해두었다.
하늘에는 어느덧 야무진 별들이 명멸하고있었다.
(아직 철부지라니까… 어쩌면 그렇게도 단순할가? 하긴 그래, 남달

리 깨끗하기도 하지! 그건 그렇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당장 취입기부터 만들어놓자! 어찌 취입기뿐이랴! 나도 이제부턴 그의 새 연료안에 같이 뛰여들자! 진정한 친구란 장래를 내다보는 눈이 같기때문에 친구라지 않는가!)

큰길에 나서서도 그는 줄곧 이 하나의 생각에만 젖어있었다. 어쩐지 저절로 걸음발이 빨라졌다.

《아이, 태수동무가 아니예요?》

웬 처녀가 앞을 막아서는 바람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희미한 가로등불이였지만 태수는 그가 누구라는것을 이내 알아보았다. 정아였다.

《언제 오셨어요?》

《낮차로, 방금 병원에 들렸다 오는 길이요.》

자기를 마주보는 그의 눈길에서 어떤 동정, 분명 《투사기가 파괴돼서 안됐군요.》 하는듯 한 위로를 읽은 태수는 곧 정색을 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참! 듣자니 정아동무가 진호의 새 연료안을 제일 반대한다는게 사실이요?》

《?》

뜻하지 않던 물음이였던지 정아는 어리둥절해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의 기술안을 그렇게 일축하오? 그가 그걸 위해 얼마나 많은걸 바쳤는지 알기나 하오? 얼마나 애태우고있는가 하는걸 알기나 하는가 말이요. 저기 좀 앉기요. 동무한테 할 말이 있소.》

《?》

태수를 마주보는 정아의 두눈에는 더욱 짙은 의혹이 어리였다.

24

정아는 며칠째 잠을 이룰수 없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입원하고있는 진호를 찾아가려고 했던 결심을 오늘도 그는 지킬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날 병원앞에서 태수를 만나 그로부터 진호가 새 연료안을 위해 얼

마나 고심해왔는가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고개를 저었었다. 고생해 만들어놓은 자기의 투사기가 파괴된데 대한 아쉬움보다 친구의 지향을 더 소중히 여기는 태수의 우애에 자못 감심은 되였으나 그가 진호에 대해 지내 과찬하는것으로만 여겼었다.

《언젠가는 진호동무가 동무의 투사기를 두둔하더니 오늘은 동무가 그의 새 연료안을 비호하는군요.》

그는 이렇게 말했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를 제대로 리해할게 뭐요. 투사기에 바친 내 노력은 그에 비교할수도 없소. 비교하기조차 부끄럽단 말이요. 자, 들어보오.》

정아는 장시간 그에게서 진호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다.

실로 놀라움을 금할수 없는 사연들이였다. 대학 전기간을 그 하나의 연구에만 바친 일이며 시험을 위해 방학을 매번 공장에서 보냈다는 사실 그리고 그처럼 부에서 가슴아픈 의심을 받고 제철소에 내려왔건만 조금도 그런 티가 없이 여전히 그 기술안에 열중하고있는것이 아닌가!

(도대체 어떤 기술안이기에 그토록 몰두하는걸가?)

이튿날 정아는 진호의 시험일지며 분석자료들을 봐야겠다는 생각에 그의 서류함을 열어보았으나 거기에는 여러가지 기술서적들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시험일지는 며칠전에 초급당비서가 가지고갔다는것이였다. 그는 비서를 찾아갔다.

《마침이요, 그렇지 않아도 동무한테 꼭 보이려던 참이였는데.》

이러며 빙그레 웃기까지 하는 비서였다.

《저한테요? 어째섭니까?》

《보오! 보면 다 알게 되오. 그런데 도중에서 덮어버리든가, 집어던지지 말고 마지막까지 봐야 하오. 알겠소? 그리고 다 본 다음에는 나한테 와서 꼭 의견을 말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세권이나 되는 책을 하나로 묶은 일지에는 4년전부터 진행해온 시험들에 대한 기록들, 언제 얼마만 한 연료를 어떻게 투입했으며 그때의 배합비가 얼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가 상세히 밝혀져있었다. 누구에게나 있는 평범한 일지라고 보기에는 보풀이 인 두툼한 책과 거

기에 적혀있는 수자들이 너무도 많은것을 암시하고있었다. 온통 수자들과 부호들이여서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하기는 어려웠으나 도간도간 여백에 써놓은 글들만은 비슷이 짐작이 갔다.

《오너라! 파도여! 시련의 폭풍이여!》하고 시구절처럼 써놓은것이 있는가 하면 《나는 알았네 1:0》하고 장난처럼 갈겨쓴것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만세— 발화 성공!》 하고는 그옆에 축포를 터뜨려놓기도 했고 《총 ×천 ×백원》이라는 엄청난 돈액수가 적혀있기도 했다. 무심코 보았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그였으나 태수의 말을 듣고난 뒤여서 그 돈이 모름지기 실패로 인한 손해액이라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일지의 갈피마다에는 어째선지 현옥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타나군했다.

(누굴가, 애인일가?)

그에 대해서는 태수한테서 한마디도 듣지 못했던것이다.

그가 제철소에 온 이후의 페지들을 들춰보던 정아는 문득 《소극적이다—중유절약안!》하고 씌여있는 곳에 시선을 멈추었는데 거기에는 그때의 비분강개한 심정을 표시한듯 감탄부호가 세개씩이나 찍혀있었다.

(현실에 피동적이라는거겠지?)

중유절약안을 놓고 론쟁하던 때를 회상하며 다음장을 넘긴 그는 두드러지게 새겨진 자기의 이름을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더 아연한것은 그옆에 《왜 맹목적인 순종》 하고 기중기갈구리같은 의문부호를 커다랗게 그려놓은것이였다.

락서로밖에 여기지 않을수 없는 글이였으나 그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화까지 치밀어올랐던것이다. 숨기려고 애쓰던것을 로출당했을 때와 같은 수치감이 온몸을 엄습했다. 어째서 맹목적으로 순종하느냐는 그 물음이 마치 책임기사에 대한 련정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하는것만 같았기때문이였다.

《그래요! 그를 사랑해요. 어쨌단 말이예요. 그게 동무와 무슨 상관이예요. 그렇다고 그런 감정을 그의 기술안에 대한 공감과 일치시키진 말아요. 전 이미부터 그 기술안에 매혹돼왔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 이게 나빠요?》

눈앞에 진호가 있기라도 한것처럼 그는 이렇게 쏘아붙였다. 그러나

그 다음장에 있는 글을 보고는 더 아연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할수 있는것만 하려는 한심한 처녀—윤정아》
《?》
바로 이것을 보고 비서가 자기가 꼭 봐야 한다고 했다는것을 짐작하자 분해서 견딜수가 없었다.
(한심하긴 뭐가 한심하다는거야! 그럼 자기처럼 아무 담보도 없는걸 고집해야 할가? 타산과 전망도 없는 그런 기술안이 옳다는건가? 천만에! 그런건 내가 타협할수 없어! 절대로! 만약 다시한번 중유절약안을 헐뜯어보지?)
이렇게 반박하던 그는 또 한장을 번진 순간 또다시 굳어지고말았다. 거기에는 자기의 불만에 대한 대답이 명백히 적혀있었기때문이였다.
《우리의 과제— 그것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있다!》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
그는 몇번이고 반복해 읽어보았다. 처음 듣는 말은 아니였으나 뭔가 새로운것을 느끼게 되면서 태수가 하던 말이 다시금 상기됐다.
《하긴 동무가 어떻게 그를 제대로 리해하겠소. 친구라고는 하지만 나 역시 그의 지향을 리해하자면 멀었단 말이요.》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
집에 돌아와서도, 지어는 잠자리에 누워서까지도 자꾸만 그 글줄이 눈앞에 아물거렸다.
다음날 그는 또다시 진호의 시험일지를 펼쳤다. 이번에는 어떻게든 확고히 반박할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를 쥐여야겠다고 결심하면서 수자며 부호들에 포함된 의미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무진애를 쓰며 그는 한장한장을 번져나갔다.
한데 그 과정에 그는 놀랍게도 자기의 결심과는 반대되는 사실, 즉 진호가 무엇을 위해 어떤것을 이룩하려고 하는가 하는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닫지 않을수 없었다. 새로운 첨가제의 도입, 새 연료의 부족점과 취입과정에 나타나는 약점들을 첨가제로 극복하려는것이 그의 기술안의 핵으로 되여있었다. 근 4년을 이것 하나에 바쳐왔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 모든것을 깡그리 쏟아붓고있었다. 이러저러한 성과는 둘째치고 우선 무엇이 그를 이런 새롭고 대담한 길에 들어서게 했는

지, 또 어째서 부디 이런 어려운것을 택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런 스스로의 고행을 바라는 그의 심중의 밑바닥에 어떤것이 고여있는지 새삼스레 따져보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면서 은연중 그의 기술안과 자기가 맡은 중유절약안을 대조해보게 되였다.

확실히 같은 연료에 대한 기술안이긴 하지만 서로 달랐다. 아니, 판이했다. 한두가지의 구조나 요소의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인 차이였다. 한쪽은 할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하려는것이지만 다른 한쪽은 하기는 어려워도 기어이 그렇게 돼야만 하기에 하려는것이였다.

(그가 그처럼 이것을 주장하는것은 우리의 현실이 바라기때문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간절히 바라고계시기때문인것이 아니랴!)

그는 론쟁에서 일정한 론거를 가지고 증명해나가던 자기가 론쟁도중에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의도하는가를 알게 되자 자기자신도 그것에 호의를 가지고 그 즉석에서 동의해버리는 때와 같은 심정을 체험했다.

사람이란 흔히 우연한 기회에도 귀중한 진리를 체득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에 대한 요구와 참다운 자존심을 가진 사람에게만 한하는것이다. 그런 사람은 그 진리를 서슴없이 자기것으로 만들뿐아니라 보다 새로운 경지로 자신을 한계단 도약시키는것이다. 정아는 바로 그런 처녀였다.

여태껏 아득히 멀고 불가능한것이라고만 여겨온 진호의 기술안이 점점 뚜렷한 형체로 눈앞에 나타나면서 움직일수없이 가능한 사실로 여겨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럴수록 진호와 자기와의 차이, 새것을 창조하려는 사람과 순탄한 길로만 졸졸 따라가는 자기, 해야 할 일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그와 어떤 위험도 없기때문에 하려고 하는 자기와의 차이를 뚜렷이 감득케 했고 나아가서는 그를 자기가 그처럼 탐구와 열정의 우상으로 여겨오던 책임기사와도 대조시켰던것이다.

(분명 차이가 있어, 뭔가 뚜렷한 차이가.)

그처럼 해박한 지식으로 사업에 대한 특출한 재능을 소유하고있다고 생각해온 책임기사가 진호와 비교해볼 때 확실히 그의 지식과 열정이 훌륭하고 고상한 품성에서 발로되는것이라기보다 그 어떤 다른 목적에서 오는것, 그렇다고 성품이나 재능에서 오는 부족이 아니라 흔

히 참다운것이라고 하는 그것의 부족, 오직 하나의 목적을 향해 매진하는 사람이 나타내는 그런 결함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싹텄던것이다.
물론 그로서도 기철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을수 있는 약점이 어떤것이라는것을 모르진 않았다. 그것을 그는 부득이한 결함, 지어는 특출한 사람에게만 한하는 필수적인 부족점이라고까지 여겼던것이다. 그러나 지금 새롭게 깨닫게 된 그의 약점은 그런 부족점이나 기술적인 약점만이 아니라 서로의 지향의 차이, 심장의 열도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결함이 아닐수 없었다. 바로 이 점이 그를 괴롭히는것이였다.
자기가 가지고있지 못했던, 그렇기때문에 더욱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는 정신적천부로 말하면 한쪽은 너무도 풍부했고 다른 한편은 빈약했다. 그렇지만 감정은 특히 진호에 대한 이미부터의 곰살궂지 못한 타성은 그에게서 새로 받아안은 진리, 리성의 힘을 마냥 부인하면서 한사코 기철이를 옹호하라고 속삭이였으나 그때마다 그의 성격속에 숨어있는 완고하리만치 결곡한 기질이 그것을 허락치 않았다.
(안돼! 이것만은 숨길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돼! 기철동무 역시 새 연료안이 어떤것이라는것을 알면 발벗고 나설거야. 그는 바로 그런 사람이니까. 가슴속에 차넘치는 그 열정이야 누구한테 비길수 있어!)
이제라도 그에게 중유절약안보다 새 연료안이 우월하다는 자기의 속심을 터놓아야 한다는 생각, 사랑하는만큼 그가 깨닫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솟구쳤으나 차마 행동에 옮길 용기까지는 나지 않았다. 그를 진정으로 위해주어야 한다는 의무감과 또 그러다가는 혹시 그가 벼락같은 소리를 지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이 마음을 괴롭힐 때마다 그는 리성의 부르짖음이 야속해선지, 아니면 사랑의 감정이 원망스러워선지 저도 모르게 새여나오는 한숨을 호― 하고 내뿜었다.
그런 번뇌는 어쨌든 진호의 기술안에 대해 자기가 느낀바를 말하지 않을수가 없어 그는 비서를 찾아갔다. 그런데 비서는 도당에서 조직한 당일군들의 강습에 참가하기 위해 떠나고 없었다. 며칠후에야 돌아온다는것이였다.
(진호동물 찾아가자. 새 연료안에 대해 느낀걸 솔직하게 털어놓자! 그리고 알고싶은것들을 다 물어보자.)
그러나 병원앞 갈림길에서 그는 주저하지 않을수 없었다. 정작 그

에게 해야 할 말이 여태까지 자기가 취해온 행동과는 너무도 상반된다는데도 있었지만 보다는 옆에 같이 퇴근하는 동무들, 특히 책임기사가 있었기때문에 더욱 그 용단을 내릴수 없었던것이다.

《호—》

그는 이불깃을 헤치고 다시금 한숨을 내뿜었다.

25

아침차로 제철소에 내려온 명식은 강철직장에서 벌어진 사태로 하여 한동안 어리둥절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심사해야 할 투사기가 파괴된것도 놀라왔지만 그것을 파괴한 사람이 다름아닌 진호라는 사실에 더 아연해지고말았다. 더우기 믿어지지 않는것은 그가 또다시 그 새 연료안을 시험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그것이였다.

(아니! 아직까지 새 연료안을 고집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였다. 도저히 리해할수가 없었다. 자기의 막다른 처지로부터 첨 얼마간은《새 연료연구》라는 연막을 칠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소로운 변명에 불과하다는것을 그자신도 모르지 않을것이기때문에 곧 아무말없이 시키는 일에나 열중할줄로 여겼었는데 의연히 자기 기술안을 고집하고있는것이 아닌가!

(어쩌면 그 정도의 판단조차 아직도 가리지 못한단 말인가?)

고개를 기웃거리던 그는 곧 어떤 새로운 감촉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진호의 행동에 뭔가 심상찮은 의도가 깃들어있지 않을가 하는 의혹이 들었기때문이였다.

(혹시 모든것이 울분으로 변한 나머지 그 반감이 자기의 비렬함을 낱낱이 투시한, 그것으로 해서 사랑까지 결렬케 한 나에 대한 원한으로 타번지고있는것이 아닐가? 그래서 내가 올린 보고가 허위라는걸 증명해보겠다는 망상적인 고집에 매달리고있는것이 아닐가?)

이런 의심이 들자 어처구니없다기보다 가슴이 선뜩해지면서 온몸이 굳어지는것이였다. 설사 아무리 부질없는짓이라 해도 결코 묵과할순 없는 일이였다. 어떤 일이든 그 일에 대한 성격을 철저히 파악하

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그였지만 이런 일, 즉 자기의 정치적존엄에 해되는 일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그였다. 특히 모든 문제를 원칙적이고도 정확하게 본다는 자기에 대한 평가에 사소한 그늘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이런 문제는 제때에 처리해놔야 했다.

그런데 마침 기술부기사장이 이런 권고를 했다.

《이왕 내려왔던김에 래일 있는 협의회에 참가해주지 않겠소? 상반년도 기술과제수행정형총환데 다 실장동무와 관계되는것들이란 말이요.》

명식은 쾌히 응했다. 총화에서 필경 투사기문제가 언급되기마련일것이고 그러면 진호에 대해, 더우기 그런 사람이 종당에는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것을 명백히 해부해보일수 있기때문이였다.

그는 기철이를 통해 진호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기 시작했다. 확실히 진호의 생활은 여기 와서도 첨부터 자기 궤도를 멀리 탈선하고있었다. 어떻게 되여 자기가 내려왔는가 하는건 감쪽같이 숨기고 공정기사라기보다 마치 국가과제를 수행하러 온 사람처럼 행세했는가 하면 주제넘게도 제멋대로 연료를 취입하다가 투사기를 파괴했고 로까지 보수하지 않으면 안되게 했다.

(도대체 그의 사고는 어떻게 돼먹은걸가? 어째서 합리적인 가능성은 한사코 배제하고 감정적으로만 나오는걸가?)

이것이 진호를 대할 때마다 품게 되는 의혹이고 불만이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번 역시 그는 그 의혹과 불만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해답을 찾기에 앞서 그것은 언제나 그에게 있어선 순시도 묵과할수 없는 투쟁대상이였고 당장 일소해버리지 않으면 안될 위험한 현상이기때문이였다.

《물론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건 동무가 몰랐다고 하세. 그러나 그의 기술안이 어떤것인가 하는것까지 몰랐을수야 없지 않나!》

옆에서 걷는 기철이를 돌아보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현장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좀더 일찌기 왔어도 투사기를 심사할수 있었으리라는것으로 하여 저으기 민망스럽기도 했던 그였으나 기철이와 함께 구내산식당으로 향하는 지금에 와선 진호에 대해 내렸던 자기의 판단이 얼마나 옳았는가 하는 생각을 새삼스레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마치 한발 늦게 도착한탓으로 환자에게 치명적인 후과를 낳게 한 의

사가 알고보니 그 환자란 이미 자기가 불치의 병이라는것을 진단내렸던, 때문에 미상불 이런 결과밖에 차례질수 없다는것을 확진했던 사람이라는것을 알았을 때와 같은 심정이라고 할가?

(이런 진호한테 현옥이를 따라보냈으면 어쩔번 했는가? 그것이야말로 현옥이 목에 폭탄을 매달아놓은것과 같은것이 아닐수 없지.)

현옥이가 제철소에 왔던 일은 모르는 그였지만 요즘에 와선 이전보다 더한 고민에 모대기고있다는것만은 깨닫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시간이 가면 저절로 해결되리라고 여겼던것이 오히려 점점 더 큰 상처로 확대되는것 같아 은근히 불안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도 생각이 달라지겠지. 이번에 가선 단단히 정신을 차리게 해주어야지.)

《알만 하네, 짐작이 가. 그의 기술안이 가망이 없다는걸 알면서도 동무가 왜 그만두게 하지 못했는가 하는게 말일세.》

그는 다시금 옆에 있는 기철이를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그 안이 바로 중유절약안과 대조되였기때문이겠지. 자기가 그걸 반대하면 책임기사가 자기의 기술안을 위해 남의것을 묵살한다는 비난을 들을가봐 겁낸거겠지. 안 그런가?》

《…》

기철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실상 그런 걱정이 없었던것도 아니기때문이였다.

《그런 사소한 체면의 결과가 어떻게 됐나 보게. 언제나 원칙을 떠나면 이런 후과가 차례지기마련이야.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 완전한 사람이 못돼. 특히 우리 일군들인 경우엔 말일세!》

기철이가 알고있는 명식이란 리성이 풍부하며 엄격하고 공정한 사색과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정력을 결코 헛되이 랑비하지 않을뿐아니라 모든 현상을 정확하게 보고 오로지 합리적인것만을 뜻있는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였다.

《그 사람이 잘못 판단할수야 없지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건 원칙이 잘못됐다는거니까!》

남들이 생각하는것처럼 그 역시 명식이를 이렇게 인정하고있었다.

명식이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철이는 확실히 진호가 자기 기술안

은 물론 생활에서까지 회의를 품고있으면서도 자신이 처한 처지와 그로 인한 궁여지책으로 하여 어떤 망상적인 완강성을 고집하고있는것 같았다. 그러자 애초에 그에게서 느끼던 의혹, 어째서 그만한 학식과 능력을 소유한 그가 그처럼 막연한 기술안을 고집할가 하는 의문이 풀리면서 바로 그런 처지에 있었기때문에 그토록 무모한 행동을 할수밖에 없었으리라는 리해가 일종의 련민과 함께 솟구쳐오르는것이였다.

(그러면서도 중유절약안을 일축하다니?)

은연중 진호에 대한 고까운 생각이 일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현실이 용납하지 않는 법이지. 아무리 교묘하게 위장을 한다 해도 우리의 생활은 그런 사람에겐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만단 말일세. 어제가 그랬고 바로 오늘의 현실이 그걸 증명하지 않나. 그건 그렇고 중유절약안은 어째서 다른 사람한테 넘겼나?》

분명 말머리를 돌리고싶었던지 이렇게 말하며 기철을 바라보던 명식은 손을 들어 해빛을 가리웠다.

《어쩌겠습니까? 기술과에서는 당장 산소의 강욕취입안부터 선행하라는데 그걸 그냥 묵여둘수야 없지 않습니까. 더우기 혼자서 두 기술안을 다 안고있을수도 없는노릇이고…》

《하여간 동문 그게 탈이야! 또 체면이 작용한건가? 아니면 그 알량한 인간성의 탓인가? 늘 봐야 동문 그런 사사로운 감정으로 해서 사업의 리익을 지키지 못하는게 흠이거던. 진호와는 너무도 반대라니까. …》

기철은 그가 몇해전 고속도분석기에 대한 공동론문을 제기했을 때의 일을 념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때 한 연구소에 있는 늙은 연구사가 오래동안 연구한 끝에 제기한 분석기가 자기네것보다 더 우월하다는것을 느낀 기철은 이제라도 론문을 포기하자고 했었다. 그러나 명식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아! 그런 동정은 필요없어! 기술이란 어디까지나 현실이라는 무대에서 벌어지는 치렬한 경쟁이란 말이네. 우린 벌써 현장시험을 거쳤지만 그건 아직 도면에 불과하지 않나! 어느게 더 국가에 리익을 주는가 하는건 두고봐야 한단 말일세.》

그런데 아니나다를가 연구사의 분석기는 종내 도면으로 그치고말았

던것이다.

《내가 말하는건 완성단계에 있는 기술안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준것이 아까와서가 아니네. 그게 그만치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손해기때문이야. 동문 량심에 못이겨 그런 선심을 썼지만 그게 결국 어떻게 되겠나? 그 기술안을 인계받은 사람은 어차피 첨부터 새로 시작해야겠지? 동무가 이룩해놓은 높이까지 리해해야 앞으로의 연구를 계속할수 있을테니까. 그럼 그게 몇달이 걸릴텐가? 얼마만 한 기일을 손해보는가 말일세. 어떤 문제도 결코 자기의 감정으로가 아니라 국가적견지에서 사고할 의무밖에 없다는걸 어째서 명심하지 못하나!》

기철은 명식의 행동과 사색의 지침이 랭철한 리성에 기초한 판단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품게 되면서 바로 이 명확한 생활관이 그를 그처럼 빨리 발탁케 한 요인이라는것을 새삼스레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구내산에 들어서는데 벌써 영양제식당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26

회의실은 많은 사람들로 붐비였다.

공장내 기사들은 말할것도 없고 공장시험소와 흑색금속설계연구소의 연구사들까지 와있어 거의 빈자리가 없었다.

기술부기사장을 따라들어선 명식이가 집행석을 차지하자 곧 회의는 시작됐다.

자리에서 일어난 부기사장이 먼저 모임의 취지에 대해 말하면서 오늘은 부의 실장도 참가했으니만치 심사와 관련하여 제기할 문제들이 있으면 서슴지 말라고 발을 달았다.

야금일반에 대해서 특히 강철주조학에서는 일정한 권위가 있을뿐아니라 외국에 기술고문으로까지 파견된적이 있는 그는 오늘도 모임을 주관할 때마다 짓군 하는 그런 근엄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어떤 모임도 정도이상으로 엄숙하게 이끌어가군 했는데 그때면 목소리도 일반용이 아니라 공식용 즉 매우 뜨직뜨직하면서도 저력이 있는 목소리

를 내는것이였다.

아무때나 자기만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닐뿐더러 때에 따라서는 남다른 리해력과 아량까지 가지고있는 그였으나 일단 이렇게 여러 사람들앞에 나설 때면 이상하게도 본래의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돼버리는것이였다. 그의 이런 버릇을 형식주의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보다는 순박성으로 여기면서 선망이 어린 눈길로 지켜보는 사람이 더 많았다.

기사들이 한사람씩 일어나 자기가 맡은 과제에 대해 총화짓기 시작했다. 대개가 마감단계에 들어섰거나 계획보다 선행되고있다는 보고였다. 개중에는 설계심사를 당겨달라고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좋소! 아주 좋습니다!》

고개방아를 찧긴 했으나 부기사장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조금도 만족해하는 빛이 나타나있지 않았다.

《강철! 왜 강철설비를 맡은데서는 총화가 없소? 석동무!》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은 얼굴이 가무잡잡한데다가 머리가 가운데만 홀랑 벗어진 체소한 늙은이였다.

《두바닥로야 이달중으로 심의에 내놓게 돼있지 않소?》

《그렇긴 합니다만 사정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목소리도 별나게 가늘고 쉬여빠진 목소리였다.

《어째?》

《그렇지 않아도 제기하려고 했지요. 저의 두바닥로개조안은 어디까지나 중유취입을 전제로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다실이 지금 강철직장에서는 중유가 아니라 새 연료를 취입하려고 하고있지요. 만약 그렇게 되면 로바닥구조는 물론 분출구의 위치와 각도도 다 달라져야 하는데 그것때문에…》

《가만! 그 새 연료라는건 무슨 소리요?》

부기사장이 어처구니없는 표정을 짓는데 또 한사람이 일어나 자기 역시 그 문제가 명백해지지 않고는 상승도설계를 계속할수 없다고 했다.

《이거 문제로구만, 공장에서 승인한 일도 없는 기술안을 놓고 과제들을 흥정하다니? 공장에선 그 기술안에 대해 어떤 결심인지 아오? 담당자가 퇴원하기만 하면 사고심의부터 하자는거요. 단단히 문제

를 세우고 당장 그만두게 하자는거란 말이요. 대체 그런 본때가 어디 있소. 아무 준비도 없는걸 망탕 시험하는가 하면 로까지 마사놓고… 작년에 그만큼 고생했는데도 성과가 없었다는걸 동무들도 다 알지 않소! 무시하시오. 그 기술안은 무시하란 말이요.》

《아니, 무시하다니요?》

회의실 중간에서 한사람이 불쑥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태수였다.

《그걸 어떻게 무시한단 말입니까?》

너무도 급작스런 그의 태도에 사람들은 놀랐다.

《물론 그 새 연료안이 어떤건지는 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것을 바쳐왔는가 하는것만은 잘 압니다. 대학 초기부터 그는 오직 그 하나를 위해 모든걸 바쳐왔습니다. 아니, 그걸 위해 대학을 다녔다고도 할수 있지요. 휴식날이 따로 있은줄 압니까? 방학때도 그 하나를 위해 줄창 공장에만 나가살았습니다. 그 과정에 그는 눈까지 못쓰게 됐습니다. 육안으로 쇠물을 주시한것으로 하여 한쪽눈의 시력이 점점 잃어지고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무시해야 합니까? 그런데도 이미의 경험만 따지면서 안된다고 단정해야 하는가 말입니다.》

태수는 벌써 끓어오르는 격정을 주체하지 못하는상싶었다.

《태수동무!》

부기사장은 목소리를 낮추며 조용히 말했다.

《주관적인 욕망이나 소원으로 이루어질수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해결 못할 문제가 뭐겠소? 기술이란 욕망으로는 해결할수 없다는 진리를 알고나서야 비로소 제1보에 접하는게 아니요.》

《옳습니다. 저 역시 그가 지나친 욕망을 앞세우지 않나 해서 만류한적이 있지요. 론쟁도 하구요. 강좌의 선생들도 첨엔 다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주장을 기어이 고집했고 그 과정에 많은것을 이룩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실현시켜보겠다고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가 과연 아무런 담보도 없이, 확신도 없이 그런 용단을 내렸겠습니까?》

벗어놓았던 안경을 다시 낀 부기사장은 저으기 난처한 기색을 지으며 명식이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명식은 웃고있었다.

그러지 않아도 새 연료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여 마침이라고 생각했는데 태수가 진호를 옹호해나서는 바람에 그는 더욱 만족스러운 기분에 젖어있었다.

《이것 보오.》

명식의 입가에는 다시금 엷은 미소가 스쳤는데 이 미소는 흔히 그가 어리석은 상대방을 설복해야 할 경우에 나타내는것이였다.

《물론 그가 새 연료안을 위해 노력은 했소. 그러나 아직은 초보의 초보에 지나지 않소. 동문 그가 아무런 담보도 없이 여기까지 내려왔겠는가고 하지만 실지로 아직은 아무런 과학적인 담보도 없소.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겠기에 말하오만 그가 여기에 오게 된건 자기의 희망이나 어떤 기술적인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의 실패를 책임지지 않을수 없었기때문이요.》

《?!》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는듯 대번에 눈이 휘둥그래졌다.

《아니, 실패라니요? 아닙니다! 그래서가 아닙니다.》

태수는 황황히 부르짖었다.

《물론 그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리로 온건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래 실장동문…》

《동무!》

명식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저항할수 없는 힘을 풍기였다.

《그래 동무가 그게 어떤 사곤지 알기나 하오? 그 사고심의에서 어떤 문제가 론의됐는가 하는걸 아는가 말이요. 그런데도 그때에도 그는 큰 사고가 아니기때문에 용서받았노라고, 제철소에 가는건 자기가 탄원했기때문이라고 했소. 사람들을 기만했단 말이요. 긴말 할 필요없이 그건 본인에게 물어보오. 그자신이 사람들을 속였다는걸 이미 실토했으니까.》

《?》

태수는 입을 딱 벌리고 사방을 두리번거렸으나 명식은 그런건 더 론의할 여지가 없다는듯이 눈을 꾹 감았다. 그리고는 장내가 조용해지자 다시 눈을 떴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게 아니라 그가 왜 그 무모한 기술안을 계속 고집하는가 하는 여기에 있소. 그의 기술안이 현실성이 없다는건 자

명한 일이요. 그자신이 이걸 몰라서겠소? 아니요! 그것이 자기 힘에 아름찬것이라는걸 몰라서겠소? 그것도 아니요. 더우기 그는 이미 새 연료에 대한 실태를 당에 보고올렸다는 사실도 알고있소. 그런데도 여전히 그걸 고집하고있소. 무엇때문이겠소?

그의 목적은 그 기술안을 계속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이미의 행동, 남들의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된 자기의 처지를 다소나마 타당화해보자는데 있을뿐이요. 말하자면 악에 받친 사람의 무분별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요.》

《…》

회의장은 긴장한 분위기에 휩싸여들었다.

《그러다나니 지금 그는 자기의 보잘것없는 체면을 위해 집단을 우롱하고있고 동무들은 그에게 희롱당하고있단 말이요, 알겠소? 그래 이게 얼마나 심각하오?》

부기사장의 말을 들을 때에는 누구나 순전히 기술적인 범위에서만 사색하던 사람들이 명식이의 말을 듣고는 원칙에 대해, 집단의 리익에 대해 생각했으며 더우기는 진호와 같은 사람은 함부로 사귀지 말아야겠다는 경각성을 느끼게 했다.

사실 명식은 지금 자기가 그 어느 문제보다도 깊이 이 복잡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있을뿐더러 이 사건을 완전히 해명함으로써 자기의 실력이 또 한번 과시될것이며 따라서 집단을 위해 거대한 리익을 가져오게 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고있었다.

모두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저마끔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지만 오직 한사람, 정아만은 아까부터 꼿꼿한 눈길로 명식이를 치떠보고있었다.

그는 지금 어떤 의혹과 불만으로 하여 질정할수 없는 마음이였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명백했는데 그것은 실장이 진호를 몰아세우면 세울수록 반감은 어쩐지 진호에게가 아니라 실장에게 쏠리는 그것이였다.

(어째서 실장은 진호동무를 그렇게만 볼가? 진호동무가 그런 사람이라니? 사고를 내긴 했지만 어떻게 그가 집단을 우롱하고있단 말인가! 오히려 그야말로 누구보다 당의 뜻을 진심으로 받들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는 어떤 기술안을 대할 때에도 반드시 사소한 감정이나 주관을 경계하고 철저히 원칙적인 립장, 당적인 립장만을 견지해야 하오. 그러자면 우선…》

한마디한마디에 힘을 주어가며 강조하는 명식이의 말에 정아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더는 잠자코 앉아있을수 없었던것이다.

《저의 의견을 말해도 좋습니까?》

그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시에 자기한테로 쏠리는 사람들의 시선에 다소 당황했으나 그런 당황에 비하면 내심에 이는 충동이 너무도 격렬했다.

《전 얼마전까지만 해도 새 연료안을 반대해온 사람입니다. 기술적인 타당성이 없는것으로, 주관적인 욕망에 불과한것으로만 말입니다. 그러나 진호동무의 기술안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에 실로 많은걸 새로 깨닫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조용하던 회의장이 다시 술렁거렸다.

《그래 새로 느꼈다는게 뭐요?》

부기사장이 물었다.

총화모임이 새 연료안 하나에만 국한되는게 언짢아 어떻게든 회의를 제궤으로 끌어가려고 노력하던 그였으나 이젠 아무리 자기가 노력한다 해도 회의분위기를 돌려세우기는 글렀다고 여기고는 그럴바엔 아예 새 연료안 하나라도 똑바로 결론을 내려야겠다고 맘먹은것이였다.

《제가 알기에는 그가 연구하는 첨가제가 온도를 보충해줄뿐아니라 연료의 이러저러한 부족점을 방지해주는 환원제로 또 촉매제로 되고 있다는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벌써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고있습니다. 례를 들면 그 첨가제로 지금 로내 온도를 1 780도까지 보장했는데 이것은 이전에 그가 시험했을 때보다 20도나 더 올랐다는것을 말해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회분이 많은 연료를 연소시킴에 있어서 작업공간에 재가 쌓이는것을 막기 위해 보충적으로 화실을 따로 설치하고 거기서 연소시키게 되여있다는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수백도나 되는 연도속에 직접 들어가 얻어낸 귀중한 자료입니다.》

정아의 두눈은 어느덧 열기를 띠고 반짝였다. 꽃술처럼 발딱 들린 속눈섭은 그린듯이 움직일줄 몰랐고 볼록 솟은 단단한 가슴은 흥분으로 하여 세차게 오르내렸다.

《이런 기술적인 타산도 타산이지만 제가 보다 새롭게 느낀건 그 기술안을 완성하기 위해 무엇도 가리지 않는 그의 고상한 정신적인 힘입니다.》
두손으로 커다란 주먹을 만든채 까딱 움직이지 않던 명식은 부기사장에게 처녀가 누군가고 물어보고는 눈을 스르시 감았는데 그 품은 마치 그런 말은 새삼스런것이 아니며 나아가서는 웃음거리로밖에는 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려는것 같았다.
아닌게아니라 명식은 심정이요, 정신이요 하는 정아의 말이 가소롭기짝이 없었다. 생각같아서는 《여기가 뭐 시를 합평하는덴줄 아오? 우린 시인들이 아니라 기술자들이란 말이요. 그런 뜬소리들은 걷어치우시오.》하고 소리치고싶은것을 어쩔수 없었다.
《전 기술을 알기 전에 인간을 알아야 한다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고결한 정신적인 안받침이 없는 기술은 한갖 거품과 같이 무게가 없다고 한 리치가 무슨 뜻인가 하는걸 그 새 연료안을 따져보는 과정에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 리치는 대학때 기철이한테서 배운것이지만 그에 따르는 진정한 가치는 오늘 진호한테서 깨달은것이였다.
《그러니 동문 우리의 과제들중에도 그런 정신적인 힘이 안받침되지 않은 기술안도 있다는거요? 우리의 기술안들은 우선 목적부터 다 국가를 위하고 근로자들을 위한데 있는게 아니겠소.》
《아니, 그렇지만 않다고 봅니다.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런것도 있습니다.》
《있다?!》
부기사장은 눈을 크게 떠보이며 놀랍다는 시늉을 했다.
정아는 망설였다. 그러나 곧 마음을 정하고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건 진호동무의 새 연료안에 비해 책임기사동무의 중유절약안이 그렇다고 봅니다. 저도 중유절약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많다는건 압니다. 하지만 그건 새 연료안에 비해볼 때 확실히 현실에 피동적인것이 아닐수 없습니다.》
자리에 앉기는 했으나 정아는 자기가 무엇을 말했으며 그 말에 어떤 의미가 숨어있는가를 깨닫고는 소스라쳤다. 자기의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이 미칠 그런 말을 했다는것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자기가 한 말은 결국 진호의 새 연료안을 긍정하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사랑해마지않는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것이 아닐수 없기때문이였다. 앞줄에 앉아있는 책임기사의 너부죽한 잔등에 시선이 닿는 순간 그는 이것을 더욱 절감했다.

그러자 갑자기 비통한 마음으로 하여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았다. 수치와 모멸로 하여 풀이 죽은 그가 저주를 담은 구슬픈 눈길로 자기를 쳐다보는 모습이 떠오르자 당장 울음이 북받쳐올랐다.

(아니야! 그래도 나는 옳게 행동했어! 그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또 집단을 위해서도! 지금은 몰라도 어느땐가는 그도 리해할거야. 꼭 리해하고말고.)

그는 나약한 감정으로 우유부단해지려는 자신을 더욱 다잡았다.

(누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자비할수 없다고 했는가? 사랑하기때문에 더욱 무자비해야 하는거야!)

가슴은 널뛰듯 했지만 그 어떤 구속의 그늘도 비끼지 않는 마음이여서 행복했다. 감동과 격려에 찬 시선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태수를 대하자 그는 새삼스레 자기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처신했는가를 돌이켜볼수 있었고 그처럼 자신있게 행동한것이 기뻤다.

(고맙소! 정아동무! 장하오!)

태수의 눈길은 뚜렷이 이렇게 말하고있었다.

오로지 그는 지금 책임기사가 자기의 목소리를 통하여 얼마나 자기가 힘들게 또 진정으로 얘기했는가를 조금이라도 짐작해주었으면 하는 그 한가지 생각뿐이였다. 그러나 기철이는 정아가 바라는 리해는 고사하고 도리여 분노와 수치로 하여 가슴이 터질것만 같았다. 분하다 못해 숨이 막혔고 온몸이 덜덜 떨리기까지 했다. 흔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모욕을 받았을 때 터뜨리군 하는 그런 성급하고도 격렬한 분노가 가슴속에 소용돌이치는것이였다.

처음엔 정아의 태도에 어안이 벙벙했댔으나 두 기술안을 대조하면서 중유절약안의 취약성을 까밝힐 땐 어떤 수치, 정신적인 라태에서 오는 모멸감으로 하여 미칠것만 같았다.

《이것 보오, 처녀동무!》

명식은 한동안 미간을 좁힌채 정아를 유심히 지켜본 다음에야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였는데 그 모습은 마치 이제야 그에 대한 명확한 개

념을 파악했다는듯 했다.

《물론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연료로 쇠물을 끓여야 하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 한사람도 없을거요. 하지만 기술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무시할수야 없지 않소. 나도 동무가 말하는 그 첨가제가 어떤것인지 모르지 않소. 그러나 20도의 온도가 증가된것을 첨가제의 역할로 본다면 오산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가스와 산소를 비롯한 보충연료들이 배합돼있기때문이요. 4천립방의 가스와 5기압의 산소—이것은 중유소비량의 절반을 담당할수 있는 열량이란 말이요. 설사 그 첨가제가 온도를 담보한다고 합시다. 새 연료에 의해 생기기마련인 생성물처리는 어떻게 하겠소? 화실을 꾸려? 어디다 어떻게? 안되오, 절대로! 만약 지금단계에서 새 연료를 취입한다면 필경 로수명이 절반도 되기 전에 연도가 메여버릴것은 당연한 리치요. 이 난관은 엄연한 사실이며 현조건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아닐수 없소. 그렇기때문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런 조건을 헤아리시여 우리들에게 중유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주신것이 아니겠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소.》

그는 이제부터 하는 말이야말로 자기 말의 가장 핵심이라는것을 강조하려는듯이 한동안 사람들을 주시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자체가 이 모든 사실을 명백히 실증하고있소. 그런데 아직 그걸 리해하지 못할뿐더러 도리여 일부 사람들은 무엄하게도 그 은덕에 도전하고있단 말이요, 알겠소? 그래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오?》

《…》

장내는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나는 기술안에 대한 심의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새 연료안과 관련된 이런 현상을 그대로 묵과할수 없다는걸, 때문에 부당위원회에는 물론 상급당에도 그 실태를 보고하여 해당한 대책을 취하지 않을수 없다는것을 밝혀두는바요.》

명식의 나직한 목소리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결심을 관철하고야말겠다는 의지가 력연히 어려있었다.

제 6 장

정 련 기

27

병원에서 퇴원해나온 진호는 첫눈에 직장분위기가 달라졌다는것을 직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불과 보름남짓한 기간이였지만 몇달만에 돌아온것 같은가 하면 마치도 생소한 곳에 처음 온것처럼 서먹서먹하기도 했다. 새삼스럽게 자기의 존재가 고독하고 서글펐다.

공장에서는 취입시험을 중단시켰을뿐아니라 기술부기사장을 책임자로 하는 심사조가 구성되여 새 연료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하고있었다. 기술안에 대한 기술적인 검정과 함께 창안자의 진의도가 무엇이며 혹시 막다른 처지에서 오는 반발적인 소행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없지 않다는것을 느낀 순간 그는 가슴이 미여지는것만 같았다.

(내가 이젠 그런 의심까지 받게 됐단 말인가!)

너무도 절망적인 사실이여서 불만을 터뜨릴수조차 없었다.

병원에 있을 때부터 어떤 타격이 있으리라는것을 공포속에 예감하고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가혹할줄은 몰랐었다.

전에 의심을 받을 때와는 전혀 달랐다. 그때는 진정에 대한 의심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의심이 확증된데 대한 무자비한 보복이였다. 그때는 불만과 분노를 앞날에 대한 희망에라도 걸수 있었지만 지금은 희망은커녕 사소한 기대조차 가질수 없었다. 오직 절망과 불안, 어둑침침한 고뇌만이 자기앞에 도사리고있을뿐이였다. 어떤 일도 시련이 있어야 재미가 있고 시련을 통해서 얻어낸 보람이라야 진정한 보람이라고 여겨온 자기였으나 이제 와선 그 시련이 지긋지긋하기만 했고 어떻게 그렇게 유치한 생각을 했댔는지 가소롭기 짝이 없었다.

그것만이 아니였다.
그에겐 다른 또 하나의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파악도 없는 기술안을 제때에 다잡지 못해 사고를 내게 함으로써 생산에 지장을 주었을뿐아니라 대중을 옳게 이끌지 못했다는것으로 하여 제철소당위원회로부터 초급당비서가 추궁을 받고있다는 사실이였다. 책벌이 적용되리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이 일을 어떡하면 좋은가?》
태수를 붙들고 호소해보았지만 그 역시 아무 대꾸를 못했다. 웬만한 일쯤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그였으나 요즘은 어째선지 그전처럼 활기에만 차있지 않았다. 줄곧 무슨 생각에 골똘하기도 했고 갑자기 속빈 탄식을 터뜨리며 허구프게 웃기도 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했지만 그래도 태수와 정아만은 그렇지 않았다. 스스로의 의사이긴 했으나 그들 역시 사람들로부터 고립되다나니 자연히 자기와 같은 처지에 놓일수밖에 없기도 했다.
태수는 그새 자기한테 배당된 투사기자재로 취입기를 만들어놓았을뿐아니라 파괴된 투사기까지 연료를 취입할수 있게 수리해놓음으로써 이젠 한쪽만이 아니라 로의 동서 량쪽에서 새 연료를 취입할수 있게 해놓았던것이다. 그런 그가 더없이 고마왔지만 진호는 되려 이렇게 말했었다.
《이제야 무슨 필욘가? 관두게!》
그때마다 태수는 왕청같은 말만 했다.
《모르겠다니! 난 아무리 따져봐도 리유를 모르겠단 말일세. 그의 말이 하나도 납득되진 않지만 그렇다고 반박을 할수가 없더란 말야. 글쎄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그의 말을 부정하면 마치 어떤 원칙을 반대하는것처럼 돼버리니 말야!》
그는 요즘 노상 명식이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듯싶었다. 언젠가 자기가 체험했던 그 불가사의한 감정을 오늘은 태수가 느끼는것이라고 생각하며 진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바로 거기에 그의 남다른 힘이 있지. 자기의 견해, 그것이 어떤것이라 해도 그것을 정당화하는 위력이 그에겐 있단 말이네.》
《그렇다고 그가 옳은거야 아니지 않나.》
《옳지 않다니? 그래 그걸 뭘로 증명하겠나. 그가 잘못한게 뭔

가 말일세. 왜 사람의 진정을 리해해주지 않는가고? 어째서 마음속에 품은 간절한 마음은 알려 하지 않는가고? 흠! 그땐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나?

〈혁명하는 사람은 나타난 사실을 놓고 변명하지 않소. 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것보다 더 정확한 기준이 뭐요.〉 이런단 말이야. 뭐라겠어? 한마디로 말해 그는 철갑으로 완전무장했지만 우린 벌거숭이 알몸이거던. 그런 사람과 맞서기 위해서는 감정따위나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걸 알아야 해. 그런것은 그와 맞서기 위해 필요한것가운데 겨우 20분의 1에 지나지 않지.》

태수와의 이야기는 언제나 이런 결론으로 하여 다시 침묵으로 잦아들었으나 정아의 경우는 달랐다.

그는 마치 새 연료안이 지금 어떤 사태에 처해있는지, 그것으로 하여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보고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것 같았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새 연료안을 정면에서 공격해나서던 자기가 이렇게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것이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로 되지 않을가 하는 위구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그것이였다.

《이걸 봐요. 방금 유도로에서 시험한건데 탄소성분이 세개나 높아졌어요. 배합이 잘못일가요? 아니면 분석이 잘못됐을가요?》

이런 식이였다.

정아가 자기의 기술안을 지지해나섰다는 말을 첨 들었을 때 진호는 도저히 믿을수가 없었다. 무슨 바람이 불어 졸지에 그가 돌변했단 말인가? 아무리 따져봐도 그의 의사를 가늠할 길이 없었던것이다.

(알다가도 모를게 처녀의 마음이라더니… 과연!)

무엇이 그를 돌변케 했는지 몰라도 필경 내막에 있어서는 변하기 잘하는 처녀들의 속성 즉 그처럼 자기와 지향을 같이할것 같던 현옥이가 하루사이에 돌아앉은것과 같은 그런 변화가 정아에게도 일었다고 여겼댔으나 퇴원하여 그를 만나는 순간 진호는 자기의 짐작이 잘못이라는것을 깨닫지 않을수 없었다.

《절 욕했지요? 용서해주세요. 대신 이제부턴 조수로 일할게요.》

이 한마디 말에 그는 이 처녀가 무엇 하나 마음속에 숨기지 못하는 아주 솔직하고 대담한 처녀라는것을 직감했고 특히 그가 어떤 일시적

인 충동으로 취하는 행동이 아님을 알수 있었다.

다음날부터 그는 정말 성실한 조수로 일하기 시작했다. 자기가 해야 할바를 다 알고있다는듯 그의 행동은 자못 자신만만했다. 짬시간마다 시험소에 가서 분석을 하는가 하면 보충연료들이 연료에 미치는 작용에 대한 자료를 안받침하기도 했다.

그의 이런 행동에는 인위적인 진실을 나타내기 위한 과장된 표현이 조금도 없었을뿐더러 다만 하던 일을 계속하는듯 한, 그것도 무척 흥미를 가지고 하는듯 한 인상뿐이였다. 당돌하기도 하고 어처구니없기도 한 그의 행동이 놀랍기도 했으나 한편으로 더없이 고맙기도 했다. 이제야 무슨 소용이냐고, 괜한 고생은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싶었지만 막상 그 말을 하려니 그것을 표현할 말마디보다 사람들한테서 멸시를 받고있는 자기의 비참한 처지가 되새겨지면서 울분이 솟구쳐올라 차마 입을 열수가 없었다.

이 두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멀찌감치 물러나 싸늘한 눈길로 자기를 지켜보고있었다.

하지만 어느쪽이라고 찍기 어려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책임기사 기철이였다.

진호는 누구보다 그가 자기에게 랭담한 태도로 나오리라고 여겼다. 그런데는 워낙 새 연료안에 대해 품고있는 의견도 의견이지만 중유절약안을 배반하고 자기의 새 연료안에 합세해나선 정아의 괘씸한 처사가 그를 더욱 그런 감정에 북받치게 하리라는것은 당연한 리치였기때문이였다. 한데 그는 침묵으로 아니, 도리여 호의적으로 자길 대하는것이였다.

언제나처럼 긴장한 표정으로 그가 마주볼 때면 마치 자기가 온당치 못한 계책을 꾸며 그에게 타격을 가하게 한듯 한 느낌이 들었고 그 역시 이것을 속으로는 느끼고있지만 지나친 격분으로 하여 터놓지 못하고있는것이 아닐가 하는 생각으로 당황하게까지 되였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가. 진실로 뭔가 깨달아설가? 아니면 가슴속에 맺힌 원한때문일가?)

도저히 종잡을수 없었다. 보매 그는 어떤 사소한 실수로 하여 더 큰 오해나 받지 않을가 하여 조바심하는듯 한 눈치였는데 이것이 진호에게는 더 난처한노릇이였다.

확실히 자기와 책임기사사이에는 표면상으로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사업을 토론하면서도 속심으로는 상대방을 경원하고있어 진지한 태도로 바라보지 못하는것은 물론 지어는 싸울래야 싸울수도 없는 그런 관계에 처해있었다.

《오늘은 나하고 같이 가지 않겠나?》

휴계실을 나서던 진호는 방금 목욕을 하고와서 옷을 갈아입던 로장이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뒤돌아보았다.

《어델 말입니까?》

《글쎄 따라만 오게. 혹시 한잔 있을지 알게 뭔가!…》

땀방울이 맺혀있는 그의 얼굴에 얼핏 한줄기 미소가 스쳤다. 입원해있은 자기를 생각해서 어떤 별식을 마련해놓고 집으로 가잔다는것을 짐작 못한 진호가 아니였으나 이 기회에 내심에 이는 고충을 털어놓고싶었던 그는 로장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사실 로장을 마주할 때마다 진호는 은연중 집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면서 속심을 털어놓고싶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외모와 체취는 전혀 달랐지만 가까이하면 할수록 점점 아버지와 류사한 점을 찾아보게 되였고 그리하여 저도 모르는새에 아버지처럼 대하게 되는것이였다.

일전에 투사기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던 자신을 뉘우치며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투사기를 쓰자고 고집한데는 심사에 어떤 지장이 있을가봐…》 하고 우물거리자 《됐네! 알면 됐어.》 하며 솥뚜껑같은 손을 불쑥 내미는것이였다.

아버지도 잘못을 뉘우치는 자기앞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엄중한것이라 해도 언제나 이렇게 너그러웠으며 또 이처럼 행동했던것이다.

진호는 로장과 아버지사이에 마치 그 어떤 보이지 않는 뉴대가 형성돼있는것 같았는데 그것이 모르긴 해도 계급적바탕에 깊숙이 뿌리박은 인간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그런 동질적인 감정이 아닌가싶었다.

한데 무엇때문인지 로장은 요즘 수명이 지난 로를 그냥 유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고있었다. 흔히 수명이 차기 전부터 로를 수리해달라는것이 로장들의 일반적인 요구인데 무슨 변덕인지 계획을 이미 수행한데다 보수날자가 지났는데도 한사코 가동을

고집하는것이였다.

《흠! 이젠 도급에 눈이 어두웠구려. 골고루 노나먹어야지 혼자 배부르면 되우?》

이런 시비도 없지 않았으나 그는 끄떡도 안했다.

실상 따져보면 로가 낡으면 그만치 잔손질이 많아질뿐더러 제강시간도 턱없이 길어지기때문에 도급이래야 몇푼 붙지도 않았다. 그래서 용해공들도 속으로는 달갑잖아했으나 그런 내색을 하면 어떤 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는터여서 벙어리 랭가슴앓듯 속으로만 끙끙거렸다.

《아바이도 절 무척 노엽게 생각하시지요?》

큰길에 나선 진호는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지 가늠할수 없는 로장의 덤덤한 표정을 지켜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왜?》

《자기 기술안을 위해 투사기를 파괴했지, 로를 마사먹었지, 거기다가 비서동지까지 피해를 입게 했으니 말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로장의 모습에서 그가 이미부터 자기의 속심을 짐작하고있었을뿐아니라 바로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만들었다는것을 깨달을수 있었다.

《나도 자네 심정을 모르는건 아닐세. 고민이야 있겠지.》

달빛에 어려 환영같이 어른거리는 나무그림자를 내려다보며 우택은 탄식조로 중얼거렸다.

《왜 가슴이 아프지 않겠나.》

그의 다심한 목소리에 진호는 어쩐지 목이 메여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룩하려던것에 비해 너무나도 가혹한 결과만 차례지기때문인지 아니면 그 결과가 이젠 더는 어떤 희망조차 품게 하지 않기때문인지.

오직 하나의 충동, 자기는 결백하며 때문에 언제든 꼭 그것이 증명될 날이 있으리라는 그 하나의 신심으로 일해왔지만 증명되기는 고사하고 도리여 점점 더 파렴치한 인간으로만 인정되는것이 아닌가! 내가 과연 그렇게도 비루하고 무뢰한 인간이란 말인가! 솟구쳐오르는 격정을 삼키며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바이, 전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살아가느라면 원하든 원치 않든간에 지켜야 할 도덕적의무가 있다고 말입니다. 아무

리 량심이 없는 인간이라 해도 그 의무의 최소의 량은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도리라구요.》

《도리?》

우택은 마치 진호를 처음보는 사람이기라도 한것처럼 찬찬히 바라보았다.

《도리라… 자넨 지금 자기 기술안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생시키기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것 같은데 내 생각엔 옳은 처사가 아닌것 같네.》

이때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오던 사람이 속도를 늦추며 로장에게 자기네 로가 지금 무슨 작업을 하더냐고 묻는 바람에 로장은 그쪽을 보지 않을수 없었다. 용해공이라면 누구나 출근할 땐 자기 로의 공정을 묻는것이 상례로 되여있었다.

《한창 쫄이구있네.》

《아니, 벌써요? 그럼 올라가자마자 또 한물 뽑아야겠군! 좋—다! 넨—장!》

대뜸 엉치를 하늘로 추켜세운 그는 갑자기 자전거선수라도 된것처럼 허리를 새우처럼 꼬부리고 신명나게 페달을 밟아댔다.

《어쨌든 자네가 생각하는건 도리가 아니야! 뭐라고 할가? 눈치? 그래, 눈치지!》

《눈치요?》

《암, 눈치구말구, 사람들이 자길 어떻게 볼가 하는 눈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행동해야겠다는 눈치란 말일세.》

아버지가 하던 말이 회상됐다. 남들이 자길 보고 뭐라겠는가고 하자 아버지는 그런 눈치는 볼 필요가 없다고,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했었다. 그런데 그 행동의 결과 오늘은 또 이런 처지에 빠지지 않을수 없게 되였는데 로장은 또다시 눈치를 본다고 하지 않는가!

《그럼 저의 립장에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래도 계속 자기 주장을 고집해야 한다는겁니까? 저도 첨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의심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았지만 눈을 꾹 감고 일에만 달라붙었지요. 그걸 실현하는것이 자기를 증명해보이는거다 하고 말입니다. 참된 량심은 어느때든 승리하기마련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어

데 있습니까. 어디 있나 말입니다.》

또 한무리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수고했다고 인사를 했으나 우택은 이번엔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눈치를 봐서야 안되지. 사람이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불구가 되고마는 법이네. 왜냐하면 마음의 주추를 잃어버리니까 결국 허수아비가 되고말지. 남의 말을 듣고 자기를 가늠할수밖에 없게 된단 말일세.》

진호는 로장의 말을 다는 리해하기 어려웠으나 그가 말하는것과 자기가 생각하는것의 차이만은 깨닫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가 생각하는것은 한갖 평범하고 범속한 범주에 속하는것이라면 로장이 말하는것은 모르긴 해도 그보다 훨씬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는것 같았다.

《그 주추란 뭐겠나? 그건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무얼 바라시는가를 알고 거기에 자신을 내세울줄 아는것, 그이께서 의도하시는대로 행동할줄 아는 그것이 아니겠나. 그래야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나갈수 있지. 어버이수령님께 바치는 이 깨끗한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람의 도리고 량심이 아니겠나 말일세.》

진호는 어떤 새로운 충격에 몸을 떨었다. 그러나 자기가 여태껏 바라왔지만 이룩할수 없었던것, 그래서 포기하려는것을 로장이 부인하고있다는 사실은 어쩐지 반발을 촉발케 했다.

(과연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인가!)

수령님께서 야금의 주체화를 놓고 그처럼 마음쓰신다는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괴로움에 모대기던 자기였던가. 바로 그걸 해결하려고, 기어이 원유를 대신할 우리 나라의 새 연료를 만들어낼 하나의 일념으로 대학에 들어갔고 그 하나를 위해 4년을 고스란히 바친 자기가 아니였던가! 또 그 하나를 위해 모든 고통을 일축하고 현장으로까지 뛰쳐나온 자기가 아니였던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가 그걸 리해해줍니까? 도와주기나 하나 말입니다. 도리여 비웃고 손가락질 하다못해 이젠… 자— 이런데도 여기에 무슨 량심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무슨 성실한 마음이 필요하나 말입니다.》

걷잡을수 없는 흥분과 어떤 자학적인 감정으로 하여 눈앞에 안개가 서리였다.

《이 사람아! 진리가 명백한것이긴 하지만 즉시에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는 법이 아닌가! 4년이 아니라 일생이 걸릴수도 있지. 아니, 일생이 걸려서도 못할수도 있지. 한데 문제는 뭔가? 몇년이 걸리던 그 진리가 확증된 다음에 행동한다는건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걸세. 진리가 진리로 되기 전에 느껴야 할뿐아니라 그렇게 행동까지 하는게 보람이 있지. 사람은 바로 그런 재미에 사는게 아니겠나.》

《?!》

《실은 나도 그 재미를 한번 볼가 해서 수명이 찬 로를 그냥 유지하고있는걸세. 자네의 새 연료를 취입해볼가 해서 말이네.》

진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로장의 말에 대한 움직일수 없는 힘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말을 더욱 받아들이게 되지 않았다.

《아무리 아바이가 그렇게 생각하신다 해도 누가 알아줄줄 아십니까? 그런 마음을 지지해줄줄 아나 말입니다. 보십시오! 지금도 아바인 그것으로 해서 시비를 듣고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고있지 않나 말입니다.》

《그건 나도 아네. 그렇지만 난 자네처럼 눈치를 보진 않아! 결심을 달리 하지도 않고!》

어딘가 어둠에 휩싸인 한곳을 응시하며 걷고있는 로장의 모습이 진호에겐 전혀 딴사람처럼 여겨지는것이였다.

《물론 사고심의도 있고 책임추궁도 있겠지. 그렇다고 량심이야 저버릴수 없지 않나. 안 그런가?》

《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옳다는걸 믿을수가 없구요.》

진호는 자기의 목소리가 어느덧 항변이라기보다 이미의 타성에서 오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고 그럴수록 어떤 격정으로 하여 가슴이 떨리였다.

한마디로 말해 로장이 말하는 량심이란 사람이 사람다울수 있는 근본조건, 즉 그 사랑을 지탱케 해줄뿐만아니라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인간으로 갱생케 해주는 힘,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변함없이 지켜야 할 마음의 기둥이라는것이 아닌가!

사람은 어떤 얘기를 통해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힘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것을 새롭게 느껴서가 아니라 그 힘이 자기한테 있다는걸 깨

우쳐주기때문인것이다. 그가 자기에게 새로운것을 주입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니고있는 좋은 점을 깨닫게 해주기때문에 그를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것이다.

진호는 로장에 대해 바로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로장의 인격이 암암리에 주는 영향력이 바로 그런 능동적인 힘을 자기한테 불러일으키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어떤 충고나 책망까지도 마음속에서 새로운 의욕을 더욱 강하게 불어넣어주는 그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누가 옳은가 어디 오늘 밤새껏 론쟁해보세!》

단단히 벼르는것 같기도 하고 빙그레 웃는것 같기도 한 로장을 바라보던 진호는 갑자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것처럼 비칠거렸다. 얼른 진호를 부축한 우택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아직은 길이 험하네. 그렇지만 저 굽인돌이를 지나면 한결 낫지, 포장도로니까.》

그러면서 로장은 진호의 어깨를 철썩 갈겼다.

로장네 집은 소박하고 평범하면서도 독특한 친근미가 넘쳐흐르고있었다. 그것은 어느 집에서나 일부러 흉내낸다고 될 성질의것이 아니며 따라서 흔히 볼수 있는것도 아니였다. 어린애들이 많은 집, 모든것이 흩어져있으면서도 루추한감을 주지 않는 집, 손님이라 해도 격식을 차릴줄 모르는 집, 그런 집이 바로 로장네 집이였다.

현관에 들어서던 우택은 무슨 기미를 느꼈는지 갑자기 진호를 돌아보며 조용하라고 손짓했다. 가만히 들여다보느라니 건너방에서 로장의 두 손자, 열둬살짜리와 일곱살쯤 되여보이는 놈이 된소리를 지르며 맞붙어싸우고있었다.

찰싹찰싹 따귀를 갈기는 소리가 나더니 두놈은 권투선수들처럼 방어태세를 취하고 상대방에게 일격을 가할 기회를 노리고있었다. 그러다가 큰놈이 동생을 문밖으로 홱 밀쳐버리고는 회심의 미소를 띠우며 문이 열리지 않게 걸상으로 막아놓았다.

《늘 이런 판일세.》

미간을 찌프리긴 했으나 웃방을 흘끔 바라보는 품이 무슨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나 하고 기다리는 눈치였다.

밖에서 작은 놈이 방문을 두드렸지만 큰놈은 태연하게 앉아서 가위

로 종이를 오리기 시작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멎더니 이번에는 악을 쓰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문을 열어! 열지 않겠어?》
또다시 주먹으로 힘껏 두드리고는 방안의 반응을 기다리는듯 잠잠했다. 그래도 대꾸를 안하자 곧 되알진 소리가 튀여나왔다.
《문 열어라. 요 짱구새끼야.》
진호는 웃음이 터져나오는것을 참을수 없었다. 짱구란 말을 듣고보니 정말 방안에 있는 큰놈의 머리가 앞뒤로 삐져나왔을뿐아니라 하관이 길고 뾰족했기때문이였다.
한참동안 잠잠하더니 이번에는 열쇠구멍으로 간사스런 목소리가 노래소리처럼 새여들어왔다.
《짱구, 짱구, 길짱구―》
그 소리에 큰놈은 가위를 방바닥에 내던지더니 문앞에 세워놓은 걸상을 치우고 휭하니 밖으로 달려나갔다. 복도에서 빽치는 소리가 또 들려왔다. 작은놈은 도망을 치며 온 집안이 떠나갈듯이 비명을 올렸다. 그러다가 현관에 서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하자 대번에 그 품에 콱 안겨들었다.
《할아버지, 짱구 봐요. 막 때려요.》
《그래? 어디 요 짱구놈 오기만 해라. 혼쌀낼라.》
보매 로장은 언제나 작은놈 편인 모양이였다. 동생이 할아버지한테 안긴것을 보자 큰놈은 더 달려들지 못하고 주밋거리다가 옆에 서있는 진호를 보고는 얼른 허리를 굽석했다.

28

드디여 새 연료안에 대한 심사성원들의 결론이 있었다. 결론은 예견했던것보다 더 무자비했다.
《현실성이 없을》뿐아니라 《무모》하기때문에 기술안을 당장 취소할것과 창안자에 대한 문제를 별도로 엄격하게 취급해야 한다는것이였다. 이 결론은 그대로 제철소당위원회에도 제기되였다.

(그러니 이젠 결국…)

혹시나 하고 바랐던 한줄기의 기대마저 잃고나니 진호는 눈앞이 캄캄했다. 전신을 휩쓰는 허탈감으로 하여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가릴수가 없었다.

가슴속에는 오직 한가지 생각, 이젠 자기의 희망이 영영 사라져버렸다는 애달픔과 그처럼 고심참담한 과정들을 거쳐 이룩해놓은 모든것이 일시에 거품처럼 되고말았다는 절망감뿐이였다.

(이런 조건에서 뭘 더할수 있단 말인가! 몇년이 아니라 일생이 걸릴수도 있다구?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라구?)

로장이 하던 말이 이제 와선 한갖 현실과는 거리가 먼 뜬소리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을 피해 터벅터벅 구내산으로 들어섰다. 용광로의 열풍소리와 매미소리가 귀청을 따갑게 긁어댔으나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초연히 서서 멀리 바다처럼 펼쳐진 대동강과 그우에 일매진 무늬를 이루고있는 조개구름만 멍하니 바라보고있었다.

털썩 그 자리에 퍼더버리고앉은 그는 두손을 뒤로 뻗치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이젠 하소연조차 할데 없는 자기라는 생각이 들자 저절로 목이 메여올랐다.

(현실은 어째서 나에게는 매번 이리도 가혹한것일가? 어째서 나는 매 걸음이 암초에만 부딪치는것일가? 내자신이 스스로 그런 처지에 내몬다구?)

현옥이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물끄러미 옆에 있는 꽃밭을 바라보던 그의 얼굴에는 저도 모르게 허구픈 웃음이 스쳤다. 그것은 이름도 모를 하얀 꽃송이우에 앉을듯앉을듯 팔랑거리면서도 종시 앉지 못하는 노랑나비가 마치 그 어디에도 제대로 발을 붙이지 못하는 자기의 처지같았기때문이였다.

(그래도 저 나비야 더 좋은 꽃가루를 찾아다니지만 나야 어디…)

갑자기 그는 무엇에 놀란 사람처럼 벌떡 허리를 일으켰다. 불시에 어떤 흥분이 온몸을 사로잡는것이였다.

(그래! 가자! 저 나비처럼 아무데라도 가자! 거기서 쫓겨나면 또 다른데 가서라도 새 연료만은 기어이 만들어놓을테다!)

자리를 차고 일어난 그는 황황히 초급당비서 사무실로 향했다.
마침 비서는 방에 혼자 있었다.
다른데로 가겠다는 하나의 충동에 못이겨 비서를 찾아온 진호였으나 정작 그를 마주보느라니 그런 충동보다 그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이 앞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퇴원후 단둘이 마주앉기는 처음이였다.
간혹 직장모임때나 현장에 있는 그를 먼발치에서 볼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진호는 지금 비서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랴, 더우기 그 괴로움을 털어놓을수 없는 처지로 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우랴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미여지군 했던것이다.
《어떻게 왔소?》
줄곧 무뚝뚝한 눈길로 자기를 주시하고있는 비서를 보느라니 새삼스레 그에 대한 죄책감이 갈마들었다.
《비서동지! 이런 말 한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전 제가 저지른 일이 비서동지한테까지 피해를 입게 할줄은 몰랐댔습니다. 무슨 말로 잘못을 빌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범은 한쪽입귀를 실룩해보였는데 그것은 흔히 맞갖잖을 때마다 나타내군 하는 그의 버릇이였다.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전 어떤 결론이라 해도 저의 기술안에 대한 기대만은 버릴수가 없습니다. 제딴엔 자신도 있구요. 앞으로 있게 될 추궁이 어떤것이라 해도 전 다 접수하겠습니다. 또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는 이미 습관됐으니까요. 다만 기술안을 계속할수 있는데만 보내준다면…》
진호는 말을 더 이을수 없었다. 그전에 사고를 냈을 때도 부당비서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었다는 생각이 가슴을 허비였기때문이였다.
《그러니 다른데로 가겠다 그 말이요?》
《아무데라도 좋습니다. 야금로가 있는데라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비서의 눈치를 살핀 진호는 한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원주필을 손에 쥐고 만지작거리던 상범은 한동안 아무말없이 진호를 바라보기만 했다.

《가겠다…》
또다시 침묵을 지키던 그는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가겠다는 사람을 붙들어놓을수야 없지.》
너무도 선선한 대꾸에 진호는 얼떠름했다. 원주필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변함없는 거동이며 침착하고 태연한 표정으로 봐서는 비서가 진정으로 자기의 제기를 받아들이는것 같았으나 방금 한 대답을 통해서는 뭔가 못마땅해하는 뜻이 포함돼있지 않을가 하는 의심이 드는것이였다.
사실 상범은 방금전까지 바로 진호의 기술안에 대한 심사조의 결론에 대해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당위원회에 제기했던 사실에 대해 되새기고있던터였다. 만약 당위원회에서 자기의 제기를 무시하고 그대로 집행할것을 승인하면 어떻게 할가 하는 불안도 없지 않았지만 보다는 설사 그렇다 해도 그 기술안을 버릴수 없을뿐더러 어떤 책벌이 차례진다 해도 그걸 포기할 권리가 자기에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던것이다.
그는 진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었다. 그가 심사결과를 놓고 고민하고있으리라는것과 자기의 앞날에 대한 불안에 잠겨있으리라는것은 짐작했지만 차마 여기를 뜰 생각까지 하고있는줄은 상상도 못했었다. 그런 진호를 보느라니 깨우쳐줘야겠다는 의무감보다 어쩐지 배반당한듯 한 노여움이 솟구쳐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하나 물어보기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침착했다.
《동문 혹시 자길 어떤 수난자로 여기는게 아니요? 억울한 희생만 강요당하는 수난자 말이요.》
(수난자?)
너무도 뜻밖의 말에 어리둥절해진 진호였으나 곧 어떤 도전적인 기분에 사로잡히고말았다.
(그래! 사실 내가 수난자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진정을 유린당했지, 사랑을 잃었지, 그것도 부족해서 이젠 고의적인 방해자로까지 락인되고있는 내가 수난자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세상에 나보다 더 애꿎은 수난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것 보오!》

자리에서 일어난 상범은 창가로 다가서며 말을 이었다.
《어떤 일도 목적과 방도만 가지고는 어려운 법이요. 특히 첨 해보는 일일수록 말이요. 그건 왜냐하면 목적과 방도를 찾기보다 몇배 더 힘든 열정이 있어야 하기때문이 아니겠소. 열정이! 그런데 그런 열정이 동무한테 있소?》
상범은 진호가 미처 대답할새도 없이 손을 홱 내리그었다.
《없소! 동무한텐 그런 열정이 없단 말이요. 왜? 그건 언제나 동문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 개인의 리해관계에만 얽매놓기때문에, 다시말하면 동문 새 연료안을 통해 자기가 어떤 사람이며 자기가 얼마나 결백한가 하는 그것만을 증명하려고 할뿐이요. 자— 봐라! 난 이런 사람이다! 바로 이걸 시위하지 못해 안달아할뿐이란 말이요!》
진호는 고개를 들었으나 무섭게 번뜩이는 비서의 두눈을 보고는 다시 시선을 떨구지 않을수 없었다.
《동무같은 사람은 남들이 상상할수 없는 정열을 발휘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리해관계와 결부될 때뿐이요. 모든 일을 자기에 대한 리해에 얽매기때문에 그 정열에 편파가 있을수밖에 없단 말이요. 더우기 참된 목적은 승리하기마련이라는 이 하나의 생각에만 몰두할뿐 승리를 위해선 복잡한 생활속에서 그 목적을 신념으로 고수하고 그것을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관철해나가는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는걸 모르고있단 말이요. 말하자면 참된 지향은 시련을 이겨내는 투쟁을 통해서만 증명된다는것을 모른단 말이요. 알아두오만 동무같은 그런 행동은 한갖 개인영웅주의자의 유치한 공명에 지나지 않소. 자길 수난자로 여기는 패배자의 너절한 추태에 불과하단 말이요!》
생전 처음 듣는 말이였다.
도저히 접수할수도 없는 말이였다.
(내가 공명주의자라니? 자기 리해관계밖에 생각하지 않다니?)
조금도 납득되지 않았지만 어쩐지 그 말에 가슴을 찌르는 무엇이 있다는것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속으로는 이상하게도 여태껏 한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드센 격랑을 받아안은것 같았다. 그는 그것이 무엇때문인지는 알지 못하면서도 그 새로운것에 커다란 충격을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어제 제철소당위원회확대회의가 있었소. 그 회의에서 또 새 연료안에 대한 문제가 론의됐소. 수령님께서 중유를 해결해주셨으면 더 많은 증산으로 은덕에 보답하도록 대중들을 동원하는것이 당일군으로서 본분이지 파악도 없는 기술안을 붙들고 생산에 지장을 주는것이 옳은가고 들이대더군.

난 그 비판을 다 받아들였소. 모든 잘못이 내한테 있고 책임도 응당 내가 져야 한다고 말이요. 그렇지만 한가지만은 리해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수령님께서 해결해주신 중유로 더 많은 깡을 생산하는것도 필요하지만 내 생각에는 중유가 아니라 우리의 연료로 깡을 생산하는것이 보다 중요한 일이며 바로 이것을 수령님께서 더 바라시고계시리라는걸 믿는다고 했소. 때문에 새 연료안을 취소시킬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시험하게 해달라는것을 제기했단 말이요. 바로 동무를 믿고! 다른 사람은 못해도 동무만은 해내리라는것을 믿고 말이요. 그런데 가겠다?…

사실 난 우리의 연료를 기다리고계실, 우리의 연료로 쇠물을 끓인다는 보고를 애타게 기다리고계실 수령님의 영상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저려 잠을 이룰수가 없었소. 그런데 동문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밖에 안중에 없거던. 정말 동무야말로 한푼의 량심도 없는 사람이요.》

진호는 호되게 얻어맞은것처럼 눈앞이 아찔했다.

한푼의 량심도 없다는 말이 며칠전에 하던 로장의 말과 합쳐지면서 예리한 비수가 되여 페부를 찌르는것이였다.

《가겠으면 가오. 그러나 이번엔 사람들의 조소나 힐난이 아니라 수령님의 기대를 저버린 배신자라는걸 똑똑히 알고나 가오. 그것도 두렵지 않거든 가란 말이요.》

더는 마주하기도 싫다는듯 창문쪽으로 돌아서는 비서의 모습을 진호는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퇴근시간이 지난지도 오랬지만 진호는 공정기사실에 앉아 낮에 하던 비서의 말을 곰곰히 곱씹어보고있었다.

비서의 말은 그의 마음속에 줄곧 전기의 불꽃과도 같은 작용을 일으키며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이제까지 무기력했던 모든 생각들을

일제히 변경시키는가 하면 하나의 옹근 덩어리로 뭉쳐놓는것이였다. 모르긴 해도 그는 지금까지 자기의 온 생명을 틀어쥐고있던 머리속의 중요한 나사못이 풀어져있었다는것을, 바로 그것을 비서가 예리하게 지적했다는것을 깨닫지 않을수 없었다.

수난자—그래 내가 과연 자신을 희생만 강요당하는 수난자로 여기지 않았단 말인가! 자기보다 불우한 사람이 없다고 여기면서 울분에 잠겨 사소한 일에도 저돌적인 흥분을 나타내지 않았단 말인가! 마치 남다른 목적을 위해 시련에 찬 길만 걸어야 하는 억울한 희생자처럼 여기지 않았단 말인가!

개인영웅주의자—정녕 내 마음속에 자기에 대한, 자기 체면과 명예에 대한 생각밖에 뭐가 더 있었단 말인가!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는 생각, 그 숭고한 목적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있었는가! 오직 자기의 서푼어치 량심을 증명해보이려는 그 일념, 그것을 통해 자기를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복수해보일 그 일념밖에 뭐가 또 있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그런 비렬한 감정을 기술안을 위한 정열로, 남다른 헌신으로 자부해오지 않았단 말인가!

따져보면 볼수록 비서의 말은 깊숙이 박힌 화살처럼 좀처럼 가슴에서 뽑을수가 없었다. 저절로 무거운 한숨이 쏟아져나왔다.

《아니, 아직도 퇴근하지 않았어요?》

이런 소리에 고개를 돌린 진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오는지 여태 작업복을 입고있는 정아가 방안으로 들어서기때문이였다. 손에는 계산자와 도면말이가 쥐여져있었다.

《예비처리로의 자동권양기때문에 늦었어요. 자꾸 말썽을 부리는군요.》

피곤에 지친듯 하면서도 어딘가 행복스러워하는 기색이였다.

자기 기술안을 도우면서도 공정기사로서의 임무는 꼭꼭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그였다. 머리수건을 벗으며 자기 책상으로 다가서던 그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이쪽으로 돌아서서 방긋 웃는것이였다.

《저, 한가지 제기하랍니까?》

어딘가 롱이 섞인 어조였다.

《제기라니?》

《조수니까 아무 일이나 연구사의 허가를 받아야지요?》

《허가라는건 또 뭐요?》

언제나 그를 마주할 때면 그런것처럼 진호는 이번에도 그의 기분에 말려들고말았다.

《아무래도 제가 평양에 있는 연구소나 과학기술위원회에 다녀와야겠다는거예요. 시험로의 분석수치를 보면 계속 규소분이 높아지거던요. 축열실과 연도에 미치는 작용에 대해서도 미흡한 점이 많고. 마침 장입기도면을 끝냈기때문에 당장은 급한 일이 없어요.》

《…》

진호는 뭐라고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자기는 지금 기술안의 운명을 놓고 불안에 휩싸여있는데 이 처녀는 생각하느니 그것밖에 없지 않는가. 마치 이젠 자기가 새 연료안의 주인인듯 했다.

진호도 그가 속으로는 지금 못내 심사결론에 신경을 쓰고있을뿐아니라 누구보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있다는것을 모르진 않았다. 놀라운것은 그런 불안을 그가 조금도 내색하지 않는것이였고 그것도 결코 무슨 기교나 잔꾀로써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난 천성과 의지로 극복하는데 있었다. 정아의 그런 의지가 진호에게는 놀라운 한편 부럽기까지 했다.

《이젠 자료들을 빨리 확보해놔야겠어요. 참! 오늘 로장아바이가 책임비서동지를 직접 찾아가 취입시험을 하겠다고 제기한걸 알아요? 이젠 사고가 나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시면서…》

진호도 그 사실을 알고있었다.

낮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너무도 놀라와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로장의 결심을 몰랐던것은 아니였지만 기술안의 운명이 판가리되는 이때에 그런 제기를 들이대리라고는 짐작도 못한터였다.

《가도 되지요?》

《내야 뭐… 책임기사가 승인하겠소?》

《책임기사요?》

갑자기 말끝을 흐린 정아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여느때 같으면 틀림없이 《일없어요.》 하고 자신있게 대꾸할 그였지만 책상우에 있는 계산자만 만지작거렸다.

요즘 그는 확실히 책임기사를 피하는 눈치였다. 해야 할 말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가 하면 총화때에도 그를 마주보기조차 꺼려했다.
(하긴 아무리 정당한 행동이라 해도 옹색할 때가 있는 법이니까.)
《동문 어째서 전기를 전공했소?》
그의 울적한 기분을 가셔주기 위해 진호는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던졌다.
《네?》
《왜 전기를 택했냐 말이요.》
《왜요?》
《전기란 뭘 생산하는것도 아니니까 제품을 놓고 희열을 느낄수도 없고 또 워낙 처녀들한테는 어울리지도 않는 일이 아니요.》
정아의 두눈은 대번에 동그래졌다.
《생산물이 없다니요? 불과 열은 전기의 생산물이 아닌가요 뭐! 생산물중에서도 가장 값진거지요. 사실 제딴엔 첨엔 남달리 좋은걸 택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전기일이란 잘하면 잘할수록 사람들의 눈에 뜨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꾸만 남의 눈에 거슬리기만 해요.》
못내 유감스러운듯이 고개를 저으며 한숨까지 내쉰 그는 어느새 다시 밝은 기색으로 돌아섰다.
《그래도 좋아요. 어쨌든 어두운 곳을 밝게 해주고 모든것을 뜨겁게 해주니까요. 그렇지요?》
《…》
정아를 대하게 될수록 진호는 그에 대한 어떤 호감과 호기심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호감은 자신의 정당성을 행동으로 과시할줄 아는 그 담대한 기질과 올곧은 성격이였고 호기심이란 그처럼 가슴속에는 남다른 정신적아름다움을 지니고있으면서도 그자신은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점이였다. 보매 이 처녀는 오직 자기 일에만 급급할뿐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랑 그리고 자기가 남보다 고상하다는데 대해서는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상싶었다. 이 점이 그의 정신적미를 더 보태주고있었다. 확실히 그의 체내에는 남들에게는 없고 또 보이지도 않는 미묘한것이 생기있게 약동하고있었다.
아닌게아니라 정아는 요즘 여느때보다 몇곱절이나 더 행동하고싶고 투쟁하고싶은 열망에 타오르고있었다. 자기앞에 일감이 산더미처럼 쌓

아져있기만 바랐고 그속에서 녹초가 되도록 일하고싶었다. 그런데는 단지 자기 내심에서 이는 정신적불안을 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날이 더해지는 새 연료안에 대한 충동때문이였다.

중유절약안을 말았을 때에는 그 일의 리해관계가 많이는 기철이에게 국한되여있었다면 지금은 자기가 하는 일이 진호의 기술안이라고는 하지만 집단과 전체를 위해서 아니, 보다 숭고한 목적을 위해 일한다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그 역시 지금 기술안의 운명이 위험에 처했다는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그럴수록 더 태연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것을, 자기만이라도 그래야만 진호에게 다소나마 힘을 줄수 있으리라는것을 알고있기때문에 더욱 명랑한 태도를 취하는것이였다.

《평양에 가면 어디부터 찾아가야 방조를 받을수 있을가요?》

정아는 조심스레 그러나 의미있는 눈길로 진호를 바라보았다.

실상 그에겐 평양에 가서 방조를 받는것도 받는것이였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있었던것이다. 그것 역시 기본임무 못지 않게 어려운 과제였다.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것인지도 몰랐다.

낮에 그는 설계실에서 태수를 만났었다. 아무래도 평양에 가서 방조를 받았으면 한다는 의향을 말하자 그는 대뜸 제도판을 밀어놓고 자기쪽으로 돌아앉는것이였다.

《마침이요! 그렇지 않아도 골치거리가 하나 있는데…》

사업과 관련된 어떤 부탁이려니 했는데 그는 왕청같은 말을 꺼냈다.

《거기 가면 ××출판사에 들려 현옥이라는 처녀를 만나주오.》

《현옥이요?》

언젠가 진호의 사업일지를 볼 때 거기에 적혀있던 이름이였다는것이 상기됐다.

《누군데요?》

《진호 애인이요. 대학때 말이요. 일전엔 여기까지 오기도 했는데, 글쎄 그 친구가… 어쨌든 그 친구에 비하면 얼싸한 처녀요. 대학적으로 소문난 미인이겠다, 마음은 또 얼마나 곱다구. 그런데…》

그들에 대한 전후사를 듣고난 정아는 어쩐지 한숨이 나갔다. 현옥이라는 처녀에 대한 불만이 솟구치는가 하면 진호가 지내 가혹한것 같기도 했고 처녀의 처지가 리해되는가 하면 또 진호가 너무도 불쌍하

게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느끼지 않을수 없는것은 진호에 대한 새로운 련민의 정이였다.

(너무해! 어째서 그에겐 그토록 가슴아픈 일만 생기는걸가? 도대체 어떤 처녀기에 그와 같은 사람도 리해하지 못할가?)

《거기에 들려 그 처녀의 기색이 어떤지나 알아봐주오. 속시원히 알아야겠단 말이요. 그래야 결심할 문제도 있고 해서. 처녀들은 말이 없이도 그런걸 알아내는 재간이 있지 않소.》

그 처녀를 어떻게 만나며 만나서는 무슨 말을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정아는 응했다. 응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한데 사무실에 홀로 앉아있는 진호를 보니 그가 처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있는지 알고싶은 충동이 불쑥 일었던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는 진호의 생각이 처녀에게 미치게 하려고 촉수를 조심스레 뻗쳐보는것이였다.

《아무래도 부에 먼저 가야겠지요?》

《아니, 과학기술위원회에 가는게 더 효과적일거요. 거기 가야 연료전문가들도 있고 해당한 자료를 볼수 있을테니까.》

《혹시 우리한테 필요한 론문이 투고된건 없을가요? 출판사 같은데 말이예요.》

《출판사?》

얼른 자기를 마주보는 진호의 표정에서 정아는 그의 생각이 은연중 출판사에 있는 현옥이에게 미쳤다는것을 직감했다. 너무 직선적으로 들이댄것이 후회되기도 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진호는 창문으로 다가가 달빛에 우중충한 구내산을 바라보기만 했다.

《출판사에 그런 원고가 투고될게 뭐요? 없을거요. 가지 마오.》

이렇게 혼자소리처럼 되뇌인 그는 문득 전화번호를 대줄테니 전화나 한번 걸어달라고 했다.

《네, 그러지요. 누군데요?》

가로수의 잎새로 새여드는 달빛에 비치였다가는 그늘에 덮이군 하는 진호의 얼굴을 살피며 정아는 다음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녀동생인데 내가 보고싶어하더라고만 말해주오. 시간이 있으면

한번 오라고…》

《…》

무겁고 축축한 밤공기가 방안으로 스며들었다. 마치 소나기라도 한바탕 퍼부으려는듯 한 날씨였다. 검은 비구름이 뭉게뭉게 피여올라 순식간에 연기처럼 변하며 달빛을 가리는것이였다.

어떤 부질없는 상념을 쫓아버리려는듯 갑자기 고개를 쳐든 진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억양으로 말하는것이였다.

《아— 래일은 비가 올가분데?》

그 목소리가 어찌도 처량하고 구슬프게 들리는지 정아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뿜었다.

29

그 당시에는 지나친 충격으로 하여 사태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의의를 점차 느끼게 될 때가 있는 법이다. 마치 예견치 않은 사고로 하여 병원에 실려간 사람이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퉁퉁 부어오른 상처를 볼 때에야 자기가 어째서 이런 처지에 빠지게 되였는가를 알아차리게 되듯이.

어디를 다쳤는지 모를 때와는 달리 상처를 직접 눈으로 본 다음에는 그 아픔이 더해지는것처럼 현옥이도 제철소에 다녀온 직후에야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다. 온몸에 붕대를 감은채 침대에 누워있는 진호를 볼 때까지만 해도 미처 자신을 다잡을수 없던 그였으나 집에 돌아와서는 그때 알지 못했던 새로운 고통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여태껏 자기의 가슴속에 도사리고앉아 항시 자기를 괴롭히던것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어렴풋이나마 감득하지 않을수 없게 된 그것이였다.

확실히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실패를 거듭하고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고있었으며 무리한 시험을 한 결과 사람들에게는 물론 집단에까지 피해를 입히고있었다. 한마디로 말해 오빠가 예견한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것이 어쩐지 한갖 무모한 행동의 결과로만 느껴지지 않고 어

면 지나친 현상에 지나지 않는것이 아닐가 하는 생각을 지울길이 없었다. 어떤 근거가 있는것도 아니였으나 왜서인지 그렇게 믿고싶었고 믿을수록 또 그것은 안개속에서 자태를 드러내는 물체처럼 점점 뚜렷한 륜곽을 나타내는것이였다.

《난 무모한 인간일뿐아니라 량심조차 없는 파렴치한 인간이요. 모든 사실이 그걸 증명하고있지 않소.》

그때에는 진호의 이 말도 그대로 받아들였던 자기였으나 돌아와서는 자꾸만 이 말이 새삼스레 상기됐고 혹시 거짓이 아닐가 하는 의혹까지 금할수 없었다. 그러면서 처음 헤여질 때도 어째서 그가 자긴 그런 인간이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동무를 기만했다고 스스럼없이 시인했는지 새삼스레 의문스럽기만 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의문이 무서웠다. 의심이 들수록 그는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 애썼다.

이제 와서 그 의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다시말해 진호의 처지가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그가 한 말이 고통스런 나머지 꾸며낸 거짓이라는것을 인정한다면 자기라는 존재야말로 너무나도 죄많은 처녀가 아닐수 없기때문이였다.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것은 그처럼 순진한 처녀로 자처하던 자기가 성실하기는 고사하고 가장 비렬하게 행동하였음을 증명하는것이 아닐수 없기때문이였다.

(모든건 그의 탓이야! 그가 나를 기만한데 있고 그가 무모한 기술안을 고집한데 있고 또 그가 내 권고를 듣지 않은데 있어!)

속으로는 이렇게 외우는것이였으나 그것이 실지로는 더없이 무서우면서도 겉으로는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하고 소리치는것과 같다는것을 그자신도 의식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 이때 투사기심사차로 제철소에 다녀온 오빠가 집에 나타났었다.

《그래 이젠 너도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걸 똑똑히 알겠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걸 말이다! 그는 이젠 어쩔수 없는 막다른 처지에까지 자길 몰아넣고말았어! 그런 사람한테 차례지는 결과란 언제나 명백한 법이니까.》

자기의 주장이 얼마나 정당했는가를 증명하기에만 급급해있는 오빠를 보는 순간, 특히 사소한 동정의 기색은 고사하고 오히려 승리자로서의 우월감이 비껴있는 오빠의 얼굴을 보게 되자 현옥은 오빠가 내

리는 결론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오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였다.

(설사 진호동무가 그런 처지에 있다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수 있을가? 어쩜 오빤 이런 사람이 돼버렸을가? 어쩌면 이리도 싸늘하고 랭담한 인간으로 되였을가?)

확실히 어떤 사태도 그것이 비록 절망적인 사고나 뜻하지 않은 불행이라 해도 오빠에겐 한갖 자기의 주장을 증명하는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느끼게 되자 현옥이는 소름이 끼쳤다. 모르긴 해도 오빠에겐 뭔가 중요한것이, 사람에게 없어선 안될 귀중한 무엇이 결여돼있다는것을 무서운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을수 없었다. 이런 생각은 곧 그의 머리속에 한가지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언젠가 학급동무들과 함께 3대혁명전시관에서 새로 제작된 로보트를 관람하던 때의 일이였다. 그때 해설원이 로보트가 사람보다 더 정확히 동작을 수행할뿐아니라 인식과 판단, 지어는 감각하고 사고까지 한다는 바람에 옆에 있던 한 동무가 물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거야 명백하지요. 아무리 훌륭하게 제작된 로보트라 해도 사람이 짜준 지령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데 있지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본성인 감정과 창조성이 없는것으로 해서 기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감정과 창조성이 없는것으로 해서 기계지! 오빠도 바로 그런 기계에 불과해. 기계적인 사색이 빚어내는 테두리안에서 인간적인 감정은 마비되고 고갈되여 오직 타산된 한계내에서만 움직이는 기계!)

이런 확신은 오빠에 대한 불만도 불만이였지만 여태껏 자기가 그처럼 부인하려고 애쓰던 진호에 대한 의심이 한갖 억지에 지나지나 않을가 하는 의혹을 품게 했다.

실로 따져보면 볼수록 진호와 오빠는 너무나도 상극을 이루고있었다. 정확한 타산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오빠라면 일단 마음먹기만 하면 무작정 돌진하는 진호였다. 남들이 뭐라든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서슴지 않는 진호라면 단 한번의 실수도 없는것을 행동의 유일한 목표로 삼고있는 오빠였다.

(사실 오빠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를 리해할수 있단 말인가! 오

빠가 그런것처럼 나 역시 그를 제대로 리해할수 없는건 당연한 일이지. 난 언제나 오빠의 관점으로만 사물을 대해온 청맹과니였으니까.)

그제야 그는 소스라쳤다. 여태까지 거울에 비쳐진 어떤 물체가 찌그러졌다고만 여겨오던 사람이 실은 그 물체가 찌그러진것이 아니라 거울이 제대로 투영되지 않아서 그렇다는것을 알았을 때와 같은 심정이라고 할가.

(그래! 난 바보였어! 바보! 바보!)

그러나 아무리 가슴을 쳐야 이젠 소용이 없었다. 너무나도 먼거리에 있는 진호이기때문이였다. 그래도 이전에는 맘 한구석으로나마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기에 대한 그의 원한이 식어질수도 있고 따라서 그때 가서는 진정으로 되는 용서를 빌수도 있으려니 하는 미련을 품을수 있었으나 이젠 그 희망마저 사라져버렸다. 이제 와서 그의 사랑은 물론 리해를 바란다는것은 산산쪼각이 난 꽃병을 주어다가 다시 붙이려는거나 마찬가지로 어렵고 어이없는 일로만 생각되였다. 분명 이젠 머나먼 그의 세계를 바라보기만 할뿐 더는 찾을래야 찾을수 없는 아득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난 이젠 맘속으로나마 그를 생각할 자격조차 없어! 없고말고!)

그래도 밤이 되면 그는 눈물을 삼키며 그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군 했다.

(저한테 이름조차 불리우기 역겨워할 동무라는걸 모르지 않아요. 한푼의 가치도 없는 처녀, 허영에 들뜬 경망한 처녀, 더우기 동무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이 몹쓸 처녀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말 못할 울분을 느끼며 지나간 추억의 파편들을 무자비하게 뽑아던질테지요. 그렇지만 이제야 동무를 배반한것이 죄라는것을 안 저는 이렇게 자신을 저주하며 울고있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사랑이 어떻다는걸 안 미련한 처녀의 응당한 설음이지요.)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씻을념도 않고 그는 다시금 속삭였다.

(이젠 아무리 바라도 다시는 결합될수 없어! 영영 헤여지고말았어. 잊자! 그를 잊어버리자!)

전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를 잊으려고 했다면 이번에는 아득히 머나먼 세계에 따로 떨어진 자기의 처지로부터 그를 잊으려고

했다. 아니, 잊어야 했던것이다.

사람이란 누구나 자기의 처지가 비참한 경우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비록 자기탓으로 생긴것이라 해도 은연중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게 되며 그것이 온당치 못한 소행이라는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타당화하려는것이다. 그래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수 있기때문인것이다.

(물론 나의 처지가 비참하긴 하지만 나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옥주도 그렇고 성숙이도 다 처음엔 실패하지 않았어! 그들도 이런 고통을 거쳤을테지만 지금은 새생활에만 몰두하고있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지난날을 두고 생각하는것은 우둔한노릇이야!)

그것은 마치 자기에게 더없이 귀중한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처음에는 아쉬움으로 하여 좀처럼 잊을수 없다가도 그것을 다시는 찾을 가망이 없다는것을 알았을 때는 그것이 없으면 무척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뭐 그게 없은들 뭐라나.》 하고 위로하게 되는것과 같은 심정이였다.

하지만 어려웠다. 사무친 원한을 품고 자기를 저주하며 경멸할 진호의 격분에 찬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무작정 그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리려고 했으나 그것은 한갖 욕망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자기 생활에서 너무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었기때문이기도 했지만 보다는 자기의 처지에서 그를 잊으려고 하는것이 또 하나의 무서운 죄를 짓는 일로 되지 않을수 없기때문이였다.

이런 마음은 그로 하여금 뒤늦게나마 마음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수 있는 일을 해야 하리라는 충동을 느끼게 했는데 그것은 새로운 일, 즉 새 연료안도입에서 부득불 제기되지 않을수 없는 축열실격자축조에 대한 개조안을 완성하는것이였다.

결코 그는 이 론문이 진호를 위한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정신적괴로움을 덜기 위한 위안물이라고만 여겼었다. 어떤 사람이 그리울 때면 사진첩을 펼치고 그의 사진을 보는것처럼 진호에 대한 죄스러움에 사무칠 때마다 그는 그 도면을 펼치고 거기에 온갖 심혈을 쏟으며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군 했다.

(그래! 나같은 처지에서는 생활이 요구하는대로 하는것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 그 방도란 곧 그날그날의 요구에 충실하는거야.)

이때부터 그는 의식적으로 본래의 자기로 돌아가려고 애썼다. 이런 의식적인 노력은 날이 감에 따라 차츰 그를 본래의 모습으로 재생시

켜나가는상싶었다. 확실히 상처란 첨엔 피가 나고 아프다가도 점차 아물기마련인지.

결국 이렇게 되여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진 한줄기의 물, 현옥이의 생활은 회오리치는 소용돌이와 거친 암반에 부딪쳤다가 마침내 서서히 흐르는 대하로 굽이쳐가는것 같았다.

계단을 내려선 현옥이는 현관 바로 옆에 있는 자료실로 향했다.

편집계획에 의하면 아직 얼마간 여유가 있는 원고였으나 오늘중으로 마무리해놓을 심산이였다. 그래야 래일부터 대학에 가서 축열실개조안에 대한 방조를 받을수 있기때문이였다. 대학때부터 자기를 극진히 돌봐주던 강좌장으로부터 도와주겠노라는 다짐까지 이미 받았던것이다.

《자요, 이 책을 부탁해요.》

익숙한 동작으로 도서카드를 골라낸 그는 그것을 접수대에 앉아있는 뚱뚱한 사서에게 내밀었다. 살집이 좋은데 비해서는 신기하리만치 동작이 민첩한 사서는 근 30년을 출판사에서 일해오는데 아무리 까다로운 이름을 가진 외국원서도 제때에 골라냈고 어느 부문에 참고할 책이 어떤것이라는것까지 훵하니 알고있어 직장사람들의 각별한 인기를 끌었다. 이름이 보배래서 그렇게 부르는지 아니면 그를 보배처럼 여겨서 그렇게 부르는지 현옥이도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책을 당장 봐야겠니?》

주문받기만 하면 서슴없이 서가안으로 사라지군 하던 그가 무테안경너머로 올려다보는 바람에 현옥은 저으기 락심했다.

《대출됐어요?》

《대출된게 아니라 지금 열람중이여서 그래, 저―기.》

그가 가리킨쪽을 돌아본 현옥이는 그제야 빈줄로만 알았던 자료실의 한쪽구석에 웬 처녀가 앉아있는것을 보았다. 무드기 쌓아놓은 장서들을 펼쳐가며 그는 무엇을 옮겨쓰기에 여념이 없었다. 직장사람은 아니였다.

《누구예요?》

《제철소에서 왔다는데 무척 바쁜 일인 모양이야. 어제부터 온통 정신이 없어!》

(제철소?)
현옥은 흠칫했다. 저절로 심장이 쿵 하고 방아를 찧었다.
(그래도 그 제철소에서 오진 않았을거야.)
애써 이렇게 생각하며 그를 바라보는데 잠자코 앉아있던 그가 무슨 기미를 느꼈는지 얼핏 이쪽을 돌아보는것이였다.
처녀의 눈길은 사색에 몰두하던 사람이 일시 외계에 시선을 돌렸을 때와 같은 그런 범상한 눈빛에 불과했다. 그러나 곧 무엇에 놀라기라도 한것처럼 그는 자리에서 움쭉 일어서기까지 하는것이였다. 집요하면서도 뭔가 알아내려는듯 한, 특히 자기의 짐작이 옳은가 어떤가를 따져보는듯 한 처녀의 눈길에 현옥이는 당황해지고말았다.
《책을 빌리러 왔댔는데 동무가 먼저 보는군요. 그렇지만 일없어요. 후에 보지요.》
무슨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현옥은 얼굴까지 붉히며 말했다.
《어느 책이예요? 이 책?》
책상우에 펼쳐놓은 책들을 이것저것 짚으며 처녀는 빠른 어조로 말했다.
《아니, 됐어요. 미안해요.》
《미안한건 오히려 제편인걸요.》
여러권의 책을 들고 현옥이앞으로 다가선 처녀는 방긋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틀림없이 자기의 짐작이 옳다는것을 확신한 사람이 짓는 미소였다.
《현옥동무지요?》
《?》
현옥은 가슴이 철렁했다.
《어떻게 절?…》
《왜 모르겠어요. 정문 벽보판에 커다란 사진이 붙어있는걸요.》
책들을 책상우에 놓은 처녀는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
《전 ㅎ제철소에 있답니다. 윤정아라고 해요.》
ㅎ제철소라는 말에 온몸의 피가 일시에 심장에 모여들면서 목구멍으로 뜨거운것이 꽉 치밀어오른 현옥은 대뜸 어떤 모멸감으로 하여 어쩔바를 몰랐다. 그래도 제혼자 생각할적에는 태연한 마음을 가질수 있었지만 정작 진호와 함께 일하고있는 이 낯모를 처녀앞에 서있다고 생

각하니 불현듯 창피와 수치로 하여 눈물이 핑 돌았다.
《전 강철직장에서 일하는 공정기사예요.》
그의 태도를 통해 현옥이는 그가 벌써 자기가 누구며 어떤 처지에 있다는것까지도 다 알고있다는것을 짐작하지 않을수 없었다.
《아이구, 저것 보지. 네가 종내 방해를 끼치고말았구나.》
책을 한아름 안은 보배아주머니가 현옥이를 나무랐다.
《괜찮아요. 이젠 시간도 됐는걸요.》
책상우에 있는 책들을 주섬주섬 챙긴 정아는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 공원으로 가요. 좋지요?》
《…》
현옥이는 불시에 나타난 이 처녀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이제부터 이 처녀가 틀림없이 자기가 그처럼 고통스럽게 얻어낸 마음의 안정을 깨뜨리리라는것을 의식하지 않을수 없었으나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무지 알수가 없었다.
현관을 나서면서 정아는 한결 더 정다운 태도를 지어보였다.
《우리 제철소에 왔댔다지요?》
《…》
《동무가 왔다갔다는 말을 저도 들었어요.》
사실 현옥이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정아는 그가 어떤 처녈가? 자기의 출현을 어떻게 생각할가? 오히려 더 큰 후과를 초래하게 되지나 않을가 하는 조바심에 휩싸여있었다. 그 조바심이 어제 벽보판에 붙어있는 그의 사진을 본 순간부터는 그만 불안으로 확대되였던것이다.
(아이, 이뻐!)
부지중 튀여나온 탄성이였다.
처녀들사이에도 저절로 탄복하리만치 매혹적인 용모가 있는 법인데 현옥이야말로 바로 그런 처녀였던것이다. 꼭 다문 입, 가늘면서도 길게 휘여든 눈섭과 특히 그밑에서 한곳을 응시하면서도 그윽한 미소를 띠우고있는듯 한 정찬 눈매, 이 모든 인상은 자기로서는 도저히 마주설, 특히 심중에 고여있는 감정을 가늠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기엔 너무도 눈부신 모습이였다.
이처럼 아름다운 처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의식으로 하여 남

달리 도고한 법이고 그래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것을 정아도 모르지 않았다. 더할나위없이 곱게 다듬어진 그의 얼굴은 아무모로 보나 사소한 융통도 있을것 같지 않았다.

하나 그를 대하는 첫순간에 정아는 벌써 자기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것을 알았다. 확실히 현옥이의 눈은 더없이 아름다운 눈이였으나 어딘가 깊은 곳에는 슬픈 빛이 간직돼있었다. 모르긴 해도 정아는 그의 눈빛이 틀림없이 과거의 괴로운 추억이 나타내는 회오의 발로라는 생각이 들자 도리여 그가 측은해지는것이였다. 그의 눈은 마치 모든 잘못이 자기에게 있다는것을 공손히 시인하는듯 《그래요, 전 몹쓸 처녀예요.》하고 말하는상싶었다.

그들은 체육관앞 오색등불이 명멸하는 분수가로 나왔다. 갖가지 색조의 명암을 받은 맑은 은구슬들이 찬란한 진주의 턴넬을 만들고있어 그 무지개빛의 황홀한 굴속을 한번 지나가고싶게 만들었다. 그런가하면 연분홍빛으로 활짝 퍼진 나팔꽃모양의 분수에서는 달콤한 향기가 생생하니 풍기는듯싶었다.

《…》

《…》

두 처녀는 걸음만 옮겼다.

정아는 이제 무슨 말부터 해야 할가 하고 생각했고 현옥이는 현옥이대로 불시에 나타난 이 처녀가 무슨 말을 하려나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고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가 진호에 대한 얘기를 두려워하고있음을 짐작하고 그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입밖에 내지 않는 처녀가 내심 고마왔으나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말을 듣고싶어 견딜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감히 그 말을 먼저 물어볼 자신은 없었다.

(이젠 아무런 미련도, 과거에 대한 그 어떤 추억도 없다는걸 보여줘야지. 오직 일에만 전념하고있다는걸 느끼게 해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그까짓건 대수로운 일이 아니며 쉬이 잊게 된다는걸 아니, 이미 잊어버렸다는걸 보여줘야 해. 다만 그가 지금 어떻게 일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낸다는것만 알면 돼.)

자기의 이런 의사가 얼마나 일면적이며 무리한것인가 하는걸 그로서는 미처 가릴수 없었다.

《일 잘돼요?》
현옥이는 될수록 랭담한 기색을 지으며 물었다.
《일요? 정말이지 무척 힘이 들어요.》
정아는 그가 먼저 말을 꺼낸게 여간 반갑지 않았다.
《실험에서는 어느 정도 열량을 담보하는데 실지 취입에선 그렇지 못하거던요. 연재에 의한 작용도 아직은 알수 없고요. 우선 취입을 해봐야겠는데 아직 사고심의때문에… 그렇지만 이젠 됐어요. 아침에 전화를 걸어보니까 공장에서 결론이 있었대요. 겨우 3회의 시험취입이지만 승인됐나 봐요. 그것도 우리한텐 큰 혜택이지요. 아마 그 시험결과를 놓고 다시 결심하려나봐요.》
아침에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정아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다.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일을 끝내고 시험취입전으로는 돌아가겠다고 생각했던것이다.
(다행이구나!)
단 3회긴 하지만 기술안에 대한 시험이 승인됐다는 말을 들으니 현옥은 진호가 무사하다는 안도감으로 하여 숨이 나갔다.
《참, 이젠 일없어요? 그때…》
현옥이는 입원한 진호의 상처에 대해 물으려 했댔으나 정아를 보고는 곧 묻는 말을 바꾸어버렸다.
《투사긴지 하는것 말이예요.》
그러나 정아는 현옥이가 묻고저 하는 참뜻을 알아차렸다.
《투사기는 새로 제작하기로 했답니다. 이젠 투사기를 창안한 태수동무도 우리와 함께 새 연료안을 같이 하고있어요. 알지요, 태수동물? 실은 그가 동물 꼭 한번 만나보라는게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때 정말 위험할번 했어요. 하지만 이젠 일없어요. 얼마간 입원하고있기는 했지만 요즘은 또 매일같이 현장에서 밝히고있답니다.》
구태여 누구라는것을 밝히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다.
현옥이는 정아가 눈치채지 못하게 한숨을 쉬였는데 그것은 진호의 무사함을 확신한 안도의 숨이였고 오래간만에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 뚜렷이 그려볼수 있게 된 누를길 없는 애수의 탄식이였다.
《어찌도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지 전 조수노릇조차 변변히 못한답

니다.》
《조수라니요?》
《아이참! 잊었댔군요. 전 조수랍니다. 그의 조수요.》
《그럼 여기 온것도 그 기술안때문인가요?》
《그래요.》
정아는 그동안의 시험과정에 대해서 대충 얘기한 다음 한결 친숙한 어조로 말했다.
《그런 얘긴 후에 하고 동무얘기나 좀 해요. 어떻게 지내고있는지.》
《저요? 저야 뭐 어떻고말고가 있어요?》
현옥이는 웃어보이기까지 했다.
《그저 매일 원고에 파묻혀 정신이 없는걸요. 뭘 생각하고 조용히 앉아 사색할 여유조차 없답니다. 그래도 퍽 재미는 있어요. 특히 자기가 맡은 원고가 독자들에게 반향을 일으킬 땐 보람이 있지요. 바로 그 재미에 일하지요.》
마음속으로는 자기자신에 대해 조금도 용서할수 없는 비렬한 처녀로 여기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뻔뻔스럽고도 대담하게 말했다.
《물론 태수동무의 부탁도 있긴 했지만 전 스스로도 동물 꼭 만나보고싶었어요. 이렇게 마주하고 얘길 나누고싶었어요. 그런데 글쎄 첨엔 막 겁이 나지 않겠어요. 어떻게 만날가 하고, 혹시 동무가 나를 경원하지 않을가 하고 말이예요. 우습지요?》
현옥이는 벌써 정아가 무엇 하나 숨기는 일 없는 아주 소탈한 처녀라는것을 알았다. 그가 지니고있는 발랄한 생기는 그의 눈가에 떠도는 미소와 어울려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저절로 넘쳐나는것 같았다. 그러면서 이 솔직한 처녀가 영영 사라져버린것으로 치부했던 추억을, 이미 죽은것으로만 여겨온 그 감정을 다시금 소생시켜 심장을 사로잡게 한다는것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할수 있단 말인가! 자기 잘못을 알면서도 털어놓는것이 두려웠노라고? 나에 대한 미련이 저주로 변하지 않았나 걱정이였다고? 저주로운 배반으로 하여 더럽혀진 나의 가슴에 그의 깨끗한 손이 닿을가봐 두려웠노라고? 천만에! 난 그런 용서를 바라기는 고사하고 변명할 자격조차 없어!)

현옥은 다시 랭담한 기색으로 돌아섰다. 자기가 진호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하는 호기심이 정아의 얼굴에 나타나있다는것을 알아차린 그는 조용히 그러나 아주 자연스레 말했다.

《저도 이젠 안착이 됐어요. 모든걸 잊고 일에 열중할수 있게 됐지요. 물론 첨엔 가슴이 아팠지만 이젠 아무 일 없어요. 아마 그런건 시간이 저절로 해결해주는가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새생활에 익숙되는거겠지요.》

《…》

《사실 저와 같은 일이야 처녀라면 누구에게나 흔히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엇때문에 고민하겠어요. 그건 결국 자기를 괴롭히는 외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생활이란 다양하고 그 다양한 생활을 마음대로 택할 권리란 누구에게나 있는거니까요.》

현옥이는 말하는 품이 아주 자연스러웠지만 너무나도 말수가 많았다. 그는 자신이 이것을 감촉하였을뿐아니라 자기를 지켜보는 정아의 눈초리에서도 그가 이것을 느끼고있다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정아는 의혹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표정으로 봐서도 분명 말 못할 비탄에 젖어있는것 같았으나 막상 현옥이가 표현하는 말은 정반대기때문이였다.

(대체 이 처녀의 가슴속에 어떤 마음이 간직돼있는걸가? 정말 체념과 망각속에 모든걸 묻어버린것일가? 아니면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있는것일가? 자기가 생각하고 느낀바를 죄다 말할수 없기때문일가? 아니면 진정으로 그럴 마음이 없기때문일가?)

《전 동무의 심정이 어떤지 알수 없어요. 설사 짐작한다 해도 동무자신이 느끼는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테지요. 더우기 전 진호동무한테서는 아직 동무얘기를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요. 그 동문 언제나…》

《거야 그럴수밖에요.》

정아의 말허리를 꺾은 현옥은 서둘러 말을 이었다.

《일단 결심한 일이면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실행하고야마는 사람이니까요, 그것이 비록 잘못된것이라 해도.… 그런데 하물며 저와의 관계를 놓고는 그자신이 천만번 지당하게 행동했는데 무엇때문에 그러겠어요. 저에 대한 회상자체가 벌써 자기에 대한 모욕으로밖에 느

껴지지 않을텐데요.》
《아니 아니, 제 말은 그런 말이 아니예요.》
정아는 그의 손을 잡으려고 했으나 현옥은 얼른 자기 손을 가무러뜨렸다.
《저도 이젠 다 알아요. 알구말구요. 그러니 저에겐 그런 말은… 그런 말은 그만둬요.》
그제야 정아는 현옥이의 목소리에 감출길 없는 애소가 깃들어있음을 깨달았다. 자기와의 상봉으로 하여 일어난 흥분을 되도록 가라앉히고 일부러 랭정한 태도를 취하려고 했으나 어쩔수없이 솔직한 감정이 솟구쳐오르고있다는것을, 또 그것은 그가 숨길래야 숨길수 없으리만큼 자기가 죄스러운 립장에 있다는것을 스스로 시인하고있음을 뚜렷이 느끼게 했다. 그 점이 정아를 기쁘게 했다.
《제가 하자는 말은 그게 아니예요. 전 다만 그가 얼마나 새 연료안을 위해 헌신하는가를, 그걸 위해 그 어떤 시련도 희생도 무릅쓰고 있다는걸 얘기하려고 했을뿐이예요.》
《그런 얘긴 이젠 저한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그러지 말아요. 그건 솔직하지 못한 말이예요. 진호동무가 동무 얘길 하지 않은것도 그렇지요. 그가 동무에 대한 얘길 입밖에 내지 않는것이 동무를 잊어서 그럴가요? 회상하기 싫기때문일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잊을수 있겠어요. 잊을수 없지만 나타내지 않을뿐이겠지요. 오히려 그 강압적인 침묵속에 그만큼 더 표현 못할 감정이 물결칠수도 있잖겠어요. 흔히 그처럼 과격한 사람은 자신을 가혹하게 내몰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만치 처절하게 뉘우치기도 하니까요.》
현옥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동무가 아직 몰라서 하는 말이예요. 제가 그를 어떻게 배반했는가를 안다면… 그걸 안다면…》
현옥이는 이제껏 가슴속에 숨겨온 모든 감정, 모든 설음이 일시에 가슴을 헤치고 분출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괴로움을 삐치지 말자고 했던 결심이 물먹은 담벽처럼 허물어지고 가슴속에 고이고고였던 고뇌와 절망,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수 없었

던 슬픔이 무섭게 쏟아져나오는것이였다.

《그래요. 전 그에 대한 사소한 미련이나마 자기에 대한 모욕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을만큼 그를 혹독하게 배반했지요. 그렇고말고요.》

자기의 슬픔을 그에게 이야기하고싶은 생각은 꼬물만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쓰라린 감정을 가슴에 품은채 도저히 딴 이야기를 할수는 없는노릇이였다. 그는 마음속의 비애를 시원히 털어놓을수 있는것이 기쁘게 생각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바로 진호와 함께 일하는 처녀앞에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놓아야 한다는것이 참을수없이 괴롭기도 했다. 하지만 털어놓지 않고는 견딜수 없었다.

진호와 교제하기 시작해서부터 그의 지향에 공감했던 일, 그러다가 오빠의 말을 듣고는 그를 배반한 일 그리고 입원하고있는 그를 만나고 돌아온 이후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도 그는 다 얘기했다.

《모든것이 다 제 잘못이지요.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겠어요. 오빠를 원망하지도 않아요. 오빠가 나쁘긴 하지만 전 그보다 더 나쁘니까요. 사실 전 진호동무가 바라는 그런 위험과 위훈에 찬 생활을 동경은 했지만 그 동경이 한갖 호기심에 지나지 않았어요. 오직 한때 남못지 않게 일했다는 걸치레가 필요했던거예요. 아니, 그런 생활에 몸바칠 용기가 없었던거예요. 글쎄 저같은 처녀가 어떻게 그의 지향을 리해할수 있고 힘이 돼줄수 있었겠어요. 어림도 없지요. 설사 같이 제철소에 갔다 해도 전 오히려 그의 짐이 됐을거예요. 짐이 되기 전에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왔을거예요. 이 모든걸 전 요즘에야 깨달았답니다.》

정아는 현옥이의 표정이 자기에 대한 랭소와 환멸 그리고 그 어떤 처절한 비감에 젖어있는것을 보고 말할수 없는 련민의 정을 느끼였다. 그러면서 이처럼 고통에 시달리는 그의 마음속에 자신에 대한 증오와 원한이 차있는 동시에 무엇인가 더없이 아름답고도 고상한것이 깃들어있음을 깨닫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자 그전에는 현옥이를 비난하던 자기가 이제 와서는 이 처녀의 처지와 심정이 십분 리해되면서 진호가 이 처녀를 충분히 리해 못하지나 않았을가 하는 의심이 드는것이였다.

《제 말을 들어봐요. 동무자신이 말했지만 이런 일이야 처녀들에겐 누구에게나 있을수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문제는 그걸 동무처럼 일

면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봐요. 흔히 남자들이란 사랑하는 사람에겐 정도이상의것을 바라는 법이지요. 그래서 서로의 행동을 지나치게 보고 오해하기도 쉽고요.》

《오해라고요?》

현옥이의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 표정은 마치 《나도 이젠 사랑이 어떤것이라는것쯤은 알고있어요.》 하고 말하는것 같기도 했고 《제발 그런 값눅은 위로는 하지도 말아요.》하고 호소하는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표정은 순간일뿐 다시금 쌀쌀한 랭소가 입가에 어렸다.

《천만에요. 만약 아직도 그걸 오해라고 여길 여지가 있다면… 그러나 그건 그럴수 없는 일이예요. 어쨌든 저에겐 이제부터라는건 없어요. 그와의 관계에선 이제부터라는건 도저히 있을래야 있을수가 없어요.》

《어째서 그런 약한 소리를 해요.》

천성이 올곧은 정아는 자기에 대한 그의 서글픈 멸시가 격분을 자아내게 했다.

《이봐요, 현옥동무! 우린 젊은 사람들이 아니예요. 청춘이 아닌가 말예요. 이 세상 모든것이 우리의것이고 우리를 위해 있다고도 할수 있지요. 바로 그렇기때문에 누구보다 기쁨도 많고 번민도 많고 자랑도 많고 슬픔 또한 많은게 아니겠어요. 문제는 이런 감정, 특히 이기기 어려운 번민과 절망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데 있잖겠어요. 그런 힘이 없는가요? 그게 없다면 청춘이 아니지요. 글쎄 제 얘길 들어봐요.》

무슨 말을 하려는 현옥이를 제지하며 정아는 다시 말을 이었다.

《저도 첨엔 진호동무의 기술안을 의심했댔어요. 의심정도가 아니라 반대했지요. 그것도 제일 선두에서 말이예요. 그러나 그의 의도가 어떤것이며 그의 지향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알고는 곧 그의 기술안을 도와나섰어요. 그런 저를 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게요. 그럴수밖에요. 저의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모진 아픔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으니까요.》

기철이에 대한 생각으로 하여 잦아든 자기의 목소리에 불안을 느낀 정아는 얼른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이 문제겠어요? 남들의 시비가 두렵겠어요? 우리야 옳은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교육받은 새 세대들이 안예요. 그래 그 진리를 다른것과 바꿀수 있어요? 거기서 주저하고 물러설 권리가 있나 말이예요.》

《그것하고야 다르지요.》

《무엇이 다르다는거예요. 옳지 않은걸 인정하는데 그치지 말고 대담하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는데야 매일반이지요. 꼭같지요. 이런 말 하는게 어떤지는 몰라도 전 동무가 좀 대담했으면 해요.》

《…》

현옥이는 생면부지의 이 처녀가 자기에게 이렇듯 서슴없는 공격을 들이대는게 놀랍기도 했지만 보다 더 놀라운것은 그런 공격을 순순히 받아들이고있는 자신이였다.

《사랑도 그렇지요. 아무리 굉장한 사랑일지라도 어떤 새로움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의 생활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충분치 못한게 아니겠어요. 만약 동무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가슴속에 뛰여들어야지요. 귀찮아하건 성을 내건 아랑곳하지 말고 말이예요. 체면이나 자존심이 문제겠어요? 그가 괴로와하면 그 괴로움을 같이 나누어가지는것으로써 사랑을 해야지요. 물론 이건 어렵겠지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정아의 눈앞에는 또다시 우울한 기색을 짓고있는 기철의 모습이 떠올랐다.

(난 과연 그를 그렇게 대했던가?)

내심으로는 그에 대해 어느 정도의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자기 처사가 어디까지나 정당하다는 확신으로 하여 이미부터 모든걸 털어놓으려고 했지만 정작 그렇게 되지 않았다. 어째서 그처럼 리해력이 풍부한 그가 자기의 실책을 인정하는것이 만회할수 없는 일을 저질러놓는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는것을 모를가? 자기를 잠시 볼 때조차 그 어떤 저주와 원망이 비낀 빛을 감추지 못하는 그의 얼굴을 그려보느라니 가슴이 터지는것 같았다.

《첨엔 서로가 리해하지 못해도 그걸 깨닫게 됐을 때를 생각해봐요. 그땐 본래보다 몇배 더 뜨거운 정을 느끼게 될게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남자들에게는 결코 처녀의 외모나 생김

새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그건 하등의 의의도 갖지 못하는거라구요.》
그때에야 자기가 누구의 립장에서 말을 하고있는가를 안 정아는 깜짝 놀라 현옥이를 살펴보았다. 혹시 그가 다른 눈치를 채지 않았나 해서, 자기 말이 얼굴이 예쁜 현옥이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았나 해서. 하지만 현옥이의 표정에서 여전히 변함없는 수심기만을 읽은 정아는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하긴 그것도 어느 정도는 작용하겠지요. 그걸 중시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사랑이란 궁극에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 뿌리를 두는게 아니겠어요. 끝없이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에서 그 뿌리가 더욱 왕성해지는게 아니겠어요.》
《…》
정아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현옥이는 한가지 새로운 점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그가 진호에게 취한 모든 행동이 자기와는 너무도 상반된다는것이였다.
누구보다 믿어야 할 진호를 의심하고 배척했던 자기였다면 남들이 하나같이 의심하고 비난할 때 진호를 진정으로 도와나선 정아였고 자기로 하여 지울길 없는 상처를 가슴에 새긴 진호라면 그의 힘찬 격려에 새로운 희망을 안고 투신하는 진호가 아닌가. 한마디로 말해 자기가 결심했던것을 이 처녀는 행동으로 옮기고있는것이였다.
이 뚜렷한 대조는 필경 진호로 하여금 정아에게 고마움이상의 감정을 품게 했으리라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조수라고 했지? 그래! 틀림없어!)
벌써 현옥의 생각은 외곬으로만 뻗기 시작했다.
그러고보니 더욱 정아한테서 부드러우면서도 열정에 넘친 눈빛과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흉내낼수 없는 약동하는 생기를 뚜렷이 엿볼수 있었고 그것이 분명 사랑을 받는 처녀에게서만 볼수 있는, 이미 자기한테서는 영영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이라는것을 절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모든 정황을 자기에게 더 불우하게 해석하기 십상인것이다. 행복한 사람앞에서 불행을 느낄 때보다 더 서글픈 때는 없지만 현옥은 자기의 처지를 지금처럼 비참하게 느껴보기는 처음이였다.

그는 저도 모르게 솟구쳐나오는 눈물을 어쩔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이 모든 비애의 원인이라고 느낄 때만 나타내는 그런 깊은 절망의 눈물이였다. 그러나 맘속으로는 정아가 밉거나 어떤 악의에 찬 감정을 품게 되지 않았다. 도리여 그가 더없이 고상하고 아름답게만 여겨지는것이였다.

그 점은 정아도 마찬가지였다. 그 역시 현옥이에 대한 부족점은 부족점대로 느끼면서도 이 처녀가 더없이 훌륭하게 느껴지는것이였다.

두 처녀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존경은 금할수 없었다. 현옥이로서는 정아가 훨씬 더 자기보다 훌륭하고 령리한것 같았고 정아로서는 또 현옥이가 곱절 더 자기보다 순결하고 고상한것 같이 생각되는것이였다.

이들은 오래동안 얘기를 나누었다. 그리고도 다음날 다시 만날것을 약속하고야 헤여졌다.

30

용해장에서는 긴장된 분위기속에서 두번째 취입시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어제 한 1차시험의 온도는 1 796도였다. 해당 온도준위에 이르자면 아직도 많은 열이 필요했으나 이미보다 16도나 더 올랐다는것에 사람들은 놀랐고 또 기뻐했다.

진호는 자신을 얻었다. 아니, 이젠 신심에 넘쳐있었다. 시험결과를 종합해보는 과정에 그는 하나의 명백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생각해온것이 옳다는 륙감이였고 이전에는 원리로만 알던것이 현실적으로 확증됐다는 믿음이였으며 또한 모르긴 해도 자기가 의도하는것이 틀림없으리라는 확신이였다. 비결은 연료와 가스 그리고 산소의 호상 배합비에 있었다.

그의 머리속에는 선과 점으로, 음향과 률동으로 충만된 하나의 화면이 생생하게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그토록 거대하고 신비스럽던것이 지금은 바로 눈앞에서 생동하게 감촉할수 있는 화면으로 펼

쳐지는것이였다. 아직 적지 않은 의문점들이 있었으나 그것도 이전처럼 막연하거나 두렵진 않았다.

(틀림없어! 용해말기에 최대의 열부하를 걸면서 슬라크조성만 잘해준다면 20도의 온도쯤은 넉근히 올릴수 있어!)

이런 느낌, 앞에 놓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전처럼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신심을 느끼게 되는것이 무엇때문인가를 그도 이젠 비슷이 짐작할수 있었다. 그것은 자기를 둘러싸고있는 사람들, 비서며 로장이며 용해공들이 진정으로 자기를 지지해주고 고무해준다는 믿음이였고 그 믿음으로 하여 이젠 자기가 바글바글 끓는것이 아니라 훌륭한 로벽에 둘러싸여있는 용금처럼 내부로부터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으며 또 이전보다 한결 맑게 정련되였기때문이라는 의식이였다. 요즘에 와서야 그는 자기에게도 남다른 힘이 있다는것을, 그 힘이 얼마나 위력한가 하는것을 어렴풋이나마 감득할수 있었다.

《언제나 집단의 지지를 받는 습관을 키워야 하오. 그들의 지지속에 있을 때라야 자신의 힘이 얼마나 정당하며 강한가를 알게 된단 말이요.》

이렇게 말하던 비서와 《자기는 집단이라는 수레바퀴의 자그마한 치차이발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만이 사회를 위해 보다 유익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훈시하던 아버지의 얼굴이 자주 떠오르군 했다.

(모두가 나를 위해주고 나도 그들의 믿음에 성실하고 이래서 사람들은 더 굳세여지는것이 아닌가! 또 이래서 모두가 친형제처럼 화목해지는것이 아닌가! 과연 이런 사람들속에 있는 나야말로 얼마나 행복한가!)

그는 요즘 자기에 대한 이런 새삼스런 희열이 기뻤고 그 기쁨을 음미할수 있게 된 자신의 존재가 행복했다.

그러나 그는 벌써 두번씩이나 의식을 잃었었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부터 옹근 사흘을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한채 긴장해있은것으로 해서였다. 지금도 온몸이 솜처럼 나른했다. 입술은 험상궂게 부르터있었고 우묵히 패워들어간 안확속에서는 무엇에 놀란듯 한 눈동자가 안정을 잃고 허둥거렸다. 걸음을 옮기기도, 누구와 말을 하기조차 싫었다. 다만 당장이라도 서늘한 깔판우에 네활개를 뻗

고 드러눕고만싶었다. 더우기 정아라도 옆에 있으면 복잡한 자료며 분석들을 안받침해주련만 그마저 없고보니 이러저러한 근심들이 한시도 머리에서 사라지질 않는것이였다.

(참자! 이번까지만 참자!)

눈앞이 흐려질 때마다 그는 이발을 사려물고 이렇게 되뇌였다.

로상태는 어느새 용해가 끝나간다는것을 알리고있었다.

이제부터는 정련기—최대의 열부하를 걸어야 했다. 새 기술안의 운명이 전적으로 자기들에게 달려있다는것을 자각한 용해공들은 사소한 실수도 없도록 하기 위하여 최대의 신중성을 기하고있었다. 모두의 구리빛얼굴들에는 하나같이 엄숙한 흥분이 어려있었다.

로장의 신호에 따라 가스와 산소의 발브를 열고 거기에 해당한 량의 연료를 취입시킨 진호는 로앞으로 다가가서 화염온도를 측정했다.

(이번에야…)

순간 그는 굳어지지 않을수 없었다.

1 790도! 광온계의 눈금이 1차시험때보다도 6도나 더 낮은 온도를 가리키고있었기때문이였다.

(아—니?)

혹시 계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여 눈금판을 보았으나 동침같이 긴 바늘은 틀림없이 움직이고있었다. 다시 온도를 재보았지만 역시 그대로였다. 로장도 벌써 심상찮은 조짐을 간파했는지 머리부에 있는 가스발브를 조절하기도 하고 분출구를 들여다보기도 했다.

아무리 따져봐야 미흡한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공기량도 정상이고 가스도 량호했다. 산소도 4기압이나 걸리고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온도가 오르지 않는다는건 두말할 여지없이 연료가 1 800도이상의 열을 담보하지 못한다는것일수밖에 없는것이다.

(설마?)

활랑거리는 심장이 당장 멎을것만 같았다.

엄연한 사실은 자신이 수년동안 고심해서 이룩해놓은 모든 성과들을 일시에 무시하는것이였으나 그는 누구에게 어찌된 일인가고 물을수가 없었다. 어떤 절망적인 대답이라도 할가싶어 무서워서였다. 그는 한가닥의 희망을 열전대에 걸고 그것을 용금속에 찔러보았다.

그라프에 표기되는 쇠물온도의 눈금을 여겨보던 그는 그만 더한 공

포에 휩싸이고말았다. 1 786도! 쇠물온도가 더 떨어지고있는것이 아닌가!

불시에 쇠몽둥이에 얻어맞은 사람처럼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면서 머리가 휙 내둘리였다. 용해장 깔판이 빙그르르 돌아가기 시작했다. 저도모르게 옆에 있는 장입기동체에 기대기는 했으나 몸을 제대로 가눌수가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이요?》

가까스로 고개를 든 진호는 한참만에야 자기앞에 서있는 사람이 누구라는것을 알아보았다. 비서였다.

《글쎄 도무지 알수가…》

목이 잠겨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얼마나 자기에게 큰 힘을 주던 그였던가! 취입시험을 시작할 때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새 연료안에 아직 부족점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 시험으로 하여 생산에 일정한 지장을 준다는것도 사실이고, 특히 많은 동무들이 말하듯이 오늘 도달할수 있는 성과를 시험때문에 래일로 미루게 된다면 그만치 생산량이 적어지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건 새 연료취입을 미루는것, 이것은 그보다 더 큰 죄가 아닐수 없다는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당장 수행해야 할, 또 무엇보다도 먼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취입시험을 기어이 성과적으로 보장합시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날줄이야.

《어째서 1차시험때보다도 온도가 낮아졌는가 말이요?》

《저도 알수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닐수 없단 말입니다. 가스도 좋고 산소도 제 량대로 취입되는데 어째서… 자, 이걸 보십시오. 이건…》

작업복웃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며 비서에게 다가서던 진호는 갑자기 몸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손을 뻗쳐 장입기동체에 기대는가 싶었는데 웬걸 허공을 그러안고 그냥 모재비로 쾅하고 쓰러지는것이였다.

《아—니?》

비서가 얼른 그를 부축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지나친 무리에서 오는 허탈입니다. 시험 첫날부터 꼬박 사흘동안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으니까요.》
옆에 있던 형묵이가 근심스런 어조로 말했다.
《빨리 병원에 알리오. 우선 계기실에 눕혀놓기라도 해야겠소.》
여러 사람들이 진호를 일으키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석쉼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놔두우!》
우택로장이였다. 무슨 일을 하다가 오는지 온통 흙투성이가 된 손을 털면서 로앞으로 다가선 그는 진호를 내려다보며 맞갖잖게 중얼거렸다.
《그렇게두 맥을 못 추다니!》
모두들 의아한 표정이였으나 그는 여전히 덤덤한 눈길이였다.
《이상하다 해서 내려가보니 글쎄 변경변칸막이가 무너지지 않았겠소. 워낙 로가 낡다보니 젠장!》
우택은 언제나와 같이 조용하게 그러나 확고부동한 확신이 느껴지는 간명한투로 말했다. 그의 말은 너무도 요약되여있어서 만일 우택이라는 사람을 잘 모른다면 그의 의사가 무엇인지 리해하기 힘들것이였으나 평소에도 말없이 실천을 앞세우며 가장 어려운 대목에는 언제나 요진통을 막아나선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비서는 인차 그가 무엇을 념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는것을 알아챘다.
《그럼 열이 오르지 않은게 그때문이란 말이요?》
《칸막이가 무너졌으니 가스가 분산될수밖에, 허파에 구멍이 난 격이란 말이웨다. 비서동무! 우리 로는 수리에 넘긴다 해도 시험은 계속하게 해주우. 이젠 자신이 있수다.》
그제야 모두들 환성을 질렀다.
《아무래도 이건… 이건 내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손에 쥔 수첩을 더듬거리며 이렇게 중얼거리는 진호의 모습에 모두들 못 볼것을 본것처럼 고개를 돌렸다.
《일어나게!》
누군가 얼음물이 든 주전자를 들고와 진호에게 따라주려고 하자 그것을 앗아든 로장은 그 물을 그의 머리우에 쏟아부었다.
그제야 다소 정신이 든듯 머리를 휘젓고난 진호는 초점이 없는 뿌연 눈길로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그런 진호의 얼굴에 로장이 이번엔

주전자물을 통채로 꺼꾸로 쏟아부었다.

《이래두 아직 일어나지 못하겠나?》

로장의 이런 익살에도 누구 하나 웃지 못했다.

이때 상범이앞으로 다가선 영기가 무슨 비밀이라도 말하듯이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방금 정아동무가 돌아왔습니다.》

《정아가?》

《그런데 웬 처녀하고 같이 왔어요.》

《처녀라니?》

《뭐 누이동생이라나요?》

《누이동생?》

상범은 의외라는듯 우택을 돌아보았으나 얼굴에는 곧 미소가 어리였다. 오래간만에 웃는 비서의 얼굴을 본 우택이의 입가에도 실룩하고 웃음이 어리는듯싶었다.

제 7 장

우리는 젊은 세대

31

물결은 금빛으로 반짝이고있었다.

머리우에 펼쳐진 하늘은 그이상 파란색이 없을상싶었다.

멀리 꽃처럼 부풀어오른 구름장들은 저쪽 어디론가 쏜살같이 헤염쳐가고있었다.

세번째 시험을 성과적으로 치른 진호네와 로를 수리에 넘긴 2호로의 용해공들은 쏟아지는 8월의 폭양아래에서 하루의 휴식을 맘껏 즐기고있었다. 그동안 새 연료의 취입에 골몰하느라고 변변히 쉬지 못한 이들의 응축된 젊음이 오늘에야 한껏 폭발한듯싶었다.

세번째 시험에서는 1 810도까지 올랐고 그리하여 중탄소강까지 무리없이 뽑아냈다.

어느 정도의 전망을 내다보게 되자 공장에서는 3호로에서 시험을 계속 확대하면서 새 연료의 취입공정에 대한 설계를 선행할 과제를 주었던것이다. 말하자면 중유가 취입되던 공정을 새 연료의 취입공정으로 바꾸어야 하는 내장대이식수술을 위한 설계도가 요구되였던것이다. 그러고보면 아직은 첫 시험에 성공했달뿐 본격적인 일은 이제부터나 다름없었다. 더우기 연도나 축열실에 미치는 연재의 작용에 대해서는 이미의 시험으로는 측정할수 없는것이여서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었다.

이런 아름찬 과업을 앞에 놓고 조직된 오늘의 야유회였다.

남자들은 벌써 옷을 벗어던지고 뽀트에 올라 강 한복판에 솟아있는 조약대를 향해 힘껏 노를 젓고있었다. 억센 근육들이 해빛을 받아 보기 좋게 번들거렸다.

여름한철 제철소로동자들의 유쾌한 휴식터로 리용되군 하는 이 로

천휴양지는 강을 낀 솔밭의 아름다운 풍치도 풍치지만 하루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그쯘한 설비들로 하여 더 인기를 끌었다.

뽀트며 탁구대를 비롯한 갖가지 체육기구들이 갖추어져있는가 하면 그물과 낚시, 지어는 어죽을 끓이는데 필요한 일체 화식기재까지 준비돼있어 아무때 와도 누구나 불편없이 하루를 즐길수 있게 되여있었다. 일요일도 아닌터여서 오늘은 온 휴식터가 이들의 독점으로 되였다.

조약대우에 올라 물우로 화살처럼 내리꽂히는 남자들에 비해 녀자들, 정아와 은심이 그리고 진희는 로장의 지휘밑에 어죽을 끓일 준비들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그릇들을 부신다, 남새를 씻는다, 솥자리를 마련한다 하기에 땀까지 뻘뻘 흘렸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날마저 녀자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은 휴식이라기보다 색다른 고역을 치르러 나온것 같기도 했다.

그래도 제일 열성은 진희였다. 열성이라기보다 일감을 찾지 못해 아무 일에나 비친다고 해야 할것이다. 정아를 내놓고는 모두 첨 대하는 사람들이였지만 쑥스러워하거나 면구스러워하기는커녕 도리여 아무일이나 제가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 돌은 어데다 놓을가요? 아부님!》

《그냥 놔둬라.》

《왜요?》

《그걸 네가 어떻게 든다구 그러니.》

《아—니 요걸 못 들어요?》

대뜸 돌을 들것처럼 제법 아래입술까지 깨문 그였으나 곧 까르르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사실 요까짓건 자신있지만 관두겠어요. 괜히 그러다 로장아부님이 절 용해공으로 잡아두면 어떻게 해요, 호호.》

그는 말끝마다 웃어댔는데 그것은 말이 우스워서보다도 자기 기분이 명랑한 나머지 모든것이 웃음으로 변해가지고 튀여나오는것을 억제할수 없었기때문이였다.

진희의 출현으로 하여 오늘 야유회는 새로운 이채를 띠였다. 얼마나 발랄한 생기를 더해주는지 정아와 은심이는 이 처녀가 없었다면 어쩔번 했을가 하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을 정도였다.

《솔직히 말해 전 여기에 이런 생활이 있는줄은 몰랐어요. 그저 로

앞에서 밤낮 땀만 흘리는줄 알았거던요.》

생글생글 웃으며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던 그는 조약대쪽을 바라보고는 금시 입술을 삐죽했다.

《에이참! 나도 남자랬으면 얼마나 좋을가! 녀자들이란 정말 불쌍해! 이것도 가정의 무거운 부담이 아닐수 없지요? 그렇지요?》

《왜, 싫어?》

그릇들을 씻던 은심이가 웃음어린 눈길로 쳐다보았다.

《싫지 않구요. 언닌 뭐 좋아요?》

《난 이런 부담이라면 조금도 덜고픈 생각이 없어!》

《왜요?》

《이런 일은 즐거우니까.》

《피!— 뭐가 즐겁다는거예요. 아무래도 녀잔 가정을 꾸리기만 하면 저절로 락후해지는 모양인지…》

이번에는 남새를 다듬는 정아를 돌아보았다.

《우리도 이제 수영을 하면 되지 않니.》

《언닌 헤염칠줄 알아요?》

《잘은 못해도 조금은 해.》

《아이 어쩔가. 난 돌멩인걸. 아무리 팔다리를 놀려도 영 솟구질 못해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시늉을 하며 다시금 깔깔거리는 그의 모습에 정아도 따라웃지 않을수 없었다.

평양에서 만나는 첫 순간부터 자기를 놀래우던 진희였다. 깔끔한 눈길로 한참 바라보던 그가 발쪽 웃으며 하는 첫마디에 정아는 어리둥절해지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알만 해요, 언니가 누군지.》

그다음부터 그가 던지는 한마디한마디는 마치 자기는 이미부터 오빠와 어떤 사이라는것을 다 알고있으며 그렇기때문에 자기앞에선 구태여 숨길 필요가 없다는것을 로골적으로 암시하는것이였다.

《우리 오빠 지내 뚝하지 않아요?》 이러는가 하면 《우리 오빠 약점이 뭔지 모르지요? 이제 대줄게요. 근데 이건 절대비밀이예요.》 하고 속삭이는것이였다.

(어째서 날 곡해하는걸가? 어째서 그의 기술안에 대한 방조를 그에

대한 다른 감정으로 혼돈할가?)

그러나 그는 진희가 오해한 원인이 바로 자기가 쓰고있는 수첩과 만년필에 기인된다는것은 전혀 모르고있었다. 진호한테서 받은 수첩과 만년필이 진희가 각별한 의미를 담아 오빠에게 선물한것이라는걸 알길 없는 정아였다.

《오빠한테 주긴 하지만 이건 오빠의것이 아니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색갈도 이런것으로 골랐구요. 왜 주는지 알만 하지요?》

동생의 이런 당부였으나 진호는 첫날부터 그걸 작업복웃주머니에 넣고다니면서 시험수치를 기록했고 정아가 분석에 몰두하면서부터는 그에게 넘겨주었던것이다.

이처럼 단순한 사연이였지만 이런 내막을 모르는 정아로서는 고민거리가 아닐수 없었다. 그저 롱으로 치부할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자— 이젠 됐어! 너희들도 가서 수영이나 하렴.》

무쇠가마를 들어 솥자리에 앉힌 우택은 손을 털며 일어섰다.

《아이 좋아! 가요, 언니!》

그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라도 한듯 진희는 정아의 손목을 끌었다.

《이걸 마저 씻어놓고.》

정아와 진희가 남새가 담긴 바께쯔를 들고 샘물이 있는 곳으로 사라지자 우택은 무엇때문인지 쌀을 일고있는 은심이를 흘끔흘끔 곁눈질해보기 시작했다.

《거 몹시 더운걸?》

그러면서 그는 소나무가 서있는쪽을 스르시 건너다보았는데 그 눈길은 마치 시험때 부정행위를 하려는 학생같았다.

소나무아래에는 오늘 야유회를 위해 준비해온 영양제식당의 갖가지 음식들과 함께 그가 각별히 좋아하는 술이 가방안에 들어있었던것이다. 아까부터 일손을 놀리면서도 어떻게 해야 몰래 꺼내 한모금 꺾어붙일것인가 하는 생각에만 옴해있던 우택이였다.

워낙 술을 좋아하기도 했거니와 오늘같은 날 흐뭇한 마음으로 혼자 기울이는 기분이란 자못 각별할것 같았다. 더우기 자기에 대한 비서의 경고가 그런 유혹을 키질했던것이다. 이미부터 자기의 버릇을 잘 아는 비서가 영기와 함께 그물을 메고 떠나면서 은심이를 불러 이렇게 말했었다.

《다른건 몰라도 술만은 잘 건사하오. 가만 보니 벌써부터 령감 눈치가 심상찮단 말이요.》

《심상찮다니요?》

《목젖이 잔뜩 올라가붙은게 무슨 일을 칠 잡도리요.》

《걱정마셔요. 제가 단단히 보초를 서지요.》

(흠, 보초를 서? 어림도 없다. 내가 전쟁때 정찰소대에 있었다는걸 모르는 모양이군!)

사방을 휘 둘러본 그는 드디여 활동을 개시했다.

일부러 은심이앞을 오락가락하며 나무들을 줏는척 하던 그는 은심이가 쌀을 이는 사이 얼른 소나무아래로 다가가 미리 갖다놓은 낚시망태안에 술병과 순대 한토막을 날쌔게 집어넣었다. 어디에 그런 민첩성이 숨어있었는지 놀라울 지경이였다.

로획물이 든 그물망태를 어깨에 멘 그는 천연스레 은심이앞으로 다가섰다.

《그럼 나도 이젠 낚시를 드리워볼가?》

《어서 그러세요. 그렇지만 꼭 큰걸 잡으셔야 해요.》

《아무렴, 그럼 내가 비서네처럼 송사리떼나 건지겠나?》

낚시대를 어깨우에 얹은 그는 커다란 바위들이 절벽을 이루고있는 강웃쪽으로 올라갔다. 저절로 입에서는 그 《갈매기 쌍쌍》하는 노래가 아니, 노래라기보다 념불같은 소리가 웅얼웅얼 새나왔다.

조약대에서 떠들어대는 패들은 물론 아래쪽에서 투망질하는 비서나 영기의 눈에도 뜨이지 않는 음침한 곳에 자리잡은 그는 낚시대를 드리워놓기 바쁘게 돌아앉아 병마개부터 뽑았다.

주머니에서 사기잔을 꺼내 입에 대고 훅— 하고 분 다음 조심스레 병을 기울였다.

잔이 넘치게 술이 차오르자 그의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떠오르면서 혀바닥이 입술을 핥았다.

《어찌겠소. 개별적인 사정이라는것도 있는게 아니겠소.》

앞에 비서가 있기라도 한것처럼 이렇게 소리내 말한 그는 잔을 천천히 입에 갖다댔다. 남실거리는 술이 입술에 닿자 스르르 눈을 감은 그는 쪼—옥 소리가 나게 들이켰다.

《크—》

목구멍으로 흘러드는 짜릿한 향기에 그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제야 낚시에 미끼를 꿰지 않았다는것이 생각난 그는 낚시코에 그중 큼직한 미끼를 물리였다.
(오늘은 대짜를 낚아 솜씨를 한번 보여줘야지!)
다른건 몰라도 낚시에 대해서만은 누구앞에서라도 드러내놓고 자기 솜씨를 자랑하는 그였다. 대낙이며 떰벵이, 삼발이 등 각양각색의 낚시가 다 갖추어있는가 하면 어떤 물에서는 무슨 낚시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묘술까지 휑하니 도통하고있었다. 이런 리론과 빈틈없는 준비에 비해서는 늘 수확이 적은게 탈이였지만 그에 대해서도 제나름의 리유가 있었던것이다.
《낚시란건 고기를 먹는 재미가 아니라 낚는 재미로 하는걸세.》
낚시질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는 말이였으나 그는 마치 자기가 비로소 이 진리를 발견해낸듯이 말했다.
《그래도 잡은 고기가 없는데 무슨 재미가 있었겠어요?》
누가 빈 구럭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할 때면 그는 껄껄 웃었다.
《꼭 건져야만 맛이겠나? 그저 낚아보면 되는거야. 보게, 그래서 내 낚시엔 이렇게 코가 없단 말일세. 고기가 얼마간 요동을 치면 저절로 빠지게 돼있거던.》
사실이 그래선지, 아니면 고기를 못 잡는 구실을 만들어놓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정말 그에게는 코가 없는 밋밋한 낚시가 여러개 있었다. 어떤 땐 옆사람이 잡아낸 고기를 들여다보며 《흠, 이놈은 주둥이를 보니 내가 아까 잡았다가 놔준게로군.》하고 말하여 고기잡은 사람을 아연케 만들기도 했다.
《허－이것 참!》
어느새 자기 손에 다시 쥐여져있는 술잔을 내려다보며 그는 허구프게 웃었다, 마치 자기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방정맞게도 손이 그만 말을 듣지 않았다는듯이.
《든 잔이야 부어야지 어찌겠소. 내 한잔만 더 하리다.》
두잔을 마시고나니까 뱉이 뜨뜻해지는게 알렸다.
소금에 찍은 순대를 와작와작 씹으면서 이제부턴 오직 낚시에만 열중하리라 마음다지며 물우에 떠있는 종대에 시선을 모았다. 그러나 종대는 까닥도 하지 않았다.

(이상한걸?)

그는 고개를 기웃거렸다. 벌써부터 고기가 물릴리 만무였으나 그는 별스레 안정을 못하면서 초조해했다.

(아무래도 이놈이 말썽이야!)

고기가 물리지 않는 원인이 남아있는 술때문이기라도 한것처럼 그는 애꿎은 술병을 노려보다가 그것마저 말강스레 비워치웠다.

《에—이제야 종대가 바로뵈는군!》

종대를 지켜보는 그의 두눈이 그제야 정말 반짝반짝하고 생기가 돌았다.

우택로장이 종대와 아니, 술과 씨름하고있을 때 물에서 어지간히 맥을 뽑고난 젊은 패들은 두척의 뽀트에 앉아 태수를 몰아대고있었다.

어떻게 은심이와 짝을 뭇게 됐는가를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으면 강물에 처박겠다는것이였다. 성격이 드센 친구들이여서 정말 당장이라도 태수를 꺼꾸로 처박을 기세였다. 이런데 나오면 의례히 있을법한 화제였고 또 흔히 새로 섞인 사람에게 집중되기마련인 요구이기도 했다.

《이거라구야, 제길!》

태수는 구원을 바라는듯 한 눈길로 뒤전에 앉아있는 진호를 넘겨다보았으나 진호는 오히려 잘코사니야 하는 표정을 짓고있었다.

(뭐, 날 바라본들 소용없어. 그걸 여태 나한테도 말하지 않지 않았나. 그러니 응당 벌을 받는 수밖에.)

《뻔해! 얌전한 생김새에 반한거겠지.》

누군가 이렇게 말하자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성격인가?》

《아—니.》

《생긴것두 아니래, 성격도 아니래 그럼 도대체 뭐란 말인가?》

모두들 의아한 눈길로 태수를 쳐다보는데 뒤켠에 앉아있던 형묵이가 갑자기 《암— 그런게 있지.》하고 한마디 삐쳤다.

《뭔데요?》

《그런걸 총각들이 알면 되나, 흐흐—》

흉측한 그의 웃음소리에 대번에 폭소가 터져올랐다.

《사실 따져보면 난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성격이 어떤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하게 된것일세. 동정이랄가 아니면 의무감이랄가.》

《의무감?》

세상에 사랑을 의무감으로 했다는건 듣다 처음이라는듯 모두의 눈이 둥그래졌다.

누구보다 놀란것은 진호였다. 아무 일이나 의무감에 못이겨 행동하지 않을뿐더러 그런것을 제일 싫어하는 태수가 하물며 사랑을 의무감으로 하다니?

(또 그럴듯하게 둘러댈 잡도리군.)

그러나 두발을 물에 잠근채 배전에 앉아있는 태수의 기색은 자못 심각했다.

《그럼 말하지. 어처구니없다고 웃을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이네.》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실 은심이한테는 원래 교제하던 남자가 있었네. 철제일용품공장의 지도원이랬다던가? 몹시 은심이를 따랐던 모양이야. 그가 은심이를 가까이 하게 되면서 제일 마음쓴건 바로 은심이가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자라났다는것이였네. 왜 안 그러겠나? 사랑하는 처녀가 부모의 얼굴을 모를뿐아니라 아직 생사여부조차 모르고있으니 말일세.

은심이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원에서 자랐어. 말하자면 전쟁때 부모와 헤여져 고아로 됐단 말이네.

그는 어떻게 하든지 은심이 부모를 찾아내기로 결심했지. 하긴 요즘도 전쟁때 헤여졌던 부모를 다시 찾은 사람이 얼마나 많나. 5호에 있는 수남이도 왕별을 단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나 말야. 물론 살아있다고 믿긴 어렵지만 그래도 친척이나 고향만이라도 알면 그게 어딘가!

그런데 그 친구가 사방에 줄을 놓기도 하고 편지질을 해서 종내 은심이 부모에 대한 래력을 알아냈단 말일세. 아버지는 전쟁 이듬해에 돌아갔고 어머닌 은심이를 낳던 해에 돌아갔다는거야. 고향이 문천 어디라는것까지 알아내서 거기 있는 친척들과도 편지거래가 됐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 친구의 덕분으로 은심이는 25년만에 아버지산소를 찾아볼수 있었으니 말일세.

은심이로서야 실상 그가 부모보다 더 고맙고 가까운 사람이 아닐수 없었지. 한데 문제는 그때부터 그가 은심이를 멀리하기 시작한데 있

네.》
《멀리하다니?》
《리윤즉 은심이 아버지가 해방전에 잘살았다는거야. 어느 정돈지는 몰라도 밥술은 굶지 않았다는거야, 가게방을 차려놓았다기도 하고… 바로 이것이 그를 은심이로부터 멀어지게 한 요인이지. 그러고보면 그 친군 은심이 아버지도 왕별을 달고있거나 아니면 그쯤한 사람일거라고 기대했던게 틀림없어. 이런 그의 속심을 알길 없던 은심이는 그가 대학으로 추천받은것이 기뻐서 가방을 선물했다는거야. 그런데 그가 대학으로 떠나면서 그 가방을 다시 돌려주었는데 그안에 편지가 들어있더라는게 아닌가.
사연인즉 이러저러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은 끝에 이젠 자기를 잊어달라는것이였지.》
《저런!》
《결국 그 친구는 은심이한테 부모를 찾아준 기쁨보다도 몇배 더한 슬픔을 가슴에 새겨놓고 떠나고말았지. …》
태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배전을 치는 단조로운 물소리가 들리였다.
물에 젖은 두쌍의 노는 날개처럼 공중에 쳐들린채 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고있었다.
《내가 이 말을 들은건 은심이와 한호실에 있는 처녀한테서였는데 그는 나하고 기술과에 같이 있었지. 그 말을 듣고나니 잠이 와야지. 그자에 대한 격분이 치밀어올라서 말이야. 그에 대한 불만이 크면 클수록 또 그 처녀에 대한 동정을 금할수 없더란 말일세. 매일밤 그자를 원망해서 울고 아버지까지 원망하며 울 처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는게 아니겠나. 에라! 찾아가 만난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그따위 친구를 두고 고민할 필요가 있단 말인가! 무엇때문에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의 과오를 그가 걸머져야 한단 말인가! 그보다 더 엄중한 과오를 범하고도 당의 관대한 처사로 하여 개조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아니, 무엇보다 그야 우리처럼 새로운 교육을 받고 자라난 새 세대가 아닌가 하는 격분이 치밀어 견딜수 있어야 말이지.
난 다음날 그가 있는 유치원으로 찾아갔네. 마침 마당에서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고있더군. 난 한참동안 담장밖에서 처녀를 지켜

보았네. 저 처녀가 과연 어떤 심정으로 노래를 부르고있을가 하고 말일세. 그런데 얼굴엔 한점의 수심도 찾아보기 어렵지 않겠나. 적어도 웬만한 고민쯤은 누를줄 아는 처녀라고 생각했지.

저녁에 다시 합숙으로 찾아갔네.

어리둥절해하는 그에게 난 단도직입적으로 들이댔지.

〈난 동무가 고민하고있다는걸 알고있소. 그래서 찾아왔소. 물론 리해는 할수 있소. 하지만 동문 새 세대가 아니요. 새 세대로서 그런걸 가지고 고민한다는건 부끄러운 일이요, 수치란 말이요. 그따위 낡은 유물은 우리 세대가 털어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요. 자— 맘을 크게 먹으시오. 눈을 똑바로 뜨고 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란 말이요.〉

그는 말없이 나를 지켜보기만 하더군. 의문과 불만이 섞인 눈길로 말일세.

이튿날 다시 그와 함께 여기에 나왔지. 바로 저 바위앞까지 말이네.

〈난 어제 동무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던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걸 생각했소. 그때 무슨 노래를 가르쳐준줄 아오?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이 노래였소. 나도 이 노래를 부르며 자랐고 동무 역시 그렇소. 아니, 우리 세대모두가 이 노래를 부르며 자라났소. 사실 우리야말로 태여난 첫날부터 수령님의 해빛같은 사랑을 받으며 당의 품안에서 행복하게 자라난 친형제들이 아니요. 그렇게 자란 우리가 어째서 동무와 같은 그런 고민을 해야 하오? 어째서 그런것에 포로가 될수 있느냐 말이요. 우린 오직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키워준 당의 은덕에, 수령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할 그 의무밖에 없소. 그 어떤 번민도 새것을 위한 투쟁으로 환원시킬 권리밖에 없단 말이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걸 감추려고 하지 않더군. 우린 서로 이렇게 알게 됐고 가까와졌고 또 결혼까지 하게 됐네. 그런데 결혼식날 그 노래를 같이 불렀는데 도중에서 은심이가 뚝 그치는게 아니겠나. 돌아보니 제길! 울고있는게 안야.》

《…》

모두다 숙연한 침묵에 휩싸였다.

또다시 노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소리만 가락맞게 들리였다.

태수에 대한 그 어떤 새삼스런 선망으로 하여 진호는 걷잡을수 없

는 심정에 사로잡혔다. 당장 그를 부둥켜안아주고싶기도 했고 그가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영원토록 행복하길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불길처럼 솟구쳐오르기도 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그가 사랑에 대해 하던 말이 생생하니 되살아올랐다.

《사랑이란 무엇보다 상대에 대한 참다운 리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보네. 그래 이런 리해가 동무한테 있나?》

그의 이 말이 새삼스런 의미로 안겨오면서 어쩐지 현옥이의 모습이, 두눈에 눈물을 담고 구슬픈 눈길로 자기를 지켜보던 현옥이 모습이 떠오르는것이였다.

《그러니 오늘은 그때의 2중창을 꼭 불러야겠군.》

분위기를 눅쳐보려는듯 형묵이가 이렇게 말하자 한 친구가 걱정스레 되받았다.

《또 울면 어떡하지?》

《아따, 우리가 있지 않나. 모두다 합창으로 부르면 될게 아니야.》

물결에 실린 뽀트들은 어느새 하얀 모래가 깔린 백사장으로 밀려왔다.

모두들 기슭에 오르기 바쁘게 비서네가 그물로 잡아온 고기를 들여다보며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허— 이놈은 대짠데?》

《아니, 잉어도 있군 그래!》

《뭐니뭐니해도 로장아바이가 잡은 숭어가 제일 커.》

버치안에서 제일 큰놈을 골라든 영기가 친구들을 돌아보며 눈을 끔뻑해보였다.

《그까짓건 아무것도 아니여. 더 큰놈도 있었지만 알을 가져서 놔줬지.》

우택의 말에 모두들 배를 그러쥐고 웃어댔다. 비서까지도 모래밭에 주저앉아 눈물이 글썽해지도록 웃었다.

이들이 웃는데는 그럴만한 리유가 있었다.

로장이 낚시대를 걸쳐놓은채 드러누워 코를 골고있는 사이 영기가 그물로 잡은 고기중에서 제일 큰놈을 골라 낚시코에 걸어놓았던것이다. 그리고는 로장을 깨웠다.

《아바이, 물렸어요. 빨리요!》

자리에서 후닥닥 일어난 우택은 영기한테서 낚시대를 받아쥐긴 했

으나 곧 오랜 낚시군의 관록을 시위하려는듯 시답잖은 기색을 지었다.

《어디 걸어볼가?》

낚시줄을 당기자 시누런 황금빛비늘을 번쩍이며 커다란, 그야말로 보기 드물게 큰 숭어가 꼬리를 휘저으며 가녁으로 끌려왔다. 그러나 그걸 보고 하는 그의 말이 더 걸작이였다.

《별루 크지도 못한 주제에… 또 놔주구말가부다.》

《아ㅡ 아니!》

급해맞은 영기가 부랴부랴 물안에 뛰여들어 그놈을 건져냈던것이다.

모두가 알고있는 이 사실을 우택이만은 아직 모르고있었다.

32

정아는 강아래쪽에서 진희에게 수영을 가르쳐주느라고 야단이였다.

《팔을 이렇게, 숨은 들이쉬고.》

《이렇게?》

《아니,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들이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바로 옆에서처럼 들려왔다.

《얼마나 아름다운 처녀가?》

진호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다.

사실 자기에게 있어서 정아는 깨끗한 시내물과도 같은 존재였다. 시련에 찬 길을 허덕이며 걷는 사람이 목을 추기고 얼굴을 담글수 있는 시내물, 이제까지의 피곤을 가셔주고 새로운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맑은 시내물이였다. 아니, 어찌 시내물에만 비기랴! 암초에 걸려 모지름을 쓸 땐 뒤에서 떠밀어주는 강물이였고 맥을 놓고 방향을 찾지 못할 땐 목적지를 향해 더 빨리 닿을수 있게 해준 힘찬 격류이기도 했다. 그저 고맙다고 하기에는 표현이 너무도 범속한 그런 감사의 정이 자기 가슴속에 고여있다는것을 그는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과연 그가 없었다면 내가 무슨 일을 제대로 할수 있었단 말인가!)

정아를 대할 때마다 그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처녀야말로 자기가 표현하는것보다 얼마나 더 소박하고 진실하며 그래서 또 아름다운가 하는 생각을 품게 되면서 은연중 현옥이는 어째서 이렇지 못할가? 이 처녀가 현옥이라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부질없는 상념에 젖어드는것이였다.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자주 정아의 자리에 현옥이를 세워놓고 여러가지 일들을 상상해보는것이였다. 한눈금의 분석수치를 놓고 같이 고민해보는가 하면 심사결론을 두고는 자기보다 더 가슴아파하는 현옥이의 모습도…

그러나 좀처럼 자기와 일치시킬수 없는 현옥이였다.

《전 정말 얼굴도 맘씨도 그렇게 고운 처녀는 첨 봤어요. 어쩐지 옆에 있기가 막 부끄럽지 않겠어요.》

평양에서 돌아와서 하던 그의 말이였다.

《됐소, 내가 뭐 그런 부탁을 한거야 아니지 않소.》

맘속으로는 현옥이에 대한 말을 듣고싶었지만 그는 태연하게 대꾸했다.

《그 동무도 자기의 고통을 동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도 이젠 동무를 잊었노라고, 이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렇지만 전 그렇게 말하는 그의 가슴속에 어떤 새롭고도 귀중한 그 무엇이 잠재해있다는것을, 그것이 이제야 결정적으로 눈을 떴다는것을 알게 됐어요. 만약 동무가 그것조차 리해하지 못한다면…》

《솔직히 말해 난 어느때건 그가 자기의 잘못을 알고 그런 고통을 느낄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소. 언제든지 그런 날이 오리라는걸 믿었단 말이요.》

자기를 괴롭힌 현옥이가 고통스러워한다는 말은 진호에게 어떤 야릇한 만족을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을 아프게 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응당하다는건가요? 자기를 괴롭힌데 대한 마땅한 대가라는건가요?》

《이제 와서 그런걸 계산하자는건 아니요. 하지만 난 지금도 그에 대한 태도에서 내자신이 시정해야 할 일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소.》

《너무해요. 그건 진심으로 뉘우치고있는 그에 대한 지나친 처사가 아닐수 없어요. 어쩌면 동문 그렇게도…》

자기를 마주보는 정아의 시선에 어딘가 혐오스런 빛이 어려있었다.
《제발 더는 그의 상처를 다치지 마세요. 본인도 그것으로 해서 괴로와하고있는 상처를 애써 더듬으려 하지 말아요. 동무의 믿음에 그가 본의아니게 불성실했을수도 있다는걸 왜 생각하지 못해요. 전 현옥동무가 하던 말을 잊을수가 없어요. 그 목소리와 눈길의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였던가를 이제 와선 더 통절히 느끼게 돼요. 거기에는 용서를 비는 간절한 념원이 깃들어있었고 동무에 대한 신뢰의 정이 담겨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소심한 태도에는 희망과 맹세가, 동무에 대한 누를길 없는 애정이 깃들어있었어요. 전 그 희망을 믿지 않을수 없어요. 그 애정을 믿지 않을수 없단 말이예요.》
자기를 붙들고 눈물을 머금던 현옥이의 모습이 떠올랐으나 진호는 얼른 화제를 돌려 그동안 그가 평양에서 얻어온 자료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실로 정아가 고심을 들여 얻어낸 자료는 더없이 귀중한것이였다. 무엇보다 자기가 그토록 애써 찾으려고 했던 보충연료들의 배합원칙, 즉 가스와 산소와 공기의 배합비에 따르는 열량의 변화가 명백하게 산출돼있었던것이다.
《진호동무! 이젠 여기 와앉아요.》
은심이의 목소리에 돌아보니 어느새 음식을 가운데 놓은 친구들이 주런이 마주앉아 자기가 앉기를 기다리고있었다.
《아니, 여기요! 이 자리에 앉아야 해요. 오늘의 주인공이니까요.》
주부의 임무를 수행하는 은심이가 주석단처럼 따로 만들어놓은 자리를 가리키는것이였다.
《어서 앉게.》
맞은켠자리에 앉아있던 로장도 자못 흡족한 표정이였다.
《좋습니다, 앉지요. 자리가 좋으니 돌아오는 몫도 많을테니까요.》
그는 서슴없이 가운데자리에 앉았다.
《자— 한마디 하시구려.》
비서가 이렇게 권하자 로장은 대뜸 《어험!》하고 기침을 깇으며 근엄한 눈길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에— 그간 새 연료안때문에 수고들이 많았네. 우리가 시험을 성과적으로 했다는건 대단히 자랑스런 일이 아닐수 없네. 그건 무엇보

다 우리 2호로의 영예를 계속 빛내이는것으로 되니꺼니. 안 그런가?》
표현해야 할 말마디를 고르기가 힘이 드는지 그는 미간을 찌프리고 한참 침묵을 지켰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한 수고보다 앞으로의 고생이 더하다는걸 알아야 하네. 문제는 뭔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새 연료취입을 완성해야 한다는것이고 그래서 기어이 승리의 보골 올려야 한다는걸세. 알겠나? 자— 그날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드세.》
일시에 박수갈채가 일었다.
《제때에 도와주지 못했다고 욕하지 마오. 대신 이제부터 봉창하지.》
잔을 든 비서가 나직한 소리로 말했다. 별치 않은 그 한마디에 진호는 가슴이 찌르르했다.
취입공정안설계를 어떤 일이 있어도 제 기일에 완성하겠다는 태수의 결의에 이어 래빈으로 참가한 진희의 격려사가 각별한 이채를 띠였다.
《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오빠가 고심하던 기술안이 성공하게 되였다는데 있지만 보다는 우리 수령님께서 한시름 놓으시게 된다는 그 사실이 더 기뻐요. 중유를 쓰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가요. 고맙습니다, 로장아부님이랑 용해공오빠들 정말 고마와요.》
그러면서 그는 정말 공손히 머리를 숙여 절을 했다.

이들이 부글부글 끓는 어죽가마를 가운데 놓고 술잔을 주고받을 때 미역을 감은탓으로 온몸이 나른해진 정아는 커다란 소나무가 던져주는 그늘아래 수영복차림채로 조용히 누워있었다.
온몸을 따뜻이 어루만져주는 훈향의 부드러운 촉감에 저절로 눈이 감겼다. 눈을 감긴 했으나 모든것이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해빛에 반짝이는 강물이며 알뜰히 가꾸어진 나무들, 저쪽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주변을 핥는 물결의 철썩거림 그리고 풀벌레들의 울음소리…
이 모든것이 더없이 새삼스럽고 이상야릇했다. 하지만 이 모든것들이 오늘따라 어째선지 거대한 아름다움과 끝없는 행복을 의미하는것

같았다. 희망으로 가득찬 그 행복의 노래는 물결소리와 함께 신비로운 조화를 이루고있었다. 강변의 무성한 수풀들도 마음의 꿈을 대신하는듯 했고 멀리에서 파도에 흔들거리며 서로 부딪치는 뽀트들도 마음속에 떠도는 무수한 생각들을 나타내고있는것 같았다.

《맴 맴ㅡ》

눈을 뜨고있을 때보다 한결 더 소란스레 들리는 매미의 울음소리였다.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날개에서 날가? 아무리 새겨들어도 그것이 날개를 비벼대는 소리가 아니라 더위에 바싹 갈린 목에서 터져나오는 울음같았다.

《호ㅡ》

그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였다.

언젠가부터 그는 자기 가슴에 우울한 빛이 서리는것을 그리고 마치 무엇에 질겁한 사람처럼 가끔 심장이 때없이 활랑거리는것을 느꼈던것이다. 어째선지 저로서도 알수 없었다.

(그도 오늘 여기 와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불시에 우울한 기색을 짓고있는 기철이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다.

(어째서 그처럼 새것에 대한 열망이 남다른 그가 진호동무의 기술안만은 인정하지 못하는것일가? 진호동무에 대한 원한때문일가, 아니면 자기 기술안을 버린 나에 대한 원망때문일가? 자기의 과실을 인정할만 한 용기가 부족해설가, 아니면 내심으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따름일가? 어째서 출장을 떠날 때조차 한마디 말도 없이 가버렸을가?)

그의 처사가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쩐지 불안스럽기도 했다.

문득 대학때 일이 떠올랐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되살아나군 하는 추억이였다. 그날은 졸업반모두가 새로 짓게 되는 대학강당의 기초굴착작업에 동원되였는데 정아는 아침부터 기철이와 함께 목고를 멨었다.

《힘들지 않소?》

《일없습니다.》

그러나 기철은 매번 목고줄을 자기쪽으로 당겨놓았고 정아가 고집을 부리면 목고채를 정아쪽으로 내밀군 했다.

휴식시간에 오락회가 벌어졌는데 사회자가 대뜸 정아를 지목했다. 기철선생과 함께 2중창을 부르라는 요구였다.

《선생님이야 사정을 봐줘야잖아요.》

기철이를 편들어주는것으로써 정아는 자기도 난감한 처지에서 모면해보려고 했지만 허사였다.

《선생님도 오늘은 어쩔수 없습니다. 여긴 교실이 아니라 작업장이니까요. 글쎄 정아동무로서야 강의때마다 늘 각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사정을 봐줬으면 하겠지만 우린 교실에서 받은 박해를 여기서라도 봉창해야겠단 말입니다. 안 그렇소, 동무들!》

《옳소.》

사소한 융화도 있을것 같지 않았다.

기철이가 선선히 일어서는 바람에 정아도 따라일어설수밖에 없었다.

《〈폭풍이 앞을 막아도〉하는 노래 아오?》

《모릅니다.》

《〈공장대학생〉은?》

《그것도 잘 몰라요.》

《그럼 동무가 아는 노래가 뭐요?》

《〈오직 한마음〉밖에 없어요.》

《〈오직 한마음〉?》

《곡목 또한 멋있습니다. 둘이서 부를 노래는 〈오직 한마음〉.》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기 바쁘게 누군가 이렇게 시까슬러댔다.

《아니, 그건 흔히 결혼식때 부르는 노래가 안야.》

옆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였지만 분명 자기들이 들으라는 소리였다.

《혹시 미리 련습해두자는건지 알게 뭔가!》

정아는 대번에 모닥불을 뒤집어쓴것 같았다. 그 노래를 택한 자신을 후회하며 기철이를 훔쳐보는데 그도 어지간히 당황해하는 기색이였다. 노래를 부르기는 했으나 정아는 정말 결혼식날 새색시처럼 한번도 얼굴을 들수가 없었던것이다.

《저걸 보게, 고개를 숙이고있는게 신통하다니까.》

여느땐 우습기도 하고 또 야릇한 즐거움에 휩싸이기도 하던 그 추억이 오늘따라 쓸쓸하게만 느껴지는것이였다.

(그가 돌아오면 이번엔 모든걸 털어놓을테야! 더는 참을수도 견딜수도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앉은 그는 수영복우에 웃옷을 걸쳤다.
그때 그는 자기쪽으로 다가오는 발자국소리를 들었다. 발자국소리가 가까와짐에 따라 왜서인지 긴장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왜 혼자 있소? 모두들 조수는 어데다 버리고 혼자만 먹어대느냐고 야단인데.》
상대가 누구라는것을 알자 불안이 배로 확대되였으나 그는 해빛에 눈이 부시기라도 한것처럼 손을 들어 이마를 가리웠다.
그는 요즘 어째선지 진호를 대하기가 두려웠다. 무엇때문인지 알수 없었지만 그를 마주하기만 하면 은연중 어떤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것이였다. 그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혹시 진희처럼 자기와 진호와의 관계를 곡해하면 어쩌나 하는 위구때문이라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렇게 오해받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수가 없었다. 그것이 더욱 그를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는것이였다.
《일광욕을 하느라구요.》
그러나 그는 곧 자기의 혀를 깨물지 않을수 없었다.
(그늘에 있으면서도 일광욕을 해? 바보같으니!)
옹색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얼른 생각나는대로 한마디 던졌다.
《이젠 일단락지은셈이지요? 시험에서 성공했으니 말이예요.》
《아니, 우리 일은 이제부터나 다름없소. 시험에서 성공했지만 도입하지 못하는것들이 얼마나 많소. 새 연료가 공정으로 취입될 때, 말하자면 공업화될 때래야 우리 일이 끝나는게 아니겠소. 취입장치란 어차피 전기요소가 많을것이 분명한데 그러고보면 이제부터야말로 동무가 더 수고해줘야…》
《수고라고요?》
정아는 곧 스스럼없는 태를 지어보이며 말을 이었다.
《제가 무슨 수고를 한게 있다고요.》
《하긴 수고라는 말로는 부족하지. 뭐라고 할가, 사실 동문 생활이상의것을 나한테 주었으니까…》

《제발 그런 롱담은 그만두세요.》
어떻게든 그의 말을 롱으로 받아넘기려고 했으나 자기를 바라보는 진호의 진지한 눈빛이 그런 태도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다잡았다. 그런 감정에 말려드는 자기를 용서할수 없었던것이다.
《전 결코 무슨 보답이 있기를 기대한건 아니예요. 그랬으면 애초부터 공감하지도 못했을거구요. 전 다만 동무의 기술안이 옳다는걸 깨달았을뿐이고 따라서 새것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무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을뿐인걸요. 단지 그것뿐이예요.》
《물론 그렇다는건 나도 아오. 그렇지만 동무가 그처럼 단순하게 리해하는 그 진리를 어째서 다른 사람은 리해하지 못하는가 하는걸 난 요즘에야 깨닫게 됐단 말이요.》
진호는 오늘에야말로 진정으로 그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그옆에 앉았다. 옳은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것, 사고와 행동은 물론 지어는 의지까지도 복종시킬줄 아는 담대한 기질과 그것을 위해 서슴없이 내닫는 열정, 그러면서도 꾸민것이 아니라 저절로 넘쳐나는듯 한 발랄한 생기, 더우기 이 모든 자기의 우점을 의식조차 하지 않는데서 나타나는 그의 정신적인 매력.
그러나 자기를 두려워하는듯 웃몸을 겉옷으로 꼼꼼히 싸며 땅바닥만 내려다보고있는 정아를 보느라니 그런 충동보다 자기가 이렇게 혼자 있는 처녀를 찾아온것이 좋은 일인가 어떤가 하는 의문이 먼저 머리속에 떠오르는것이였다.
(도대체 우물쭈물할게 뭐란 말인가!)
자기가 심중한 기색을 지을 때마다 그런것처럼 혹시 이번에도 정아가 대수롭지 않은 롱이라는듯이 처신하지 않으려나 해서 진호는 그를 흘끔 바라보았다.
아니나다를가 이번에도 정아는 자기에게서 어떤 심각한 표정을 눈치채고는 얼굴표정뿐아니라 정신상태까지 일변시켰다. 그의 얼굴에는 별안간 본의아닌 웃음이, 그것도 여느때와 같은 티없는 웃음이 아니라 일부러 짓는듯 한 그런 웃음이 펴졌고 눈길 역시 어딘가 안정성이 없어보였다.
《참! 아까 태수동무가 무슨 애기를 했어요? 모두들 정신없이 그의

얘길 듣더군요.》
《자신에 대한 얘기였소. 은심동무를 어떻게 사랑하게 됐는가 하는 얘기.》
《그래요? 그럼 같이 들을걸. 저도 언젠가 그들에 대한 얘길 듣긴 했어요.》
화제가 다른데로 번져진것을 다행으로 여긴 정아는 얼른 발앞에 있는 납작한 자갈 하나를 집어들었다.
《전 그들의 사랑이야말로 세상사람들, 특히 우리 세대모두의 열렬한 행복의 축복속에 만발해야 할 그런 사랑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옳소,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오. 난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선 태수와 같은 친구를 동무로 가지고있는 자신에 대한 긍지를 새삼스레 느끼지 않을수 없었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랑이란 확실히 참다운 리해를 통해서만 꽃피고 열매맺는다는걸 더욱 절실히 깨달았소. 서로에 대한 진정한 리해가 없다는것은 그야말로 과일나무에 야생목을 접하는것과 같이 어렵고 어이없는 일이란걸 말이요. 난 이렇게 말하고싶소. 진정한 사랑이란 두사람이 주고받는 애정의 량이 서로 같을 때라야 제대로 꽃필수 있다고 말이요.》
《같을 때라구요?》
《그렇소, 같을 때!》
정아는 진호가 무엇을 념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도 용서할수 없다는건가요?》
《물론 이젠 용서야 할수 있겠지요. 그러나 용서와 사랑은 서로 다른게 아니겠소.》
《그렇다면 그건 용서가 아니지요.》
정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용서를 하려면 깨끗이 해야지요. 진정한 용서란 외면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을 내밀어주고 진정으로 리해해주는게 아니겠어요. 태수동무가 은심동무를 대한것처럼 말이예요. 말하자면 사랑이지요.》
손에 들었던 돌을 던지는 그의 행동에는 진심으로 뭔가 못마땅해하

는것이 있었다.

아닌게아니라 정아는 지금 자기가 평시에 진호에게 품고있던 불만을 더는 감춰서는 안된다는 생각과 함께 특히는 그것을 드러내보임으로써 어떤 온당치 못한 감정에 휘말려드는듯 한 자신을 더는 방임해서는 안된다는 결심이 솟구쳤던것이다. 고개를 든 그는 꼿꼿한 눈으로 진호를 마주보았다.

《동무의 태도를 보면 어쨌든 자기를 믿고있는 한 처녀앞에 지닌 남자의 의무에 대한 저의 생각과는 달라요.》

《?!》

《동문 자기 요구에 맞는 대상을 고르는것을 응당한 일로, 그런 사람을 찾는것을 행복으로 여기지요. 그러나 그게 사랑일가요? 진실한 사랑이고 행복일가요? 전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봐요. 사랑이라고 해도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랑이라고요.》

진호는 어리둥절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아직 저로서는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는것을 사랑에 대한 아무런 체험도 없는 처녀가 확신에 넘쳐 말하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세상에 일생의 동반자로 삼을 대상에게서 자기의 요구와 지향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구며 또 그걸 바란다고 해서 나쁠게 뭐란 말인가 하는 생각만은 머리에서 지워지질 않았다.

《가끔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진호동무가 자기 사업, 연구사업에서처럼 사랑에도 그렇게 주의를 집중한다면 틀림없이 남다른 행복을 누릴수 있을거라구요. 하지만 진호동문 과학은 창조할줄 알아도 사랑은 창조할줄 모르거던요. 아니, 하려고 하지 않지요. 사랑도 과학과 마찬가지로 창조하는것이라고 여기지부터 않으니까요.》

(사랑도 창조해야 한다?)

진호는 또 한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정아의 두눈은 점점 열기를 띠고 반짝였다.

《그래요, 사랑도 창조해야 하구말구요. 만약 사랑을 동무처럼 생각한다면 꽃들이 만발한 화원이나 열매들이 주렁진 과원에서 제 마음에 드는 꽃을 꺾거나 입에 맞는 열매를 따는거나 다를게 뭐예요?

그래 그걸 사랑이라고 할수 있어요? 전 진실한 사랑이라면 그런 꽃

과 열매를 따기 전에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아름답고 탐스럽게 가꿔야 한다고 봐요. 태수동무처럼 말이예요. 전 그래서 태수동무를 존경해요.
사람은 누구나 사소한 부족점들은 다 가지고있는 법이예요. 서로의 부족점을 서로가 도와주어 고쳐가는 과정이 곧 진정한 사랑이 아닐가요? 그래서 바로 행복이 창조과정에 있다는 진리가 생겨난게 아닐가요?》
《?!》
어떤 호된 타격을 받기라도 한것처럼 얼떨떨하기만 했다.
(서로의 부족점을 고쳐가는 과정이 참된 사랑이라구? 그래서 행복이 창조과정에 있다구?)
너무도 아름찬 의미가 내포돼있어서 단번에 소화하기는 도저히 어려웠다.
《이런 말 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갑자기 고개를 아래로 떨군 정아는 가는 목소리로, 마치 잘못을 비는 사람의 가냘픈 어조로 말했다..
《사실 제가 이런 말 하는건…》
그의 목소리는 더욱 잦아들었다.
《진호동무에 대해서라기보다 제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저 역시… 저 역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대하지 못하고있으니까요.》
진호는 대번에 눈이 휘둥그래졌다. 혹시 자기가 잘못 듣지 않았나 싶었다.
(설마?)
그러나 모든걸 눈여겨 살피는 일이 덜한 사람이라면, 진정 정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서 각별한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테지만 진호는 그 어떤 새로운것을, 오직 사랑을 두고 고민하는 처녀에게서만 나타나는 그런 표정을 정아의 얼굴에서 발견하지 않을수 없었다. 탐스런 볼과 꼭 다문 입술의 아름다운 륜곽 그리고 두눈에 비낀 고민은 확실히 우수에 젖어있었고 그것은 어쩐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것이 있었다.
《…》

진호는 뭐라고 해야 할지 할말을 찾을수가 없었다.
이때 《오빠—》하는 웨침과 함께 이쪽으로 달려오는 발자국소리가 들리였다.
《아이, 난 또 오빠 혼자 있는줄 알았네.》
못내 송구한 표정을 지은 진희였으나 그것은 순간에 불과했다.
《빨리 오래요. 주패놀이를 하자구요. 짝이 맞지 않는가봐요.》
고개를 숙인채 잠자코 있던 진호는 한참만에야 자리에서 일어나 동무들이 있는 곳을 향해 터벅터벅 걸음을 옮겼다.
저쯤 멀어진 오빠의 뒤모습을 지켜보고나서야 진희는 정아옆에 쪼그리고 앉으며 나직한 소리로 속삭였다.
《미안해요, 언니.》
《안야, 일없어! 일없어!》
진희의 팔목을 잡아 옆에 앉힌 정아는 저도 모르게 그를 꼭 그러안았다.

33

제철소에서 새 연료를 취입하고있다는 소식은 명식이에게 있어서 마치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다는것과 같이 놀랍고도 괴이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설마 하는 의혹도 가질 사이없이 수시로 올라오는 보고는 아직 한번도 자기의 판단을 의심해본적이 없을뿐아니라 그 판단에 대한 확고한 신심으로 충만돼있는 그를 아연케 하지 않을수 없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로 기철이를 찾았으나 그는 출장을 떠나고 없었다. 부기사장도 강습에 갔다는것이였다.
(아니, 절대로 그럴수 없어! 아무리 시험이라고 하지만 진호가, 그 진호가 어떻게 그런 성과를 이룩한단 말인가!)
워낙 만사에 대한 확고한 자신심으로 하여 자신에게 움직일수 없는 숭고한 의의를 부여하고있는 그는 자기의 판단과 견해에 부합되지 않는 이런 기적을 믿지도 않았거니와 믿을수도 없었다. 언제나 그는 자

기 내부에서 이런 기적을 믿지 않는 힘과 능력을 발견해내는데 습관돼있었다. 만약 기적이 자기앞에 부정할수 없는 사실로 나타난다 해도 그는 그 사실을 허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믿지 않으려 했다. 가령 한걸음 양보해서 그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다만 지금까지 자기 눈에 비친적이 없는 이상한 현상,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일따름이였다.

(그래! 틀림없어! 이건 분명 어떤 지나친 기대가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과장한게 틀림없어!)

사람들의 관심사에 있는 기술안일수록 왕왕 터무니없는 소문이 퍼진다는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있는 그는 제철소에서 올라오는 자료들을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기 시작했다. 아니나다를가 그 과정에 그는 간과할수 없는 한가지 사실, 열의 불균형적파동 즉 새 연료의 취입량에 따르는 온도에 일관성이 없다는것을 발견했던것이다. 해당 온도 가까이에 이르는가 하면 어떤 땐 턱없이 열이 떨어져서 불합격강종을 내기도 했다. 말하자면 취입량에 따르는 온도의 일반적인 합법칙성이 무시돼있었다. 이것은 나타난 사실이 과학적인 담보가 없는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닐수 없었다.

더우기 새 연료 취입에서 가장 난문제의 하나인 연재가 로구조에 미치는 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돼있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겠지! 틀림없이 이건 어떤 비정상적인 사태가 빚어낸 돌발적인 현상에 불과해!

흔히 진호와 같이 무모한 사람은 그런 우연에도 닿게 되는 법이니까. 우연! 우연이고말고! 아니, 발악적인 모험이 가져온 우연일수밖에 없지!)

그의 머리속에는 언젠가 과학계를 뒤흔들던 한가지 일이 떠올랐다. 그것은 한 평범한 농장원이 몇십년이 걸려도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다수확의 콩종자를 얻어낸것이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 종자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느 품종의 변화로 일어났는지를 모르는데 있었다. 무작정 이것저것들을 교잡해보는 과정에 우연히 얻어진것에 불과했던것이다. 결국 과학적인 담보가 결여된것으로 하여 그 종자는 한해, 그것도 몇포기로써 종말을 고하고말았었다.

명식은 진호의 새 연료안도 그것과 조금도 다를바 없다고 확신해마지 않았다.

사실 따져보면 그가 이렇게 인정하는데는 아니, 기어이 이렇게 인정하려는데는 맘 한구석으로나마 진호의 기술안이 혹시 성공이라도 하면 어쩔가 하는 두려움이 없지 않기때문이기도 했으나 그는 이 사실을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으로 치부해버렸다.

일단 환자의 병이 암이라는것을 진단내렸던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서 간혹 그 병과는 다른 점이 나타났다 해도 어떻게든 그 현상을 암으로부터 오는 일종의 후과로 보려고 애쓰듯이 그도 진호의 일시적인 성과를 결코 그대로 받아들일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난처한 일은 부의 일부 사람들은 물론 부장까지 새 연료안의 시험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그것이였다.

명식은 부장에게 진호에 대해서와 그가 진행한 시험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이면서 말했다.

《보다싶이 이건 아직 아무런 과학적기초도 없다는걸 증명하고있습니다. 마치 자연식물이 돌연변이를 일으킨것과 같은 우연한 현상에 지나지 않지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일반화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공업화할수 있겠나 말입니다.》

아무말없이 명식의 말만 듣고있던 부장은 한참만에야 고개를 들었다.

《물론 아직 결함들이 있는건 사실이요. 그러나 그렇게만 속단할순 없지 않겠소. 우선 가능한 방조를 다 해야겠소. 심사실에서도 그렇게 사업을 조직하시오.》

《?》

언제나 자기가 능력이 있을뿐아니라 특히 대바르고 원칙이 있는 일군이라는것을 자연스럽게 여겨온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 상대를 발견했을 때 그런것처럼 명식이도 부장의 처사가 못내 불만스러웠다.

(어째서 부장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걸가? 내가 아직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모양이지? 하긴 그럴수밖에, 부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제 보여줄 기회가 있겠지.)

그러나 당장은 부장의 지시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아무

리 불가능한것이라 해도 부장이 직접 지시하는 일이니까 외면할수는 없었다. 당분간 그는 실의 력량을 새 연료안에 집중할 계획을 세웠다. 취입실태자료를 놓고 기술협의회도 조직하고 거기에서 토론된대로 사업도 분담할 작정이였다.

하지만 자기들이 그 어떤 방조를 한다고 해도 새 연료안이 가당치 않다는것을, 그것은 마치 소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것만치 무리한 일이라는것을 그는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그래서 더 스스럼없이 새 연료안을 도와나서는것이였다.

그는 출장지에 있는 기철이에게 전화를 걸어 돌아가는 길에 자기한테 꼭 들릴것을 당부했다. 그러고나서도 취입만을 도울 여지가 없겠는가를 따져보던 그는 불현듯 현옥이에 대한 생각에 미쳤다. 언젠가 현옥의 책상우에 펼쳐져있는 축열실개조도안을 본적이 있었던것이다.

(현옥이한테도 권고해봐?)

특히 부장의 지시에 성실했다는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도면 몇장쯤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그날 저녁.

현옥이를 마주하는 순간에야, 고개를 돌리고앉아 《할말이 있으면 해요. 전 그저 듣기만 할테니까.》하고 무슨 말을 해도 진정으로 대해주지 않을듯 한 현옥이의 랭담한 태도를 보는 순간에야 명식은 자기가 뭔가 모순된 생각을 하고있다는것을 깨닫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진호를 타기해마지 않던 자기가 오늘은 부득불 그때와 다른 립장을 취하게 되였다는것이며 그것으로 하여 사물을 단순한 리치로만 따지는 현옥이가 혹시 자기를 어떤 리해관계로부터 무엇을 바란다고 여기지나 않을가 하는 우려였다.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니?》

《…》

현옥이는 오빠가 자기 일에 별반 관심이 없다는것도, 따라서 지금 자기에게 그걸 물은것은 그저 잠자코 있기가 무엇해서 체면상 한마디 물어본데 불과하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오빠가 제철소에 다녀온 다음부터는 서로의 간격이 더욱 뚜렷해졌다는것을 현옥이도 절감했다. 이젠 오빠가 무슨 말을 해도 대꾸하기 싫었고 지어는 마주하기조차 싫었던것이다. 다만 가슴속에 고여있

는 울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수 없는것으로 하여 더더욱 충만돼있는 울분을 어느때건 오빠한테만은 토해놓으리라는 그 하나의 충동밖에 없었다.

《축열실도안은 끝냈니?》

《…》

고개를 돌린 현옥은 의혹이 어린 눈길로 오빠를 쳐다보았다.

(축열실도안이라니? 내가 그걸 추진한다는걸 어떻게 알가?)

《너도 알겠지만 지금 제철소에서는 새 연료 취입시험을 하고있다. 그런데 자료들을 보면 도저히 일관한 테타를 잡을수가 없거던. 그래서…》

《그래서 뭐예요?》

현옥은 금시 낯빛이 파랗게 질렸다.

《그 기술안 전망이 어떻든 누구나 조직적의사에 따를 의무밖에 없지 않니. 지금 부에서도 관심을 돌리는데…》

《그래서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거예요?》

벌써 어떤 공포에 젖어있는 현옥이의 목소리였다.

지금 명식은 현옥이에 대한 자기의 태도가 얼마나 분별없는 일이며 그것이 동생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있는가 하는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고 또 깨달을수도 없었다. 그저 자기의 태도가 현옥이로 하여금 진호에 대한 련민을 느끼게 했고 바로 그것이 노여움을 사게 한것이라고만 여길뿐이였다.

《난 부의 지시대로 얼마간 실의 력량을 거기에 동원할 생각이다. 어쨌든 집단의 방조란 문제를 가장 신속할뿐아니라 또 가장 훌륭하게 해결해주니까. 그래서 난 너도 여기에 망라됐으면 하는거야.》

《?》

현옥은 질겁한 눈길로 오빠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의 눈길은 순식간에 혐오와 분노로 타번졌다.

《도와준다고요? 망라되라구요? 도대체 그런 말 하기가 부끄럽지도 않아요? 창피하지도 않느냐 말이예요.》

현옥이는 당장 울음이라도 터뜨릴것 같았다.

《비렬해요, 너무도 비렬해요. 언제는 그의 진심을 짓밟으며 제 앞길을 막아서더니 오늘은 또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아— 어쩌면…》

쌓이고쌓였던 오빠에 대한 원한이 일시에 폭발하는것이였다.

《차라리 진호동물 그냥 미워한대도 낫겠어요. 그래도 제 마음이 이

렇게 아프진 않을거예요. 그래 제가 아직도 오빠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줄 알아요? 아직도 청맹과닌줄 아는가 말이예요.》

《?…》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악에 차서 부르짖는 현옥을 명식은 아연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알아요, 이제 와서 오빠가 왜 그런 권고를 하는지 알고말고요. 진호동무의 기술안이 성공하게 될테니까 이젠 날 미끼로 해서 자기한테 쏟아지는 비난을 막아보자는거지요? 오빤 이미 새 연료가 안된다는것을 당에 보고한 사람이니까 그 후과를 이제라도 모면해보자는거지요? 우리의 사랑을 파탄시켜놓고 이제 와선 그 파편이라도 자기 목적에 리용하려는거지요? 그래 이게 아니예요?》

그의 두눈에는 여느때 곧잘 고이군 하던 눈물대신 퍼런 섬광이 번쩍거리고있었다.

《바보같은게!》

명식은 경멸에 찬 싸늘한 눈길로 현옥이를 노려보았다.

《그래 내가 이런 권고를 하는게 그 기술안에 대한 견해가 달라졌기때문인줄 아니? 내 체면이나 리해관계때문인줄 알아? 흥, 오해하지 말아라! 그건 절대로 도입될수 없어! 그런 모험으로 얻어진 성과는 기적이 아닐뿐아니라 기적으로 될수도 없고 또 되여서도 안되는거야.》

명식이를 쏘아보는 현옥이의 표정은 표독스럽기보다 어떤 랭소가 어려있었다.

《혹시 여기가 강당이라면, 오빠의 말을 첨 듣는 사람이라면 속을수 있겠지요. 그러나 전 속지 않아요, 더는 속지 않아요. 오빠야말로 언제나 자기만이 정당하다는 사람이지요. 〈집단〉이니 〈의무〉니 하는 말로 자기의 약점을 교묘하게 감추고는 안전한 한계내에서만 활동하는 교활한 사람이지요. 그래 오빠같은 사람이 어떻게 진호동물 리해할수 있어요? 천만에요!어림도 없어요. 오빤 뭔지 알아요? 기계예요, 기계! 그것도 정당한 사람을 파멸시키는 독살스런 기계.》

《뭐라구?》

명식은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났다. 여태껏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발작적인 분노가 솟구쳐오르는것이였다.

그는 자기를 마주보는 현옥이의 눈길에서 현옥이가 자기의 약점을,

이제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 인정할수 없는 그런 약점을 발견하려고 한다는것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는데 이것이 더 부아를 돋구는것이였다.

그러나 현옥이는 여전히 집요한 눈길로 오빠를 쏘아보았다. 오빠의 기색은 당장 뺨이라도 칠 험악한 기세였으나 그는 이상하게도 마음의 안정을 느꼈다. 오빠의 란폭한 모습을 보면 볼수록 더 안정이 되는 그런 랭담하면서도 별난 안정이 스며드는것이였다.

34

《도대체 무엇때문에 이제 와서 설계를 의뢰하자는건가? 어째서 포기하자는건가 말이야!》

책상을 두드리는 태수의 두눈은 노기를 띠다못해 벌겋게 상혈돼있었으나 그를 마주 바라보는 진호의 표정은 사뭇 침착했다.

《포기라니? 누가 뭐 포기하자는건가?》

《설계를 집어던지는데도 포기가 아니야? 해야 할 일을 도중에서 그만두는데도 포기가 아닌가 말야!》

태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기만 했다. 이때까지 하나의 기술안을 위해 일심동체가 되여 일해오기는 고사하고 도리여 원한을 품어온 두사람이 마침내 어떤 계기로 서로 열을 올리면서 상대를 몰아대는것 같았다.

이들의 론쟁은 취입공정설계때문이였다. 그 설계를 맡고있는 태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들이 마지막까지 설계를 완성해야 한다는것이고 진호는 반대로 당장 설계실이나 연구소에 의뢰하자는것이였다. 두사람의 상반되는 견해에 비해 정아는 어느쪽에도 편승하지 않고 책상우에 펴놓은 태수의 미완성도면만 내려다보고있었다.

《문제는 새 연료를 하루라도 빨리 취입해야 한다는데 있는게 아니겠나. 만약 우리가 이 설계에 파묻혀있어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텐가! 동무도 말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점들이 얼마나 많나!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게! 난 동무가 설계를 맡은것이 미타해서 하는 말이 아니네. 다만 다른데 의뢰하면 더 좋은 안이 제기될수도 있고 빨

리 완성될수도 있기때문이네.》

《그렇다고 해서 다 익혀온 열매를 이제 와서 남에게 줘야겠나? 땀흘려 가꾼 열매를 이제 와서 남들이 따먹게 해야 하나 말일세. 난 그럴수 없네! 절대로 찬성할수 없단 말이네!》

태수가 내려치는 주먹에 책상우에 놓여있던 양철재털이가 빙글빙글 춤을 추며 돌아갔다.

《그래도 새 연료야 우리가 만들어놓지 않았나.》

《새 연료? 원, 이렇게도 답답하다구야. 그까짓게 뭐 큰건줄 아나? 문제는 그걸 만든데 있는것이 아니라 공정으로 도입하는데 있단 말일세. 기술안의 의의란 어디까지나 공업화에 있지 않나, 공업화에!》

태수는 옆에 있는 정아가 긍정해주기를 바라는 눈길로 바라보았으나 정아는 여전히 잠자코 앉아있기만 했다. 그는 아직도 진호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가늠이 가지 않는 모양이였다.

《설사 그렇다 해도 난 의뢰해야겠네.》

《나참! 보다보다 이런 바보는 처음이군! 이젠 아예 머리가 돌아버린게 아니야?》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선 태수는 더는 대상하지 않겠다는듯이 문쪽으로 걸어갔으나 이내 다시 돌아서는것이였다.

그의 험악한 기상을 지켜보던 정아는 얼른 책상우에 있는 재털이를 집어 원탁우에 옮겨놓았다. 이번 타격에는 틀림없이 그것이 바닥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낼것이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의자를 당겨놓으며 앉는 태수의 목소리는 의외에도 조용했다.

《어디 말해보게! 그래 동문 분하지도 않아? 억울하지도 않는가 말이야! 설계를 다른데 맡겨 이제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되는건 둘째로 치세. 그까짓건 뒤로 미루잔 말이야. 내가 참을수 없는건 이 기술안때문에 동무가 받은 수모야. 얼마나 억울한 의심과 조소를 받았나. 진심을 유린당했지, 처녀의 사랑을 잃었지, 거기다가 집단을 희롱한다는 소리까지 듣지 않았나 말야. 그래 이게 분하지도 않아? 억울하지도 않느냐 말이야! 그래도 언젠 뭐 량심을 증명해보이겠다구? 누구한테 진리가 있는가 하는걸 똑똑히 보여주겠노라구? 이제야말로 봐라 하고 소리치며 그 량심과 진리를 보여줄 때란 말일세. 그런데 이제 와

선 뭐? 이거야 어디 속에 천불이 나서 제길!》
태수의 목소리는 분노와 안타까움에 떨고있었다.
《…》
잠자코 있던 진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랬네, 사실 그게 내 심정이였고 결심이였지.》
그는 회오에 젖은 어조로 말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건 사실이네. 어떻게 하든지 새 연료안을 완성하는것으로써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고 또 나를 의심한 모든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하려고 했지. 그렇지만 이제 와선 그런 생각이 어쩐지 하찮은것이라는것을 느끼지 않을수 없네.
물론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진 않네. 그러나 그때마다 그런 옹졸한 생각을 이겨내야 한다고 맘먹군 하네. 이전에는 오직 자기라는 하나의 충동에 사로잡혀있었지만 지금에 와선 그렇게 생각한 자신이 가소롭고 혐오스럽단 말일세. 난 어떤 계기로 이것을 느끼게 됐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동무나 정아동무의 덕분이라고 여기고있네. 뒤늦게나마 이걸 깨달은걸 난 다행으로 생각하네.》
《…》
정아도 그제야 고개를 들고 진호를 바라보았다.
사실 자기를 증명해보일수 있는 순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진호였다. 바로 그 순간이 자기의 희망과 량심은 물론 여태까지 가슴속에 고여있던 온갖 설음과 원한을 보상하리라고 여겨오던 그였다. 그러나 정작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이 마당에 와서는 애초의 결심이 흔들리는것이였고 나아가서는 그 결심자체에 의혹을 품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등산길에 오른 사람이 도중에 있는 정각에 이르면 다리를 뻗치고 푹 쉬리라 마음먹었다가 정작 거기에 다달으자 바로 눈앞에 쳐다보이는 산봉우리의 황홀한 경치에 매혹되여 쉬기는커녕 더 씩씩한 기분으로 치닫게 되는것과 같다고 할가. 아니, 그보다 산봉우리에 올라서서 일만정경을 굽어보게 된 사람이 방금 지나온 정각을 내려다보며 어쩌면 자기가 저렇게도 낮고 답답한데서 맥을 놓고 쉬려고 했던가를 허구프게 돌이켜보는 때와 같다고 해야 할것이다.
(내가 과연 그것을 위해 일해왔단 말인가! 그렇다면 나의 포부와 열

정이란 너무나도 보잘것 없는것이 아닌가! 여태까진 그런 맘으로 일해왔다 해도 이제부턴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해! 그런 자신을 초월해야 해. 그래야 보다 진실하고 아름다운 인간으로 갱생할수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점점 그의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던것이다. 특히 신념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숭고한 목적을 위해 간직해야 하며 그것을 투쟁으로 고수해야 한다는 비서의 말은 온갖 유혹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억센 암석처럼 가슴을 굳건히 해주었다. 그는 자기가 태수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거기에 아무리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달콤한것이 있다 해도 그것은 한갖 유치하고 저속하며 나아가서는 배은망덕한 일이라는것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그렇다고 내가 뭐 어떤 푼수없는 도량을 시위한다고는 생각지 말게. 다만 이제라도 이전보다는 조금이나마 낫게 살아야겠다는 희망에서일따름이네. 자기자신이 아니라 생활을 위해, 고상한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희망 말일세.》

《그래도 우린 누구나 자기가 일한것만큼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게 아니겠어요.》

침묵을 지키고있던 정아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다.

《남의 성과를 자기의것으로 해서도 안되지만 자기의 성과를 남의것으로 할 필요도 없지 않아요.》

진호가 바라는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어떤 고상한 감정에 휩싸인 정아였으나 그의 견해가 지나치게 자기희생적이라는데는 의견이 없지 않았다.

《물론 개인들끼리라면 그럴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소. 생각해보오, 우리가 설계를 붙들고 씨름하는 사이 얼마나 많은 중유가 소비되겠소. 우리의 사소한 리익때문에 직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게 되겠는가 말이요. 중유는 둘째치고 우리가 바라는 그 영예의 대가로 지체되는것이 뭐요?》

《…》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신의 방에 다른 도표는 없어도 강철생산도표만은 있다고 하시였소. 그 도표를 바라보시며 나날이 부강해지는 조국을 그려보신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말이요. 난 요즘 그 도표를 바라

보시며 이젠 우리의 연료로 쇠물을 끓이고있는것으로 하여 한시름 놓으실 수령님의 영상이 떠올라 견딜수 없소.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욕심으로 하여 한순간이라도 늦어진다면 우리야말로 어떻게 량심을 가진 인간이라고 할수 있겠소.》

《…》

그제야 정아는 고개를 숙이였다.

다시 태수에게로 시선을 옮긴 진호는 진정에 넘친 목소리로 말했다.

《태수, 난 요즘에야 사람의 량심이 어떤것인가 하는걸 안것 같네. 오늘에야 비로소 어떤 경우에도 최대한 우리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사색할줄 알뿐아니라 행동까지 할줄 아는 사람이 가장 참된 량심을 가진 인간이라는걸 깨달았단 말이네.》

《…》

어느덧 방안에는 숭엄한 침묵이 깃들었다.

이들이 취입공정에 대한 설계를 놓고 심각한 론쟁을 하고있을 때 저녁차로 출장지에서 돌아온 기철이도 자기 집에서 골똘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동생 인철이는 오늘도 어딜 돌아다니는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언제한번 제시간에 돌아온적이 없는 동생이였다.

담배를 피워물고 창가로 다가선 그는 캄캄한 어둠속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그사이 일에 몰린 피곤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오히려 방금 목욕을 한 사람과 같이 상기된 표정이였고 한가지 일에만 사색을 집중하고있는 흥분한 기색이였다.

실상 그도 지금 바로 진호네가 론의하고있는 그 취입안에 대해 생각하고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평양에서 명식이로부터 새 연료가 취입되고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충격을 금할수 없었다. 충격이라기보다 전률이였고 저절로 터져나오는 경탄이였으며 또 진호에 대한 새삼스런 놀라움이기도 했다. 그처럼 막연하다고 여겼던 새 연료안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일로나 불가사의한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도리여 《그 친구가 종내…》 하는 어떤 기대해온 일, 특히 그럴수밖에 없는 결과를 접했을 때와 같은 일종의 감탄까지 품게 되는데는 저로

서도 이상한 일이였다.

사실 그는 언젠가부터 자기의 중유절약안과 진호의 새 연료안을 대비해보았고 대비해볼수록 진호가 자기보다 앞섰다는것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보통때 같으면 당장 그보다 더 훌륭한 안을 착상하기 위해 이발을 사려물고 달라붙을 그였지만 그럴수가 없었다. 그것은 아무리 자기가 힘을 들인다 해도 벌써 결승선을 가까이하고있는 진호를 따라잡을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럴수록 그런 처지에 떨어진 자신이 저주롭기만 했었다.

《놀라긴 이르네. 이 자료들을 보면 알겠지만 열량도 문제거니와 공정으로 도입하기는 불가능하거던. 공업화할수 없는 기술안,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나?》

명식은 취입시험에서 나타나고있는 부족점들, 즉 열의 파동이며 연도에 미치는 후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해나갔으나 기철은 그의 말을 납득할수가 없었다. 명식의 말이라면 늘 철칙으로 받아들이던 그였지만 진호의 새 연료안에 대한 평가에는 의견을 달리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건 실장이 아직 진호를 잘 모르기때문이야.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는데 있지. 확실히 진호는 여느 사람들과 달라! 남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거던, 그게 어떤건지는 알수 없지만. 바로 그것이 시험을 성공케 했고 앞으로도 기어이 완성케 할 비결이야!)

기철은 무슨 일에서나 상대방, 특히 경쟁자로 치부하는 사람에게서 그가 가지고있는 우점에 대해 무시하거나 결함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될수록 우점을 찾고 그것을 몇배로 확대하여 받아들이는 사람이였다.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는 상대방을 실제보다 더 위력한 존재로 보기가 일쑤였다. 이것은 그의 겸손한 성품에서 출발되는것이기도 했으나 보다는 그만큼 경쟁자를 눌러놓고 앞서야 한다는 자기에 대한 요구성때문이였다.

《어째서 공정도입이 어렵다는겁니까?》

기철은 의아한 눈길로 명식이를 쳐다보았다.

《이걸 보게, 만약 새 연료를 취입한다고 가정하세. 그러나 연료의 가공으로부터 예열, 첨가제의 배합, 이런 설비가 빈틈없이 갖추어진

조건에서도 한순간의 변화도 없이 균등한 량의 연료가 매개 로에 쉽없이 공급되여야만 하네. 이런 설비를 꾸리자면 한개 직장의 부대설비가 있어야 할거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설비를 따로가 아니라 현장에 꾸려놓되 정밀한 기계나 전기장치로 해서는 안된다는데 있거던. 진동이 심한 용해장에 정밀기계가 통할리 없고 온통 쇠붙이로 된 곳에 전기가설을 할수야 없지 않나! 그래 이런 불합리한 점을 타개한 취입공정을 설계한다는것이 가능할것 같나? 어림도 없는 일이지! 만약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야금계의 콜롬부스지.》

(확실히 그 취입공정이 문제야. 이젠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로 나서지 않을수 없지. 만약 그것만 완성해놓는다면 새 연료안 성과의 절반은 저절로 차지하는셈이 아닌가! 야금계의 콜롬부스? 하긴 일리가 있는 말이야.)

그때부터 기철이의 머리속에는 오직 취입공정에 대한 생각만 맴돌이칠뿐이였다. 그런데는 틀림없이 취입시험이 성공하리라는 예감으로부터 앞으로는 부득불 취입공정문제가 제기되지 않을수 없으리라는 확신때문이였고 더우기는 이번 출장에서 이렇다할 성과가 없기때문에 더 강한 의욕을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그는 새로운 산소강욕취입안을 추진하는 과정에 한가지 난문제에 부딪쳤는데 그것으로 하여 해당 부문과 몇가지 기술합의를 해야 했고 그것도 결과가 좋기 전에는 다시 시작할수가 없게 되였던것이다. 그러고보면 자기의 처지란 진호에 비해선 너무나도 뒤떨어진것이 아닐수 없었다. 바로 그 모멸감이 그를 참을수 없게 했다.

(취입공정이라…)

어느새 담배불은 꺼져있었다.

새 가치에 불을 갈아댄 그는 캄캄한 창밖으로 연기를 내뿜으면서 파란 연기가 자취를 감추는 모양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어떤 장치래야 가장 적합하고 간편한 장치겠는가? 류전현상을 방지할수 있으면서도 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설비! 과연 그런걸 착안할수 없단 말인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돌아보니 언제나처럼 말쑥한 차림을 하고있는 동생이 방안으로 들어서고있었다.

《아니, 형 언제 왔수?》
오늘따라 무엇때문인지 그의 얼굴에는 퍽 흡족해하는, 그것도 세상에 자기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을거라고 자부하는 사람만이 짓는 그런 미소가 어려있었다.
《넌 늘 밤늦게까지 어딜 싸다니니?》
기철은 동생이 늦게 돌아와서라기보다 사색을 분산시킨것이 언짢아 한마디 했다.
《나야 뻔하지요. 뭐, 몰라서 물어요?》
아닌게아니라 기철은 동생의 몸에서 여느때없이 어떤 향긋한 냄새가 풍기는것을 감촉하지 않을수 없었다. 무슨 각별히 좋은 일이 있었던게 분명했다.
제대돼와서 얼마까지는 그래도 늦게 돌아올 때면 자기의 눈치를 살피며 어색해하기도 하고 딴전을 피우던 동생이였으나 이젠 처녀와 다닌다는것을 드러내놓고 말하는것은 물론 어떨 땐 일부러 지싯지싯 비위까지 건드리는것이였다.
《형이 장가 안 가는건 좋지만 제발 날 홀애비로 늙게 하진 말아주우.》
이런 불평쯤은 여반장이였다.
《가고프면 갈게지 내가 무슨 상관이냐!》
《어디 아버지가 말을 들어요? 아버지야 장가가는것도 곶감꼭지따듯 순서대로 가야 한다는건데…》
형제간이라고는 하지만 성격은 물론 모색까지도 판 다른 이들이였다. 심중하고 집념이 강한 기철이가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면 아무 일이나 대범하게 대하고 또 척척 수월하게 해제끼는 인철이는 아버지편이였다. 노래 한곡 변변히 부르지 못하는 기철이였으나 인철이는 기타를 두드리며 휘파람을 멋지게 불어넘겼고 운동장에 나서면 인기를 독차지하는 직장축구팀 문지기이기도 했다.
《일은 성실하게, 생활은 보람차게! 생활을 위해 일을 희생시켜선 안되지만 일때문에 생활을 즐기지 못하는것도 우둔한노릇이다!》
이런 생활구호를 부르짖는 그는 줄곧 도면과 기술서적에만 파묻혀있는 형을 서글픈 눈길로 바라보는것이였다. 기어이 제일 힘든데서 일을 하겠다고 해서 해탄로 로체공이 되였는데 어떻게 극성을 부렸던지

1년 남짓한 기간에 벌써 작업반장이 되였는가 하면 신문에는 물론 화보에도 곧잘 소개되군 했다. 그의 책상앞에는 화보에서 오려낸 자기의 사진이 벌써 몇장 잘 붙어있었다.

쇠장대를 거머쥐고 탄화실앞에서 일할 땐 갈범처럼 날치는 그였지만 목욕을 하고 옷을 척 갈아입고 나서면 마치 외국출장을 업으로 하는 1등외교관을 련상시키는것이였다. 바로 이런 대조되는 생활의 률조와 랑만을 사랑하는 그였다.

모든 생활이 그에겐 하나같이 즐겁고 보람찼으나 한가지만은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형이 장가갈념을 않는것으로 하여 자기에게 미치는 피해였다. 한번은 아버지한테 이런 불평까지 부렸다.

《확실히 우리 집엔 뭔가 잘못된게 있어요. 공평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뭐가 공평치 못해?》

《우리 사회에서는 어딜 가나 혁명에 이바지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우대해주지 않습니까, 영예군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그런 원칙이 무시되고있거던요. 형이야 고스란히 공부를 했지만 저야 그래도 다년간 총을 메고 혁명을 보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집에도 제대군인우선권제도만이라도 있어야겠다는겁니다.》

《하긴 그 말도 비슷해!》

이런 아버지의 훈수가 청승맞은 수절과부처럼 장가갈 꿈도 안 꾸는 자기가 밉살스럽기때문이라는것을 기철이자신도 모르지 않았다.

《형, 날 좀 보우!》

옷을 벗어던지고 이불단을 내려놓던 인철이가 갑자기 기철이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는것이였다.

《여드름이 난게 아니요? 아니, 그것도 아래턱에 났구려.》

무릎을 철썩 갈기며 좋아하는 동생을 기철은 얼떠름해서 바라보았다.

《그 여드름이 뭘 의미하는지 아우? 사랑을 의미한단 말이요. 그런데 나처럼 이렇게 이마빡에 나는건 틀렸소.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처녀를 생각할 때 나는거니까. 그러나 형처럼 아래턱에 나는건 반대로

어떤 처녀가 형을 사랑하고있다는 증거란 말이요. 알겠소? 어디 봅시다. 음— 탱탱하니 약이 오른걸 보니 그 처녀가 형을 몹시 사랑하고 있는게 틀림없구려. 하— 이거 정말!》

마치 자기가 당장 어떤 처녀와 선을 보고 혼약이라도 한것처럼 기뻐하는 동생을 기철은 어이없는 눈길로 바라보지 않을수 없었다.

《도대체 어떤 처녀요?》

《잘은 놀구있다!》

《한직장에 있수?》

기철은 더는 대상하기 싫다는듯 돌아앉았다.

《한데 어떤 처녀를 택해야 하는지 아우? 아니, 돌아앉지 말고 한마디만 듣구려. 내 경험에 의하면 말이요…》

어느쪽이 형이고 어느쪽이 동생인지 분간할수 없게 된것으로 하여 기철은 또다시 실소가 샜다.

《처녀가 훌륭한 남자를 택하려면 처녀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남자가 아니라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남자를 골라야 하고 또 남자가 좋은 처녀를 택하려면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는 처녀가 아니라 처녀들속에서 인기가 있는 그런 처녀를 택해야 한다는거요. 알만 하우?》

《원, 복잡하기란…》

《복잡할게 없어요. 양극과 음극은 서로 끌어당기지만 거기에 자극되지 않는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진짜라는거지요.》

(어떤 취입장치래야 가장 적합할것인가!)

기철은 방금 하던 생각으로 사색을 몰아갔다.

사색을 집중시킬 때마다 그런것처럼 그는 책상우에 펴놓은 백지에 어느 경우에나 가장 적합한 공리인 원을 끝없이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복잡한 현장조건에서 기계설비나 전기장치로는 안전성을 담보할수 없어, 정밀성 역시. 그렇다면…)

문득 시료송달기를 창안하던 때의 일이 생각났다. 출강을 앞둔 정련기부터는 쇠물의 성분을 알기 위해 15분에 한번씩 시료를 분석실에 보내야 하고 또 이미의 분석수치를 받아와야 했는데 그건 무척 시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는 이 시료를 송달하는 장치를 기계화하려고 맘먹었다. 그가 생

각해낸것은 매 로들과 분석실을 관으로 련결시키고 그안에 시료를 넣고는 압축공기로 쏘게 하는 원리였다. 그것은 쉽사리 도입되였고 아직까지 한번의 고장도 없이 쓰이고있었다.

(만약 그런 원리대로 연료를 쏜다면?)

그는 흠칫했다. 무질서한 환영들이 불시에 떠오르는가 하면 어떤것에 부딪쳐 부서지기도 하고 또다시 눈앞을 어지럽히는것이였다. 점점 숨이 가빠지면서 두눈이 황황 불타올랐다.

연필을 찾아쥔 손은 번개치듯 하였다. 어느새 종이우에는 이러저러한 선들과 몇개의 계산수자가 나왔다.

그는 자기의 모든 사색과 열정이 비상한 힘으로 한곳에 집중되는것을 느꼈다. 오매에도 바라마지 않던 열망, 천추에도 잊을수 없던 간절한 소원이 당장 자기 손에 쥐여질수도 있을것 같은 흥분으로 하여 그의 가슴은 걷잡을수없이 활랑거렸다.

기류식취입공정! 모르긴 해도 이것이야말로 자기가 여태껏 꿈꿔오던 그렇듯 거대한 위훈, 만사람을 놀래울 그런 대단한 혁신안이 아닐수 없는것 같았다.

(야금계의 콜롬부스!)

명식이가 하던 말이 새로운 의미로 되살아났다.

그는 자기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고있다는것을 감득했는데 그것은 이제껏 바라오던 목적을 달성할수도 있으리라는 기대였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무엇인가 온당치 못한 생각을 하고있지나 않나 하는 의혹이였다. 그러나 그는 그 의혹이 좋지 않은 생각이라는데서 오는 량심의 목소리임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아니, 가슴속에 끓어번지는 세찬 흥분이 그런 의혹을 일축해버렸던것이다.

35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로 하여 진호는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의 새 연료안을 료해하기 위해 부에서 부장을 비롯한 심사원들이 제철소에 내려온것이였다. 흔히 심사라면 공장심의를 몇차례 겪어

야만, 그래서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야 부에 제기되는 법인데 이번에는 거꾸로 부에서 직접, 그것도 아무런 통고도 없이 내려온것이였다.

(도대체 지금단계에서 내가 뭘 증명할수 있단 말인가! 아직 과학적으로 론증할만 한 확신은 못 가지고있는 형편인데!)

심사라면 진절머리부터 느끼는 그여서 혹시 이번 심사를 통해 자기 기술안에 대한 어떤 수습할 길없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가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심사성원의 한사람으로 내려온 기술국장 문규의 말을 듣고나니 다소 안심이 되기도 했다.

《부에서도 취입과정에 나타나고있는 부족점들을 알고있소. 기술적으로뿐만아니라 다른 측면으로도 복잡하다는것을 알고. 그래서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방도를 세우자고 내려온거요.》

그의 말에 의하면 이번 심사는 부장자신이 발기했고 또 그가 직접 심사성원들까지 선발했다는것이다. 하긴 이젠 취입공정안까지 확정되였으니 부에서 서두를것도 당연한 일이였다.

그사이 제철소에서는 진호의 요구에 따라 취입공정안에 대한 설계를 현상응모했다. 결과 여러건이 제기되였는데 그중 태수가 제기한 《원판식취입기》와 기철이의 《기류식취입기》 두 안이 부에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원판식취입기》는 기계적복잡성과 설비제작의 불합리성으로 기각되고 구조가 간편하면서도 실용적인 기철이의 《기류식취입기》가 채택되였던것이다. 이로 하여 이젠 새 연료만 담보되면 그것을 취입할 공정은 마련돼있는것이나 다름바 없게 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 취입공정안이 제기됨으로 하여 새 연료안의 결정적인 국면이 열린것으로 보기까지 했는데 실상 그렇게 떠들만 한 가치가 있는 혁신안이였다. 진호는 불과 한주일사이에 그런 취입공정을 착안해준 기철이를 진심으로 고마와했으나 태수는 반대로 불만을 품고있었고 정아는 정아대로 웬일인지 그에 대한 아무런 견해표명이 없었다.

(과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 이 야금계의 거장들을 만족시킬수 있단 말인가?)

진호는 대충 준비한 자기 기술안에 대한 개요를 뒤적거리면서 지배

인실의 커다란 탁자두리에 둘러앉아있는 심사성원들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하나같이 머리가 희슥희슥한 로학자들이였다.

분명 이들이 이제 기술안의 착상동기로부터 시험과정의 탐색과 내면적인 심리에 이르기까지 꼬치꼬치 캐고들건 뻔한노릇인데 뭐라고 한단 말인가! 더우기 아직 과학적인 담보가 명백치 않다는것을 알고는 내심 조소와 경멸을 품을수도 있을텐데 그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그는 해놓은 일에 비해 판이 지내 요란해서 걱정스러웠고 그것이 마치도 자기가 성과를 과장한데로부터 이런 사달이 벌어진것 같아 두렵기까지 했다.

심사석에는 명식이도 앉아있었다. 그를 대하는 순간 먼저 떠오르는것은 언젠가 그의 사무실에 뛰여들어 기염을 토하던 일과 그때 자기를 랭소를 띤 눈길로 바라보던 그의 모습이였다. 자기가 입원하고있은 사이 투사기를 심사하러 왔다가 새 연료안에 대해 아니, 자기에 대해 내린 그의 가혹한 결론도 상기됐다. 그러면서 때없이 눈앞에 나타나 자기를 괴롭히군 하던 현옥이의 모습도 되새겨졌다. 그러나 이제와서는 어쩐지 그에게 품었던 전날의 고까운 감정이 한갖 유치하고 하찮은것으로만 여겨지는것이였다.

지난날의 온갖 불쾌한 추억을 마음속깊이 억누르고 그저 의견상으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극히 허심하고 천연스런 태도로 그를 대할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간직되여있으리라고는 미처 예상치 못한 일이였다. 하지만 이제 와선 확실히 그런 힘을 느낄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한가지만은 궁금했는데 그것은 새 연료의 취입이 승산을 내다보고있는 이제 와서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아직도 부인할가 아니면 긍정할가? 긍정한다면 어떤 근거로 긍정해나설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명식의 표정이 여느때없이 긴장돼있는것 같았다.

《자ㅡ 준비됐소?》

방안에 들어선 부장은 딱딱한 분위기를 무시해치우려는듯 미소를 띠운 눈길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몸집은 체소했으나 단단하게 다듬어진 턱이며 안경속에서 반짝이는 두눈은 대뜸 류다른 결패와 강단을 암

시하고있었다.

《미리 말해두지만 론문심사가 아니니까 목적이요 개요요 하는건 약하기요. 이미 모두 현장에서 취입되는걸 직접 보았으니만치 필요없는 설명도 피하고… 어떻소?》

부장은 량옆에 앉아있는 제철소지배인과 문규를 번갈아보았으나 대답을 바라는 물음은 아니였다.

오늘심사는 극히 필요한 사람들만 망라된 소범위의 심사였다. 심사성원들외에는 기술안을 같이 추진하고있는 태수와 정아 그리고 취입기를 설계한 기철이 세사람뿐이였다. 정식심사가 아니라는데도 있었지만 보다는 실천적인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기 위해서였다.

자리에서 일어난 진호는 은연중 문규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서 변론을 담당한 교수가 제자를 마주볼 때와 같은 그런 고무를 느낀 진호는 저으기 마음이 안정됐다. 이미 그로부터 어떤 방향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조언을 받았던것이다.

《그럼 새 연료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는것은 여러 동지들이 기대하는 만큼 충분한 답변을 드릴만 한 준비가 못돼있다는것입니다. 그것은 취입이 아직 시험단계에 있기때문이고 또 제자신의 수준이 어리기때문입니다.》

(쳇! 저따위 소리는 무엇때문에 해!)

정아와 함께 창가에 앉아있던 태수는 벌써 주눅이 들어버린것 같은 진호의 태도에 코를 킁킁거리며 눈알을 부라렸다.

《알고있소. 시험단계에 있다, 부족점이 많다, 이런건 우리도 다 알고있단 말이요. 시험과정에 나타나고있는 실태에 대해서나 말해보오.》

무뚝뚝하게 들리는 부장의 말이였으나 진호에게는 용기를 돋구어주었다.

새 연료취입의 가능성을 찾게 된데로부터 연료와 중유의 차이, 연료의 난점에 대해 그리고 그 난점을 보충하기 위해 첨가제를 도입한것을 언급한 그는 첫 시험의 실패원인과 현재 취입시험과정에 나타나고있는 현상들을 상세히 밝혔다.

《우선 중유에 비한 새 연료의 우점이 뭔지 그것부터 얘기하오.》

진호가 제 값을 못 찾는것이 못마땅했던지, 아니면 그만큼 강조했는데도 중요한 대목을 그냥 스쳐버리는것이 불만스러웠던지 문규가 불쑥 한마디 했다.

《새 연료의 우점은 이렇습니다. 열량을 따질 때에는 아직도 중유와의 차이가 일정하게 있지만 첨가제와 보충연료의 합리적인 배합을 전제로 할 땐 거의 온도차이가 없다는것입니다. 이젠 1 800도의 온도는 담보하고있습니다. 특히 새 연료의 우점은 화염이 로공간에 뜨지 않기때문에 강욕중심에 포복현상을 이루며 미치게 되므로 중유취입때처럼 화염이 천정을 마모시키지 않을뿐더러 짧은 시간에 쇠물온도를 높일수 있습니다. 이것은 로수명을 연장시키는데서나 제강시간을 단축시키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작용을 할수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습니다.》

《음-》

한손우에 다른 손을 포개얹은 부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였다.

《첨가제의 역할이 생성물을 슬라크화하는데도 있다는게 옳소?…옳다! 그건 어느 정도 처리하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진호는 말끄리를 흐리였다.

《파악이 없단 말이요?》

《처음부터 시험기구를 준비하지 못한데다가 새 연료를 조업도중에 취입했기때문에 정확한 량을 추산하지 못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것은 많은 량의 생성물이 슬라크화되고있다는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아오?》

《연재의 분석을 통해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슬라크염기도가 그것을 실증하고있지요.》

《음-》

이번에도 똑같은 소리를 냈으나 아까와는 달리 어딘가 미심쩍어하는 기색이였다.

《새 연료에 의한 제강시간에 대해 알고싶은데요.》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온 처장이 마치 지내 까다로운 질문이나 아니냐는듯 조심스런 어조로 물었다. 그에 대해 대답하자 이번엔 그옆에

앉아있는 머리가 벗어진 연구소장이 강질의 변화에 대해 묻는것이였다. 탈탄속도와 규소성분에 대해, 분출구구조와 축열실에 대해서도 질문이 연방 제기되였다.

대답을 하면서도 진호가 놀라지 않을수 없는것은 심사성원들이 자기를 허술히 대하지 않을뿐아니라 마치 대단한 과학자라도 되는것처럼 신중하게 대해주는 점이였다.

《알겠습니다.》하고 경어를 쓰는가 하면 별치 않은 현상에 대한 설명에도 《아!— 그렇군요! 옳습니다, 훌륭합니다.》하는 찬사까지 보내는것이였다. 직급과 나이의 한계를 초월한 이들의 처사에 진호는 면구스럽기도 했고 옹색하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자기 역시 그들처럼 고상해진듯 한감을 느끼였다.

질문은 계속되였다.

묻는 내용이 심화됨에 따라 대답하기도 점점 어려웠다. 모두가 현장에서 취입상태를 구체적으로 관찰한 뒤여서 사소한 의혹도 보통현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지 않는 모양이였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은 명식이였다.

누구를 어떻게 대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일일수도 있지만 자기에게는 그런것쯤 익숙돼있다는것을 암시하려는듯 그의 태도는 자못 자신만만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우선 연료취입량에 대한 기준입니다. 최적량을 어떻게 정하고있는가 하는것이지요. 전 이것이 새 연료취입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

진호는 대답할 말을 찾을수 없었다.

실상 취입량에 대한 기준은 새 연료안에서 핵으로 되는 문제였다. 매 공정별에 따르는 취입량, 특히 열조건에 따르는 취입량에 대한 기준은 새 연료안에 대한 과학성을 담보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일뿐아니라 나아가서는 취입을 공업화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과도 련관되여있었다. 그래서 각별히 애를 써왔지만 아직까지 그 일관성을 도출해낼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렇지만 그로선 그 원인이 다른데 있지 않고 단지 아직은 시험회수가 적은탓으로 하여 산출자료가 부족

한데 있다고 믿고있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 기준을 찾지 못하고있습니다. 어떨 땐 적은 량의 취입이 해당한 온도를 담보하는가 하면 또 어떨 땐 턱없이 많은 량을 취입해도 온도가 오르지 않습니다. 저로선 이런 현상을 로조건과 보충연료의 변화에 따르는 차이로 보고있고 또 아직 시험회수가 적기때문에…》

알만 하다는듯이 명식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하나 더 묻겠는데 슬라크염기도가 어떻기때문에 생성물을 슬라크화한다는것입니까?》

《염기도에 산성이 강하기때문이지요.》

《산성은 부원료배합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료해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 장입되는 광석과 생석회는 산성이 강한것들입니다. 바로 그때문에 염기도가 오르고있다는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는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언급했다. 그는 자료를 정확히 써먹을줄 아는 능력이 있을뿐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사업을 안받침할줄 아는 수완도 가지고있었다. 수자들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의도를 나타낼줄 알았고 수자들을 외곡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주장을 강조할줄 알았다.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것은 생성물처리 역시 새 연료도입에서 다른 하나의 기본문제로 되기때문입니다. 우리 심사실에서도 취입량과 생성물, 이 두가지에 대한 일관한 법칙성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것은 어떻게 해야 온도를 요구대로 조절하며 어떻게 해야 생성물을 없애는가에 대한 비결을 찾지 못하고있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비결을 찾고 대책을 세울수 있겠는가 하는것이 문제로 나섭니다. 저로선 반복시험을 한다 해도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로상태가 부단히 변화될뿐아니라 현재보다 더 나빠지기마련이며 보충연료의 편차도 더 증대되기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매 차지 새로운 조건이 조성되기때문입니다.》

명식은 어느새 진호가 아니라 부장을 보면서 말하고있었다.

《그러니 실장동무 의견은 뭐요?》

《나타난 현상은 새 연료안이 아직 어떤 과학적인 타당성도 없다는것을 증명하고있으며 앞으로도 증명하기 어렵다는것을 말해주고있습니다. 과학탐구에서 과학적인 담보가 없다는것 즉 객관적인 합법칙성이 무시돼있다는것은 과학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다시말하면 우연이기때문에 과학적으로 론증되지 않는것이지요.》

《?》

의혹과 놀라움이 비낀 시선들이 맞부딪쳤으나 명식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는 기실 지금 속으로는 더없이 조마조마한 심정이였다. 등골에 소름이 끼치기도 했다.

새 연료안의 자료들을 분석해보는 과정에 그는 최근에야 비로소 명백한 사실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는데 그것은 진호의 성과가 자기가 그처럼 확신해마지않던 어떤 우연이 아니라 부족점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틀림없이 성공하게 되리라는 그것이였다. 너무도 아연한 사실앞에서 그는 미처 정신상태를 수습할수가 없었다. 자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여 자기가 믿는것이 혹시 무의미한것이나 아닐가 하는 의심을 한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그였지만 이번만은 불안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어째서 매사에 그처럼 정확한 자기가 이런 처지에 굴러떨어진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리해할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런 의혹보다 먼저 가슴을 압박하는것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절망의 검은 그림자였다. 난생처음 그는 자기앞에 무서운 절벽이 나타났다는것을 의식하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가 안심하고 걸어가던 곳이 땅인줄 알았는데 금시 쩍 갈라지면서 물우에 뜨게 된 얼음이라는것을 안 사람의 심정이라고 할가? 한데 그 얼음장은 자기를 싣고 점점 아래로, 한번 구겨박히면 다시 솟아나지 못할 그런 아득한 낭떠러지로 다가가고있는것이 아닌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모면할수 있단 말인가?)

오직 이 한가지 생각뿐이였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새 연료안을 긍정해나설수는 없는노릇이였다. 그러기에는 자신이 취한 태도가 너무나도 지나쳤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오히려 그런 태도야말로 자신의 파멸을 촉진시키는 행동외 아무것도 아니였다.

그의 머리속에는 곧 한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이런 경울수록 자기의 주장을 계속 고집하는것이 상책이라는 그것이였다.

(내가 애초의 주장을 고집한다고 해서 새 연료안의 부족점이 없지 않는 한 함부로 시비하진 못할것이 아닌가. 불만을 품는다 해도 어디까지나 그건 기술안에 대한 견해상차이로밖에 해석되지 않을테니까.)

특히 새 연료안을 심사할 가치가 없다는것을 이미 부당이며 상급당에 제기했다는것을 알면서도 다시 심사를 조직한 부장에게도 자기의 주장을 그대로 고집해보이는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렀던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제법 자기의 견해에는 사소한 잘못도 있을수 없다는듯이 확고한 어조로 말했다.

《모든 사실은 이와 같이 무모한 모험은 일시적인 우연을 낳게 할수는 있어도 참다운 과학으로는 될수 없다는것을 증명하고있습니다.》

《?》

진호는 갑자기 목구멍에서 무엇인가 치받치는것을 느꼈다. 마치 우박이 비발치는 모진 소나기를 맞은 사람의 기분과도 같았다.

(그러니까 아직도?)

실로 상상도 못했던 타격이였다. 무슨 말을 하려고 일어서려는 문규를 제지시킨 부장은 명식이를 바라보며 여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옳소. 언젠가도 동문 그렇게 주장했소. 새 연료안을 인정할수 없다고 말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요?》

《그렇습니다.》

명식은 부장의 태도에 어떤 불만이 있다는것을 간파하고는 가슴이 섬찍했으나 그런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처럼 범상하게 마주보았다.

《그러니까 동문 여태까지 어느 일 하나도 제대로 할수 없었다는걸 말해주오.》

《?》

명식은 아연한 표정을 지은채 부장을 쳐다보았다.

어째서 명석한 두뇌와 판단력을 지닌 부장이 자기를 그런 인간으로

여기는지 리해할수 없다는듯이 그는 격분하여 말했다.
《전 여태까지 어떤 일도 잘못 처리한적이 없습니다. 그건 부에서 일한 10년과정이 증명해준다고 봅니다. 그래, 제가 한번이라도 사고를 낸적이 있습니까? 단 한번이라도 심사를 망친 일이 있나 말입니다. 전 다만 모든 일을 정확히…》
그는 스스로 꾸며낸 감정의 발작에 못이겨 가슴을 두드렸다. 그러자 정말 목이 메는것이였다. 그 격정이 자기에 대한 공정치 못한 대접에서 온것인지 아니면 사면초가의 궁지에 빠진 지금의 극도의 긴장된 분위기에서 온것인지 저로서도 분간할수 없게 되였다.
《정확히?》
별로 크지 않는 부장의 목소리였으나 방안을 쩌렁하니 울리였다.
《동무가 정확히 수행했다는건 뭔지 아오? 어떤 일이 제기되면 이모저모 따져보고 그래도 실수가 없겠는가, 혹시 자기한테 어떤 피해가 없겠는가를 타산해본 다음에야 했다는것외에 아무것도 아니요. 한마디로 말해 의의가 있는 일은 빠짐없이 묵살해왔다는 그거란 말이요. 어떤 일도 그것이 새것일 경우에는 사소한 모험이 동반되는거요. 흔히 가치가 큰것일수록 그 모험의 농도도 짙은 법이요. 그래, 동무가 한 일중에 그런 일이 하나라도 있소? 직접 하지 않았다 해도 심사라도 맡아보았는가 말이요. 그런 일은 다 외면하고 하기 쉬운것들만 골라해왔으니까 진호동무의 이런 혁신안을 리해할수 있을게 뭐요!》
명식은 한풀 꺾인듯 어깨만 처뜨리고있었다.
《동무야 할수 있는 일들만 골라했지만 진호동무 남들이 안된다고 하는 일을 해왔단 말이요. 왜? 당에서 요구하기때문에! 생활이 요구하기때문에! 동무가 해놓은 일 백가지가 진호동무의 한가지 일에 비교되지 않는것처럼 동무 같은 사람 백을 주고도 진호동무 같은 사람 하나 구하기 어렵단 말이요.》'
수치와 모멸감으로 하여 얼굴이 달아올랐으나 그럴수록 어떤 반감에 사로잡힌 명식은 그저 이 순간만 무사히 넘어가길 바라고있었다.
《어디 말해보오.》
《…》

명식은 침묵으로 대했다.

이럴 때 대꾸하면 말이 길어질뿐더러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자기의 보다 엄중한 과오로 하여 문제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는것을 알기때문이였다.

《제가 좀 말하겠습니다.》

문규가 자리에서 일어나는것을 본 명식은 가슴이 덜컹했다. 언젠가부터 자기를 대할 때마다 고까운 눈길을 감추지 않던 문규였다. 그때마다 은연중 늙은 국장에 대한 본능적인 불만과 함께 어떤 두려움도 함께 체험하게 되였던것이다.

《전 하나 물어보고싶습니다. 정말 실장동무가 아직도 새 연료안을 우연이라고 보는지, 과학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지 하는겁니다.》

《…》

《전 결코 실장동무가 그걸 분간하지 못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첨엔 그럴수 있었다 해도 일반 심사원들도 다 리해하는 그걸 왜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압니다. 알고도 남지요. 그런데 어째서 이 자리에서까지도 계속 그런 주장을 하는가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규의 꼿꼿한 시선은 명식의 정수리를 면바로 노려보고있었다.

《혹시 그렇게 해야 자기 결함이 감추어지리라고 여기는게 아니요? 그렇게 우겨야 여태껏 당의 요구를 외면한것이 아니라 기술안에 대한 의견때문이라는것이 증명된다고 여기는게 아닌가 말이요.

실장동문 지금 어떻게든 자길 위장해보려고 하지만 바로 그런 너절한 추태가 여태껏 당의 의도보다 자기 속심만 채워왔다는걸 증명하고 있단 말이요. 바로 그 비겁성이 여느땐 원칙이 있는것처럼 떠들던 사람이 일단 처지가 위태로와지면 더없이 교활해진다는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소. 실장동무! 제발 그런 가장된 미욱은 부리지 마시오. 좀 인간다운 량심을 가지란 말이요.》

명식은 그제야 자기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현실적으로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부끄럽다거나 수치스럽다는 감정은 이미 초월하여 에라, 될대로 되라 하는 자포자기의 느낌뿐이였다.

방안은 물을 뿌린듯 조용했다.

부장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의 꾹 다문 입술과 우묵한 안확속에 단단히 박힌 눈, 흥분을 누르느라고 꽉 틀어쥔 손, 이 모든 인상은 현상을 분별있게 또 확신성있게 처리하는 사람에게서만 볼수 있는 그런 준엄성과 엄격성으로 가득차있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요. 오늘 우리 현실에서 제일 무서운건 바로 저 실장동무와 같이 뜨거운 심장이 아니라 타산된 수치만 가지고 그것도 충실한척 가장하면서 일하는 그런 일군이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거요. 됐소, 앉으시오. 오늘은 새 연료안에 대해 알아보자고 왔지 동무때문에 온건 아니니까. 동무문젠 따로 토론하겠소.》

굳어진듯이 한자리에 서있던 명식은 앉으라는 소리를 나가라는 말로 들었는지 아니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던지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다.

진호는 그런 명식이를 보느라니 여태껏 품었던 반감은 사라지고 어쩐지 그가 측은하게 느껴졌다. 그는 감상적인 사람이 버림받는 사람을 바라볼 때와 같은 그런 동정어린 눈길로 명식이를 지켜보았다.

《계속합시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듯이, 있었다 해도 그건 별로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듯이 흔연한 표정으로 돌아선 부장은 곧 출입문옆에 앉아있는 기철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책임기사동무던가?》

옆에 있던 지배인이 옳다고 귀띔하자 부장은 곧 만족스런 미소를 지었다.

《취입공정안을 설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소. 사실 새 연료의 취입과 관련된 과학적인 가치나 성과를 따짐에 있어서 연료자체가 가지는 의의도 의의지만 기류식취입기의 착안, 여기에도 적지 않은 의의를 부여하지 않을수 없소. 결국 동무들 두사람이 일심동체가 된것으로 해서 새 연료의 취입이 가능하게 된것이 아니겠소. 얼마나 큰 일이요. 새로운 연료로 강철을 쫄인다는게 어딘가 말이요.

이 성과는 나타난 사실에 몇곱을 해도 모자라오. 왜냐하면 일년에 수만톤의 중유를 절약하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보다는 이젠 우리의

무진장한 연료를 쓰게 된데 더 큰 의의가 있단 말이요. 난 중유를 대신하는 우리 나라의 연료가 곧 취입된다는데 대해 또 동무들의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당에 보고하려고 하오.》

《…》

기철은 뭐라고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대답도 대답이지만 얼굴이 달아올라 견딜수가 없었다. 놀라운 사실은 지나간 모든 일을 상기시키며 량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고도 뻔뻔스럽게 앉아있는 자기의 비렬성을 자인할것을 요구하고있었으나 어떤 다른 힘이 이 충동을 억제해버리는것이였다.

(당에 올리는 보고! 만사람의 격찬! 화려한 명예!)

그래도 대담하게 일어나 《전 사실 이제껏 새 연료안을 외면해온 사람입니다.》 하고 말해야 할것이다. 아니 《의의가 너무도 큰것이기때문에 그 성과에 한몫 끼여들자고 취입공정을 설계한데 불과합니다.》 응당 이렇게 까밝혀야 옳겠으나 도저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사람이란 누구나 살아가는 과정에 자기의 량심을 각별히 엄정하게 지켜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하지만 그때 량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면 개인적인 행복이 크게 약속될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것이다. 그런데 그때의 경계선이라는것이 반드시 뚜렷하고 명백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자기의 리익을 생각하는 사람에겐 쉽사리 그 경계의 밖에 서게 되는것이다.

기철이도 바로 그런 처지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그의 이런 내심을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다름아닌 정아였다.

정아가 느낀 첫 감정은 경악이였다. 하지만 곧 심장이 터질듯 괴로왔다.

(어쩌면 진호동무가 갖은 고생을 다해 이룩해놓은 성과에 서슴없이 발을 들여놓을수 있을가! 어쩌면 단 한마디나마 자긴 가망이 없는 일로 여겨 소격하게 대해왔노라고 말하지 못하는걸가! 그가 이젠 진정으로 새 연료안을 도와나선다고 믿었던것이 잘못이였단 말인가! 취입안의 설계를 부에 올려보내고도 그가 말하지 않은것이 지나간 일에 대한 부끄러움과 회오때문이라고 여겼던 내가 어리석었단 말인가! 아니

야! 그는 결코 그렇게 량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일어나 모든걸 말할거야. 대담하게 자기의 잘못을 털어놓을거야.)

그러나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의 기색으로 봐서는 도저히 일어설상싶지 않았다.

(아, 어쩜 저럴수 있을가?)

《고생은 누구보다 저 처녀동무가 많았지요. 계속 진호동무의 조수의 역할을 했으니 말입니다.》

이런 지배인의 말에 정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처녀동무가 어디 한번 말해보오. 동무들한테 걸린 문제가 뭐요? 당장 해결해주었으면 하는게 뭔가 말이요.》

《전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정아는 두손을 맞쥐면서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히고싶은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연료안과 관련된 성과는 전적으로 진호동무가 이룩해놓았다는것입니다.》

그는 야무진 눈길로 기철이를 돌아본 다음 말을 이었다.

《물론 취입공정도 무시할수야 없겠지요. 그러나 제 생각엔 그것이 정당한 의도에서 창안된것이 못된다고 봅니다. 성과가 크다고 어떻게 그 성과에 온당치 못한 의도를 용해시킬수 있겠습니까. 전 우리 기술안이 당에 보고되기때문에 이 사실을 더 밝히지 않을수 없습니다.》

모두들 아연한 눈길로 정아를 바라보았다.

누구보다 놀란것은 진호였다.

(아—니?)

정아가 누구를 사모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진호도 이젠 알고있었던것이다.

(그러니 이젠 맘이 변했다는건가? 사랑을 품을만 한 사람이 못된다고 단정해버렸는가?)

진호는 기철이를 돌아보았다.

굳은듯이 앉아있는 그는 숨도 쉬지 않는것 같았다. 모멸과 치욕으로 하여 낯색이 창백해질대로 창백해있던 그는 마치 견딜수 없는 중압을 헤치기라도 하듯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옳습니다. 정아동무 말이 옳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아래로 떨구며 말했다.
《전 사실 새 연료안이 가망이 없는것으로만 여겼댔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성공하리라는것을 알고서야 설계에 달라붙었습니다. 성과가 너무도 커서, 평가에 유혹돼서 말입니다. 전… 전 사실 그렇게도 량심이 없는 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의 괴로운 신음이였으나 거기에는 뜨거운 진정이 너울치고있었다.
《…》
부장은 물론 심사원들까지도 저마끔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종 장

아름다워라 청춘이여!

36

9월에 접어들자 한여름의 더위가 가신 푸른 하늘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서늘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가을은 눈에 띄지 않게 찾아들어 조심스레 펴져나갔다. 황이 들자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나무잎이 한잎두잎 떨어지기 시작하는 계절이 온것이다.

《그러니까 꼭 반년이군요. 어때요? 그동안 무척 힘들었지요?》

무성한 잡초들이 자란 동뚝길을 앞서 걷던 정아는 무릎을 스치는 풀대 하나를 뽑아들고 뒤따라오는 진호를 돌아보았다.

《글쎄, 그 반년이 힘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짧았던지 길었던지 내 자신도 모르겠소. 단지 이제 와선 우리가 정말 한가지 일을 끝냈는지 의문스러울따름이요.》

《보람찬 일일수록 아마 과정들은 기억에 남지 않는가봐요.》

이들은 며칠전에 새 연료에 대한 취입시험을 완전히 끝냈던것이다. 확증시험까지 끝내자 제철소에서는 즉시 도입을 위한 전투를 조직했다. 도입에 필요한 일체 설비와 자재들은 부의 조치에 따라 이미 현장에 마련돼있었다.

취입공정이 완성될 때까지의 열흘간을 휴가로 받은 진호는 집으로 가기 위해 지금 수도행 정기려객선이 정박해있는 부두로 향하는 길이였다.

《다음대상은 용광로라지요?》

《아니, 회전로부터 할가 하오. 회전로의 취입조건을 개조하는 과정에 용광로도 병행해서 연구하는게 더 나을것 같아서.》

《그러니 이젠 저의 임무도 끝났군요. 변변치 못한 조수였다고 욕하지 마세요.》

밝게 웃으면서도 어딘가 서운한 빛을 감추지 못하는 정아였다.
《그사이 정말 동무의 수고가 많았소. 뭐라고 했으면 좋을지…》
《또 그 말이예요?》
언제나 이런 말이 나올 때면 그런것처럼 이번에도 정아는 그 말은 결코 진정이 아니라는듯 또 진정으로 받아들일수 없다는듯 롱으로 치부했다.
《아니요. 사실 동문 날 도와주었다기보다 가르쳐주었소. 난 많은 것을 동무한테서 배웠단 말이요.》
《아이참, 그 말이야 제가 해야지요. 전 동무와 일하면서 키가 한뽐이나 더 자랐는걸요. 이젠 저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똑바로 알게 된것 같아요. 우리 일에는 가능성의 한계가 없다는 동무의 신조가 저의 마음속에도 든든히 자리를 잡았으니까요.》
진호의 머리속에는 중유절약안을 놓고 서로 론쟁하던 일이며 그처럼 새 연료안을 반대하던 정아가 자기의 기술안에 호응해나섰다는 말을 듣고 놀라던 일 그리고 서로 밤을 패며 분석에 몰두하다가 쪽잠에 들었던 일들이 선히 떠올랐다. 그러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지나간 일이라고 다 아름답게 추억되는것은 아닌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자부하게 될 때라야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단과 사회의 리익을 위해 애썼다고 말할수 있을 때라야 부끄럼없이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웃을수 있는것이 아니랴. 진호는 그런 웃음을 웃을수 있는 자신이 행복했다. 아니, 그런 존재로 되게 도와준 정아가 고마왔다.
뚝은 넓었으나 길은 좁게 나있어 나란히 걷자면 부득불 한사람은 풀우로 걸어야 했다. 그러나 진호는 그까짓것쯤 거치장스러울것이 없다는듯 무성한 풀대를 짓밟으며 정아옆으로 다가섰다.
(지금 이 처녀는 어떤 마음일가? 책임기사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있을가?)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는 정아의 옆모습을 지켜보느라니 불쑥 이런 생각이 드는것이였다.
현장심사가 있은 그날부터 줄곧 정아의 눈치를 살펴온 진호였으나

좀처럼 내심을 가늠할수가 없었다. 결코 그럴수 없으리라는것을 짐작하면서도 이 모질고 깔끔한 처녀가 혹시 책임기사를 단념해버리지나 않았을가 하는 위구까지 스며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렇게 봐서 그런지 정아의 태도에는 책임기사에 대한 사소한 구속의 그늘도 없는것 같았는데 이 점이 진호에게는 더욱 의심을 자아내는것이였다. 더우기 고백을 한것도 아닌데다가 어떤 감정을 품고있었다는것조차 상대가 모르는터여서 그냥 물러선다고 해도 도덕적인 의무감에 지배되지 않으리라는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드디여 이들은 동뚝에서 내려섰다.

이제부턴 숱한 강괴더미들이 야적되여있는 적재장을 지나야 했다. 이 적재장이 끝나는 곳에 바로 부두가 있었다.

《이제 가면 무척 반가와하겠군요. 부모님들이랑 진희가 말이예요. 그리고 현옥동무도요. 현옥동무에게 저의 인사를 전해주세요.》

현옥이에 대한 생각에 미친것이 기쁜듯 그는 뽑아든 풀대를 손가락끝에 뱅뱅 감으며 빠른 말씨로 속삭였다.

《제가 보고싶어하더라고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도요.》

《고맙다는건 뭐요?》

《저에게 많은걸 깨닫게 해주었으니까요. 사랑이 어때야 한다는 교훈 말이예요. 그리고 우리 기술안을 방조해준데 대해서도 응당 인사를 해야잖겠어요.》

《기술안?》

진호를 돌아본 정아는 미소를 머금은채 말을 이었다.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개조하기로 한 축열실도안 있지요? 그건 바로 현옥동무가 설계한거랍니다.》

(현옥이가?)

진호는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현옥이가 그걸 설계하다니?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였다.

《도면을 보내면서 그는 절대로 누가 보낸다는걸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아니, 처음부터 설계의 명기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써넣었으니까요. 때늦은 후회긴 하지만 이제라도 다소나마 보상하고싶노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동무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덜고프

다고 말이예요. 그리고보면 진정한 조수는 제가 아니라 그였지요.》
(그 많은 도면을 과연 그가 다 그렸단 말인가!)
숱한 밤을 밝혔을 그, 그때마다 자기를 저주하기도 하고 원망도 했을 현옥이의 모습이 점점 더 크게 확대되면서 어쩐지 가슴을 아프게 허비는것이였다.
《얼마나 아름다와요. 잘못된 자신을 뉘우치며 새롭게 재생하려는 그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호는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진호동문 정말 얼마나 행복해요. 전 진호동무를 볼 때면 얼마나 부러운지…》
그제야 진호는 정아의 목소리에 어떤 애소가 깃들어있음을 깨닫고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 애소가 현옥이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자 여태껏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감정, 책임기사에 대한 애달픈 감정이 저도 모르게 새나왔다는것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을 책임기사한테서는 기대할수 없다는건가? 그래서 이젠 단념했다는건가?)
진호의 내심을 짐작하기라도 한듯 그는 손가락에 감았던 풀대를 풀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예요. 그렇다고 그에 대한 감정이 달라진건 아니예요. 전 여전히 그를 사랑해요. 어쩐지 이전보다 더 열렬히 사랑하고싶어요. 결함이 있다고 물러선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사랑은 둘째치고 저에게 리성이라는게 있어 무엇하겠어요. 전 그가 이젠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있다는것도 알아요. 알고말고요. 전 다만…》
갑자기 고개를 숙이는 그의 눈가에는 어떤 고뇌가 물결쳤다.
《전 다만 그가 절 어떻게 생각할가? 이제 와서도 저의 사랑을 받아줄 여지가 있을가 하는 이 하나의 생각밖에 없어요. 전 그가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만 해준다면 이제라도 그의 품에 뛰여들겠어요. 모든걸 털어놓겠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왔는지 아는가고, 동무가

얼마나 야속했는지 아는가고 소리치며 목놓아울겠어요. 그러나 그가 저의 이런 심정을 리해할가요? 자기의 결함을 타매하는것으로써 자기를 사랑해온 저의 심정을 리해하겠는가 말이예요. 전 그걸 생각하면 어쩐지…》

정아의 두눈에는 어느덧 맑은 눈물이 고여있었다.

《만약 그래서 그가 절 랭대한다면 세상에 저보다 불행한 녀자가 어디 있겠어요.》

비로소 진호는 그가 고민하는 리유를 알수 있었다. 자기의 진정한 사랑을 모욕으로 곡해받지 않을가 하고 두려워하고있는 처녀, 그 사랑이 그처럼 열렬하건만 혹시 모자라는것이 아닐가 하고 우려하는 처녀, 가슴속에 품고있는 사랑이 그 어떤것도 정화시키고도 남을만치 깨끗한것이련만 그 아름다움조차 의식하지 못하고있는 처녀라는 생각이 들수록 정아가 더욱더 순결해보였고 과연 이런 처녀의 사랑을 받는 책임기사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존재랴싶은 느낌이 가슴을 뜨겁게 했다. 그럴수록 어떻게라도 정아를 위로해주고싶은 충동이 사품쳐올랐다.

《아니, 그는 리해할거요. 세상에 그런 진정을 리해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소.》

《리해해줄가요?》

《꼭 리해하고말고.》

《그래도 흔히 남자들을 보면…》

어딘가 미심쩍어하는 정아의 표정을 보는 순간 진호는 그가 바로 자길 념두에 두고 남자일반을 의심한다는것을 알수 있었고 그것은 은연중 현옥이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돌이켜보게 했다.

눈오는 날 자기에게 매달려 흐느끼는 그를 뿌리치던 일이며 병원에까지 찾아온 그가 자기 심정을 리해하지 못한다고 랭정하게 대하던 일, 이 모든 추억들이 어쩐지 새로운 의미로 부각되면서 마음을 괴롭혔다.

《걱정마오, 정아동무! 나같은 사람은 리해하지 못해도 책임기사동문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요.》

《사실 따져보면 저에게도 잘못이 없지 않아요.》

정아의 얼굴에는 죄스러운 립장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자책이 어리였다.

《제가 첨부터 좀더 대담했으면 그가 실책을 범하지도 않았을거고 저 역시 이런 처지에 빠지지는 않았을거예요. 그런데 전 그렇게 못했거던요. 말하자면 진정한 사랑으로 그를 대해주지 못했지요.》

정아의 말을 들을수록 진호는 정아가 하는 말마디에 담겨진 사랑에 대한 어떤 새로운 느낌에 휩싸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렇지만 일없어요.》

정아는 갑자기 방긋 웃었다. 그것은 흔히 생각을 달리할 때, 부질없는 생각에 매달려있는 자신을 부정할 때 짓는 미소였다.

《그런 고민을 하는것도 다 제가 나약하기때문인걸요. 전 믿어요. 사랑이 어때야 한다는걸 이젠 확고히 믿어요.》

정아의 두눈에는 어떤 기쁨과 확신의 빛이 력연했다.

《언젠가 동문 진실한 사랑은 서로가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같아야 한다고 했지요? 그래야 참된 행복이 있을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야 명백히 말할수 있을것 같아요. 누구나 자기를 위한 감정과 상대를 위한 감정, 이 두 감정중에서 자기를 위한 감정보다 상대를 위한 감정이 크고 진실해야 한다고 말이예요. 바로 그 차이가 사랑의 크기라고요. 말하자면 상대를 위한 감정이 크고 진실할수록 그 사랑은 더욱 아름다와진다고 말이예요.》

《?!》

정아의 말은 너무도 심중한 의미를 담고있는것이여서 얼른 그 뜻을 파악할수가 없었다.

(자기를 위하는 감정보다 상대를 위하는 감정이 크고 진실해야 한다구? 그것이 사랑의 크기라구?)

쉽사리 리해하기는 어려웠으나 뭔가 새로운것을, 어떤 고상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였다. 문득 사랑에 대해 력설하던 자기의 말이 생각났다.

《사랑이란 처녀의 외적인 미와 내적인 지향의 합으로 이루어지는걸세.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지향이 우위라는것만은 명심해두게.》

그제야 그는 자기가 주장해오던 사랑의 관점이 정아에 비하면 얼마나 일면적이며 자기본위에 지나지 않았던것인가 하는것을 깨닫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이야말로 남들이 애써 가꾸어놓은 과원에 뛰여들어 자기 맘에 드는것을 마음대로 골라 따먹으라는것과 무엇이 다르랴!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나쁠것이 없으며 바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제일 행복자라는것을 공공연히 선포한것과 무엇이 다르랴!

하지만 정아는 오히려 자기의 노력으로 그런 열매를 가꾸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그 과정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래, 진실한 사랑이란 창조해야 하는것이 아니랴! 그래서 아름다운것이 아니랴! 인간의 본성이 창조성에 있다면 그중에서도 가장 숭고한 창조사업이 바로 사랑이 아니고 뭐랴! 그러고보면 난 너무도 자기의 요구만 내세웠고 그 요구에 상대가 따르기만 바랐었지…)

새삼스레 현옥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엔 있지도 않았던 기묘한 상념이 상기되는것이였다. 늘 구슬픈 눈길로 자기를 바라보군 하던 그였으나 이번에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달리 저주가 담긴 야무진 눈길로 쏘아보며 이렇게 소리치는것이였다.

《동무를 원망해요. 아니, 이젠 증오해요. 세상에 동무같은 사람이 어데 있겠어요. 동무가 바라는 행복이 어떤건지 보고싶군요. 아니, 꼭 보고야말겠어요.》

그의 눈매에는 단지 쌀쌀한 빛만이 아니라 억울한 박해를 당하여 악에 북받친 사람의 분노가 번뜩이는것이였다.

(과연 그가 이제 와서 나를 어떻게 여길가? 나를 받아줄 여지가 있을가? 아무리 불러도 이젠 뒤돌아보지조차 않을것인가, 아니면 먼발치에서나마 기다려줄것인가?)

마침내 이들은 경쾌한 려객선이 가벼운 발동소리를 내며 정박해있는 부두가에 이르렀다.

벌써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배우에 올라있었다.

선창에는 누구를 바래우러 나왔는지 어린애를 품에 안은 젊은 녀인 한사람만이 서있었다. 자기 혼자 전송나온것이 창피했던지 그는 애기의 손목을 흔들며 모기만 한 소리로 《아빠, 잘 갔다오세요.》 하고

중얼거리는데 보매 부끄러움을 억지로 참고있는 모습이였다.
자기가 그 녀인의 남편이라는것을 드러내기가 멋적었던지 승객들속에 흰 와이샤쯔를 입은 건장한 체격의 젊은 친구는 공장쪽을 보는척하면서도 줄곧 녀인쪽을 흘끔흘끔 곁눈질했는데 우스운것은 사람들이 헨둥하게 짐작하고있는데도 줄곧 그만은 아직도 시침을 따고 딴전을 피우는 꼴이였다.
《이제야 나타났군. 여기야, 여기!》
갑판우에 올라가있던 태수가 진호를 향해 소리쳤다.
《좀 일찍 나올노릇이지 이 배가 뭐 동무 전용선인줄 아나?》
배우로 올라선 진호는 곧 그의 팔을 잡고 심중한 어조로 말했다.
《정아동물 좀 도와주게. 듣고보니 우리가 생각했던것보다 훨씬 심각하단 말일세.》
태수는 다 짐작하고있다는듯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여기 일은 걱정말게, 힘껏 해볼테니. 친구들을 만나면 안부나 전해주게. 그리고 이 편지를 현옥동무한테 부탁하네. 은심이가 보내는걸세, 동무로 사귀고싶다고 말이야.》
진호가 어쩔 사이도 없이 태수는 편지를 그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때 배전으로 다가선 정아가 진호에게 손을 내밀었다.
《잘 갔다오세요. 좋은 소식 기다리겠어요.》
《고맙소.》
정아의 손을 잡은 진호는 믿음에 찬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동무 일도 잘되길 바라오. 아니, 꼭 잘되리라고 믿소.》'
하얀 려객선은 마치 진호가 오르기를 기다리기라도 한듯 맑은 고동소리를 울리며 선체를 들리였다. 넓게 트인 강을 향해 미끄러지는 선미로는 흰 연기가 퐁퐁퐁 솟구쳐나왔다. 해빛에 반짝이는 하얀 선체는 파도를 가르며 웅기중기 산처럼 솟아있는 기선들옆을 지났다.
진호는 기슭을 향해 서있었다.
부두가에 서있는 태수와 정아의 모습, 점점 작아지는 그들의 모습을 그는 굳어진듯이 지켜보고있었다.

손을 흔드는 그들에게 같이 손을 흔들던 그는 불시에 뜨거운것이 가슴속에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무어라 형용하기 어려운 감회가 가슴속에 넘쳐흘러들었다. 그 감회는 우수와 희열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였으며 삶에 대한 랑만과 긍지였다. 그리고 그것은 류달리 강렬한 생에 대한 기쁨이였고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한 흐뭇한 기대의 정이였다.

그는 자기의 두눈에, 맑은 눈물이 고여오르는 자기의 두눈에 무엇인가 타오르는것을, 이 세상의 모든 번민을 초월한 그 어떤 고결한 희열이 마음속깊이 잠긴 비애를 뚫고 용감히 솟구쳐오르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느낄수 있었다. 그는 생에 대한 이 새삼스러운 희열이 기뻤고 그 희열을 마음껏 음미할수 있게 된 자기가 행복했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의 생활은!)

그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다시금 부르짖었다.

(정녕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의 삶, 우리의 청춘은!)

바다처럼 넓은 수면우에는 려객선이 남기는 두줄기의 파문이 끝없이, 끝없이 펼쳐지고있었다.

장편소설 **청춘송가** (증보판)

저 자	**남 대 현**
편 집	**최 정 옥**
표지, 삽화	**최 호 철**
편 성	**리 설 희**
교 정	**안 순 영**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1(2012)년 1월 20일
발 행	주체101(2012)년 1월 25일

ㄱ－16468　　　　　값 170원

D P R Korea

ISBN 978－9946－22－451－0